

안 동 도 산 서 원

종 합 정 비 계 획

2013

제 출 문

안동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안동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06월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연구책임 임 원 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7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8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12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7
2. 관련계획 및 법규	29

III. 도산서원 현황

1. 도산서원의 개요	47
2. 도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48
3. 서원현황	178
4. 관리현황	254
5. 활용현황	265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69
2. 기본구상	274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281
2. 경관정비계획	322
3. 주변정비계획	349
4. Master Plan	367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371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372
3. 관리현황종합	373
4. 활용계획	378
5. 홍보방안	387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391
2. 사업투자계획	391

■ 부록

1. 서원관계자 의견	397
2. 관계전문가 자문	401
3. 건축물 조사표	406
4. 사진자료	461
5. 학술 고증자료	483
6. 지도자료	493
7. 도면자료	494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그 중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서 도산서당을 모체로 하여 건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져 있다. 퇴계의 품격과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영남유학의 총본산으로 한국 유학의 연원淵源으로 자리잡고 있다.
- 2012년 1월 10일 조선 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됨에 따라 이 서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2. 계획의 목적

- 이에 본 용역에서는 도산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산서원이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2-1. 계획의 범위

2-1-1. 공간적 범위

- 안동 도산서원 일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번지(지정구역 면적: 323,110m²)
- 그 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안동 도산서원 위치도_다음 위성사진(<http://map.daum.net>)

2-1-2. 시간적 범위

- 2012년 06월 22일 ~ 2013년 6월 13일(착수일로부터 9개월)

2-1-3. 내용적 범위

- 연구의 개요
- 환경 및 정비여건 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사업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2-2. 계획의 방법

2-2-1. 문헌조사

- 도산서원 및 관련 선현에 대한 고문헌 및 기록 조사 정리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도산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2-2-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안동시의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 도산서원 현황조사

- 현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기존 건물에 관한 도면은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누락 부분은 간이 실측을 통한 도면 작성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과 경관 현황 검토

■ 주변 문화유적자원 조사

-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관광문화환경 등

■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 분석
- 자료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2-2-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상위계획에서부터 부처별 관련계획을 총망라하여 검토
-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 기본구상에 따른 각종 세부계획에 대한 지표설정 및 기본계획안 설정
- 역사문화환경 연계계획 :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2-2-4.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 기본도면 작성

■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도산서원의 정비계획
- 도산서원의 원형고증에 따른 복원 또는 철거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 동선계획 수립 - 보행자 및 차량동선계획, 관람동선계획 등
- 시설물 계획 - 서원 전시관 이건 등
- 조경 계획 - 도산서원 전면의 낙동강변 유지 등
- 각종 편의시설 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핵심지대(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와 완충지대(경관 보호구역-500m)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계획을 수립한다.

2-2-5.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추진방향 설정

- 사업추진에 따른 전제조건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 활용방안 수립

- 정비 후 나타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도산서원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방안 제시
-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모색

■ 사업추진계획

- 년차별,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제시
-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방안 제시

■ 관리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 관리 및 운영체계 제시

2-2-6.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연구에 반영

2-2-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원고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를 선정함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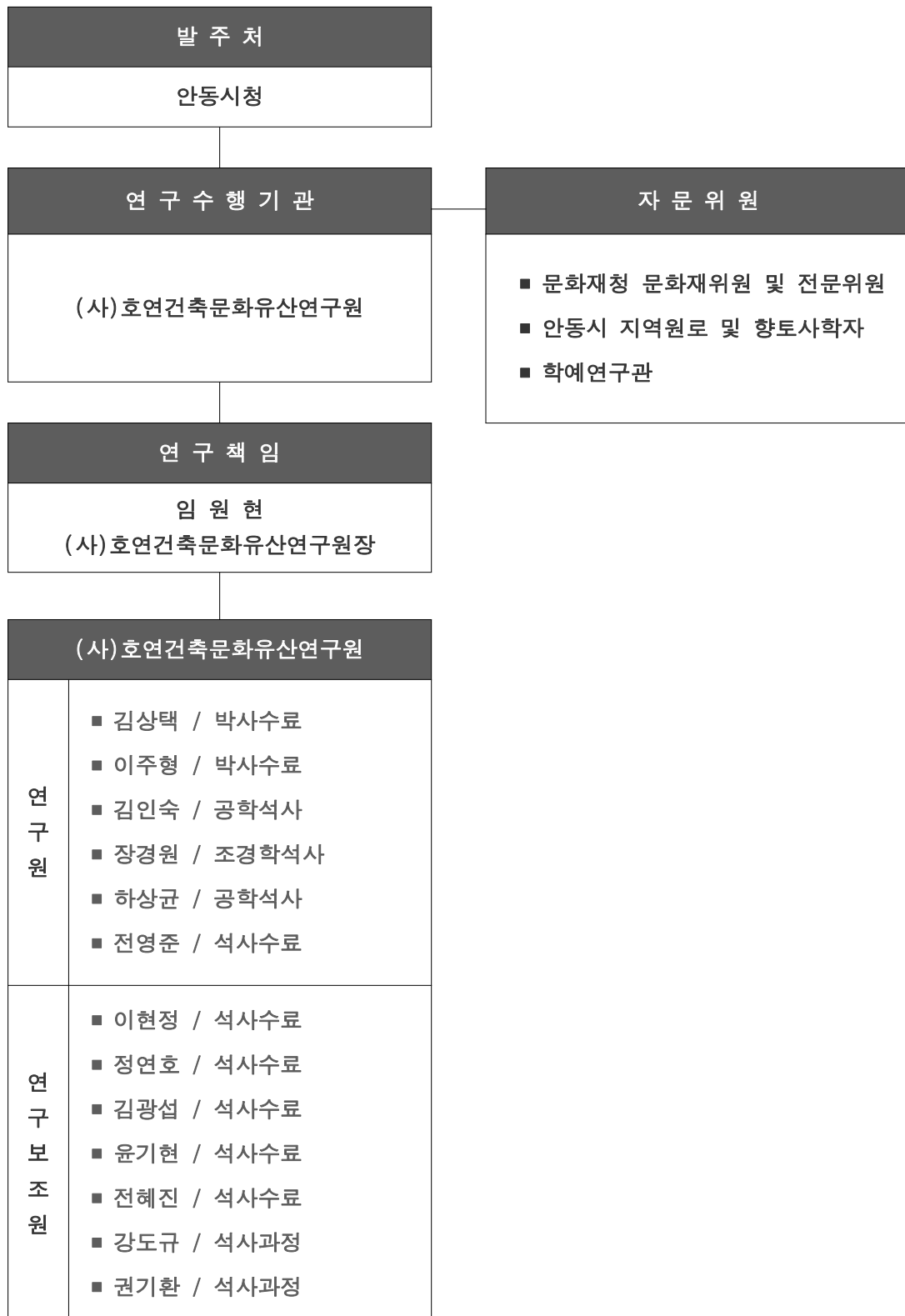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3-1. 계획 진행과정

3-1-1. 계획의 수행과정



3-1-2. 참여연구진



연구진

3-1-3. 예정 공정표

구 분	일 정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기초 연구										
현황조사 및 분석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작성										
수정, 보완										
성과품 납품										
중간검토						○				
특 기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일정에서 중간 검토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 ■ 상황, 여건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승인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 2013. 02. 06, 2013. 05. 07 용역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협의 지연 - 문화재위원, 세계유산전문가, 서원관계자 협의 지연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결과반영 									

예정 공정표

3-1-4. 성과품

성과품 종류	내 용	제출부수
연구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3부
자문 의견서	■ 보고회 개최 후 제출	각 1부
최종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준공일 제출 ■ 규격 : 297mm×210mm(A4 / 10절) ■ 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 아트지 250g(양면) • 본문 : 스노우화이트 120g(양면) ■ 제본 : 무선 무사철 	100부
연구 보고서 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준공일 제출 ■ 최종보고서 뒷표지 안쪽에 부착 	100매

성과품의 종류 및 내용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관련계획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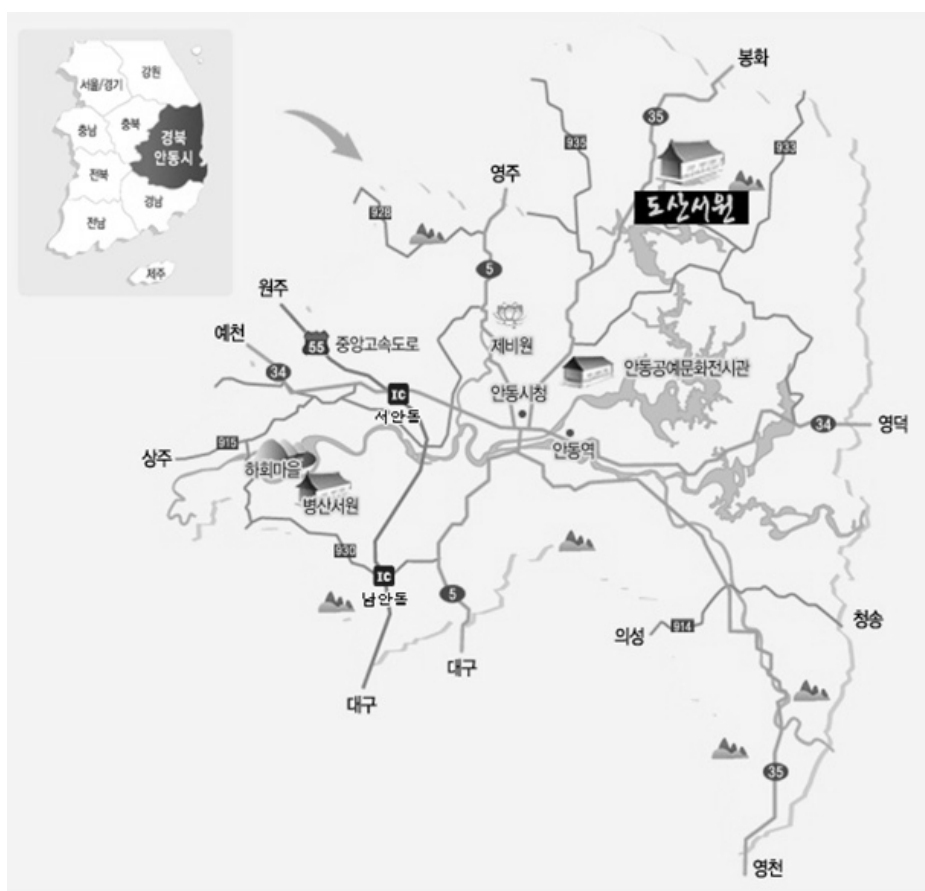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1. 자연지리환경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동은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동에는 영양과 청송, 서에는 예천, 남에는 의성, 북에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태백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그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가지 동측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도산서원의 지리적위치(<http://www.dosanseowon.com/>)

도산서원이 위치한 도산면(陶山面)은 원래 예안군(禮安郡)에 딸린 의인현(宜仁縣)의 동쪽이 되므로 의동면(宜東面)이라 하였다. 1914년 군·면 통·폐합 시 의서면(宜西面)의 상온, 하온, 사곡, 고산, 운곡, 안을, 북평, 연곡리 등의 8개리와 읍내면의 교촌동 일부와 봉화군 하남면의 여을머리, 태자산리 등 2개리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도산의 이름은 따서 도산면으로 개칭하였고, 1995년에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어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도산면의 면적은 101.81km², 인구는 2,028명으로 안동시에서 북동쪽으로 27.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북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북부 면계

에는 산성산(山成山, 481m), 용두산(龍頭山), 국망봉(國望峰, 481m) 등이 솟아 있고 면의 동부를 낙동강이 사행(蛇行)하면서 흐르고, 그 남동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도산면의 지명 유래가 되는 '도산'은 예안 고을의 9곡 가운데 제4곡과 제5곡사이에 위치하는 산으로 현재 도산서원이 자리 잡은 부근의 지명이다.¹⁾

조선시대 말에 예안군 의동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평·상계·하계·계남·섬촌의 일부와 의서면 온혜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토계동이라 하고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하였다. 1976년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일부 지역이 수몰되었다. 1995년 안동군이 안동시와 통합되면서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가 되었다.



도산서원 주변 위치도(<http://map.daum.net>)

도산서원은 안동에서 약 28km 떨어진 안동호반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지산을 뒤로하고 좌측에 동취병 우측에 서취병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안동호를 바라보며 계좌정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지형은 강물이 실어오는 땅의 기운이 쌓일 틈이 없어서, 이곳은 양반지주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지만 서원의 입지로는 최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한적한 분위기는 교육환경에 적합함은 물론이고, 행정권(안동부)으로부터의 격리를 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²⁾ 더욱이 유급하지 않고 빨리 졸업해야하는 학생들의 희망과도 맞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1) 도산면 사무소 - http://city.andong.go.kr/city/open_content/ko/?city_id=E152ED3D-8144-4BD5-9D9D-533D94B41DD1

2) 이호, 「韓·中 書院建築의 比較研究」, 2012,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9

1-2. 인문사회환경

1-2-1. 조선시대 서원



성균관 명륜당



강릉향교

유교를 치국 이념으로 내세워 유교 정치를 펼쳤던 조선왕조의 교육기관으로는 관학官學으로서 성균관成均館, 사부학당四部學堂향교鄉校 등이 있었으며, 사학私學으로서는 서원書院, 서당書堂, 정사精舍 등이 있었다. 관학 가운데에 성균관은 후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부학당과 향교는 시대에 따라 쇠미해지고³⁾ 사학 교육기관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봉화 가평리계서당



안동 하회검암정사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사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서원은 이러한 기능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가 된 곳이었다. 이와 같이 서원은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세력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⁴⁾

3) 조선 중기 16세기이후 향교는 과거 준비의 장으로 변질되어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양식 있는 선비들은 관학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관들도 향교를 떠나 학문에는 뜻이 없고 벼슬에만 관심 있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4)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7.

서원의 명칭은 원래 당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정의 도서관 혹은 개인의 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나라 현종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는 서적만을 편수하였으나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사숙私塾에 서원의 이름을 사명賜名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칭이 되어 수양서원睢陽書院·석고서원石鼓書院·악록서원嶽麓書院·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의 4대 서원이 생겼으며, 주자朱子が 강론하던 백록동서원이 특히 유명하였다.⁵⁾

한국의 서원은 신라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사학교육私學敎育과 고려시대부터 발생하여 세워진 사묘제도祠廟制度가 결합하여 성립된 사학교육기관으로, 서적을 수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이미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으나, 소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과 세종의 사학장려책에 힘입어 고려 말 이래로 발전해 온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의 사학이 한층 융성하여 유학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다.

사학과 사묘가 각각 발전해 오다가 조선 연산군 이후 지방 사림의 발전과 주자 숭배사상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542년(중종 37)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안향安珦(1243-1306)의 고향인 순흥에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당 앞에 학문을 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소수서원)을 건립하여 한국 최초의 서원이 성립되었다.



안향 영정



소수서원 전경

이러한 서원은 명종 때까지는 건립상황이 미미한 상태였으나, 17~18세기에 양반관료 사이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당自黨의 선사先師, 선배를 경쟁적으로 봉사하면서 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서원이 남설濫設되기 시작하면서 수적 증가에 반비례해 질적 하락을 가져오면서 서원에 대한 폐단과 비판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고종 8년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게 되어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5)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6.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서원명	지정별	주향인	소재지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60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	1570	1566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	1522	1575
노강서원(鷲江書院)	시도기념물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 의정부	1695	1697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30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	1687	1742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	1627	1687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	1695	1700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488	문경공 김광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	1605	1607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170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	1574	1575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	1634	1660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	1615	1696
문회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	1599	1628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	1613	1863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	1695	1696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	1725	1726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19	홍유후 설 총(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	1561	1623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55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경북 영주	1543	1550
송양서원(崧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	1573	1575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	1650	1650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52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	1714	1789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154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	1573	1574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	1691	1752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10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	1648	1675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	1685	1699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考t)	강원 김화	1650	1652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10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	1568	1650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	1590	1662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	1702	1705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	1785	1785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	1841	1841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尙 書 石 星)	평남 평양	1603	1709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鄉侯 諸葛亮)	평남 영유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	-	-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	1717	172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	1642	1658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	1606	1624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	1614	172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	1697	1727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	1681	1682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	고려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	1601	1603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슬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	1665	1668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	1738	1738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蓄)	평북 정주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	1731	1736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	1688	1693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	1691	1701

조선시대 건립 기록이 남아있는 서원은 935곳인데, 그 중 경상도가 352곳(37.6%), 전라도가 194곳(20.7%), 충청도가 111(11.9%), 경기도가 83(8.9%) 등으로 경상도의 건립 서원수가 월등히 많다⁶⁾. 이는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이래, 초창기 이황李滉은 서원 건립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이황은 향교學校와 국학國學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科擧와의 관련에서 올바른 학문에 심잠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세주의나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서원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않은 서원이 이황과의 관련 속에서 건립되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건립에는 크게 인적 환경요소와 지리적 환경요소 2가지의 장소성이 나타난다.⁷⁾ 첫째, 인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로 한정되거나, 주향자 자신이 세운 강학장소가 서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지리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은둔적 성향이 강하고, 풍수지리상 풍광이 빼어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부분의 서원은 주향자와 관련이 있는 산기슭이나 중턱에 배산임수背山臨水 혹은 배산임야背山臨野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들 서원중에는 옥산서원, 남계서원처럼 조선시대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典型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가 하면, 필암서원, 흥암서원처럼 전형적인 배치 형식을 변화시켜 새롭게 구성한 예, 수림서원, 죽정서원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를 보이는 예도 있다. 또 많은 서원들은 병산서원, 도동서원처럼 서원을 앉힐 땅과 그 주변 자연경관을 잘 이해하며 해석하여, 그 속에 자연과 어울리는 탁월한 건축 공간을 엮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배치 형식		전형에서 변화된 배치 형식	
			
옥산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흥암서원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 형식		주변 경관에 부합된 배치 형식	
			
수림서원	죽정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

조선시대 서원의 배치

6) 최미경, 「영남지방 書院樓의 건축계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6.

7) 옥선호, 「서원건축의 立地와 向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동서논문집, 2002, p.376.

이들 서원은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며, 동시에 주변환경이 서원의 한 부분이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되게 한다. 건축은 그것이 들어서는 터, 즉 장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다. 그 중에는 도산서원, 목계서원, 화양서원처럼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1130-1200)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연상케 하는 입지를 갖춘 계곡이나 강을 낀 곳을 찾아 세운 서원도 있다. 이러한 서원들은 모두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되어 되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 한국 서원건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⁸⁾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읍내에 위치하여 번잡한 곳이 아니라 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다.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해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이는 유생들이 산수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2-2.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⁹⁾

조선시대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 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이 지녔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서원의 고유 기능은 역시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였다. 그리고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상징적 기구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8)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9.

9) 『서원 보존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p.10-12.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자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유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경서經書를 기본으로 유가儒家, 역사歷史, 전기傳記 등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 된 도서 외에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 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 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和 ‘천리절문天理節文’의 예禮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泉石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서원 전면에 생기 있는 안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자연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1-2-3. 서원과 안동문화

안동에는 유독 서원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성(盛)할때는 원우(院宇)가 62개소였고 지금도 26개소가 남아있고, 사우(祠宇)마다 춘추(春秋)로 향사(享祀)를 치르고 있다. 문헌상에 기록된 안동지방의 원우는 62개소나 건립되었는데, 그 중 건립시기를 고증할 수 있는 것은 선조 때 5개소, 광해군 때 4개소, 인조 때 1개소, 현종 때 3개소, 숙종 때 12개소, 영조 때 3개소, 정조 때 10개소, 순조 때 3개소, 철종 때 2개소 등 모두 43개소이다. 그러나 고종 때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은 훼손(毀撤)되었으며, 그 후에 복설한 서원이 13개소, 신설이 2개소, 사우나 강당이 현존하는 원우는 모두 26개소이다.

안동은 우리 민족 오천년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이어 온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적인 엄숙성과 전통을 가꾸어 나가고자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안동은 우리 역사상 시대적으로 잘 갈무리된 다양한 문화를 지켜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이 지역의 독특한 풍토에서 나온 것으로써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역은 북으로는 소백산맥이 가로 놓여 있고 동으로는 태백산맥이 가로막아 외부의 적이나 외래문화의 침입을 막는 요새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과거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보수성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조선조 500년 동안 치국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학의 사상적 흐름 속에 퇴계 이황 선생을 정점으로 한 영남학파는 대의명분과 정의를 중시하였는데, 안동사람들이 지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연구와 양반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 유교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지역으로, 공자에 의해 주창된 유학은 주자에 의하여 집대성되었으며 새롭게 학문적 영역을 전개한다. 이를 성리학 즉 신유학이라 하는데,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신유학이 조선조 500년을 지탱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송인, 길재 등의 유학자가 이 지역에서 배출되어 성리학적 문화전통의 중심이 되는 영남사림의 줄기를 형성하고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 와서 완전한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 후 퇴계의 학맥인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은 자신들만의 학문적 세계를 넓혀 영남학파의 근간이 되며 안동사람의 기질로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동의 선비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고 덕성을 기르는 인격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학자적 긍지를 지켜왔다. 선비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써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생활화하며 선비의 높은 도덕률로 양반의 체통을 지켰다. 그들은 대의명분을 따져서 이에 순할 수 있는 의리와 용기와 지조를 가지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철저한 유교적 충효관으로 국가와 가문, 사회에의 공헌을 귀중히 여겼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적 교육기관(官學)으로 중앙에 성균관을 두고 지방인 주, 부, 군, 현에 각각 향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러 관학이 그 권위와 학문적 역할을 상실

하고 빈번한 사화에 따라 중앙 관계에 진출해 있던 사대부들이 지방의 연고지로 낙향하여 자연 속에 은둔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풍토가 성함에 따라 사학인 서원이 융성하게 된다. 관학인 향교가 행정의 중심지인 관아에 접해있거나 도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서원은 행정권력과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아수양을 추구할 목적으로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교외의 물가나 산 속에 자리 잡았다. 퇴계 이황은 도산서원을 건립하면서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경개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만큼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했다.

선비들에게 배움으로서의 학문은 출세나 현실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성선설(性善說) 즉 사람은 도덕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되 아직은 미완성의 존재인 채 태어난다고 믿었던 유학자들에게 배움은 그러한 미완성의 존재인 인간이 완성을 향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특히 추구해야 할 진리가 높은 먼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사람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학자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경험이 다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독서와 강학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로를 계발시키고 분발하는 학교의 공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경향 각지에 걸쳐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등 공사립의 다양한 등급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학적 지식인인 선비를 양성하고 세련되고 깊이 있는 유교문화를 기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서원이었다. 조선사회는 선비들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었고 선비들은 교육을 통해 길러졌으며, 선비 양성의 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서원이었다.

1-3. 역사문화적 환경

도산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지어진 서원으로 경북 안동시 도산면(陶山面) 토계리(土溪里)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건축물 구성면으로 볼 때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이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건립되어 추증된 사당과 서원이다.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당은 1561년(명종 16)에 설립되었다. 퇴계선생이 낙향 후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지었으며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선생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부전교당속시설인 하고직사(下庫直舍)도 함께 지어졌다.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되었고, 1570년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자 1572년에 선생의 위패를 상덕사(보물 제211호)에 모실 것을 결정하고, 2년 뒤 지방 유림의 공의로 사당을 지어 위패를 봉안하였고, 전교당(보물 제210호)과 동·서재를 지어 서원으로 완성했다. 1575년(선조 8)에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 받음으로써 사액(賜額)서원으로서 영남유학의 총본산이 되었다.

1615년(광해군 7), 사림이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 선생을 종향(從享)했다.

도산서원은 주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배향공간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육시설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門)과 중앙의 전교당(典敎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동·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동·서재

는 유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건물이다.

동편 도산서당건물을 '박약재(博約齋)'와 서편 건물을 '홍의재(弘毅齋)'라 하는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중앙의 전교당은 강학공간과 원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재 뒤편으로는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배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셔놓은 상덕사(尙德祠)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다. 부속건물로는 서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고직사(上庫直舍)가 있으며 이는 홍의재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 설립된 유물전시관 '옥진각(玉振閣)'이 있는데, 퇴계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969년 본 서원을 중심으로 임야 및 전답 19필 324.945㎡이 사적 170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보수·증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유학사상의 정신적 고향으로 성역화 되었다.

1977년 도산서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관리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관련계획 및 법규

2-1. 관련계획 검토

2-1-1. 도시계획 검토

1)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본 계획은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의해 세워진 계획으로서, 6대 기본 추진 전략 아래에서 권역별·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은, '산업과 문화, 첨단과 전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도산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는 '문화세기를 선도하는 민족고유의 문화 관광산업육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의 성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있다.
- 또한, 개방형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도산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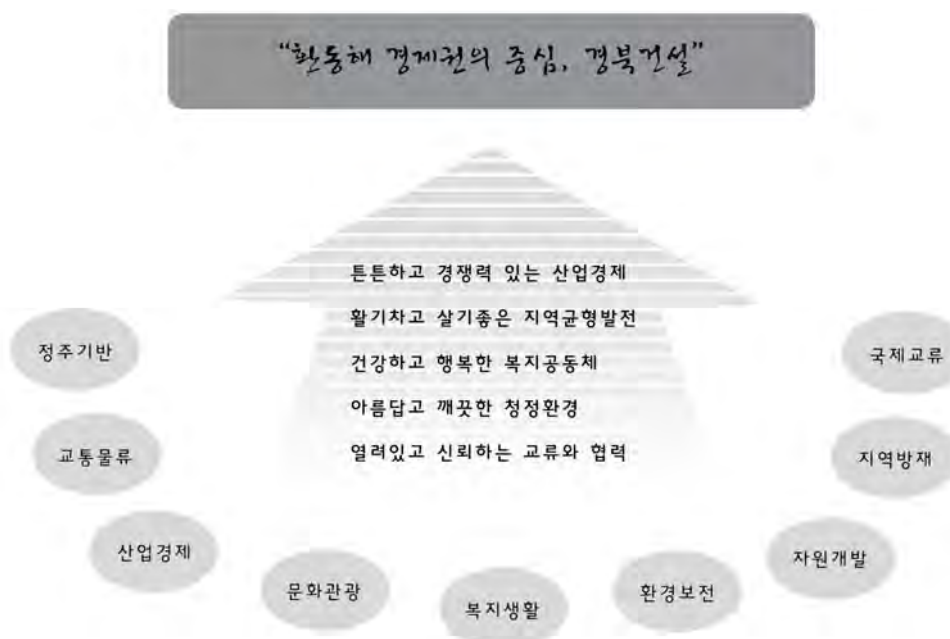
국토형성의 기본골격_국토해양부

2) 2008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본 계획은 2008년 경상북도 건설도시 방재국에서 세운 계획으로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도 단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시키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것이다.
- 계획은 향후 12년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에 걸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전략 가운데 '한국 속의 문화관광지대 조성'은 도산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을 포함한다.
- 경상북도는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지정하여 이에 어울리는 거시적차원의 복합적 관광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관광중심지 재정비 및 관광명소 발굴·육성, 지역밀착형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안내시설 및 홍보서비스 체계 정비이며, 도산서원은 기지정된 문화재로서 재정비, 보완의 대상이 된다.

계획의 비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경북건설
기본목표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환경 열려있고 신뢰하는 교류·협력
추진전략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와 자유화 각종 권한의 지방 분산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정보화의 진전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식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된 21세기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지역으로 육성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이념과 기초

3) 2016 안동도시기본계획(1998-2016)

- 본 계획은 1998년, 안동시청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 편리하고 안전한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목표 가운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도시 만들기'가 있으며, 세부발전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전통을 바탕으로 신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 지역특성을 살린 잠재력 있는 환경이 조화된 도시
 -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민문화 교류가 활발한 도시
- 부문별 관광계획을 통해 안동시는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하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함으로써 특색있는 문화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도산서원에 대한 활용이 양호한 보존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문화유산등재작업의 보전관리 원칙과 상응하는 부분이다. 또한 도산서원의 유·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유교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각 자원별 특성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발한 활용을 도모함
 - 둘째,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1-2. 관광계획 및 관련사업 검토

1)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이 계획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산업국이 세운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 관광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목표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고, 대구·경북관광권의 경우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으로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컨텐츠를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실현하며, MICE산업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육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광역관광권 (16개 시도관광권 포함)



초광역 관광벨트 (계획권역 보완)

2) 2000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이 계획은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북부에서 2000년부터 2010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이다. 본래 2011년에 재수립 되어야 하였으나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0년 계획을 살펴보면 경북북부 지방을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탁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발굴·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북북부지방에 집중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새로운 관광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과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
- 도산서원 인근 지역을 도산서원과 유사한 유교생활문화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후 도산서원 주변 환경이 급격한 도시화 등 대상지를 위해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2012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 ~ 202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이 지닌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 낙동강 등이 어우러진 녹색자원, 화랑, 선비(양반), 새마을, 불교문화 등 한국정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북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Korea in korea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경북관광의 비전을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로 설정하였다. 4대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로 설정하였다. 이는 도산서원이 가진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 경북 새천년 만들기-21세기 신경북 비전(1995 ~ 2020년)

■ 다시 찾고 싶은 『관광경북』 구현

-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3대 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구축
-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주력
-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을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
- 경북의 정체성 정립과 향토문화 사랑운동을 전개

경상북도 관광개발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실적
숙박휴양거점 조성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지구의 시행중인 사업은 조성공사 추진과 기반조성공사 완료로 원활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편의시설사업 등 공공분야의 기반시설의 원활한 투자로 숙박시설, 상가 등 민자유치가 활발
문화관광루트개발	시·군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진입도로, 주차장 및 화장실, 탐방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과 교통접근성 향상에 기여
중점정비	전통마을중점 정비, 유교문화자원 정비, 전통가옥 정비, 청송덕천마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
관광지개발	휴양단지 조성, 마을정비개발, 박물관건립, 공원조성 등 중점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자진행
문화자원 정비보수	유교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유교·불교·역사문화자원에 중심으로 서원이거나 향교의 정비·보수사업과 각종 성역화, 공원화 사업을 비롯, 각종 유적지를 보수·정비
안내센터설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휴양거점, 집중지역, 터미널,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축제활성화 및 연계도로망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주요 지역축제의 신규발굴 및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 발전유망 축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고, 접근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사업추진

2-2. 관련법규

■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해야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 안동시 도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2-2-1. 토지이용 관련법규

1)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안에 서의 건축제한)	<p>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별표 22] <개정 2009.7.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 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 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시설;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2)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도시계획조 례 제28조	제28조 (용도지역안에 서의 건축제한)	<p>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p> <p>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2</p> <p>【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단서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08. 0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1. 08. 0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1. 08. 05>

2-2-2. 문화재 관련법규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 관리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자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p>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제20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안동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등 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화재수리등 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1)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안동시에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05. 10>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동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지역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지역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문화유산 지정·해제 등)	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05. 10> ②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유산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그 기록을 수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0> ④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10>
	제12조 (보존관리)	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점검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개정 2006. 05. 10> ②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제14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05. 10>

2)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안동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시장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 (유산의 지정서)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3)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의 공개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제3조 (공개시간)	<p>도산서원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 : 00~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 09 : 00~17 : 00
	제4조 (관람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산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15> 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의해 신용카드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 10. 04> ③ 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판매 수수료는 시비를 부담한다.<신설 2006. 10. 04>
	제7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p>관람자는 도산서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 행위 및 도산서원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00. 12. 15> 2.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삭제 <2000. 12. 15>
	제11조 (관람료 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관람료의 징수금액은 안동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6. 05.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2.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3.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5.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 경우에 보조 금액은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로 한다.<개정 2006. 05. 10> <p><전문개정 2000. 12. 15></p>

4) 안동시 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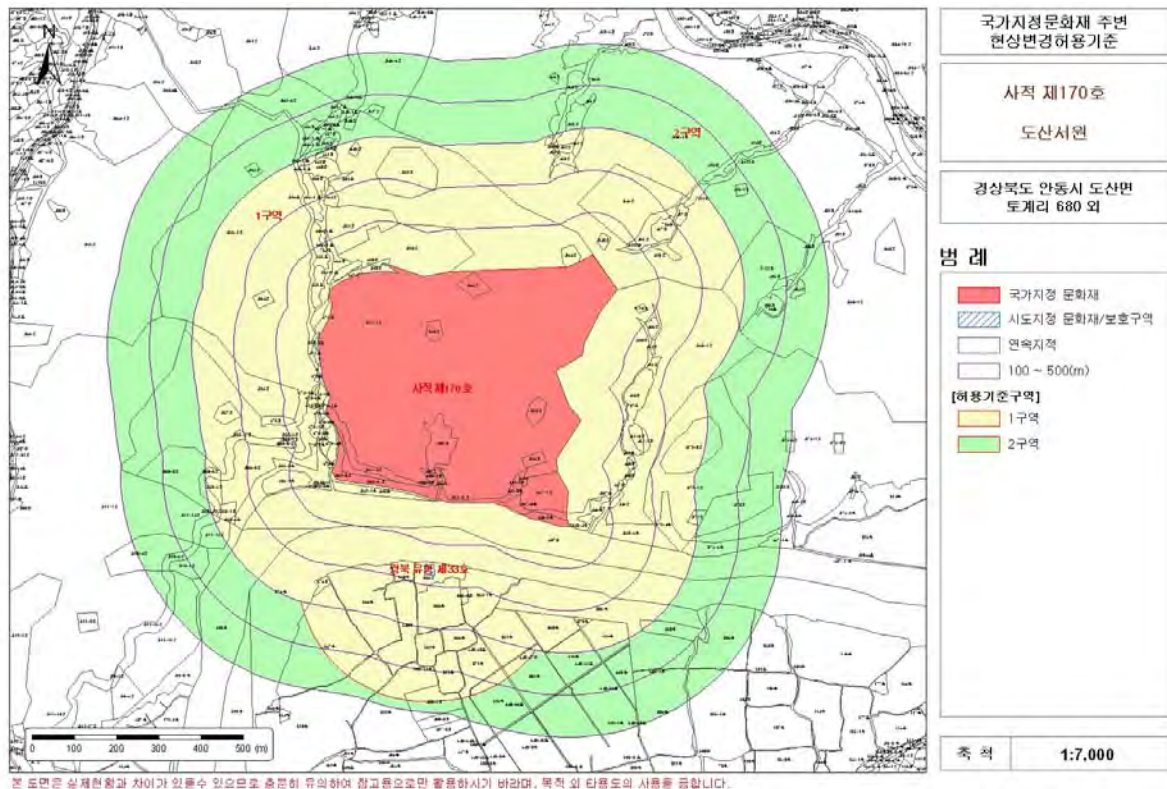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동시도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안동시 도산청소년수 련원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6조 (시설물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8, 2001·01·09> 1. 각급 학교의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 3. 일반직장 및 사회 단체원 4. 유관단체 회원 및 임직원 5.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수련활동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수련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수련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③ 시장은 제2항의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검토하고 수련대상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련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련원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동일기간에 다수의 신청이 있을 때의 우선순위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0·01·18>
	제9조 (시설물의 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물 사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징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납부 영수증?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① 수련원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동안 제5조 각호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동안 수련원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2000·1·18>
	제15조 (교육수행)	① 교육·훈련 등의 수련활동은 시설물 사용신청자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장은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교관·강사 또는 프로그램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8>
	제16조 (비용부담)	수련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교재비 등은 수련활동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반여건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5) 현상변경허용기준

-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도산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조항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내용

Ⅲ. 도산서원 현황

1. 도산서원의 개요
2. 도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3. 서원현황
4. 관리현황
5.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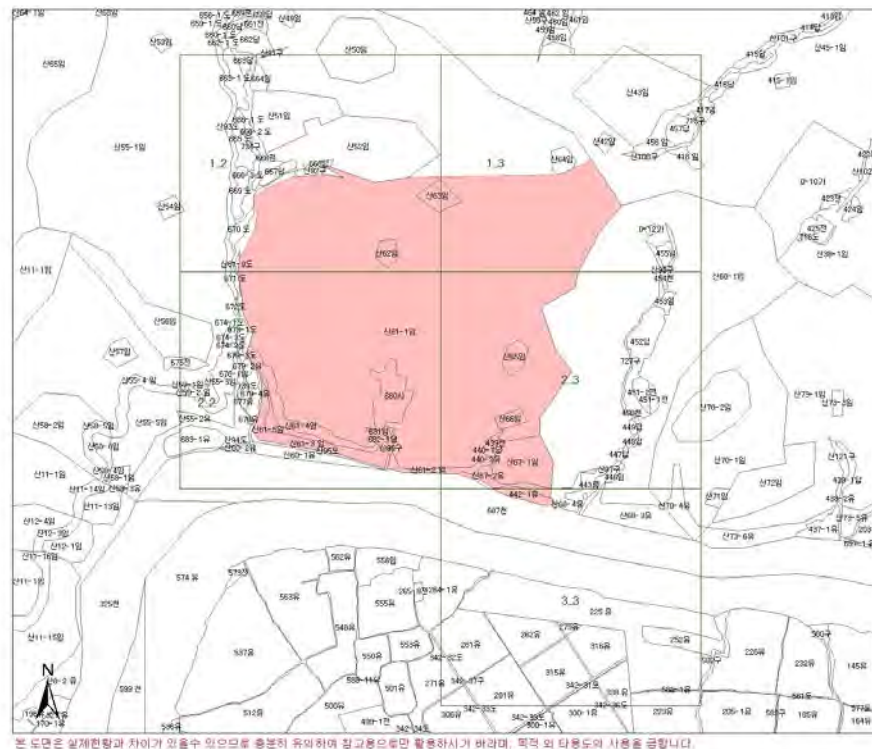


Ⅲ. 도산서원 현황

1. 도산서원의 개요

일 반 현 황	명 칭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건립년도	1561년(명종 16년): 도산서당 1574년(선조 7년): 도산서원
	사액년도	1575년(선조 8년): 도산서원
지 정 현 황	종 목	사적 제170호
	분 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면 적	지정구역: 323,110㎡
	지정(등록)일	1969년 05월 28일
	소 재 지	주소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토계리) 좌표 : N 36° 43' 89" , E 128° 50' 75"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도산서원
	관리자(관리단체)	안동시
	지 정 사 유	도산서원은 조선 선조 7년(1574)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문인과 유생들이 상덕사라는 사당을 짓고, 전교당과 동·서재를 지어 서원으로 완성했으며, 선조 8년(1575) 서원을 사액 받아 영남지방 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정구역내 지정문화재	전교당 : 보물 제210호 상덕사 및 삼문 : 보물 제211호

도산서원의 개요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지정구역현황

2. 도산서원의 역사와 문화

2-1. 도산서원의 역사

퇴계는 1551년(명종 6) 1월에 풍기군수를 사임하고 지금의 도산서원에서 3km 떨어진 한서암(寒棲菴) 동북쪽 계천(溪川)위에 도산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상서당(溪上書堂)을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1526-1586], 지산(芝山) 김팔원(金八元)[1524-1589], 인재(忍齋) 권대기(權大器)[1523-1587] 등의 문인을 맞아 학문을 강론하였다. 이후 1560년(명종 15)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이 완공된 후에도 계상서당에서 도산으로 왕래하였으며, 죽음도 이곳 계상서당에서 맞이하였다. 그만큼 이곳은 퇴계에게 각별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계상서당에 있던 시절 퇴계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잠시 관직에 나아갔다가 곧 사퇴하고 다시 귀향하였다. 그 후 계상서당이 협소하다는 이유와 제자들의 간청으로 도산자락에 도산서당을 완공하고, 이듬해인 1561년(명종 16)에는 농운정사(隴雲精舍)를 건립한다. 당초 퇴계는 평소 즐겨 찾던 청량산을 염두에 두었으나 산세가 험난하여 병난한 몸으로 오르내리기에 적당치 않다는 판단으로 현재의 위치에 도산서당을 완성하였다. 이곳은 원래 도공(陶工)이 터를 잡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황이 서당의 명칭을 '질그릇 도(陶)', '퇴산(山)'을 써서 '도산(陶山)'이라 했으며, 이 서당은 용수사(龍水寺) 승려 법련(法蓮)이 착공하고 뒤에 정일(淨一)이 준공한 것으로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금난수, 『성재집』)에 기록되어 있다. 주변에는 영지산과 청량산 줄기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심신을 수련하고, 학문을 닦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1570년(선조 3)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 이듬해 3월 도산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건지산(拳芝山)에 안장하였다. 장례가 끝나자 사림의 종사요, 조야(朝野)의 존경을 받았던 퇴계에 대한 추송 사업이 논의 되었다. 추송사업은 그가 작고한 뒤 바로 시작되어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추송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뤄졌다. 첫째는 퇴계 생전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찬술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퇴계가 남긴 시문과 저술을 모아 정리해 그 학문과 사상의 규모 및 특색을 드러내 학풍을 계승하기 위한 문집을 편간하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퇴계가 국가와 사림에 끼친 공덕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한 각종 제의(祭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퇴계의 묘도문자는 주로 유족과 측근 문인들이 담당하였다. 퇴계는 생전에 스스로 묘명을 지어 놓았지만 대현의 묘도문자가 초라할 수 없다는 의논이 크게 일어 묘지는 박순(朴淳), 묘갈은 노수신(盧守愼), 행장은 기대승(奇大升) 등과 같이 당대의 명유에게 맡기자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퇴계에 대한 시호는 1573년(선조 6) 경연(經筵)에서 김성일(金誠一)과 노진(盧禎) 등의 문인이 발의하였다. 퇴계의 언행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일은 장례가 끝난 직후인 1571년(선조 4)에 시작되었다. 집안에 건사되어온 유문(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제자들이 보관하던 서간 등의 유문도 널리 수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예안의 역동서원을 본거지로 조목(趙穆)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 퇴계 문인들이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이어서 연보(年譜)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집이 한 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

한 언(言)[문자]을 수습했다면, 연보는 밖으로 드러난 행(行)[행적]을 기록한 것이어서 문집과 안팎의 표리관계로 말해지며, 흔히 외사(外史)에 비유된다. 그런 만큼 연보는 인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문집만큼 중요성을 지닌다. 이 작업은 안동쪽 문인을 대표한 류성용이 담당하였다. 이처럼 작업이 예안과 안동으로 나뉘 진행되었기에 문집이 간행되던 시점에 연보도 도산서원에서 바로 판각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31개소이다. 이 가운데는 처음부터 퇴계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곳도 있고 이미 세워진 서원에 추향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퇴계 제향의 서원 중 으뜸가는 지위를 가진 수원(首院)은 도산서원(陶山書院)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퇴계 위패를 봉안한 서원은 영천(榮川) 이산서원(伊山書院)이었다. 이산서원은 퇴계 생전인 1558년(명종 13)에 군수 안상(安瑞)과 영천 인사들이 협력해서 세웠다. 처가(妻家)가 영천에 있어서 읍내 인사들과 사귀었던 퇴계 역시 서원기와 서원원규를 찬술해 보내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때의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는 조선에서 서원이 건립되고 정착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글이었고, 「이산서원 원규(伊山書院院規)」에서는 서원에서의 강학과 장수 및 서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후 조선 서원 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 서원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이곳과 연고가 있는 제향인물을 정하지 못해서 사묘를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재(書齋)로 이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규모가 서원과 같고 사묘가 없어도 서원이라 부를 수 있다는 퇴계의 주장으로 이산서원으로 명명되었다.

이처럼 퇴계가 이산서원 창건에 관여하고, 그의 문인들이 원장을 지내는 등 사실상 서원을 운영해 왔기에 퇴계 사후 그를 가장 먼저 제향하는 영예를 얻었다. 영천의 사림들은 퇴계의 장례가 끝난 후 바로 입향 논의를 하여 1573년(선조 6) 11월에 사묘를 완성하여 퇴계 위판을 봉안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조정으로부터 바로 사액이 내려져서, 퇴계를 제향한 최초의 서원으로서 조정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

도산서원의 건립은 1570년(선조 3) 이황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조목 등 예안사족들이 주축이 되어 도산서당의 위쪽 부지에 추진했다. 그러나 일읍이원(一邑二院)의 문제와 건립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안동과 예안으로 대별되는 퇴계학과 내부의 갈등이 노정된 결과 1574년(선조 7) 봄에 이르러서야 착공하게 되었다. 이후 1년 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575년(선조 8)에 준공하였으며, 퇴계 위판의 봉안은 1576년(선조 9) 2월 12일에 거행되었다.

도산서원의 주된 기능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제사와 경전을 강론하는 강학, 자율적인 내면적 수신(修身)을 지향하는 장수(藏修)였다. 이에 따라 도산서원은 이황이 강학과 장수를 위해 설립한 도산서당의 기능을 흡수함과 동시에 그의 위패를 상덕사(尙德祠)에 봉안하고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춘추향사를 거행함으로써 제사와 강학 및 장수기능을 겸비한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위패봉안 이전인 1575년(선조 8)에 이미 조정으로부터 '陶山書院' 편액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서책과 전답·노비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토대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도산서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963년에는 도산서원 강당인 전교당(典敎堂, 보물 제210호)이, 1969년에는 별묘(別廟)인 상덕사(尙德祠)와 삼문(三門, 보물 제211호)이 각기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다. 상덕사를 지정할 당시에는 묘우(廟宇)를 둘러싼 토담

역시 지정 대상이었지만, 1969년 보수공사 때 돌담장으로 모두 바꾸면서 지정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28일에 도산서원 전역이 사적지(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산별과를 기념하기 위해 1796년(정조 20)에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의 글로 비문을 새기고 시사단(試士壇)을 세웠다. 그 뒤 1824년(순조 24)에 고쳐 세우고, 1974년 안동댐 건설로 현 위치에서 지상 10m의 축대를 쌓아 그 위로 비각과 비를 옮겨지었다. 1973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도산서원은 1969년과 1970년에 정부의 고적보전정책에 따라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다. 1977년에는 도산서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2003년 4월과 6월에 걸쳐 광명실과 장판각 소장 고서, 고문서, 목판 일체를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이관하여 위탁 관리 중이다.

퇴계 제향 서원의 봉안 시기별 내역-1

서원명	건립연도	소재지	봉안시기	봉안형식	비고
	사액연도				
이산서원 (伊山書院)	1553(명종8)	경상도 영천	1573(선조 6)	시향(始享) 독향(獨享)	
	1574(선조7)				
도산서원 (陶山書院)	1575(선조8)	경상도 예안	1576(선조 9)	시향(始享) 독향(獨享)	1615(광해7) 조목 종향
	1575(선조8)				
여강서원 (廬江書院)	1576(선조9)	경상도 안동	1576(선조 9)	시향(始享) 독향(獨享)	1620(광해12) 류성용, 김성일 배향
	1676(숙종2)				
소현서원 (紹賢書院)	1577(선조10)	황해도 해주	1577(선조10)	시향(始享) 배향(配享)	주자 주향, 조광조 · 이황 배향
	1610(광해2)				
남당서원 (南塘書院)	1580(선조13)	충청도 제천	1580(선조13)	시향(始享) 독향(獨享)	
	—				
경현서원 (景賢書院)	1583(선조16)	전라도 나주	1583(선조16)	시향(始享) 병향(並享)	김광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 병향
	1607(선조40)				
정원서원 (正源書院)	1588(선조21)	황해도 신주	1588(선조21)	시향(始享) 배향(配享)	주자 주향, 조광조 · 이황 배향
	1710(숙종36)				
봉림서원 (鳳覽書院)	1602(선조35)	경상도 진보	1602(선조35)	시향(始享) 독향(獨享)	
	1690(숙종16)				
도동서원 (道東書院)	1605(선조38)	황해도 송화	1605(선조38)	시향(始享) 배향(配享)	주자 주향, 조광조 · 이황 배향
	1698(숙종24)				
인산서원 (仁山書院)	1610(광해2)	충청도 아산	1610(광해2)	시향(始享) 병향(並享)	김광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 병향
	—				
문암서원 (文巖書院)	1610(광해2)	강원도 춘천	1610(광해2)	시향(始享) 병향(並享)	김주(金澍) · 이황 병향
	—				

퇴계 제향 서원의 봉안 시기별 내역-2

서원명	건립연도	소재지	봉안시기	봉안형식	비고
	사액연도				
구계서원 (龜溪書院)	1611(광해3)	경상도 사천	1611(광해3)	시향(始享) 병향(並享)	이정(李楨) · 이황 병향
	1676(숙종2)				
문암서원 (文巖書院)	1611(광해3)	경상도 봉화	1611(광해3)	시향(始享) 주향(主享)	조목 배향
	1694(숙종20)				
정산서원 (鼎山書院)	1612(광해4)	경상도 예천	1612(광해4)	시향(始享) 독향(獨享)	1615(광해7) 조목 추배
	1677(숙종3)				
연경서원 (研經書院)	1564(명종19)	경상도 대구	1613(광해5)	시향(始享) 독향(獨享)	사묘없이 건립했다가 1613년 퇴계위판봉안
	1660(현종1)				
백학서원 (白鶴書院)	1618(광해10)	경상도 신령	1618(광해10)	시향(始享) 주향(主享)	황준량(黃俊良) 배향
	—				
남강서원 (南江書院)	1605(선조38)	경상도 영덕	1620(광해12)	추향(追享) 병향(並享)	이언적 위해 건립, 후에 퇴계 추향
	—				
화암서원 (花巖書院)	1622(광해14)	충청도 괴산	1622(광해14)	시향(始享) 주향(主享)	이문건 · 노수신 · 김제갑(金悌甲) 배향
	—				
정퇴서원 (靜退書院)	1634(인조12)	충청도 온양	1634(인조12)	시향(始享) 병향(並享)	조광조와 병향
	—				
삼강서원 (三江書院)	1643(인조21)	경상도 용궁	1643(인조21)	시향(始享) 병향(並享)	정몽주와 병향, 류성용 배향
	—				
영산서원 (英山書院)	1655(효종6)	경상도 영양	1655(효종6)	시향(始享) 주향(主享)	동일 시기 김성일 배향
	1694(숙종20)				
덕곡서원 (德谷書院)	1656(효종7)	경상도 의령	1656(효종7)	시향(始享) 독향(獨享)	
	1660(현종1)				
죽림서원 (竹林書院)	1626(인조4)	전라도 여산	1665(현종6)	추향(追享) 병향(並享)	이이 · 성혼을 제향 황산사(黃山祠)로 출발, 현종6년 조광조 · 이황을 추향하여 죽림서원으로 승격, 사액
	1665(현종6)				
운전서원 (雲田書院)	1667(현종8)	함경도 함흥	1667(현종8)	시향(始享) 병향(並享)	정몽주 · 조광조 · 이황 · 이이 · 성혼 병향
	1727(영조3)				
청계서원 (淸溪書院)	1672(현종13)	평안도 강동	1672(현종13)	시향(始享) 주향(主享)	동일시기 조호익 · 김육 배향
	—				
고산서원 (孤山書院)	1694(숙종20)	경상도 경산	1694(숙종20)	시향(始享) 주향(主享)	동일시기 정경세 배향
	—				
송학서원 (松鶴書院)	1702(숙종28)	경상도 청송	1702(숙종28)	시향(始享) 주향(主享)	동일시기 김성일 · 장현광 배향
	—				

2-2. 도산서원의 배향인물

2-2-1.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

도산서원 상덕사의 주향(主享)으로 모셔져 있는 퇴계 이황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진보(眞寶) 또는 진성(眞城)이며,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옹(陶翁)·도수(陶叟)이다. 시호(諡號)는 문순(文純)이다.

퇴계는 1501년(연산군 7) 예안현 온계리(溫溪里)[온혜리 노송정(老松亭) 종택]에서 아버지 진사(進士) 이식(李植)과 어머니 춘천박씨 사이에서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공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선생을 낳았다'고 하여 대문을 성림문(聖臨門)이라 부른다. 퇴계는 현재 '퇴계태실'이라고 불리는 안채의 방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춘천박씨 아래서 성장하였다.

12세가 되던 해에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堉)[1469-1517]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세 무렵부터는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사랑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한 것으로 전한다. 20세를 전후해서는 침식을 잊고 주역 공부에 몰두한 탓에 건강을 잃게 되어 이후 늘 지병을 안고 살았다.

1527년(중종 22) 27세 되던 해 진사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으로 대과공부를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그 후 32세에 문과초시(文科初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33세 되던 해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1534년(중종 29)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권지부정자가 되면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예문관 검열과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고, 12월에 무공랑(務功郞)으로 박사(博士)에 올랐다.

37세가 되던 1537년(중종 32)에는, 4월에 선교랑, 5월에 승훈랑, 9월에 승의랑에 올랐는데 그해 10월에 어머니 춘천박씨의 상(喪)을 당해 고향에서 3년간 복상하였다. 39세에 홍문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이 되었다가 곧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임명되었다. 퇴계는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낙향을 생각하고 있다가 43세 되던 해의 10월에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 삼아 사가를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을사사화 후에도 병약을 구실 삼아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 46세 되던 해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토계(兎溪)의 동암(東巖) 양진암(養眞庵)에서 독서에 전념하는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이후 조정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직이 제수되자 하는 수 없이 외직을 요청하여 48세에 단양군수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 온계(溫溪) 이해(李滢)[1496-1550]가 충청감사에 임명되자 스스로 청하여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풍기군수 재임 시절에는 전임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부흥한 선례를 따라 고려 말기의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安珦)이 학문을 닦았던 순흥 지역에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서적(書籍)·학전(學田) 등을 하사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 되었다.

1551년(명종 6) 풍기군수를 사임하고 지금의 도산서원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서암(寒栖菴) 동북쪽 계천 위에 계상서당을 세우고 독서에만 전념하다가 1552년(명종 7) 52세 되던 해에 성균관 대사성의 명을 받아 부임하였다. 이후 56세에 홍문관 부제학, 58세에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3세 이후 관직을 사퇴했거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일이 무려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명종 15) 60세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정하였으며,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평소 예(禮)를 중시했던 명종은 퇴계에게 출사(出仕)를 종용했는데 퇴계가 응하지 않자 화공을 도산으로 보내서 그 일대의 풍경을 그리게 한 다음 그림에 「도산기(陶山記)」와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하여 병풍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퇴계를 흠모했다고 한다. 이후 자헌대부·공조판서·대제학에 임명했지만 그때마다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67세 되던 해엔 명나라 신제(新帝) 사절의 방문에 맞춰 조정으로부터 간절한 요청이 있자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명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선조가 즉위하여 부왕의 행장수찬 청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됐으나 신병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송정대부 의정부우찬성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68세 되던 해에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아서 선조에게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렸고 선조는 이를 천고의 격언으로 삼아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 한다. 아울러 임금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심정으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고, 이듬해 69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70세가 되던 해인 1570년(선조 3) 11월 8일 아침 무렵, 평소 아끼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키고, 일으켜 달라 하여 단정히 앉은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퇴계의 타계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 송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영사를 추증하여 장례를 영의정의 예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묘소에는 퇴계의 유계(遺誡)대로 자그마한 돌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 새긴 묘비를 세웠을 뿐이었다. 퇴계가 타계한 후 4년 만에 제자들이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하여 낙성하고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사액을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상덕사(尙德祠)에 위패를 모셨고, 1576년(선조 9) 12월에는 '문순(文純)[道德博聞曰文 中正精髓曰純]'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文廟)와 종묘(宗廟)에 배향되었다.

2-2-2. 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

도산서원 상덕사의 종향위(從享位)로 모셔져 있는 월천 조목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월천(月川) 및 동고산인(東皐山人), 부용산인(芙蓉山人)이다. 예안현 월천리에서 아버지 조대춘(趙大椿)과 어머니 안동권씨(安東權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별호가 '월천'이 된 것도 그가 나서 자란 곳일 뿐만 아니라 일생의 근거지였던 이곳의 지명을 취한 것이다.

조목이 퇴계 문하에 입문한 것은 1538년(중종 33)으로, 퇴계는 당시 38세였으며, 월천은 15세였다. 이로부터 퇴계가 서거할 때까지 30년 이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퇴계집』에는 퇴계가 제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간찰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안의 조목은 150통을 받아서 경남 사천의 이정(李楨), 안동의 정유일(鄭惟一)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 발견된 정조의 어찰과 같이 간찰은 전통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간찰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퇴계의 특별한 관심과 대화 상대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산제현급문록』에서는 월천이 항상 퇴계를 모시고 지냈으므로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말하고 일함에 있어서 오직 스승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성품이 근엄하여 스스로를 예로써 다스리고, 거처하던 정사를 월천서당(月川書堂)이라 부르고, 퇴계가 쓴 네 개의 큰 글자로 편액을 만들었다고 했다.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기를 아끼고 산림(山林)의 학자로서 학문에 증진하였는데, 『소학(小學)』을 강조하고, 밤에는 『주자대전(朱子大全)』, 『근사록(近思錄)』과 성리에 관한 여러 책을 읽었다. 이에 퇴계가 독실하기로 월천만한 이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월천은 스승인 퇴계의 처사적인 삶을 답습하였으며, 학봉·서애와 더불어 퇴계의 고제(高弟) 중 가장 스승을 닮은 이로 평가 받는다. 『월천집』에 나오는 연보를 토대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천은 5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여 12세에 사서삼경을 모두 섭렵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갖춘 것으로 전한다. 15세에 퇴계를 처음 찾아뵙고 학업을 청하였는데,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본 퇴계는 “조모(趙某)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라고 했을 정도로 이미 기초가 다져져 있었다.

1552년(명종 7) 29세 되던 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성균관에도 유학하고 과거시험을 나름 준비하였지만 여의치 않았고 더욱이 여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10여 년 뒤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도학에 침잠하였다. 이때 퇴계를 다시 찾아가서 경서와 성리학에 대해 질의하고 공부하였으며, 이후 과거의 꿈을 접고 부용산 아래서 위기지학(爲己之學)에만 힘을 쏟았다. 월천의 청년시절 절차탁마한 동학들은 권대기(權大器), 김팔원(金八元), 구봉령(具鳳齡), 금난수(琴蘭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월천은 퇴계와 한 고을에 살았기에 그를 자주 찾아뵙고 여러 분야에 걸쳐 가르침을 받았다.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심경부주(心經附註)』에 관한 질문이다. 퇴계가 이 책을 중시했기에 월천도 자연히 이 책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월천은 『심경부주』에서 진덕수가 지은 본문 내용과 정민정이 주석한 내용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퇴계는 월천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지었는데, 이 글은 『심경부주』에 대한 퇴계의 최종적 입장이 되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과거를 거치지 않은 월천에게 처음으로 벼슬이 내려진 것은 43세 때인 1566년(명종 21)이었다. 당시 사림의 관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사림 영수로서 신망이 두터웠던 퇴계에게 부름이 잇달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퇴계 문인에 대한 등용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조(吏曹)의 천거로 공릉 참봉이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뒤이어 45세가 되던 1568년(선조 1)에 성균관의 천거로 집경전 참봉이 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나갔으나 해를 넘기지 않고 귀향하였다. 이후 대체로 벼슬을 물리치고 나아가지 않았다.

월천이 47세가 되던 1570년(선조 3)에 퇴계가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인 1571년(선조 4)에 동문들을 모아 도산서원 건립을 논의하는 한편 퇴계의「연보(年譜)」와 「언행총록(言行叢錄)」을 지었다. 이는 현재 『퇴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서애가 지은 것보다 약 30년 앞선 것이었다. 퇴계 사후 적지 않은 제자가 개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퇴계언행록을 저술했는데, 월천이 지은 「언행총록」은 퇴계의 학문 세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퇴계가 작고한 2년 후인 1572년(선조 5) 경상도의 사람을 이끌던 남명 조식이 세상을 떠났다. 월천은 남명의 부고를 듣고 “일찍이 들으니 남쪽에는 지리산이 높다더니, 100리를 서로 바라보며 용을 새긴 종처럼 앉아있네. 근자 하늘을 떠받친 기둥이 꺾였다는 소식에 홀연히 놀라니, 이 한을 평생토록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라고 애도하였다. 이처럼 그는 조식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월천의 존재가 중앙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73년(선조 6) 삼공(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가 함께 논의하여 이지함(李之涵)·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당대의 은일(隱逸)로서 학행이 뛰어난 인물로 천거되면서 부터였다. 그는 다섯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뽑혔으며 이로써 참상(參上)의 벼슬에 올랐다. 이후 81세 되던 해에 종2품인 가선대부 공조참판을 제수받기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품계가 오르고 관직이 내려졌지만, 대부분 이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벼슬살이를 한 것은 53세 때인 1576년(선조 9) 봉화현감으로 2년 남짓 부임한 것과, 65세 때인 1588년(선조 21) 2년간 합천군수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57세가 되던 1580년(선조 13)에는 어려서부터 탐독해온 『주자대전』과 『근사록』 및 각종 성리서 내용을 발췌하여 『주서초(朱書抄)』와 『곤지잡록(困知雜錄)』을 묶었다. 또 설문청의 『독서록』도 중시하여 가까이 두고 애호했다. 하지만 왕안석(王安石), 소식(蘇軾), 왕양명(王陽明)의 글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이러한 학문 경향으로 인해 『심경부주』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 내용체계와 편자인 정민정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61세가 되던 1584년(선조 17) 퇴계문집을 수습하기 시작해 3년 뒤인 1587년(선조 20)에는 안동 여강서원에서 동문들과 함께 이를 교정하였다. 초간본인 경자본(庚子本)이 간행되기 15년 전부터 문집 정리에 착수했던 것이다. 65세인 1588년(선조 21)에 합천군수로 부임하였다. 1589년(선조 22) 조정은 남쪽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왜와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화론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였는데, 이산해의 사위이면서 강화를 위해 선위사로 파견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월천에게 편지를 보내 강화의 당부(當否)를 물었다. 이에 월천은 강한 어조로 강화를 비판하는 답서를 보냈다. 이를 통해 월천은 일찍부터 복인세력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7세 되던 1590년(선조 23)에 합천군수직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73세인 1596년(선조 29)에는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내방했고, 이듬해에는 동문인 영의정 류성룡에게 왜와의 화의는 불가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77세인 1600년(선조 33)에는 『퇴계집』간행을 주도했고, 「퇴계선생문집고성문(退溪先生文集告成文)」을 지어 퇴계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문집 간행 사실을 고했다.

퇴계가 타계하고 나서 도산서원을 건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강학활동을 벌여 퇴계의 학

품을 계승하고 확대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월천은 『퇴계문집』의 간행을 통해서 적통 제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80세 이후 강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산서원에 머물렀으며, 그마저 할 수 없으면 매년 정초마다 상덕사를 배알하는 등 세상을 떠나기까지 퇴계를 숭모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스승을 기리는 사원(祠院)의 건립 및 봉안 등에서 항상 성의를 다하였던 그는 1606년(선조 39) 10월,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이때 집안이 가난하여 이웃에서 물자를 빌려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615년(광해군 7)에 도산서원 상덕사에 종향되었다. 도산서원 종향 후 뒤이어 퇴계를 모신 예천의 정산서원(鼎山書院), 봉화의 문암서원(文巖書院)에도 종향되었다.

퇴계와의 사제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월천은 퇴계 사후 문집간행과 도산서원 건립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계학파를 이끌었으며, 퇴계학이 예안에서 하나의 지역문화로 뿌리내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퇴계 제자 중 유일하게 도산서원에 종향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학문적 공적과 당시 유림의 종장으로서의 위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2-3. 도산서원의 인적구성

조선시대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원임(院任)과 원생(院生)이었다. 원임은 '원중직임(院中職任)'의 준말로 서원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직책이었다.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 원규(院規)」에 보면 원장(院長) 1인과 원이(院貳) 1인을 두어 서원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사(有司)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퇴계가 작성한 「이산서원 원규(伊山書院院規)」에 의하면 원장에 대한 규정 없이 상유사(上有司), 하유사(下有司)만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퇴계가 원장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원장은 교육을 전담하는 자리로 일세(一世)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이 말아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장 없이 유사만을 규정하는 원규가 여러 서원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도산서원·이산서원·천곡서원(川谷書院)·역동서원(易東書院)의 경우에도 상·하유사 체계로 정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하유사 체제는 시대가 내려오면서 원장·유사 체계로 바뀌어 갔지만, 도산서원은 상·하유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퇴계를 주향하는 대표 서원으로서 퇴계가 정한 이산원규를 철저히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상유사가 원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도산서원 역시 원장·유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원 원규(陶山書院 院規)」에는 원임 선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품관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잘 알고 행의(行義)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골라서 상유사로 정하되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즉, 하유사는 도산서원 인근에 사는 품관 중 2명을 선발하고, 원장격인 상유사 1인은 사리(事理)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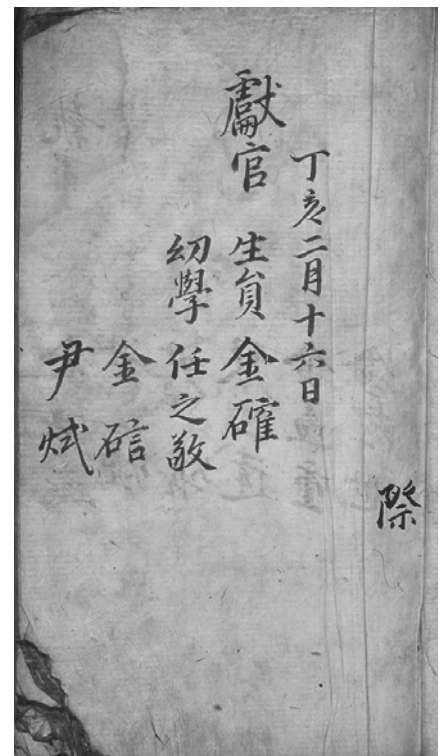
알고 행의(行誼)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였다. 이는 상유사가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며 서원 내 대소사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에, 모든 원유(院儒)는 마땅히 존외(尊畏)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의 상유사 선출은 소수서원의 “업문신신자(業文信慎者) 1인을 원장으로 한다”는 원규가 제정된 이래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규정이 통용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유사는 서원 근처에 사는 인사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소수서원 원규」에서도 서원에서 5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원임들은 대개 그 고을 양반이거나, 인근 고을의 양반이었다. 즉, 원임은 지방 유림들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2-3-1. 도산서원 상유사의 구성

도산서원 『유원록(遊院錄)』과 『집사기(執事記)』를 비교해보면, 입원생 중에서 상유사가 선출되고 있다. 즉, 입원생 중 빠르면 10년 이내 늦으면 몇 십 년 후에 원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록자에 한해 원임을 허용하는 것은 영남 남인계 서원에 있어서 하나의 규례였다. 이것은 서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이점도 있지만, 원생이 대개 일향사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영남 남인계 서원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성을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향촌사회 운영의 자치적 성격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573년(선조 6)부터 1895년(고종 32)까지 약 320여 년간 도산서원의 상유사(원장)로 확인되는 이는 모두 467명이다. 여기에 기록이 누락되어 상유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해를 더하면 더 많은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서원이 건립되던 16세기 말에는 3명, 17세기에는 38명, 18세기에는 209명, 19세기에는 217명이 확인된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상유사 1인당 평균 약 8개월씩 재임한 것이 된다. 이는 「도산서원 원규」로 제정한 2년의 임기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연임이나 수차례 중임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평균 임기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시기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갑술환국 이래로 집권한 노론들에 의해 영남 남인들에 대한 분열과 지배 정책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퇴계를 맹목적으로 추송하는 영남 남인들 사이에서 퇴계학파의 총본산인 도산서원의 위상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영남 남인들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집권 노론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내부에서 커져가는 신흥세력들의 도전에 대응할 구심점으로서 여론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18세기 들어 더욱 확고해지는 도산서원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짐을 뜻했다. 따라서 도산서원을 책임지는 상유사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실제 민감한 정



1647년 집사분정기

치적 사안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위기였다. 18세기 중반이래로 도산서원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물론 그 위상에 비례하여 여타 서원보다 많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규모와 권위만큼 지출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19세기 들어 더욱 악화되어 도산서원 원임직은 그 수고스러움에 비해 댓가없이 책임만 있는 자리로 변해갔던 것이다. 이에 도산서원 상유사에 있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자들이 늘어갔으며, 후임을 선출할 때에도 사람들 중에는 책임자가 없기에 점차 수령이 말게 되었다. 이는 관권을 통해 도산서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1) 17세기 상유사의 구성

도산서원 건립 초기의 상유사는 1573년(선조 6)의 조목(趙穆), 1574년(선조 7)의 금응협(琴應夾), 1576년(선조 9)의 배삼익(裵三益)만 알 수 있다. 배삼익 이후 20여 년간의 상유사의 구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17세기인 1596년(선조 29)부터 1695년(숙종 21)까지 총 38명의 상유사가 확인된다. 그런데 38명이 이 기간 동안의 상유사 전체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상유사가 파약되지 않는 연도에는 38명 외의 인물이 재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연도에는 앞 뒤 연도의 상유사가 연임 또는 중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17세기 상유사 한 사람당 평균 재임기간은 2년 1개월 내지 2년 8개월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원규에 규정된 원임의 임기가 2년임을 고려할 때 원임의 운영이 처음 만들어진 원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유사는 거의 모두 예안 지역 거주자이다. 확인되는 38명 중 미상 1명, 확실치 않은 1명을 제외한 36명이 예안 거주자들이다. 따라서 17세기는 군현단위의 운영이 규정되어 있던 원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유사에 임명된 자는 대부분 예안현의 유력 성씨인 광산김씨, 진성이씨, 봉화금씨였다. 광산김씨가 14명을 배출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진성이씨가 11명, 봉화금씨가 6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세 성씨의 합이 31명으로 이 시기 전체 상유사의 81.6%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안동김씨 2명, 예안김씨·순천김씨·창녕성씨·남양홍씨가 각각 1명이었다. 1명은 미상이다. 상유사의 성씨별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성씨	인원	명단
광산김씨	14명 (36.8%)	김광계(金光繼), 김광수(金光遂), 김광악(金光岳), 김기(金圻), 김렴(金簾), 김령(金玲), 김엽(金燁), 김윤(金玗), 김이(金怡), 김충(金聰), 김평(金坪), 김확(金確), 김휘두(金輝斗), 김희세(金輝世)
진성이씨	11명 (28.9%)	이조(李杲), 이극철(李克哲), 이명익(李冥翼), 이빈한(李彬漢), 이성철(李誠哲), 이영도(李詠道), 이영철(李英哲), 이유도(李有道), 이의적(李義迪), 이장형(李長亨), 이희철(李希哲)
봉화금씨	6명 (15.8%)	금개(琴愷), 금경(琴景), 금성휘(琴聖徽), 금업(琴業), 금응훈(琴應薰), 금호염(琴好謙)
기타	7명 (18.4%)	안동김씨[김계광(金啓光), 김명원(金鳴遠)], 예안김씨[김택옹(金澤龍)], 순천김씨[김환(金煥)], 창녕성씨[성문하(成文夏)], 남양홍씨[홍유환(洪有煥)], 미상[김구일(金玖一)]
합계	38명 (99.9%)	

17세기 도산서원 상유사의 성씨별 분포

2) 18세기 상유사의 구성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이후 노론 집권세력은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도산서원에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상유사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안현 내에서 상유사를 선출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주변 군현의 명망(名望)있는 자를 상유사로 초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명망에 기대어 외풍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였다. 또한 도산서원에 우호적인 세력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1696년(숙종 22)부터 약 10년간과 1729년(영조 5)의 상유사 명단이 파악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1706년(숙종 32)에서 1800년(정조 24)까지 94년간 209명이 평균 5.4개월을 재임하였다. 이는 17세기의 평균 2년을 상회하던 재임기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중임(重任)했던 50명을 제외하고 보면 18세기에 도산서원의 상유사로 재임한 인사는 159명이다. 이는 우호세력의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예안을 벗어난 타 군현의 인사들이 점차 도산서원 운영에 참여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실제, 159명 중 예안 거주자가 89명으로 56.0%, 외지 거주자가 66명으로 41.5%, 미상 4명이었다. 외지 거주자는 총 66명 중 안동 27명, 영주 9명, 예천 5명, 상주 4명, 봉화와 선산이 각각 2명으로 순이었다. 미상은 12명이다.

이로써 본다면 예안 출신의 독점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만큼 외지로부터 초빙된 상유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외지는 특히 안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상도 북부 지역의 여러 군현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07년(숙종 33) 권두인(權斗寅)을 필두로 하여 타 지역에서 상유사가 임명되기 시작하였다. 성씨별 분포는 159명 중 진성이씨가 59명, 광산김씨가 23명, 의성김씨(義城金氏) 8명, 안동권씨(安東權氏) 6명, 전주류씨(全州柳氏) 5명, 풍산류씨(豐山柳氏)와 한산이씨(韓山李氏)가 각각 4명, 봉화금씨·진주강씨·창녕성씨·함양박씨가 각 3명, 경주이씨·안동김씨·예안김씨·풍산김씨·한양조씨 각 2명 순이었다.

그 외 1명을 배출한 성씨도 대단히 많았는데, 개성고씨·경주손씨·고성이씨·동래정씨·반남박씨·부계홍씨·선산김씨·수성나씨·순흥안씨·야로송씨·여주이씨·연안이씨·예천권씨·원주이씨·인동장씨·재령이씨·전의이씨·진양정씨·청도김씨·청주정씨·초계정씨·평강채씨·평산신씨 등의 23개 성씨였다. 미상은 3명이다.

이처럼 39개 성씨에서 도산서원 상유사가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7세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예안을 넘어서서 경상도 북부지역의 명망있는 자들을 망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7세기와 비교할 때 진성이씨와 광산김씨가 역시 건재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화금씨는 급속히 퇴진한 모습이다. 세 성씨의 합계는 85명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하였는데, 17세기의 81.6%와 비교할 때 세 성씨 독점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성김씨, 안동권씨, 전주류씨, 풍산류씨, 한산이씨와 같이 안동의 대표적 명문가의 인물들이 대거 상유사로 재임하였다. 이는 예안 도산서원의 위상이 안동 여강서원, 영천 이산서원, 예천 정산서원 등의 퇴계 제향 서원들 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성이씨의 상유사 재임 증가는 18세기 들어 문종원사의 건립이 증가하던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3) 19세기 상유사의 구성

19세기 들어 상유사의 수는 18세기에 비하여 더욱 늘어났다. 상유사라는 명칭도 1895년(고종 32)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1931년부터 다시 사용하였다. 이에 19세기 도산서원 상유사 분석 시기는 1801년(순조 1)부터 1895년(고종 32)까지의 95년간을 살펴본다. 이 시기에는 총 217명의 상유사가 평균 5.3개월을 재임하였다. 이는 18세기와 거의 비슷한 재직기간이었다.

19세기 재직 상유사 중 중임(重任)한 자는 금상호(琴象濩)·류상조(柳相祚)·이만송(李晩松)·이만수(李晩受)·이만일(李晩逸)·이사성(李師性)·이시양(李時養)·이언순(李彦淳)·이효순(李孝淳)·이휘영(李彙寧)·이휘재(李彙載)·이휘정(李彙楨)·정내성(鄭來成) 등의 13명이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204명이 19세기 도산서원의 상유사를 역임한 인사들이다. 18세기의 159명보다 45명이 더 늘어난 수치이다. 204명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예안이 135명, 외지 출신이 48명에 달하였다. 거주지 미상이 21명이었다.

예안 출신의 비율이 18세기에 비해 더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안의 독점구조가 더 강화된 것이라기보다 예안 출신들이 말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체 서원을 포함하여 도산서원의 위상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외지 출신 48명 중에서는 안동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 8명, 상주 5명의 순이었다. 그 외 용궁, 봉화, 의성, 영천 등지에서 한 두 사례가 보인다. 외지도 거의 예안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북부지역의 일부 군현에 국한되었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보다 위축된 형국이다.

다음으로는 성씨별 분포이다. 204명의 상유사 중 진성이씨가 가장 많아 121명으로 59.3%를 차지하였다. 18세기에 진성이씨가 차지하던 비중이 37.1%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20%이상 급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거주지 분포에서 예안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진성이씨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산서원 위상이 전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 외의 성씨로는 풍산류씨 11명, 봉화금씨 7명, 광산김씨 5명, 예안김씨와 진주강씨가 각각 4명, 한산이씨 3명, 의성김씨 2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18세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의성김씨가 8명에서 2명으로, 안동권씨가 6명에서 0명으로, 전주유씨 5명에서 0명으로서 안동의 유력 성씨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풍산류씨가 4명에서 11명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이 특이하다.

그리고 예안 지역내 광산김씨가 18세기 23명에서 5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 5명도 1820년(순조 20) 이전에 분포하고 있고, 1820년에 김진유(金震儒)를 끝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원장을 배출하지 않았다. 이는 1825년(순조 25) 광산김씨 김부필(金富弼)이 '문순(文純)' 시호(諡號)를 하사 받음으로 인해 광산김씨와 진성이씨간의 갈등(문자시비)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예안현에서는 진성이씨들만이 도산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형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안의 광산김씨 등이 빠진 자리는 예안현의 수령이 감당하였다. 현직 수령이 서원의 상유사를 겸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의 유지 운영에 현직 수령의 힘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사족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서원이 스스로 관의 힘에 기대어 난국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그만큼 서원 자체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외부 환경 변

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지 수령의 원장 임명은 영남의 다른 서원에서는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던 현상이었는데, 19세기 들어 도산서원도 이를 수용할 상황이 된 것이다. 1810년(순조 10)에 예안현감이 임명된 이래 19세기 동안 15명의 예안현감이 상유사로 임명되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서원철폐령과도 관련이 깊었다. 서원철폐 후 국가에서는 남은 서원의 원장을 지방 수령이 담당하여 운영, 관리토록 했던 것이다.

2-3-2. 원임(院任)의 직임(職任)과 제약

도산서원 원장은 상유사(上有司)라 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원장의 명칭이 동주(洞主), 산장(山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명칭은 중국 서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가 산장, 동주로 모셔져 교육을 담당하던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퇴계는 상유사를 통해 서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임으로 하되, 서원내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강장(講長)격인 산장(山長)·동주(洞主)를 초빙하는데 힘을 것을 강조하였다. 즉, 원장격인 상유사와 산장, 동주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있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현직관료가 원장을 맡은 바가 있다. 소위 경원장(京院長)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자기가 맡은 서원에서 새로이 원임후보자 명단을 올리면 비망을 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매년 말 서원 재정 운영 장부를 올리면 이를 확인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서 경제적 협조 문제, 수령과의 긴밀한 관계 주선 등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당부하는 일을 하였다.

도산서원 상유사의 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른 서원들의 사례를 통해 대체로 원장의 직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원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감독권이다. 서원전의 관리, 노비를 포함한 피역인에 대한 신공(身貢)수납 및 감독, 존본취식(存本取息=殖利), 심원(尋院)·유생에 대한 공궐, 서책 또는 각종 서원 소용품에 대한 관리 등은 유사의 책임하에 있었지만, 반드시 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신·구 상유사 교대시에는「전장기(傳掌記)」에서도 나타나듯이 반드시 전임자가 원중의 규모 곡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고서원의 사례와 같이 원장·유사는 원저(院儲)의 증보(增補)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둘째, 유생의 입원(入院) 및 교육에 대한 감독 및 의무이다. 유생의 입원 절차는 각 서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은 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유생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원장이 이를 규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장은 유생에 대한 강학 등 교육활동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유생에 대한 강학은 강장(講長)·훈장(訓長)의 직임에서 담당하였으나 원장이 총책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원장은 경내 또는 인근 고을의 도학에 밝고 높이 숭상할 만한 선비를 강장으로 맞아들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셋째, 유사 및 원속(院屬)들에 대한 임명·감독·처벌 등의 권한이다. 서원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유사는 원장과 원유가 동의하여 선출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원장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원속하전(院屬下典)의 처벌도 유사가 원장에게 상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알묘례(謁廟禮), 춘추향례(春秋享禮)시 도집례(都執禮)로 천출(薦出)되었다. 이처럼 원장이 서원의 일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한다면, 서원의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담당자는 유사(有司)이다.

유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사문통검(斯文統檢) 및 유생공궐, 원곡분급(院穀分給), 문서검열, 세입·세출 등 주로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구성은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한편, 서원중수·문집간행·추배(追配) 등 서원에 중대사가 있을 때는 그 직임에 따라 별유사(別有司), 별고유사(別庫有司), 수리소유사(修理所有司), 단소유사(壇所有司), 봉안(奉安)·위판(位版)·제기(祭器)·상초유사(床草有司) 등이 다양하게 임명되었다.

유사는 원생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실례로 1556년(명종 11) 초 백운동서원 유사 김중문(金仲文)의 유생 구타사건을 계기로 유사와 유생간에 분쟁이 일어나 한때 유생들이 공원(空院)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이 분쟁의 영향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후 작성된 「도산서원 원규」에는 유사와 유생간에 지켜야할 예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모든 유생과 유사는 서로 예를 갖춘 모습으로 서로 사귀며 공경과 신의로 서로 대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속(院屬)에게까지 지켜야할 바를 정하여 서원 내 구성원 간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다.

서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돌봐 주어야 하며, 유사와 여러 유생은 항상 밑에 부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서원이나 재(齋) 이외의 일로 누구든지 사사로운 일로 사환을 부리지 못하며, 개인감정으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산서원 유사는 인근의 품관으로 2명을 선정하되, 서원의 중대한 일에 따라 별유사(別有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서원 운영의 실무는 2명의 유사가 전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서원 재정과 유생들의 생활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임들은 업무에 대한 대가(代價)로 일정한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도산서원과 같이 권위있는 서원의 유사를 역임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업무가 많고 힘든 직이었다. 그렇기에 관아로부터 전세(田稅), 잡역(雜役)을 감면받는다던가, 서원으로부터 요미(料米)를 지급받거나, 과거 응시에 경제적 보조, 상중(喪中)의 부조 등이 있었다.

도산서원의 경우 「임신정월초오일(壬申正月初五日) 등록정식(謄錄定式)」을 보면, 전임(前任)의 상중(喪中)에는 백지(白紙) 1속, 황촉(黃燭) 1쌍을 부의(賻儀)하였으며, 현임(現任) 세의(歲儀)로써 수령(官家)인 상유사(上有司)에게는 건시(乾柿) 1첩, 생치(生雉) 1수(首), 해의(海衣) 1첩(貼)을 보냈다. 또한 유사(有司) 3인에게에는 청어(靑魚) 1모(茅), 해의(海衣) 1첩(貼)씩을 보내고, 수노(首奴)와 사령(使令)에게는 각기 1냥씩을 주었다.

상기 「임신년 등록정식」에서는 유사로 3인을 두어서, 이전보다 1명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1명은 별유사로 짐작이 된다. 별유사의 역할은 『원중신규정식(院中新規定式)』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신규정식』내 「기사(己巳) 12월 5일 절목」에는 서원의 체모가 해이해져서 항목별 수용(需用)이 어

려워지자,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별유사 3인을 둔다고 하였다. 이들은 향도(鄉道)를 구분하지 않고 공천(公薦)하여 선발하였는데, 별유사는 모두 매월 말에 서원에 들어 상의하여 감부(勘簿)하고, 일일이 도감(都監)에게 올려 검사를 받았다. 별유사의 재임은 3년으로 하고, 후에 당중(堂中)에서 교체하였다. 또한 도산서원 각소(各所)의 수입과 지출은 이들 별유사를 대동하여 감부(勘簿)하고, 각 소의 유사는 연말에 감부하기 위해 날을 정하여 입원(入院)하여 합석하였다.

「신사(辛巳) 3월 15일 당회시 추정(追定) 절목」에서는 전곡(錢穀)의 출입은 각 소가 담당하였지만, 근래 각 소 유사의 교체가 빈번하여 이를 관리하게 어렵게 되었기에 간평(看坪)과 전곡 출입을 별유사가 일체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매월 쓰이는 바를 유사가 수시로 상세히 기록 하도록 했다.

이처럼 『원중신규정식』을 통해 보면, 도산서원 각 소의 수입과 지출은 유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 유사가 업무를 처리함이 해이해지면서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별유사가 유사와 함께 상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도감에게 검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원 재정수입에 비하여 운영이 방만 해지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별유사들의 권한은 신사년 3월 이후 강화되어 기존의 유사들이 담당하였던 전곡의 출입과 간평까지 일체 담당하게 되었다.

도산서원의 「계사(癸巳) 절목(節目)」에서는 원임, 특히 유사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여기에는 원임이 각고면려(刻苦勉勵)하지 않으면, 그 경중(輕重)을 따져 벌하며, 서원의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원임의 분부(分付)라 하더라도 곡내(谷內)의 사람을 잡아올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임원 교체시에는 각 항목 별로 문부(文簿)를 일일이 확인하여 전하며, 인수인계시 서원내의 폐단을 해결하지 않거나, 범과(泛過)했을 시에는 전임(前任)을 중벌에 처한다고 하였다. 1893년에 작성된 이 절목은 원임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을 태만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달리 보면, 이러한 절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될 만큼 서원 운영상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서원 폐단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사년 절목」 이전에 작성된 「임신(壬申) 절목(節目)」을 통해 이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절목에서는 원력(院力)이 탕잔(蕩殘)되어 장래에 어찌될지 모르기에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서원의 각종 소용비(所用費)를 줄이고 있었다. 그 중 우선적으로 전임(前任)의 상중(喪中)에 부의(賻儀)하던 것과 현임(現任)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세의잡물(歲儀雜物)을 없앴다. 나아가 원임이 입원(入院)시에 수행한 향인(鄉人)은 원임과 함께 서원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미년 4월 식례(式例)」에서는 전임(前任)들은 입원(入院)시 찬가(饌價)로 5푼을 내도록 하였다.

이처럼 현직(現職)에서는 의무와 책임만을 갖게 되었고, 원임직을 수행했던 대가로 지급하던 최소한의 혜택도 없어졌기에 원임직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잦은 원임의 교체는 서원 운영의 난제로 부각되었다. 조선후기 서원의 질적인 저하를 촉진한 것에는 이처럼 잦은 원임 교체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곡(錢穀)을 원임이 사적으로 추용(推用)치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원임들이 서원 재산의 사유화 내지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별유사를 두어 별도로 감부

(勘簿)하고, 도감으로 하여금 검사케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유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별유사가 그들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원 재산의 남용과 누수는 증가하여 수령의 도움 없이는 서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계사 절목」에서 구(舊)·신(新) 상유사로 영천현감(榮川縣監)과 자인현감(慈仁縣監)이 선출된 것도 이처럼 서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서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예식(禮式)을 강화하여 서원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즉, 관인(官人)이라 하더라도 도포(道袍)를 착용하지 않은 자는 지공(支供)하지 않고, 그 외의 심원(尋院) 유숙(留宿)하는 자들은 금방(禁防)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이래 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양반사족들의 공공장소로서의 역할도 증대되어갔다. 이전에는 「소수서원 원규」에서 “문에 들어오면 동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제정한 이래 조정의 이해라든가, 수령의 장단(長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서원에서 규례로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서원에 양반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즉, 원임들이 유회(儒會)를 열고 통문을 작성, 발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임들은 유생들을 이끌고 유회가 열리는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통문에 연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원임들은 향촌 교화를 주관하기도 하였는데, 효자(孝子)·열녀(烈女)·충신(忠臣) 등 풍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포상하도록 관에 추천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이처럼 효자, 열녀 정려를 추천하는 통문을 도내 교원(校院)에 발송하였다.

2-3-3. 원생(院生)

조선후기 서원이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피교육자로서의 원생(院生)은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였다.

「도산서원 원규」에는 다음과 같이 원생의 입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업을 받거나 유생이 불러오는 경우가 아니면, 진도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기숙생은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정원은 없으나, 성재가 되어야 서원에 오를 수 있다.

이 원규에 의하면 도산서원의 입원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나이 이상인 자로서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원생으로 들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원 정문인 진도문도 넘어 올 수 없었다. 원규에서 말하는 동몽(童蒙)의 기준은 알 수 없지만, 「도동서원 원규」에서는 신진(新進)은 20세를 넘고 학행이 두드러진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20세를 기준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수업을 받거나, 성재(成才)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학(初學)이 아닌 이미 가학(家學) 및 서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생의 입원은 천거자(薦舉者)가 향사일(享祀日)에 각각 1명을 원장에게 천거하도록 하고, 만약 천거자가 없거나 천거가 필요없는 경우 원장이 그 가부(可否)를 중의(衆議)에 부쳐 결정하였다. 역동서

원의 경우 식년(式年)마다 유생을 천거시에 1명이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낙점 받은 수를 계산하여 그 많고 적음에 따라 3분하여 이중 2분을 취하여 입원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지역 인사는 추천인이 없더라도 학행(學行)이 성취되고 사론(士論)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입원을 허락하였다.

도산서원의 경우 입원(入院)시에 공론(公論)으로 허락받지 못하면 입원시키지 않으며, 천주(薦主)는 7-8명을 천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주가 추천한 자들은 공론을 거쳐 입원의 가부가 결정되다 보니 천주의 역할이 유생 입원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천주는 추천한 유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추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당중(堂中)의 논의로 일괄 추천하는 경우도 있으며, 19세기 가면서 취사제(取士制)를 거치지 않고 공의(公議)에 의해 직서(直書)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이러한 유생의 입원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세 미만인 자라도 이미 사마시에 입격한 자는 허락하였다.



유원록

도산서원에서는 아직 사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옥산서원의 경우 유생으로 입록하기에 앞서 재주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강(考講)을 마친 후 유적(儒籍)에 입록한다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입원 유생들의 질적인 제고(提高)를 위한 조치였다. 유생 추천의 천주는 원임(원장·유사), 헌관 및 기타 서원과 관련있는 원로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당중에서 천망(薦望)하였다. 그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0-20명 정도로 나타난다.

유생의 정원은 얼마나 될까? 소수서원의 유생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원생의 정원이 아닌 상주(常住)유생에 대한 것이다. 원생 수와 상주 유생의 수는 의미가 다르기에 상주 유생만을 가지고 원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생이 오랜 기간 서원에 상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근 유생일 경우 대체로 3-5일씩 반복해서 머무는 것이 상례(常例)였으며, 다른 지역 유생은 몇 달씩 머물렀다고 보인다.

실제 서원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유생 수를 규제할 이유는 없었다. 퇴계가 지은 「이산서원 원규」나 「도산서원 원규」에서 유생의 수를 '정액이 없다(無定額)'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원생안에 기재된 모든 유생을 원유(院儒)라는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이는 여타 서원에서도 원생에 대한 규정은 없고 상주 원생 수에 대한 규정만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2-4. 도산서원의 교육·문화적 기능

2-4-1. 도산서원 강회

퇴계는 거접(居接)이나 강회 등 집단적인 학술활동을 매우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인식했다. 그도 과거공부를 위해서는 거접과 집단적인 학습활동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고 있었고,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이 방법을 적극 권했다. 퇴계 사후 도산서원에서 행해졌던 여러 차례의 강회(講會)는 내부에서 자파 학설에 대한 중요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때나, 또는 조정이나 다른 사람 집단으로부터 퇴계학설에 중요한 질문이나 이견이 나올 때 이에 답하기 위해 강회를 열어 퇴계 학단 내부의 공론을 이끌어냈다.

강회에서는 자신들 학파의 학설을 넘나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강장(講長)으로는 당대의 퇴계 학단을 이끌어가던 인물이 뽑혔고, 강생들도 대부분 주요 가문을 대표하는 신진기예의 학인이었다. 도산서원은 강회를 통해 학문하는 서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 강회 중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역동강회(1787)**, **을묘강회(1795)**, **갑인강회(1854)**, **청량강회(1850)** 등 네 차례의 강회와 퇴계 문도의 문집에 기록이 남아있는 오천강회(1892) 등이 있다. 이 강회들은 비록 장소를 달리해서 이뤄졌지만 모두 도산서원에서 주관하거나 혹은 도산서원 원장이나 재임 등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도산강회(陶山講會)’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외에도 도산서원에서 몇 차례 더 거접과 강회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편적인 자료들이 있다. 우선 1596년(선조 29) 1월에 작성한 문서에는 거접을 행할 때의 용하기(用下記) 관련 내용이 있다. 이때 목면 3필로 『예설』 7권을, 목면 5필로 『시서언해(詩書諺解)』 12권을, 목면 3필로 『여문정선(儸文程選)』 6권을 사들였다고 한다. 대개 거접은 과거준비를 위해 늦봄에서 초여름이나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선행되며 비용은 별도의 양사전(養士田)에서 충당되는 것이 관례였다.

당시 도산서원의 거접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도산서원 광명실에 자료가 남아있는 을묘강회와 갑인강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1795년(정조 19) 을묘강회(乙卯講會)

광명실에 남아있는 『강회록(講會錄)』은 정조의 책 반사(頒賜)에 대한 기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록은 1794년(정조 18)과 그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에 관한 것이다. 정조는 1792년(정조 16) 이만수(李晩秀)를 도산서원에 보내 치제토록 하였다. 이후 1794년(정조 18) 2월에는 서적을 내사(內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성록(日省錄)』에는 “새로 인출한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중에서 백지로 만든 것 3건은 도산서원, 석담서원과 대로사에 각각 1건씩 사급하라”는 정조의 명이 보인다. 3월에는 “각신 이만수가 퇴계의 『사문수간』과 이언적의 『대학속혹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가 되어 어제를 권수(卷首)에 각각 쓰고, 이익운에게 명하여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봉안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정조가 도산서원 취한 일련의 행동은 퇴계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도 큰 몫을 담당했지만 그 정치·문화사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을묘강회는 앞서 말한대로 갑인년 봄에 『사문수간』 발문을 옮긴 어제(御製) 1책 및 경서(經書) 1질을 도산서원에 하사하고, 다음해 2월에는 사관 유태좌에게 명하여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을 하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강회에 관한 기록이다.

『사문수간』 발문에 실린 정조의 글은 그가 왜 이 시기 퇴계를 찾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정조는 그 제발에서 주자가 채군모(蔡君謨)의 첩에 실린 글자 한자 한자에서 정인(正人), 단사(端士)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 자신도 선생의 첩에서 조존(操存)하는 세밀함과 강학의 절실함과 처기, 접물의 방법과 사수(辭受), 취여(取與)의 절차를 볼 수 있다고 술회했다. 이어서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학을 비롯한 이른바 이단 잡설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학에 대한 정면 대응보다는 도산서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재확인하여 문풍을 쇄신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조의 의지는 1791년(신유년) 초계문신과 반유(泮儒)를 대상으로 ‘속학’에 관한 응제 책문을 출제하면서 서학과 이단학에 대한 국가적 위기감을 확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도산서원은 이러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부응하여 1795년 2월 산장(山長) 이구서(李龜書) 주도로 석채(釋菜) 파재일(罷齋日)에 맞추어 강회를 개설했다. 강회록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서술한다.

전후로 내린 성은의 빛남이 천고에 없는 것이니 본원의 사람들로서 돌아 보건대 무엇으로써 임금의 베풀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도다!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진실로 강학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번에 다행히 성상의 문교를 정려하심과 책의 반질(頒帙)에 즈음하여 감히 한번 취회하여 강회를 열어 임금의 뜻을 널리 알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기록에 따르면 도산서원에서도 오랜 기간 강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조의 특별한 관심을 계기로 서원강학활동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서원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은 당시 퇴계학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이들이다. 산장 이구서는 하계파 15대손으로 이세사(李世師)의 장남이다. 그의 아들인 이가순(李家淳)[1768-1844]에 이어 증손자인 순국 절의의 인물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1842-1910]로 가학이 이어지면서 가문은 퇴계 도통의 가장 중심에 자리했다.

조선후기의 거유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1755-1831]은 종숙부 되는 이구서에 대한 제문에서 음성이 웅장하고 언론이 확고한 인물로 추앙하였다. 강장(講長)인 생원 김태익(金台翼)은 광산김씨 문중을 대표하여 강회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정조의 거둬들인 부름에도 출사하지 않고 면학에 힘을 기울였다.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후손으로 당시 고을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헌원(朴獻源)이 청강(聽講)으로 참석했고, 수찬 이구운(李龜雲), 김부륜(金富倫)의 7세손으로 1792년 사도세자의 전례에 관한 일로 영남만인소를 올린 김시찬(金是瓚) 등도 청강으로 참가했다.

강생(講生)으로는 풍산김씨, 봉화금씨, 의성김씨, 진성이씨 등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정조에게 하사받은 『주서백선』과 『대학』을 윤독(輪讀)하는 형식을 취하여 3일 만에 파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을묘강회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도산서원이

나 퇴계학과 차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조의 정학론이나 탕평론 혹은 신해년 '속학'대책 등과 같은 정국 구상과 맞물린 정치·문화사적 맥락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 강회가 사도세자 신원과 왕권강화를 요구한 1792년 영남만인소 운동 직후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기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강회는 서원 외부의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사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 1854년(철종 5) 갑인강회(甲寅講會)

광명실에는 두 건의 강회기록이 남아있다. 두 문서가 모두 갑인년의 자료로 소개되어 있어 동일한 문건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쪽 자료는 정조 갑인년과 을묘년에 관한 기록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갑인년인 1854년(철종 5)의 강회 기록이다. 남아있는 『강회일기(講會日記)』에는 강회가 시행된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본원의 강회는 대개 주자의 백록동구규(白鹿洞舊規)에 근거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여러 폐해가 쌓이고 시행되지 못했으니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갑인년 10월 초에 죽서(竹栖)공과 여러 고을의 장로들이 함께 서원에 모여 회의한 결과, 문서를 발송하여 각 마을의 유생들에게 알리도록 했으니 동몽부터 40세에 이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월 삭망(朔望)에 사숙(私塾)에서 강(講)하도록 하고, 연말에 우수한 자를 택하여 본원에서 대동(大同) 회강(會講)한다는 뜻을 먼저 돌아가면서 알리도록 한다.

위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18세기에는 도산서원에서 상당 기간 강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원의 장로들은 이 강회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은 각 마을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삭망에 강회를 운영하고, 2단계로 그 중에서 우수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도산서원에서 모두 모여 회강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강회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12월 15일에 본원에서 강회할 것을 정했다. 훈장은 동주(洞主) 이희순(李希淳), 전 승지 이휘령(李彙寧), 전 참판 이효순(李孝淳), 전 목사 이휘재(李彙載)로 한다.

12월 14일에는 동주 이희순과 이석(貳席) 최운항(崔雲璜)이 들어와서 광명실에 소장된 사자육경(四子六經)과 『심경』, 『근사록』, 주자서, 퇴계서 등 여러 질을 꺼내와 응강(應講)의 교재로 한다.

15일에는 이른 아침에 훈장 죽서공(竹栖公)과 운산장(雲山丈) 등이 들어오고, 전임 이구발(李龜發)과 여러 장로가 차례로 들어와 시도유사(時到有司)로 이만설(李晩高), 이만욱(李晩郁) 2인을 선출하고, 직일(直日)로 이휘경(李彙暻), 이휘철(李彙徹)을 추천하여 뽑았다. 식후에 의인(宜仁), 하계(下溪), 원촌(遠村)에서 도착한 강생들이 모두 30여 명이 되어 전교당 뜰에서 정읍례(庭揖禮)를 하였다. 정읍례는 모든 강생이 전교당 뜰에 서립(序立)하면 동반수(東班首)와 서반수(西班首)가 제생(諸生)을 이끌고 동편 층계에 서서 백록동규를 경독(敬讀)한 뒤 읍례를 행함으로써 끝났다. 정읍례를 마친 후 한존재(閑存齋)에 강석(講席)을 설치하고 제생이 각자 독서한 책을 가지고 나와 한

편씩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강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했다.

16일에는 훈장 원촌 대감과 장로 여러 사람이 아침 일찍 서원에 도착했다. 식후에 부포(浮浦) 유생 8인이 도착하여 상읍례를 시행했다. 동반수 유학 금성술(琴誠述)과 서반수 유학 이휘필(李彙弼)이 창(唱)을 하여 전례와 같이 예를 마친 후 진강했다. 오후에는 온혜(溫惠) 유생 8인이 도착하여 강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 파했다.

17일 아침에 온혜의 새로운 유생 4인과 서북면 유생 10여 인이 차례로 도착하여 상읍례를 행했다. 동반수와 서반수의 창에 따라 앞서와 같이 예를 마친 후 진강하도록 했다. 앞서 병으로 들어오지 못한 유생들을 참여시킨 후 강을 마치도록 했다. 날이 어두워지매 진강을 모두 마치고 훈장과 장로들이 먼저 나간 뒤 제생이 뒤이어 퇴귀했다.

앞의 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다. 우선 훈장으로 임명된 인물들이다. 이들 훈장은 당대 유림사회의 가장 중핵을 이루는 인물들이었다. 이휘령이 강회에 훈장으로 참가한 것은 퇴거해서 성리서에 전념할 때의 일이었다. 이외에도 『강회일기』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유생 선발과 강회 의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강회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강회를 통해 유림들을 조직하고 장악하는 제도적 틀이 더욱 두드러진다. 강회가 끝난 직후, 1855년(철종 6)에 이휘병을 소두로 해서, 죽은 지 100년이 다되도록 신원이 되지 않는 사도세자 추존을 청원하는 제2차 영남만민소가 작성된 것도 이렇게 강회를 통해 결집된 유림들의 공론이 표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2. 도산서원의 문화사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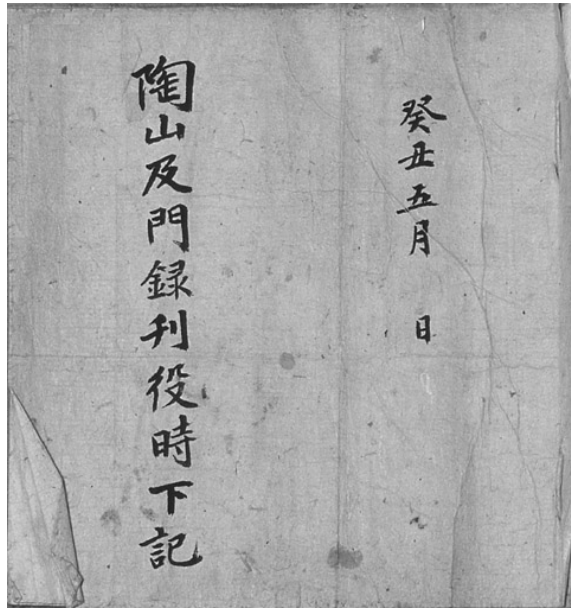
1) 도산서원의 출판문화

조선시대 출판문화는 국가의 교서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관아와 서원, 사우 등에서 책이 출판되고 이후 각 지역에 보급되는 체제였다. 도산서원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나아가 전국적인 명망과 위세를 지닌 서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서적간행도 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도산서원 책판은 1796년(정조 20) 서유구(徐有榘)가 작성한 『누판고(鑄板考)』에 17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책판은 모두 34종 3,907판으로 18세기 말 이래로 『퇴계집』을 증보하면서 추가된 것과 19세기말 역동서원의 휘철로 인해 이전되어 것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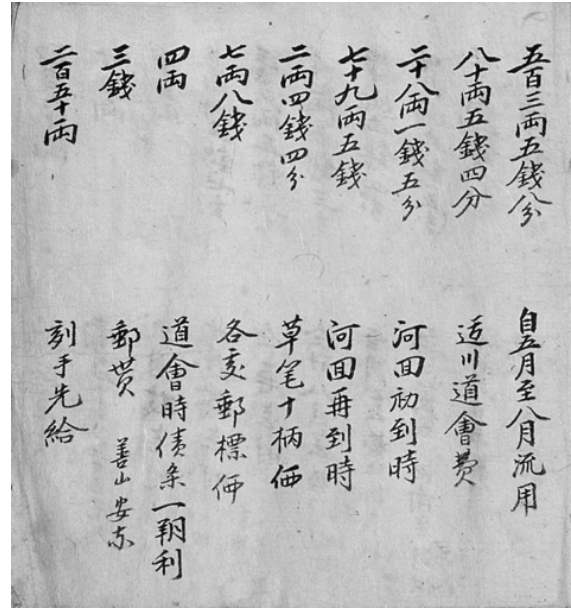
각종 문서에서 확인되는 도산서원 간행 전적은 『도산기(陶山記)』, 『매화시(梅花詩)』,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역해참고(易解參攷)』,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계몽전의(啓蒙傳疑)』, 『월천집(月川集)』(趙穆), 『몽재집(蒙齋集)』(李安道), 『온계집(溫溪集)』(李瀼), 『송재집(松齋集)』(李堦), 『심경(心經)』 등이 있다. 이것은 퇴계가 남긴 글이나 그 집안과 관련된 것 내지는 성리서들 이었다.

이처럼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와 관련된 문집만 간행한 것이 아니라 퇴계 가문 사람들의 문집도 있었지만, 다른 가문의 문집도 펴냈다. 문집류는 편자의 거주지에 마련된 서원, 누정, 정사, 재사, 사찰 등에서 발간되는데, 이 가운데 서원에서 간행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계와 연관된

인물들, 즉 퇴계문인들이 도산서원에서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계축년 도산급문제헌록 간역시 시하기 - 1



계축년 도산급문제헌록 간역시 시하기 - 2

1830년(순조 30)의 광산김씨 통문에는 광산김씨 가문 인사들의 문집이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고, 그 목판을 보관해온 바가 있음을 밝혀 놓았다. 특히, 퇴계의 문인인 광산김씨 가문의 운암(雲巖) 김연(金緣),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 계암(溪巖) 김령(金玲)의 문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안동에서 간행된 문집의 저자는 대체로 문중의 선조이며, 동시에 퇴계학파 내에서 그들의 스승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도산서원에서는 다른 곳의 서책 간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즉 서책을 발간할 때 영남지역의 서원, 향교, 서당 등에서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는 도산서원과 영남의 연락망 관계를 잘 보여준다. 특히 퇴계와 관련된 서책을 펴낼 때는 도산서원에 알려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1898년(광무 2) 10월 고산서당(高山書堂)에서 보내온 통문에는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를 간행하는 사업에 도산서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899년(광무 3) 2월에는 경광서당(鏡光書堂)에서 재차 『퇴계서절요』를 펴내는데 공역이 많이 늦어지므로 도산서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1899년 7월 상주향교에서 계당(溪堂) 류주목(柳疇睦)이 저술한 『전례유집(全禮類輯)』의 판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열기로 한 도회에 참석해 주길 청하고 있다. 이들은 본가의 힘이 없어 유림의 공의도 침묵하고 있어 판각 사업이 30년 늦춰져, 공역을 빨리 진행할 것을 독려하고 재정지원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도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서적 간행이 있으면 영남의 여러 조직은 도산서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으려 했다. 도산서원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이 컸던 만큼 후원을 청하는 요구도 널리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06년 사천에서 허목의 『기언(記言)』을 중간하면서 도산서원의 의견에 따라 서적 간행의 방향을 정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선현의 문자를 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도산서원의 권위를 빌려 해결하려는 의도였다.

도산서원에서 가장 먼저 출판한 책은 『퇴계선생문집』이다. 1600년(선조 33)에 초간(初刊)이 이뤄

진 뒤 1724년(경종 4)과 1843년(헌종 9)의 중간 및 1817년(순조 17)의 보각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원에서 책을 간행할 때는 먼저 원임과 지역 유림, 후손들이 모여 유회(儒會)를 열고 서원에 모신 선현이 문집이나 실기(實紀)간행을 계획했다. 『퇴계선생문집』을 간행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간행이 결정되면 재원을 마련하고자 서원 수입 중 일부를 할애해 별고(別庫)를 마련하고 필요한 돈을 계속해서 모았다. 일의 규모가 작으면 식리(殖利)를 운용하여 증식하는 방법을 썼다. 어느 정도 자료와 자금이 마련되면 책을 편찬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 통문을 보내 그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때 간소(刊所)라는 별도기구를 두어 주관하였다. 도산서원에서도 『퇴계선생문집』을 개간할 때 농운정사에 도도감과 도감, 별임, 간임, 재임, 서사 등을 뽑고 별소를 마련했다. 부족한 경비는 문묘에 모셔진 대현이고 책판의 규모가 크면 주변 지역의 교원과 후손, 유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도움을 청하거나 액수를 배정하여 통고하였다.

1817년 문집 개간 때뿐만 아니라 1837년 『퇴계선생문집』중간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을 배정하여 거두었다. 1837년 당시에는 안동 봉정사에서 중간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판각, 배포, 사본 등 일의 규모가 커질 듯하자 경상도 각 고을에 통문을 내어 다시 의성향교에서 도회를 열어 업무를 분담하기도 했다.

1840년 의성향교 도회에서 경상도의 4개 진관을 기준으로 각 진에 도청을 설치하고 진내 각 고을에 수전유사(收錢有司)를 정해 돈을 거두도록 했던 것이다. 이때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과 그 문인을 제향하는 서원은 20냥씩을, 다른 서원과 문중은 해당 진의 도청에서 적당한 액수를 나눠서 내기로 하고, 도청에서 책임지고 돈을 모아 도소(都所)로 보내기로 했다. 그 결과 신판과 등본(謄本)에 30권, 2,200여 매의 판을 마련해 3년 뒤인 1843년에 문집을 중간했다.

도산서원에는 문집 개간과 중간을 마칠 때까지 인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수시로 부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듯 도산서원의 책 출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이었으며, 도산서원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도산서원에서의 서적 출판은 그 위상을 감안한다면 영남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산서원 서적 간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퇴계학파로서의 학문적 계보를 확인하는 것이었기에 간역일기와 여러 고문서에 유력한 영남지역 사족 가문이 등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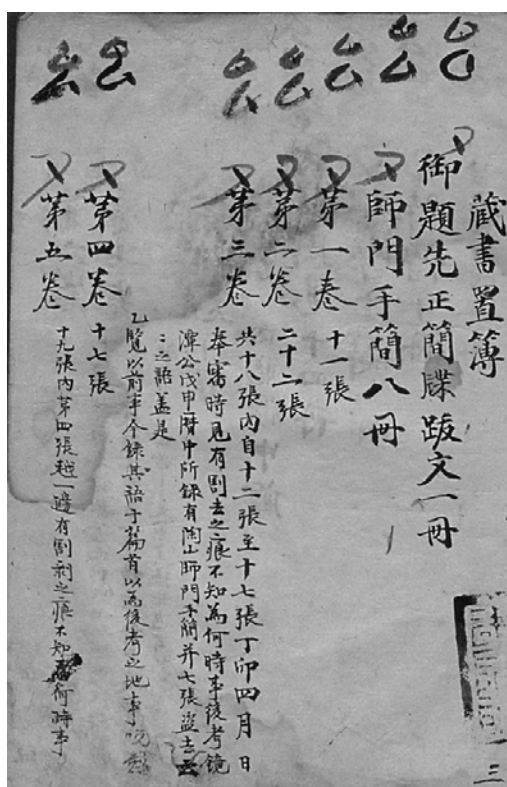
2) 엄격한 서책관리와 도서관적 기능

도산서원에 간행한 서적들은 광명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원에서 직접 간행한 서적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내린 내사본(內賜本)과 지방관아에서 펴내거나 인근 지역 서원과 문중에서 발간해 기증한 많은 책들이 있다. 도산서원은 서적의 출판뿐만 아니라 전적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광명실과 장판각을 세우고, 서책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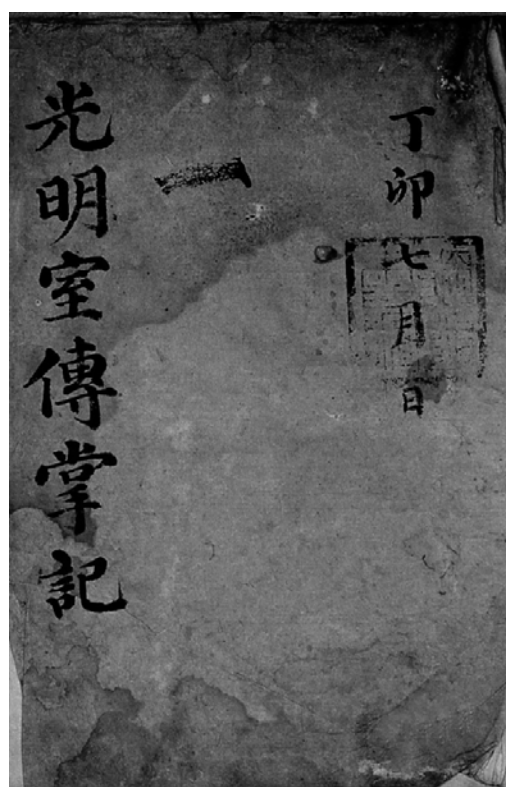


경도년 완의

도산서원에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내사 받고 기증받으면 책의 첫 장에 반입내력을 적고, 『고왕록(攷往錄)』 등에 날짜와 사연을 기록해 두었다. 또한 책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도산서원 소장 전적은 서고인 광명실(光明室)에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서원 초기부터 존재했던 시설은 아니고 후대에 와서 지은 건물이며, 처음에는 동·서재의 협실에 보관해 왔다.



광명실 전장기-1



광명실 전장기-2

이후 서적이 많아지면서 공간의 부족과 습기·화재의 위험을 피해 서고를 신축하여, 퇴계가 역동서원 서고에 명명한 '광명실'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광명실 신축은 알려진 1819년(己卯)과 치부기의 1775년(乙未)과 차이가 있다.

도산서원 원규의 총칙 '광명실개폐규정'에는 "반드시 삼임(원장, 재유사, 별유사)이 모두 모이거나 당회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한 두 사람으로는 광명실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임(原任)에게 품의하여 처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광명실 점검과 출입에 대해서도 원규 총칙의 인수인계조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서책은 별도의 장부를 비치해두어야 하고, 유사가 교체될 때는 먼저 목록을 가지고 확인한 뒤 포쇄하거나 당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대조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수인계조의 '별도장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물이 '광명실전장기'이다. 전장기의 점검 표시를 보면 총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때에도 이전 목록으로 일일이 대조했음을 알 수 있고, 서책의 유실이나 이동, 출처 등 특이사항을 서명아래에 적어 넣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서책을 '미준질(未準秩)'항목 아래 별도로 정리하는 등 매우 철저히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서책목록 외에도 도산서원 재물전장기에는 서책의 관리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일례로 1602년, 1616년, 1618년, 1619년, 1622년 등 이른 시기의 전장기에서부터 '서책치부'가 확인된다. 이는 서원 건립 초기부터 실제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서책을 관리했음을 알려준다. 다만,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해당되는 서책목록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도산서원은 책방 또는 상재협실, 광명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서책을 관리했다. 그리고 관리 재임이 교체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참여해 점검하고 서명한 뒤 인계·인수했다. 점검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목록에 꼼꼼하게 적어 넣음으로써 훗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을미서책치부(乙未書冊置簿)』에는 1년에 5-6회의 포쇄와 매달 2회의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남아있는 서책목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도산서원 서책규모로 볼 때 포쇄는 일 자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날씨 등의 여건으로 인해 1년에 5-6회 시행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달 1-2회의 단순한 점검일지라도 서책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포쇄할 때는 전체 서책을 점검하면서 이틀을 매번 새로운 목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매달 2회의 점검은 광명실의 습기와 해충에 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의 관리가 많았을 것이다.

도산서원에는 역동서원(易東書院)에서 이전된 전적들이 있다. 역동서원 치부기에는 퇴계가 보낸 『성리대전』, 『통감』, 『소학집성』, 『성학십도』등과 사서삼경 등의 서책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인연으로 1868년 서원이 훼손될 당시 자연스럽게 도산서원으로 장서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역동서원 장서는 퇴계가 생전에 보낸 서적들이 많은 까닭에 임란이전의 오래된 선본이 많으며, 이는 도산서원 장서 가운데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퇴계가 생전에 도산서당에서 소장하고 있던 수택본이 서원의 장서에 편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퇴계 생전의 서적들이 그러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문인이나 그 후손들이 퇴계와 관련된 전적을 서원에 헌정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사문수간』은 퇴계가 월천 조목에게 보낸 간찰과 시문을 묶어 첩으로 만든 것으로 월천의 후손들이 서원에 헌정한 것이다.

1890년 6월 26일의 『전장기』를 보면 광명실에 소장된 각종 서책 현황은 성리학 관련 서적·잡저·문학 관련 서적·서원 관리상 필요한 제 장부나 문건·역사 관련 서적·일반 문집·병법서·향교 관련 문건과 서책 등 대략 490여 종, 2,991책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시행된 전적조사에서는 모두 907종 4,338책이 조사되었는데, 동광명실에 195종 2,136책, 서광명실에 712종 2,202책이었다.

동광명실은 주로 경서류, 사료, 유가류, 문집류 등이며, 퇴계의 수택본을 위시하여 임란이전 판본들이 비교적 많았다. 서광명실은 근래에 발간된 문집류를 주로 보관하고 있었다. 역동서원 장서는 동광명실에 보관하였는데, 퇴계가 직접 수집한 책인 12종 113책으로 임란이전 판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본(零本)이 적고, 타 서원문고나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책들도 상당수 있었다.

도산서원은 영남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원이며, 그 명성은 퇴계의 학문과 실천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퇴계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려는 도산서원 사람들의 실천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산서원의 기록물이 바로 그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지와 자부심의 산물이다.

2-4-3. 도산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1) 도산서원 건립과 퇴계 적통(嫡統) 논쟁

① 도산서원 건립과 문인간의 갈등

도산서원의 영건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의외로 많지 않다. 퇴계연보와 그의 문인 몇 사람의 연보에 나온 기사 외에는 조목의 「도산서원봉안문(陶山書院奉安文)」, 「도산서원춘추향사봉안축문(陶山書院春秋享祀奉安祝文)」 및 김성일과 김부필의 편지에서 약간 언급된 정도이다. 『도산서원지(陶山書院誌)』가 간행되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서원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서원기」나 「서원영건사실」 등의 문건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문제는 퇴계 사후 그를 추송하는 사업으로서 문집 편간이 범문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원향(院享)만은 영천, 예안, 안동의 세 고을 문인들이 같은 시기에 따로 추진했던 점과 관련 있을 것이다.



도산서원 봉안문(월전집, 권6)_고전번역원

세 고을이 모두 퇴계와 연고(예안[고향], 영천[처향(妻鄉)], 안동[선향(先鄉)])가 깊고, 문인들이 분포해 있었던 만큼 선사를 위해 사묘를 가진 서원을 세우는 것은 문인의 도리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퇴계 장례 후 1년이 지난 1572년(선조 5)부터 선사를 제향하기 위한 사묘 건립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서원 건립에는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들어가기에 지방의 사람이 힘을 모은다 해

도 결국은 그 지역 지방관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산서원이 사묘를 지을 당시 군수 허충길에게, 그리고 여강서원 건립 논의를 시작하면서 안동 문인을 대표해 구봉령(具鳳齡)이 안동부사로 부임한 동문인 권문해(權文海)에게 협조를 구하는 정문(呈文)을 올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예안은 영천과 안동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읍세가 영세한 고을이었다. 게다가 이미 역동서원을 건립하면서 물력이 모자라 건립 논의가 있고도, 10여 년간 착수도 못하다가 현감의 지원을 받아 완공할 수 있었다. 예안 사림으로서는 경사였지만, 예안의 사족이 총동원되다 시피했던 탓에 물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이처럼 소진된 사족의 힘을 다시 모아 새로운 서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퇴계가 평생을 머물고 만년에 저술과 강학을 하던 도산에 서원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이산서원의 사묘 건립에 자극을 받은 예안 쪽에서도 1572년(선조 5) 4월, 우선 도산에 사묘(祠廟)를 세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시일만 늦춰지고 있던 차에 퇴계문집의 교정을 위해 역동서원을 찾은 권호문(權好文)으로부터 안동지역 문인들이 새로운 서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듣게 되었다.

이처럼 도산서원 건립이전 예안, 영천, 안동의 사림들은 각자 퇴계의 연고를 내세워 지역별로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읍세가 미약하였던 예안지역 사림으로서는 도산서원 건립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막대한 건립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었다. 나아가 지방관과 타 지역 문인 내지 사림들의 부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 문인들은 예안의 서원건립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1574년(선조 7) 봄, 학봉 김성일은 예안의 고을이 잔약한데 비해 서원을 세우는 일은 커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월천 조목에게 알렸다. 이 편지에서 학봉은 근본적인 문제로 일읍양원(一縣兩院)으로 인해 일어날 사태를 지적하였다. 만약 새로운 서원이 도산에 세워진다면 먼저 세운 역동서원은 쇠퇴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역동서원은 퇴계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범상치 않음에도, 문인이 세운 도산서원으로 인해 버려진다면 선사(先師)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여 서원 건립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물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선사를 위한 도산서원 건립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 문제의 논의과정을 전해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1572년(선조 5) 4월에 도산서당 회의에서 사묘 건립이 합의된 후 1574년(선조 7) 봄에서야 일에 착후나 것을 보면 적어도 2년에 걸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중인 1573년(선조 6) 2월에 안동의 여강서원이 착공되어 이듬해 2월에 거의 준공단계에 이른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일현양원(一縣兩院)이라는 문제점이 오히려 안동 사림의 여강서원 건립 명분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보인다.

도산서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1574년(선조 7) 봄에 착공하면서 결론을 낸 듯하다. 논란이 있었지만 도산서원 건립이 결정난 이상 안동을 비롯한 타 지역 동문들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논의하는데 2년이 걸리던 것이 건립은 불과 1년 만에 끝났다. 도산서원이 완공되자 그 위상은 먼저 이루어진 여강서원을 능가하였다. 퇴계의 본거지로서 도산서당이 왕은 물론 서울과 타 읍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위명 때문이었는지 미처 퇴계 위판의 봉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 조정으로부터 사액이 내려왔다.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이산·도산·여강서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여강서원은 1576년 창건 후 100년이 지난 1676년(숙종 2)에 사액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여도 도산서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퇴계 위판의 봉안은 1576년(선조 9) 정월에 여강서원에서 도산과 여강서원의 위판 봉안에 따른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고, 같은 해 2월 12일에 두 서원에서 동시에 봉안 행사가 치러졌다. 두 서원에서 같은 날 봉안행사를 함으로써 양쪽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불만이었을 것이다. 행사 참석 인원이 양분되어 행사에 손색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도산서원 봉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심원록(尋院錄)』에 일부 명단이 전한다. 여기에 보면 향사헌관 및 집사라는 명목아래 78명의 이름이 나온다. 사문의 큰 행사에 78명만 참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기록대로 헌관·집사가 78명이었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참석자는 더 있었을 것이다. 『심원록』에는 군수 배삼익(裴三益)과 예안현감 류몽양(柳夢陽) 같은 이 지역 지방관과 김복일(金復一), 김부필, 이숙량(李叔樑), 조목, 이준(李騫)[현감, 퇴계의 아들], 조종도(趙宗道), 권춘란(權春蘭), 김천일(金千鎰) 등의 인물들이 있었다. 거주지를 보면 예안이 50명, 안동·영천 각 6명, 서울 3명, 풍기·안음·전주 각 2명, 영해·함안·경주·봉화·나주 각 1명, 그리고 지역이 명확치 않은 자가 2명이다.

이 인물들은 예안이 절대 다수이며, 안동은 김복일과 권춘란, 영천은 김륵(金玞)을 대표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예는 퇴계의 영향권 밖에 있던 전주와 나주의 인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나주의 김천일은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임란 당시 의병장으로 순국한 건재(健齋)였다. 이 당시 도사(都事)로 있던 김천일은 관찰사를 대신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일재의 수제자가 참석했다는 사실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는 함안의 조종도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인근의 찰방으로 있다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명 조식의 영향권에 속하는 학자였다.

퇴계의 직계 가족으로 아들 이준과 손자 이순도(李純道)·이영도(李詠道)는 명단에 있으나, 장손으로서 퇴계 집안을 대표해 문집 관계를 막후에서 주선하였던 이안도(李安道)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강서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동 쪽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벼슬에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단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인다.

②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 논쟁

퇴계 봉안 후 도산서원은 춘추향사를 지내며 당분간 서원의 시설을 갖추는데 힘썼다. 그러다가 역동서원에서 해오던 문집 편찬과 관련한 일이 도산으로 넘어온 1580년(선조 13) 9월, 동문들의 회합을 기회로 제생(諸生)을 위한 강회(講會)를 열었다. 월천 조목이 주관한 이 강회를 계기로 매달 삭망(朔望)에 동문과 유생들이 모여 상덕사에 알묘(謁廟)한 뒤 강회를 갖기로 약속하고 이를 원규(院規)로 삼았다고 한다. 이때 이후 설강(設講)되었을 강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시기 도산서원의 주된 기능은 퇴계 문인의 결속을 다지는 향사(享祀)에 있었다. 1600년(선조 33) 도산서원에서 『퇴계집(退溪集)』을 간행한 것은 도산서원이 출판문화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지만, 한편으로는 퇴계의 학통 계승이란 면에서 병렬관계에 있던 도산과 이산·여강서원 사이에서 도산서원이 우위에 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또한 퇴계 사후 점차 깊어진 적통계승을 둘러싼

경쟁에서 도산의 건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던 월천계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주기도 했다. 1615년(광해군 7)에 월천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하게 된 원천은 여기에 있다.

1610년(광해군 2) 사림의 숙원이던 동방 5현(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문묘종사가 실현되면서 조선 도학에서 퇴계는 정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에 이르러 수면 아래의 움직임에 그쳤던 퇴계 적통의 계승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월천 조목의 동문인 금응훈(琴應薰)[1540-1616]이 처음으로 월천의 상덕사 입향(立享)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그는 퇴계 사후 월천과 더불어 『퇴계집』편찬을 주도하였으며, 월천 사후에는 예안지역의 퇴계문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금응훈에 의해 제기된 월천 종향론은 1611년(광해군 3)에는 월천 문인 김택룡(金澤龍)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고, 이때에는 종향을 위해 감사에게 정문(呈文)을 올리는 방안까지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종향론은 각 자의 의견을 주변 사족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본격적인 종향과 연계되지 못한 단계였다. 게다가 월천 종향론은 같은 해 정인홍의 '회퇴배척(晦退排斥)'사건이 조야에서 큰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논의는 정인홍의 회퇴배척 사건으로 야기된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1612년(광해군 4) 정월에 금응훈의 주도하에 20여 인이 도산서원에 모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때 월천의 문인들인 김택룡, 이립(李笠), 박수익(朴守諠), 김중청(金中淸) 등은 금응훈 등이 향종과 주변 사족들의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 멋대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월천문인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종향을 추진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며, 나아가 종향의 주도권을 월천문인들이 장악하려는 것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월천 종향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한 상태였기에 도산서원에 모여 종향의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때의 논의사항은 종향에 필요한 제반 의례, 제기의 수·묘향의 형태·위판에 쓰일 호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중점을 이루었으나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이때 김택룡, 금경(琴憬) 등이 위판에 '先生'이란 칭호를 사용하는 것과 제향에 쓰일 변두(蘆豆)와 작(爵)의 수는 퇴계와 같이 할 것을 주장하자, 김평(金坪)은 사안의 중대함을 들어 정구(鄭逵)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금응훈은 월천의 종향을 미루더라도 향종의 공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경과 김택룡은 정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월천문인의 입장에서는 종향의 조속한 달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에 의해 종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론을 수합하다 보면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론이 거세게 일어난다면 종향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실제로도 당장 영천·안동지역 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권춘란(權春蘭)[1539-1617]·김륵(金玞)[1540-1616]·정전(鄭詮) 등의 영천(榮川)·안동지역의 사족들이 종향의 불가함을 말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예안지역 월천계 인사들의 발론에 의한 독자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의 논리는 영남에서 도산서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상 예안 일읍이 독단으로 종향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도내 사림과 더불어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응훈 등에 의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 정구가 종향에 대한 의견을 도산서원에 보내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구는 도산서원은 사액을 받은 국상(國庠)이 되었으니 조정에 계품(啓禀)해야 하며, 종사(從祀)의 일은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되며 배향(配享)인지, 종사(從祀)인지를 정한 후에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응훈 측에서는 정구의 견해를 종향의 불가입장을 은연중 비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김택룡 등의 월천문인은 여전히 종향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었다.

월천의 문인인 김중청과 이립에 의해 다시 정구에게 자문을 구하자, 월천의 종향은 사론(士論)에 극히 합당하지만, 시일을 늦추더라도 조정에 계청(啓請)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구의 견해는 조정에 계품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종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로써 월천문인들은 정구로부터 절차상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김택룡·김중청 등의 문인들은 조정에 계청하는 절차를 거치며 종향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후 1612년(광해군 4) 4월에 감사에게 정문(呈文)을 올려 종사를 청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는 이립이 예조판서 이정귀(李廷龜)[1564-1635]에게 월천 종향을 청했다는 소식이 예안에 전해지자, 금응훈도 이에 대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사론의 수합을 주장하던 금응훈이 월천문인들의 활동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이후의 종향은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1613년(광해군 5) 4월에 경상감사 윤휘(尹暉)가 예안을 방문하였을 때 월천의 외조카인 금경 등이 종향의 일로 금응훈과 논의를 통하여 감사에게 정문(呈文)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 금응훈은 여강·이산 서원에 통문을 보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경 등은 이를 거부하고 나아가 금응훈을 배제한 채 '일향사림의 공의(公議)'라는 명분으로 감사에게 정문을 올리었던 것이다.

이처럼 향중에서 김택룡, 금경과 이립 등이 주도하여 감사에게 종향을 위해 정문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 동안 당시 중앙에서 예조좌랑으로 있던 김중청은 예안 유생과 함께 열서(列書)로 서명한 정문을 예조에 올려 월천종향을 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동안 명분을 쌓기 위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집권세력인 대북(大北)의 후원을 얻어 1614년(광해군 6)에 조목의 종향(從享)이 윤허를 받게 되었다.

도산서원 종향과 관련하여 대북정권으로서의 자파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지방의 향론을 이용하려는 목적 하에 예안을 중심으로 한 월천 문인들을 지지하였다. 월천 문인들은 퇴계의 도통을 스승인 월천이 잇고 그것이 김중청(金中淸)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퇴계학파 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처럼 두 세력의 현실적 목적이 호응하여 월천 종향이 성사된 것이었다.

월천 종향이 윤허된 후 월천문인들은 통문을 돌려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종향의 날짜를 11월 9일로 정하여 성대히 거행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사간원의 건의에 따라 임금이 특별히 조목 종향에 예조좌랑 임성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함으로써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은 마무리 되었다. 사제관(司祭官)의 파견은 곧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퇴계의 문인들 중 조목이 적전(嫡傳)임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안동 쪽도 퇴계를 주향하고 있는 여강서원에 류성용, 김성일을 입향(立享) 하였다. 선사의 학통 계승을 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분기는 학파 전개상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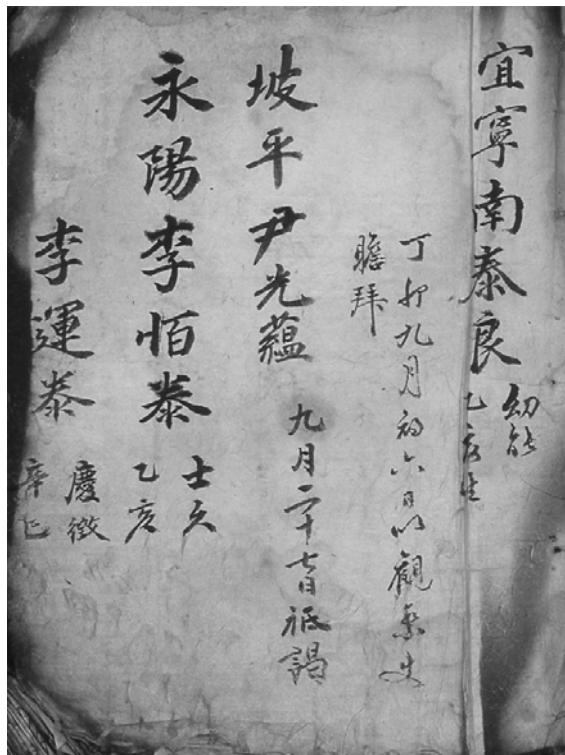
는 학설이나 학문상의 견해차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학봉·서애·월천 문인들의 현실적인 이해가 주된 요인이었다.

2-4-4. 퇴계학파의 재편과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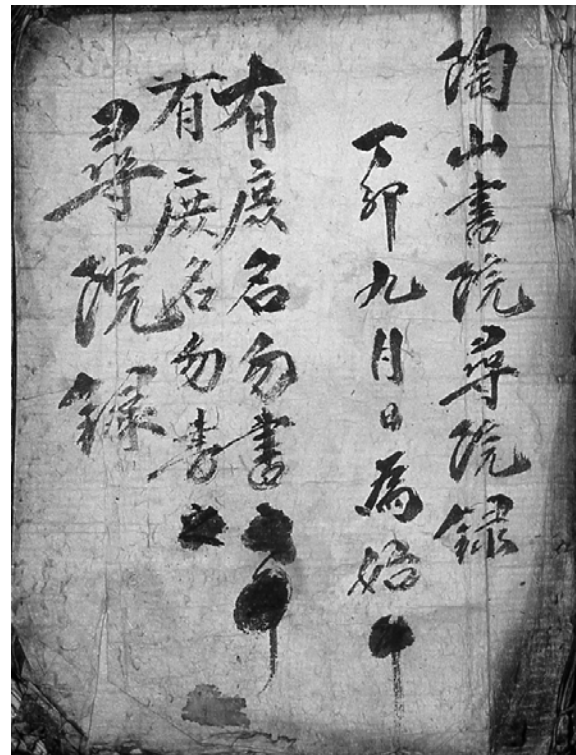
1) 서인의 집권과 도산서원의 지위 하락

17세기 초에 점화된 예안사족(월천계)과 안동사족(서애·학봉계)간의 적통 분쟁은 정치적 대립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도산서원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퇴계가 서원을 건립할 당시 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의 서원 운영을 지향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현실적 목적을 두고 발생한 일련의 퇴계학파 내 분열과 대립은 도산서원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이런 사실은 감사 권반(權盼)이 도산서원을 교생고강처(校生考講處)로 지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안 오천(烏川) 출신의 명사 김령(金垚)은 '서원이 고강처로 전락한 것을 퇴계가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라고 하며 한탄하였다. 이는 퇴계가 장수(藏修)하는 유생들이 이록(利祿)을 추구하게 만들일 수 없다하여 원내에서의 과거 공부를 금지하기까지 했는데, 과거 공부도 못되는 단순히 군역(軍役) 면제와 관련된 초보적인 경전(經典)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도산서원은 물론, 퇴계에 대한 모욕일 수밖에 없었다.



1691년 심원록 - 1



1691년 심원록 - 2

이러한 도산서원의 모욕은 인조대에 들어 더욱 심각해진다. 도산서원 원장 이유도(李有道)가 감사 원탁(元鐸)으로부터 형신(刑訊)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현직 원장이 옥에 갇혀 장형을 당해 죽었다는 것은 예안은 물론 영남 좌도 일대에 큰 충격이었다. 이에 이유도

의 아들을 비롯한 일족이 도산서원의 이름으로 도내 사림에게 통문을 보내 원통함을 알리고 감사를 배척하고자 했다. 이러한 행위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조정이 수창자(首唱者)를 적발해 서울로 압송하라고 판정한 것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도산서원의 이름으로 발송한 통문에 대한 각 고을의 반응이 냉담한데 있었다. 상주의 답통은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고, 함창과 안동은 통문을 되돌려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원장과 재임(齎任)을 교체하려 해도 해당 인물이 사임하거나 회피하여 나오지 않아, “원중(院中)이 텅 빈지 이미 여러 달 되어서 모든 일이 쏠이 아니다”고 김령(金垕)이 통탄한 대로 도산서원으로서의 내외환을 격고 있었다. 이처럼 도산서원이 외면 받는 것은 복인과의 결탁과 이로 인한 안동지역 유림들의 유리에 있었다.

인조반정으로 복인 결탁 세력이 축출되었지만 도산서원은 퇴계의 향화를 받드는 사묘로만 여겨졌고, 좌도 사림의 활동 본거지는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효종과 현종 대에도 이어졌다. 즉, 효종조에 있었던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반대 상소와 현종대의 예송 문제에 있어서도 여강서원을 중심으로 안동사림들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사림이 포진한 여강서원의 활동에 가려 도산서원은 뒤로 밀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퇴계를 봉안한 서원 가운데 수원(首院)으로서 도산서원의 위상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영남감사는 부임길이나 순행할 때 반드시 도산을 찾아 상덕사를 배알하고, 경차관으로 내려온 관리도 대개 도산에서 예를 갖추었다. 이외에도 퇴계를 흠모하여 그 유향(遺香)을 찾아 도산으로 향하는 전국의 뜻있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당시의 여강서원은 병론(屏論)·호론(虎論)으로 갈리면서 이전의 성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에 도산서원은 영조이후 영남의 학풍을 대표하는 수원으로서, 나아가 전국 도학의 본산으로서 그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2) 18-19세기 도산서원의 지위 강화

도산서원은 퇴계의 고향이자, 평소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 전하는 곳에 세워진 까닭으로 퇴계 제향이란 면에서 으뜸가는 서원으로의 이름을 지켜왔다. 특히, 영·정조대에 들어서면서 오랜 정태(靜態)에서 벗어나 조정의 은례(恩禮)가 거둬지는 속에서 나라 안의 으뜸가는 서원으로 부상했다. 조정의 은례는 다름 아닌 치제(致祭)였다. 치제는 나라의 상징인 임금의 제사를 지내주는 의미를 지니므로 고인과 그 후손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집안의 사회적인 격을 높여주는 은전(恩典)이었다. 그 중에서 학자에게 내리는 치제는 그의 유현적 위상에 대해 국가가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니므로써, 후손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문도와 학통을 이은 학파의 정통성과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퇴계에 대한 치제는 그의 사망 당시와 종묘, 문묘배향시에 가묘(家廟)에 치제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정치적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대에 들어 탕평책이 실시되면서 상황이 변하여, 가묘와 서원 치제는 영조 9년에 재개된 뒤 현종 때까지 100여 년간 8차례 이뤄진다. 이중 서원치제는 6차례로서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92년(정조 16), 1816년(순조 16), 1839년(헌종 5)에 이뤄졌고, 가묘 치제는 1785년(정조 9)과 1796년(정조 20)에 2차례 이뤄졌다.

인조반정이후 서인 내지 노론이 집권하였지만, 가장 많은 유림이 있는 영남을 배제하고 정국을 운

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영남사람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삼고자 노·소론, 기호남인이 경쟁하는 가운데 영조의 탕평론을 쫓아 영남인 조용론(調用論)을 폈다. 그러나 조용책 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영남 사람의 절대적 존송을 받는 퇴계에 대한 포송이었다. 영조대부터 퇴계에 대한 치제가 잦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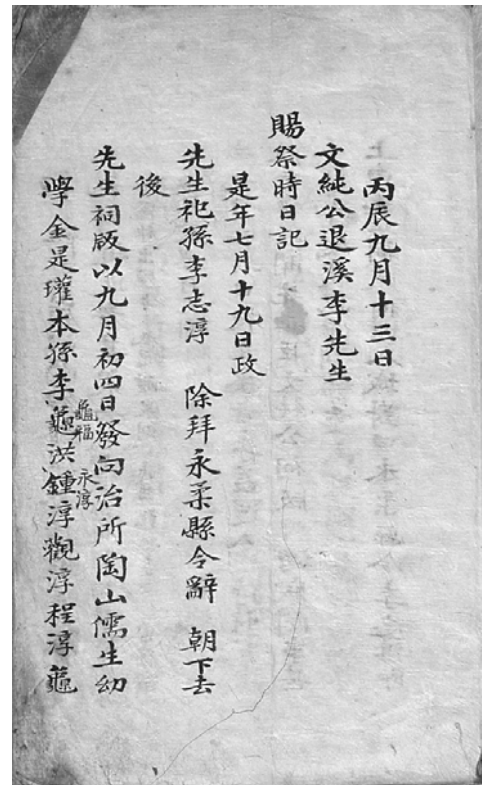
치제를 할 경우 고인에 대한 제사이므로 가묘가 있는 봉사손 집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애초에 퇴계의 공로를 기려 영남 사람을 고무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지녔던 만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서원에 대한 치제일 것이다. 당시 퇴계 제향 서원이 31개소나 되었는데, 이들 서원 중 으뜸가는 서원에 치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6차례의 서원 치제가 모두 도산서원에만 내려진 것은 조정이 도산서원을 퇴계 제향 서원의 대표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도산서원 치제는 퇴계학의 학문적 정체성(正體性)을 제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인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도산서원이 퇴계학파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

도산서원 치제(致祭)가 재개된 1733년(영조 9)의 상황을 보면, 11월 19일 사관 김한철(金漢喆)이 퇴계에게도 치제의 은례가 내리길 영남 사람들이 바란다는 뜻을 알리고, 이에 윤득화(尹得和), 오원(吳璦), 이광보(李匡輔) 등이 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노·소론 사이에 한창 '영남인조용론'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다. 소론인 이광보 외에도 노론의 신진기예들인 3인이 모두 치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임금은 수찬 정형복(鄭亨復)을 사제관으로 삼아 도산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치제 모습은 당시 도산서원 원장으로 있던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의 일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12월 16일 도착한 사제관은 집사로 참석한 예안군수와 청하현감 정선(鄭愼)과 함께 이튿날 오전 원장 권상일 이하 800여 명의 선비가 배열한 가운데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치제가 결정되고 1달이 안되어 제사가 치러졌던 까닭에 영남 각 고을에 소식이 닿지 않아 사람의 참여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았다. 그러나 800여 명이 참여한 전례가 없었을 만큼 사람의 일대 성사였다. 이 치제를 통해 때에 따라 수모와 냉대를 당하였던 도산서원의 불우는 한 번에 불식되었다. 이 치제 후 도산서원은 영남의 수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높아진 도산서원의 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1792년(정조 16)의 도산서원 치제였다. 이때는 단순한 치제로 그치지 않고 영남의 선비들에게 도산에서 과거를 보게 한 것이다. 정조는 규장각(奎章閣) 각신(閣臣)이자 좌부승지(左副承旨)인 이만수(李晩秀)를 예관으로 파견되어 도



1796년 사제시 일기

산서원에 치제하면서 제사에 모인 유생을 대상으로 시사(試士)를 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도산서원이 퇴계학파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며, 도산서원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에는 치제 후에 별과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미리 열읍에 고지되었던 터라 도산서원 앞에 개설된 시험장에 등록한 유생수는 7,000명을 넘었고 수행 인원까지 합하면 1만 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임금이 미리 정한 제목을 전교당(典敎堂) 앞에 내걸고 응제(應製)하게 하여 여기서 거둔 시권만 3,632장이었으며, 이를 서울로 가져와 임금이 친히 고열(考閱)해서 두 명을 급제시켰다. 서원에 과장을 개설하는 것은 본연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이때의 과거 설행은 정조의 계산된 정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는 노론 전제하에서 왕권의 지지 세력을 최대의 사림을 보유한 영남에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도산의 과거가 설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윤 4월에 이우(李堦)를 소두로 한 영남유생 10,057명이 참여하여 사도세자 신원을 위한 영남 만인소가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정조가 영남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절박할 때마다 의지할 수 있어 기대가 다른 곳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며 깊은 신뢰를 표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도산서원이 수원으로 자리를 찾은 것에는 퇴계 후손을 주축으로 한 예안사림의 성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안은 읍세가 미력함에도 문과 급제자가 자주 나오는가 하면, 이 시기에 들어 퇴계의 학문을 발현하는 학자가 배출되어 그 동안 압도적인 우세를 자랑하던 안동에 맞설 만큼 그 역량이 커졌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의 간행이다. 퇴계의 언행록은 계문의 제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정리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책으로 엮인 것은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에 의해서였다. 이 책은 1732년(영조 8) 안동에서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화산본(花山本)] 그러나 여기에 오류가 적지 않아 이수연(李守淵) 등이 도산서원에 보관중인 진본에 의거해 대략 수정하여 도산서원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언행록』도산본 편간을 주도한 이수연은 퇴계의 6대손이고, 이안도의 현손이었다. 그는 퇴계집에 수록되지 않은 유문(遺文)을 모아 『속집(續集)』으로 엮고 권두경이 엮은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대폭 보완해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으로 이름했다. 오늘날 전하는 퇴계 문인록의 책자는 여기에서 유래했다. 영조 초에 들어서 도산서원을 근거로 퇴계의 학문을 다시 천명하는 학문 활동을 벌인 중심인물은 바로 이수연이었다. 이 시기 이후는 이수항(李守恒), 이야순(李野淳) 등의 학문 종사자와 이수겸(李守謙), 이세택(李世澤)·이세사(李世師)·이세덕(李世德) 등이 문과를 거쳐 관직에 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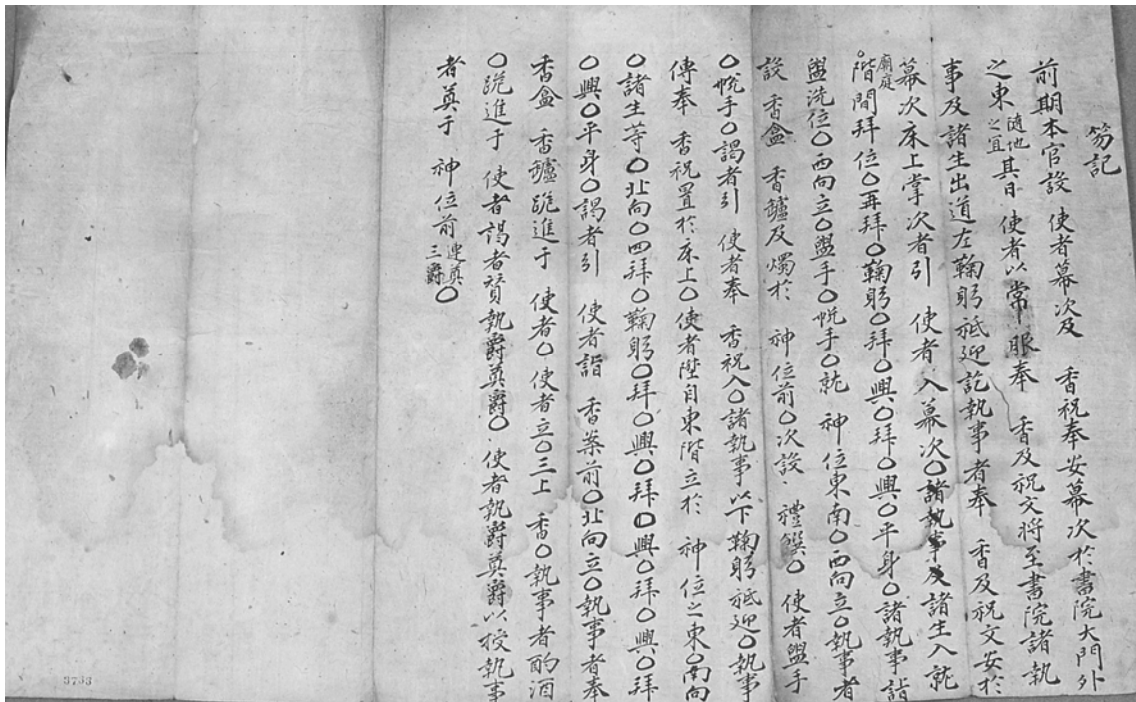
18세기 말에 이르러 도산서원은 국가의 치제가 내려지는 제일가는 퇴계 제향처로서 뿐만 아니라 '퇴계학'의 본산이며, 출판을 통해 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심처가 된 것이다.

2-5. 도산서원의 제향 의식

도산서원의 제향의식은 크게 향사(享祀)와 알묘(謁廟)로 나눌 수 있다. 향사가 서원에서 가장 큰 의례라고 한다면, 알묘는 평소에 행해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향음주례 홀기



제사 치제(홀기)

향사는 퇴계 이황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에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거행된다. 만약 중정일이 국기일(國忌日)에 해당되거나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에는 하정일(下丁日)에 행하고, 이때에도 적합한 날이 없으면 해일(亥日)로 한다. 봄에 봉행하는 것을 춘향(春享)이라 하고, 가을에 봉행하는 것을 추향(秋享)이라고 한다. 향사와 알묘의 장소는 상덕사(尙德祠)로 퇴계 이황과 월천 조목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다. 원위(元位)는 '퇴도 이선생(退陶 李先生)'이고, 종향위(從享位)는 퇴계의 제자인 '월천 조공(月川 趙公)'이다.

향사를 봉행하기 전 상유사(원장)와 하유사(재유사와 별유사) 등은 전교당(典教堂)에 모여서 헌관(아헌관·중헌관·분헌관) 및 축관과 집례(執禮)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낼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초헌관은 원장이 맡기 때문에 별도의 망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헌관 및 축관과 집례에게 유고가 있게 되면 입재(入齋)일 이전에 사유를 적은 단자(單子)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그 외의 집사들의 경우에는 망기가 아니라 회문(回文: 일종의 초청 편지)을 써서 보낸다.

원래 도산서원의 향사는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치러졌다. 그러다가 2002년

부터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었으며, 2009년 춘향부터는 종전의 2박 3일로 봉행하던 향사 기간을 1박 2일로 단축하고, 심야에 치르던 것을 오전 11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상유사와 하유사는 향사를 거행하기 3일전에 입재하고, 헌관 및 측관·집례·유생들은 2일전에 입재했었지만, 2009년부터는 모든 집사와 유생들은 향사를 치르기 하루 전의 오전 10시까지 서원에 들어오도록 하고, 정재일(正齋日)의 이른 아침에 알묘례(謁廟禮)를 행하였던 것도 향사 전날의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향사를 거행할 때 서원 정문인 진도문(進道門)의 출입은 복인(服人)이나 예복(禮服)을 갖추지 않으면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원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이 증가한 탓에 통제가 힘들게 되어 향사에 직접 참여하는 유생들만 예복을 갖추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또 복인의 경우에도 서쪽 협문을 사용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서원의 묘우(廟宇)인 상덕사나 강당인 전교당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동서로 갈라진 계단 가운데 서쪽계단은 존빈(尊賓) 혹은 지비자(至卑者)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 유생들은 동쪽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도록 정해져 있다. 존빈이란 나라에서 파견된 치제관(致祭官)이나 수령방백(守令方伯) 등을 말하고, 지비자는 고직(庫直: 관리인 또는 서원노비)을 일컫는다. 이처럼 신분이 극명하게 대치되는 이들에게 같은 서쪽계단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향사 봉행에서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지비자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즉, 유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동쪽계단보다는 서쪽계단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2-5-1. 알묘례(謁廟禮)

알묘(謁廟)란 성균관·향교·서원·가묘 등에 모셔진 선현의 위패(혹은 신주)를 참배하는 의식을 말한다.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일반 내방객이 사당을 참배하는 일반알묘와 서원의 유사(별유사 3명, 재유사 5명)가 매월 삭일(초하루)과 망일(보름)에 분향·참배하는 향알(香謁), 매년 정월 초5일에 유사(別유사 3명, 재유사 5명)가 함께 알묘하는 정알(正謁), 또 춘추 향사 전날에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참배하는 정재일(正齋日) 알묘례(謁廟禮) 등이 있다.

알묘례를 거행할 때는 관리인이 사당[상덕사] 문을 열고 배석(拜席)을 마련해두며, 그런 다음 향로와 향합을 사당 문 밖의 처마 끝에 내어 놓는다. 그리고 전교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예복을 미리 꺼내 놓는다. 이어 알묘를 행할 사람은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리[草席]에 남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1) 일반알묘(一般謁廟)

알묘를 행할 사람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남향으로 앉으면 관리인이 전교당 축대에 서서 “알묘 아뢰오”라고 외친다. 그러면 알묘자는 앉은 채로 읊(揖)을 하고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서 상덕사 뜰에 마련된 절하는 자리[배석(拜席)]로 간다. 다시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는 예[분향례(焚香禮)]를 올리고, 밖으로 나와서 절하는 자리에서 절을 두 번 한다. 만약 알묘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창홀(唱笏)을 하여 질서정연하게 알묘를 하도록 한다.

알묘례를 마치면 전교당으로 다시 와서 자리에 꿇어앉아 관리인이 “파좌(罷座) 아리오”라고 외치면 앉은 채로 마주 보며 읊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원록(尋院錄)에 기록을 하고 예복을 벗어서 반납한다.



알묘례 파좌(罷座)

2) 향알(香謁)

원래 유사(별유사 3명, 재유사 5명)는 매월 삭일과 망일 전날이 되면 서원으로 들어와서 재계(齋戒)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의관을 정제하고 분향하는데, 이를 '삭망분향례(朔望焚香禮)'라고 한다. 만약 삭망분향례를 거행할 때 상유사(上有司)가 참석했으면 상유사가 헌관을 맡는다. 또 재유사 가운데 한 명만 참석했을 경우에는 관리인과 함께 거행한다.



전교당 좌정

3) 정알(正謁)

3음력 정월 초5일에 행하는 의식이다. 예전에는 4일 무렵에 3임(任), 곧 상유사·재유사(5명)·별유사(3명)를 비롯하여 일반 유생들이 서원으로 들어와서 5일 아침에 예를 행했으나 2009년 춘향부터는 음력 정월 초5일 오전 10시까지 예복을 갖춰 입고 서원으로 들어와서 간단히 재계하고는 오전 11시 무렵 거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과 달리 지금도 여전히 전날 입재를 시행하고 있다.



입재(入齋)



알묘謁廟를 위해 사당으로 올라가는 유사와 유생



삼상향(三上香)



창홀(唱笏)

2-5-2. 향사례(享祀禮)

도산서원 향사는 봄과 가을의 중정일에 행한다. 만약 중정일이 국기일(國忌日)에 해당되거나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에는 하정일(下丁日)에 행하고, 이때에도 적합한 날이 없으면 해일(亥日)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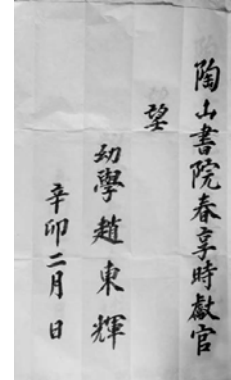
1) 차제(差祭)

차제란 제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향사를 봉행하기 전 상유사(원장)와 하유사(재유사와 별유사) 등은 전교당에 모여서 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 및 축관과 집례(執禮)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

널 망기를 작성한다. 초헌관은 원장이 맡기 때문에 별도의 망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헌관 및 축관과 집례에게 유고가 있게 되면 입재일 이전에 사유를 적은 단자(單子)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그 외의 집사들의 경우에는 망기가 아니라 회문(回文)을 써서 보낸다.

※ 망기를 작성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기 용지는 한지 전지로 하되 육절六切로 접어서 사용한다.
- ‘망望’ 자는 서원 명칭보다 한자一字 아래에 오도록 쓰되 ‘망’ 자 밑에는 ‘왕王’자를 쓰지 않고, ‘말는다’라는 뜻을 가진 ‘임포’자를 쓴다.
- 유학幼學의 ‘유幼’ 자와 간지는 망자보다 한 글자 아래에 쓴다.
- ‘유幼’ 자의 끝부분 ‘역力’자도 위로 높이 올라가는 부분을 잘라서 ‘도刀’자로 쓰고, ‘학學’자의 속 부분을 ‘생지사효生支死爻’라고 해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효爻’자를 ‘지支’자로 바꾸어 쓴다. 또 헌관의 망기에 적는 ‘헌獻’자 역시 오른쪽 부분의 ‘견犬’자를 ‘대大’자로 쓴다.
- 원인院印은 월과 날짜의 가운데 찍는다. 인육印肉은 묵색墨色으로 하고, 모로 세워서 날인捺印한다.



망기



망기 서식

2) 재계(齋戒)

재계란 향사를 거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향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계에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가 있는데, 산재는 치재의 약식(略式)으로, 행동 등으로 근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욕재계하고 조상(弔喪)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반면 치재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오직 제향에 관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유사와 하유사는 향사를 거행하기 3일전에 입재하고, 헌관 및 축관·집례·유생들은 2일전에 입재하였다. 2009년 춘향부터는 향사를 오전 11시에 봉행하게 됨에 따라 모든 집사와 유생들은 향사를 치르기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서원으로 들어오도록 변경되었다.

3) 정재일(正齋日) 알묘례(謁廟禮)

예전에는 망기와 회문을 전해 받은 헌관 이하의 집사들은 향사 사흘 전에 입재(入齋)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향사가 끝날 때까지 서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내에 머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예전에는 정재일(正齋日) 이른 아침에 알묘례를 행했으나, 2009년 춘향부터는 오전 11시 무렵으로 바뀌었다.



입재



관세(盥洗)



삼상향



재배

4) 척기례(滌器禮)

알묘례가 끝난 후 재유사들이 전사청으로 가서 제기의 숫자를 맞춰보고, 제대로 씻었는지를 살피는 척기의식(滌器儀式)을 거행한다. 제기는 보(簠)·궤(簋)·변(鑊)·사두(四豆)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와 궤는 벼(稻)와 기장(黍)을 담는 그릇이고, 변은 대나무로 만든 굽이 있는 제기로 과일이나 포 등과 같은 마른 제물을 담고, 두는 굽이 있는 목기(木器)로 김치 또는 식혜 등의 젖은 제물을 담을 때 사용한다. 그 외 술항아리와 술잔, 촛대 등이 사용된다.



제기(祭器) 및 상태확인

5) 분정례(分定禮)

분정례란 향사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제관을 선출하는 의식이다. 이를 위해 알묘례를 마친 헌관 이하 모든 유생들은 전교당으로 이동하여 이미 천거된 4명의 헌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 축관, 집례 이외의 나머지 집사를 선정한다.

6) 생간품(牲看品)

분정례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향사에 사용할 제수(祭需)를 검사하는 의식을 치른다. 이를 생간품(牲看品)이라고 한다.



분정례(分定禮)



생간품(牲看品)

7) 봉준(封樽)

생간품을 마치면 재유사들은 전사청으로 가서 제주(祭酒)를 검사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관리인이 병에 든 술(청주)을 향아리[준(樽)]로 옮겨 담는데, 원위의 향아리에는 5두(斗)를 담고 종향위에는 3두를 담는다.

8) 석미(浙米)

석미란 제사에 쓸 쌀과 기장을 씻는 의식이다.



봉준



석미(浙米)

9) 습례(習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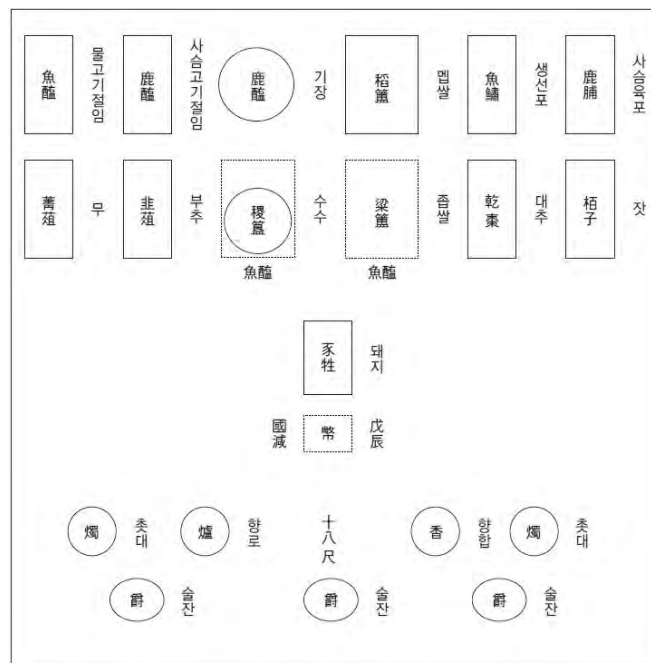
습례란 향사를 거행함에 있어 필요한 범절이나 절차 및 순서 등을 미리 익혀두는 것으로 미연에 실수를 방지하고, 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실시된다. 습례의 지도는 향사 경험이 풍부한 구관유사가 담당한다.

10) 진설(陳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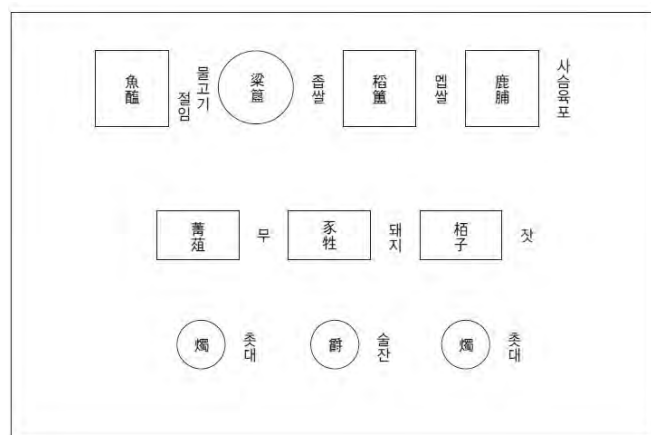
제물은 홀기에 적혀 있는 물목에 근거하여 준비한다.

제수 물목(祭需物目)

어해(魚醢: 멸치 젓갈), 녹해(鹿醢: 쇠고기 육회), 서궐(黍簋: 기장쌀), 도보(稻簋: 멍쌀), 어수(魚鱸: 문어 포), 녹포(鹿脯: 쇠고기 육포), 청저(菁菹: 무), 구저(韭菹: 미나리), 건조(乾棗: 말린 대추), 백자(栢子: 잣), 시생(豕牲: 돼지), 축(燭: 양초), 향(香: 단향단향), 제주(祭酒: 청주)



원위(元位/退陶李先)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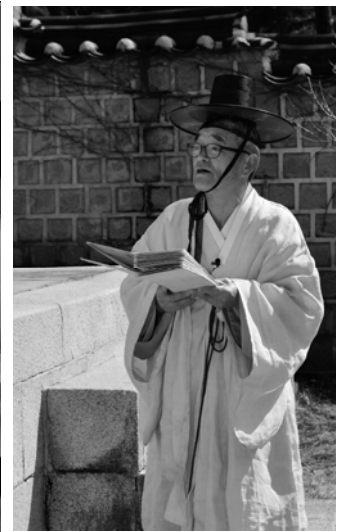
종향위(從享位 月川 趙公) 진설도

11) 향사례(享祀禮)

원래 향사례는 축시(丑時)[오전1시-3시]에 거행되었으나, 2009년 춘향부터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



향사례(享祀禮)



창홀

12) 제공사(祭公事)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전교당 대청에 모인다. 전작이 축관 앞으로 가서 읊을 하고, 조사(曹司)는 집례(執禮), 찬자(贊者)에게 향사 봉행에서 실수나 예의에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를 묻는다. 집례가 별다른 실수가 없이 무난했으니 물러나라고 하면 이것으로 마치고,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서로 꾸짖고 질책한다.

13) 음복례(飮福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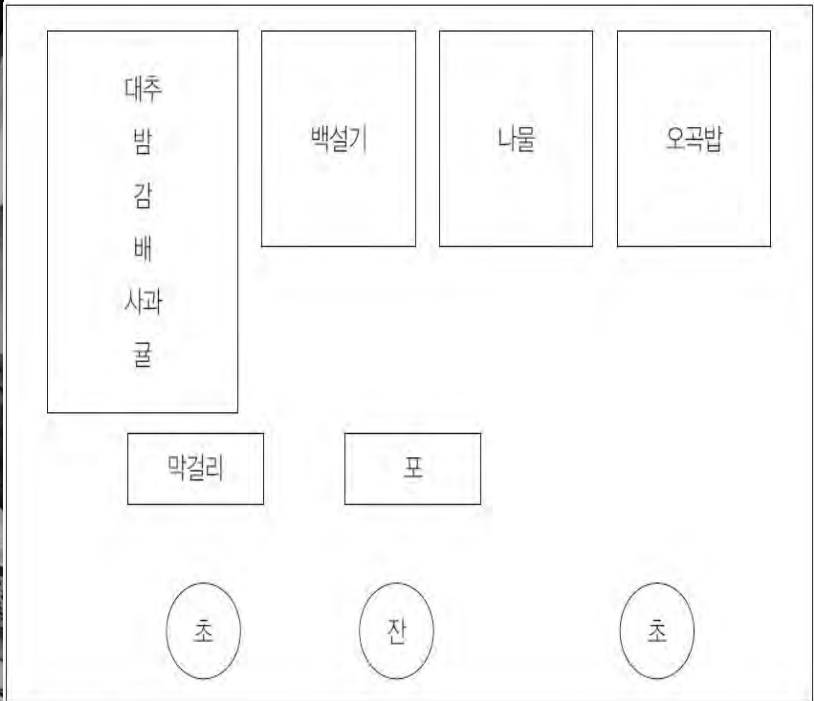
제공사가 끝나면 전교당 대청에서 네 명의 헌관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앉고, 나머지 집사들은 남북으로 나뉘어 앉는다. 재유사 가운데 한 사람이 헌관들 앞으로 나와서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백록동규(白鹿洞規)」·「이자향립약조(李子鄉立約條)」·「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을 낭독한다.

2-5-3. 고고사(庫告祀)

도산서원에서는 음력 정월 14일 해시(亥時 : 밤 9시-11시)에 고직사(庫直舍)의 제기고(祭器庫)에서 관리인이 고사(告祀)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를 고고사(庫告祀)라고 한다. 이는 유사를 비롯하여 관리인 가족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소지(燒紙)



고고사(庫告祀) 진설도



고고사 진설

2-6. 관련문헌

2-6-1. 관찬기록

1) 도산서원 관련 관찬기록

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명종실록』 권32, 21년(1566) 3월 16일

이황은 ... 전년에 돌아가기를 빌어 벼슬을 내놓고 본현 도산에 터를 잡아 그 안에 정사를 지은 뒤 속인을 사절하고 날마다 성리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므로, 온 조야가 다 그 포부의 발휘를 갈망하였다. ...

史臣曰 滉學…前歲懇乞方解 卜地於本縣之陶山 築精舍其中 屏謝俗人, 日以研窮性理爲事 朝野想望 庶幾展布 …

■ 『명종실록』 권32, 21년(1566) 5월 22일

전교하기를 ...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이황이 살고 있는 도산(陶山)의 경치를 그려서 올리도록 하였다. 항상 이황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았으니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얼마나 하겠는가. ...

傳曰…密令畫工 貌寫滉所居陶山形勝以進 眷注之心 常在於滉 故模其所居之地 作圖以覽 其好賢之誠 爲如何哉…

■ 『선조실록』 권10, 9년(1576) 4월 9일

경상 감사가, 고(故) 처사(處士) 조식(曹植)이 평소 학문을 닦던 곳에 서원을 세우고 도산(陶山)의 예에 따라 사액(賜額)하여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서장을 올렸다.

慶尙監司書狀 故處士曹植, 平日藏修之地, 創立書院, 請依陶山例賜額事。

■ 『인조실록』 권13, 4년(1626) 윤6월 6일

좌부승지 이민구(李敏求)가 아뢰기를, “이홍중(李弘重)이 앞장서서 통문(通文)을 돌려 도주(道主)를 배척한 정상이 지극히 무리하니, 중한 법으로 치죄한다 하더라도 진정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다만 시골의 우망(愚妄)한 사람이지만 일단 유자(儒者)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처럼 무더운 때에 혹시 상하는 일이 있거나 앓을까 염려됩니다. 그의 원정(元情)을 살펴보면 대개는 이미 사실대로 승복하였으

니, 법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말에 소견이 없지는 않다. 다만 그의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예안(禮安)의 유생 이유도(李有道)는 고 관찰사 이해(李滌)의 손자이고 선현(先賢) 이황(李滉)의 종손(從孫)으로서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원장으로 있는 자이다. 경상 감사 원탁(元鐸)이 그의 사송(詞訟) 가운데 도주(道主)를 모욕한 말이 있다고 유도를 가두고 형신(刑訊)하다가 죽게 하였다. 이에 그의 아들 이봉(李崱)과 이암(李巖)이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편, 친척인 이홍중에게 부탁하기를 ‘망부(亡父)가 서원의 장으로서 그의 죄가 아닌데도 죽기까지 하였다. 어찌 여러 고을의 선비들에게 통고하여 한 도의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이홍중이 원중(院中)의 제생(諸生)과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방백을 비방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탁이 ‘영남의 사습(士習)이 흉악하여 멋대로 왕인(王人)을 내쫓으려 한다.’고 치계(馳啓)하니, 조정이 수창(首倡)한 유생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홍중이 마침내 붙잡혀와 3차의 형신(刑訊)을 받았다. 상이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상 일체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석방하였다. 원탁 역시 이 사건으로 대간의 비판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어 다른 일로 파면되어 돌아갔다.

左副承旨李敏求啓曰：“李弘重首倡通文，斥其道主之狀，極爲無理。雖加重法，固其自取，但遠外愚妄之人，旣以儒爲名，當此盛暑，慮或致傷，而觀其元情，概已承實，似當據法論斷。” 答曰：“爾言不無所見，但其所犯甚重，不可輕議。” 禮安儒生李有道，故觀察使李滌之孫，先賢李滉之從孫，而爲陶山書院院長者也。慶尙監司元鐸，以詞訟間有凌侮道主之言，囚有道刑訊，仍以致斃。其子崱、巖，擊錚訴冤，且囑其族人李弘重曰：“亡父以書院之長，死非其罪。何不通告于列邑多士，使一道之人，皆知其冤死也？” 弘重遂與院中諸生，通文列邑，語侵方伯。鐸於是，以嶺南士習橫逆，擅逐王人，馳啓朝廷，命捕其首倡儒生。弘重遂被拿，受刑三次。上以國家待儒之道，不可徒用一切之法，竟赦之。鐸亦以此被臺評，未幾以他事，罷歸。

■ 『인조실록』 권23, 8년(1630) 9월 19일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자 검토관 최유해(崔有海)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등주(登州)에 갔을 때 《의례(儀禮)》 경전(經傳)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는데, 모두들 북경의 서점(書店)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1건(件)이 있는데 안동(安東)에 있는 활자(活字)를 도봉 서원(道峯書院)에다 저장해 놓았다고 하니, 교서 제조(敎書提調) 정경세(鄭經世) 등으로 하여금 헤아려 인출하게 하소서.”

上命召對，講《書傳》。講訖，檢討官崔有海進曰：“臣曾往登州，求《儀禮》經傳而不得。皆言北京書肆則有之云矣。我國則只於陶山書院有一件，而安東有活字，來藏于道峯書院云。請令校書提調鄭經世等商量印出。” 上許之。

■ 『인조실록』 권25, 9년(1631) 9월 4일

진사 유문서(柳文瑞) 등이 상소하여 용인현(龍仁縣) 심곡리(深谷里)의 조광조(趙光祖) 서원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 이황(李滉)의 서원은 이산(伊山)·도산(陶山)·여강(廬江)의 세 곳에 있는데 여기도 모두 사액하였습니다. ... 상이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進士柳文瑞等上疏，以龍仁縣深谷里趙光祖書院，請賜額 該曹啓曰 … 李滉書院，有伊山、陶山、廬江三處，而亦皆賜額 … 上亦不許

■ 『영조실록』 권36, 9년(1733) 11월 19일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예기(禮記)》를 강(講)하고,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제사하라고 명하였다. 한림(翰林) 김한철(金漢喆)이 말하기를, “신이 사책(史冊)을 포쇄(曝曬)하라는 명을 받들고 영남(嶺南)에 갔었는데,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남긴 교화(敎化)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동(兒童)·주졸(走卒)들도 모두 노선생(老先生)이라고 칭하고, 척자편언(隻字片言)이라도 사람들이 모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에게는 치제했는데, 유독 문순공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므로 영남 사람들이 자못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오원(吳瑗)이 말하기를, “도산(陶山)은 곧 선정(先正)이 살았던 곳인데 명묘(明廟)께서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까지 하셨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강(講)하다가 감상(感想)이 일어나 문성공에 치제하게 되었다. 지금 듣건대, 문순공의 유화(遺化)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하니, 내가 실로 흠탄(欽歎)한다. 특별히 근신(近臣)을 보내어 도산 서원과 예안(禮安)의 고택(故宅)에 치제하게 하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라.” 하였다.

김한철이 말하기를, “안동과 예안의 인사(人士)들이 선정의 언행을 널리 수집하여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이라 이름했으니, 마땅히 한 번 예람(睿覽)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 역시 본도로 하여금 인행(印行)해 올리라고 하였다.

行晝講，講《禮記》。命致祭于《陶山書院》。翰林金漢喆曰：“臣奉曬史之命，往嶺南，先正臣文純公李滉遺化，至今猶存。兒童、走卒皆稱老先生，隻字片言，人皆寶藏。向者致祭於文成公李珥，而獨不及文純公，嶺人頗抑鬱矣。”侍讀官吳瑗曰：“陶山卽先正棲息之所，明廟至今晝進。”上曰：“頃講《聖學輯要》，興感致祭於文成矣。今聞文純遺化至今不泯，予實欽歎。特遣近臣，致祭陶山書院及禮安故宅，令本道晝進。”漢喆曰：“安東、禮安人士，哀集先正言行，名曰：‘《退陶言行錄》，宜一經睿覽矣。’上亦令本道印進。

■ 『영조실록』 권36, 9년(1733) 12월 26일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시형(金始炯)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영남(嶺南) 일로(一路) 70주(州)에 독서하고 자호(自好)하는 선비로 암혈(巖穴)에서 말라 죽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 수 없

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예(技藝)를 파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병폐(屏廢)된 것을 유감으로 여기지 않으니, 대개 그 풍속이 옛부터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특별히 안렴(按廉)하는 신하에게 유시(諭示)하시어 표이(表異)한 선비를 존문(存問)하게 한 것은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조(銓曹)에서 수용(收用)한 것은 성이홍(成爾鴻) 한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김성택(金聖澤)·이만(李縉)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끝내 검의(檢擬)한 일이 없어 용사(用捨)하는 곳에서 능히 봉행(奉行)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전조(銓曹)에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서원(書院)에 근시(近侍)를 보내 치제(致祭)하게까지 하시고, 또 도산(陶山)의 고택(古宅)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라는 명(命)이 있었는데, 윤음(綸音)이 한 번 전파되자 사림(士林)들이 흥기(興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손(奉祀孫)은 파관(罷官)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가난하여 제사를 받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하였다.

비답하기를, “이만은 또 제직(除職)하였으니 돈독히 권유하여 올려 보낼 것이며, 문순공의 봉사손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하였다.

慶尙監司金始炯上疏，略曰 嶺南一路七十州，讀書自好之士，枯死巖穴者，不知其幾人，而猶以銜鬻爲恥，不以屏廢爲憾，蓋其俗自古然耳。 頃者殿下特諭按廉之臣，訪問表異之士，甚盛舉也，而銓曹之收用，不過成爾鴻一人而止耳。 至於金聖澤、李縉則終無檢擬之事，用舍之地，不能奉行如此，宜申飭銓曹焉。 先正臣文純公李滉書院，至遣近侍致祭，又有陶山故宅圖進之命，綸音一播，士林興起，而奉祀之孫，罷官多年，貧不能奉祭。 唯殿下留意焉。 批曰：“李縉又爲除職，敦勸上送。 文純公奉祀孫，令該曹調用。”

■ 『영조실록』 권63, 22년(1746) 6월 26일

승지와 유신을 불러서 《시경》의 이남(二南)을 강하게 하였다. 시독관 윤광소(尹光紹)가 말하기를,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치제하라는 명에 대해 신은 참으로 흠양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지로가(指路歌)는 단지 여항(閭巷) 사이에 서로 전할 뿐이어서 선정(先正)이 지은 시(詩)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니, 조정의 거조를 신중히 하고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도신으로 하여금 찾아 탐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召承旨、儒臣，講《詩》二南。 侍讀官尹光紹曰：“陶山書院致祭之命，臣固欽仰。 而第念指路歌，只是閭巷間相傳而已，猶未的知其爲先正之詩，則朝廷舉措，恐不可不審慎矣。” 上可之，令道臣，採訪以聞。

■ 『영조실록』 권68, 24년(1748) 10월 12일

부수찬 이세사(李世師)가 상소했는데 ... 이에 이세사를 불러들여 준절히 나무라기를, “내가 그대를 체직시켜 축출하지 않겠으니, 그대는 도산서원(陶山書院)으로 잘 돌아가서 글을 읽으라.” 하니, 이세사가 부끄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음날 즉시 정고(呈告)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副修撰李世師上疏，略曰 …… 乃召入世師 切責曰 我不遽逐爾 爾其好歸陶山書院讀書
世師慙懼不知所出 明日 卽呈告還鄉

■ 『영조실록』 권86, 31년(1755) 12월 14일

교리(校理) 이세택(李世澤)이 상소하고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편찬한 《성현도학연원(聖賢道學淵源)》을 올리니, 임금이 포장(褒獎)하여 답하고, 친히 서문(序文)을 지었으며, 《성학십도(聖學十圖)》에도 아울러 서문을 친제(親製)하고, 영남 도신(嶺南道臣)에게 간행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유신(儒臣)을 보내어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치제(致祭)하고, 이세택에게 초모(貂帽)를 내렸으니, 이세택은 이황의 후손이요, 도산(陶山)은 이황의 제향(祭享)을 받드는 곳이다.

校理李世澤上疏，進先正文純公李滉所纂《聖賢道學淵源》，上褒答之，親製序文，竝序《聖學十圖》，命嶺南道臣刊進。遣儒臣致祭陶山書院，賜世澤貂帽，世澤滉之後，陶山，滉之俎豆所也。

■ 『영조실록』 권102, 39년(1763) 8월 25일

임금이 춘방관(春坊官) 이헌묵(李憲默)을 소견하였는데, 그가 선정(先正)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이기 때문이었다. 옥산 서원(玉山書院)의 산수(山水)의 경치가 좋은 것에 대해 묻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도산 서원(陶山書院)의 예(例)에 의거하여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게 하였다.

上召見春坊官李憲默，以先正李彦迪後孫也。問玉山書院溪山之勝，令道臣依陶山書院例，圖畫以進。

■ 『영조실록』 영조대왕행장

전략 ~ 9년 ~ (중략) ~ 11월에 평안 감사(平安監司) 권이진(權以鎭)이 아뢰기를, '압록강을 파수(把守)하는 군졸은 겨울이면 철폐(撤罷)하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 전 감사 송진명(宋眞明)이 성교(聖敎)를 받아 창설하였으나, 얼음 얼고 눈이 내릴 때에 입김으로 언 것을 녹이다가 사람이 상할세라 염려되니, 폐지하소서.' 하자, 왕께서 말씀하기를, '겨울에 얼음이 얼면 바로 파수할 때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례가 아닌데 파수하는 군졸 중에 혹 얼어 죽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길을 여는 것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 폐지하라.' 하셨다. 이때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이 체례(體例)를 다투어 서로 하리(下吏)를 가두었는데, 잘못이 대신에게 있으므로 왕께서 종신을 옳게 여기고 대신을 그르게 여기셨다. 그래서 대신이 정고(呈告)하고 벼슬을 갈아 주기를 바랐는데, 홍문관(弘文館)에서 차자를 올려 조정의 체모를 존중하는 방법에 어그러진다고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하다. 내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를 잘못하였다.' 하고 드디어 종신을 파면하고 대신을 돈면(敦勉)하며 다시 서로 공경하는 의리로 종친부(宗親府)와 조정에 경계하셨다. 곧 예관(禮官)을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보내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치제(致

祭)하고 명하여 도산 서원을 그려 바치게 하셨다. ~ 後略

전략 ~ 九年 ~ (중략) ~ 十一月, 平安監司權以鎮啓: “鴨綠江把守卒, 冬月撤罷古也。 前監司宋眞明承聖教創設, 然氷雪呵凍恐傷人, 請罷之。” 王曰: “冬月氷合, 乃把守之時。 然苟其非古也, 而把守卒或有凍死者, 則是自我開死人之路, 何忍爲也? 其罷之。” 時, 大臣、宗臣爭體例, 胥囚下吏, 而曲實在大臣, 王是宗臣而非大臣。 於是大臣呈告求遞, 弘文館上筭言, 非所以尊朝體也。 王曰: “人孰無過, 改立爲貴。 予於敬大臣失之矣。” 遂罷宗臣, 敦勉大臣, 復以相敬之義, 飭宗府朝廷。 尋遣禮官, 致祭文純公李滉於陶山書院, 命畫陶山書院以進 ~ 후략

■ 『정조실록』 권2, 즉위년(1776) 12월 20일

차대하였다. 예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경주(慶州)유생 이극규(李克奎)가 역적 이도현(李道顯)이 찬술한 책자를 훼손(毀撤)하게 해달라고 상소하여 청하였으므로海道(該道)에 내려 조사하게 하였는데, 《변파록(辨破錄)》은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있으며, 이 《변파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실로 이희성(李希誠)의 조부(祖父) 이준(李浚) 등이 선정신(先正臣) 이항(李滉)을 무함하였기 때문에 온 도내(道內)의 장보(章甫)들이 모두 일어나 쟁변(爭卞)하여 책자로 만든 것이라 합니다. 이희성의 무리가 기필코 이를 훼손시키기 위해 누차 격고(擊鼓)하였으나 끝내 계교가 먹혀들지 않자 이제 역적 이도현(李道顯)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 시기를 이용해서 사실을 날조하고 이극규를 사주하여 이름을 바꾸어 소장을 올린 것이니, 《변파록》을 훼손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이 역적 이도현이 찬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本罪)와 관계가 없다면 책을 불태우고 각판(刻板)을 훼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제 사실을 들어보니 더욱 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次對 ……禮曹判書蔡濟恭啓言 慶州儒生李克奎 疏請毀撤逆顯所撰冊子 下該道按查 則《辨破錄》在陶山書院 而此錄之成 實由於李希誠祖李浚等 侵誣先正臣李滉之故 一道章甫 齊起爭卞 撰成冊子 希誠輩必欲毀去 屢次擊鼓 終不售計 今因賊顯之出 乘時搆捏 噉克奎 換名陳章 《辨破錄》毀之不當 批曰雖是賊顯所撰之書 不干本罪 則不必火其書 毀其板 今聞事實 尤無可論矣…

■ 『정조실록』 권4, 1년(1777) 10월 27일

팔도(八道) 유생(儒生) 윤일(尹鎰) 등이 상소하기를, “고 문정공(文正公) 신(臣) 이재(李穡)는 ... 신들이 반드시 이 땅에다 사우(祠宇)를 세워 신주(神主)를 안치(安置)하려고 함은 그가 생존했을 때에 학문을 강구(講究)하던 곳을 위해서는 도산(陶山)·석담(石潭)·돈암(遯巖)의 전례가 있었고 ...

八道儒生尹鎰等上疏曰 故文正公臣李穡……爲其生時講學之所 則有陶山石潭遯巖之舊例…

■ 『정조실록』 권11, 5년(1781) 4월 23일

하교하기를, “등극한 이후 지금껏 행할 겨를이 없었는데, 내가 높여 사모하고 크게 우러르는 마음에 있어 부끄러운 마음이 실로 깊다. 더구나 고사(故事)에 따라 그 터전[基地]을 그려서 올리라는 명이 있었는 데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와서 거행하는 것은 더더욱 진실로 마땅한 일이다. 경주(慶州)의 옥산 서원(玉山書院)·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제관(祭官)과 사품(祀品)은 연전의 화양 서원(華陽書院)에 치제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

敎曰 御極以後，訖未遑爲，以予尊慕景仰之心，慊愧實深。 況遵故事，有圖上基地之命及今舉行 尤極允當 慶州玉山書院、禮安陶山書院，遣官致祭，祭官祀品，依年前華陽書院致祭時例

■ 『정조실록』 권12, 5년(1781) 7월 5일

하교하기를,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치제한 뒤에 곧 하교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재신(宰臣) 이헌묵(李憲默)의 자급(資級)이 승진된 뒤이겠는가? 역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선정 이황(李滉)의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계에 따라 복직(復職)시켜 조용(調用)하게 하라.

敎曰……陶山書院致祭後 業欲下敎而未果 況於宰臣李憲默陞資之後 亦不可一爲一否 先正李滉奉祀孫 令該曹 隨品復職調用…

■ 『정조실록』 권34, 16년(1792) 3월 2일

명을 받고 영남으로 내려가는 각신(閣臣) 이만수(李晩秀)에게 명하여 송덕전(崇德殿)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송덕전은 바로 신라 시조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우리 세종(世宗)께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매년 봄가을로 향과 축문과 예물을 내려보냈으며 선조(先朝) 무신년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이번 길에 월성(月城)을 지난다고 하니,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 제문은 내가 직접 짓겠다. 또 신라의 여러 왕릉이 이 고을에 있다고 하니, 봉심(奉審)하고 돌아오라.” 하고, 또 옥산(玉山)과 도산(陶山) 두 곳의 서원에도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옥산과 도산은 바로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과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전교하였다.

“정학(正學)을 존송하려면 마땅히 선현을 존송해야 한다. 어제 옥산 서원에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는데, 옥산 서원에 제사를 지내고 도산 서원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지난번 사학(邪學)이 점차 번질 때에 오직 영남의 인사들이 선정(先正)의 학문을 지켜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지도 않았으므로, 그후부터 나의 양모(仰慕)가 더해졌다. 각신 이만수는 명령을 받들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禮安) 고을에 있는 선정 문순공의 서원에 달려가 제사를 지내라. 제문은 지어 내려보내겠다. 선정의 자손들과 이웃 고을 인사들로서 참여할 자는 미리 와서 기다리게 하라. 제사 지내는 날 각신은 전교당(典敎堂)에 앉아서 여러 생도들을 불러 진도문(進道門) 안뜰에 서게 하고 가지고 간 글

제목을 게시하여 각기 글을 짓도록 하고 시험지를 거두어 조정에 돌아오는 날 아뢰도록 하라.”

命嶺南奉命閣臣李晩秀，致祭于崇德殿。教曰：“崇德殿，卽新羅始祖妥靈之所，而我世宗朝立廟祀之，每歲春秋降春祝幣，先朝戊申，立神道碑。今行過月城云，一體致祭。祭文當親撰。且聞新羅諸王陵，在本州，奉審以來。”又命致祭于玉山、陶山兩書院。玉山、陶山，卽文元公李彦迪、文純公李滉俎豆之所也。教曰：“欲尊正學，宜尊先賢。昨有致祭玉山書院之命，而行於玉山，不行於陶山，其可乎哉？向來邪學之漸染也，惟嶠南人士，謹守先正之學，不撓不奪，自是以往，增我曠慕。閣臣李晩秀奉命回路，馳至禮安縣先正文純公書院，致祭。祭文製下。先正子孫及隣邑人士之來參者預，須會待。致祭之日，閣臣坐典教堂，招諸生，立于進道門內庭，以賚去書題揭示，各令應製收券，還朝日以啓。”

■ 『정조실록』 권34, 16년(1792) 4월 4일

각신 이만수(李晩秀)가 영남으로부터 돌아와 영남 유생들이 응제(應製)한 시권을 올리니, 상이 직접 점수를 매기어 강세백(姜世白)과 김희락(金熙洛) 두 사람을 발탁해서 급제를 주었다. 이어서 하고 하였다.

“유학이 번성한 영남 지역이 우리 도(道)를 잘 지켜왔으므로 선정(先正)에 대한 깊은 감회와 선비들에게 가상함을 보이는 뜻에서 특별히 도산 서원(陶山書院)에서 제사 올리는 날 시험을 보아 뽑았으니 어찌 범연한 뜻이겠는가. 또 각신이 조정에 돌아와 아뢴 말을 들으니, 제생들이 근래 더욱 삼가고 경계하여 과장을 열자 문에 들어오는 이가 1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도 천천히 걷고 추창하며 앞을 양보하였고 감히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거듭 제생들을 위해 기쁘게 여겼는데, 시권을 봄에 미처서는 합당하게 지은 자가 근 5천 명이나 되었다. 서북 지역에도 오히려 관리를 보내어 과거를 설행한 예가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각신이 명을 받은 것으로 체모가 시관보다 더욱 중하니, 우수한 등급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마땅히 상례에서 벗어난 논상이 있어야 한다. 합격한 사람들을 본도의 감영에 초치하여 음악을 베풀고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라. 이번 제사 올릴 때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인 일은 책으로 만들어 후세에 전해 보이는 것이 합당하니,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의 예에 따라 본도에서 간행하여 바치고, 도산 서원에서 합격한 유생과 도내의 여러 고을에도 각각 한 부씩 나누어 준 뒤 판본(板本)은 도산 서원에 보관하도록 하라.”

閣臣李晩秀回自嶺南，進嶺儒應製試券，御考擢姜世白、金熙洛二人賜第。仍教曰：“鄒魯之鄉，能守吾道，曠惑於先正，視嘉於多士，特設試取於陶山致祭之日者，意豈泛然，且聞閣臣之還朝奏對，諸生近尤惕勵告戒開場入門，爲萬數而徐趨讓先，莫敢有喧譁者，重爲諸生喜之，及見試券，近半萬多有合作，西北猶有遣官設科之例，況今閣臣銜命，體貌尤有重於試官，則入格優等者，宜有拔例論賞，入格諸人，招致本道監營，設樂厚饋之，今番致祭試士之舉，合有成書，傳示來許，依《瓊林聞喜錄》例，自本道刊印以進，陶山書院入格儒生，道內列邑各給一件，板本藏于陶山。”

■ 『정조실록』 권39, 18년(1794) 1월 24일

교서관이 활자(活字)로 찍은 삼경과 사서를 바쳤다. 이 책들은 계축년 초여름에 처음으로 인쇄를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쇄가 끝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들을 활자로 인쇄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있는 일이다.” 하고는, 명하여 인쇄를 감독한 각신 서영보(徐榮輔)에게 말을 하사하고 내각과 외각(外閣)의 신하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주도록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서울과 지방에 걸쳐 규장각·홍문관·사고(史庫)·성균관과 도산 서원(陶山書院)·석담 서원(石潭書院) 및 대로사(大老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校書館進活印三經四書 是書始印於癸丑初夏, 至是工訖。 教曰: “此本活印, 卽國朝三有之舉也。” 命監董閣臣徐榮輔錫馬, 內外閣官等施賞有差。 仍命分藏于京外閣館、史庫、太學、陶山·石潭兩書院及大老祠

■ 『정조실록』 권39, 18년(1794) 3월 22일

이 앞서 각신 이만수(李晩秀)가 영남 지방에 왕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편지 모음과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의 《대학속혹문(大學續或問)》을 가져다 바쳤었다.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 권수(卷首)에 서문을 쓰고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소장하게 하였다.

先是, 閣臣李晩秀奉使嶺南, 取文純公李滉手簡、文元公李彦迪《大學續或問》以進。 至是, 上題其卷首, 命藏于陶山、玉山兩書院。

■ 『정조실록』 정조대왕행장

(전략) ~ 15년 ~ (중략) ~ 묘당(廟堂)과 각도에 명하여 경(經)에 밝고 행실이 올바른 선비들을 각기 천거하도록 하였으며, 또 명(明)나라 말 청(淸)나라 초기에 유행했던 패관 소설[稗官小品] 종류를 단속하고, 연경에 가서 서적 구입을 못하도록 금법을 거듭 엄히 했다. 그리고 영남 선비들이 사학에 물들지 않은 것은 바로 선정(先正)들의 유풍(遺風) 때문이라 하여 옥산(玉山)·도산(陶山) 등 서원(書院)에 제를 내리기도 하였다. ~ (후략)

(전략) ~ 十五年 ~ (중략) ~ 命廟堂及諸道, 各舉經明行修之士, 又飭明末淸初稗官小品之學, 申嚴燕行購書之禁。 以嶺土人士, 獨不染邪學, 卽先正遺風, 賜祭玉山、陶山書院。 ~ (후략)

■ 『헌종실록』 권6, 5년(1839) 11월 10일

...우의정(右議政)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찬진(撰進)하였을 때 정학(正學)을 밝힘으로써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은 것은 마치 중국이 융성하면 오랑캐가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원기(元氣)가 충실하면 질병(疾病)이 침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현(先賢)을 포장(表彰)하여 인사(人士)를 권면(勸勉)하는 방도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이러한 때의 선무(先務)로 삼아야 합니다. 각도(各道)의 서원(書院) 가운데 ...영남(嶺南)의 옥산(玉山)·도산(陶山) ...일례로 치제(致祭)하는 은전(恩典)이 있게 되면, 유학(儒學)을 존송하는 정치를 더하고 도덕(道德)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시행하도록 하라.”하였다.

右議政趙寅永啓言 臣於向者斥邪綸音撰進時, 以明正學爲闢異端之本者, 此如中州盛則戎羯不敢侮, 元氣實則疾疢不能侵也 至於表彰先賢 風勵人士之方 實爲此時之先務 各道書院中… 嶺南之玉山陶山…今若有一例侑典 則足可補崇儒之治 示尚德之義 ……大王大妃 敎以…依此爲之

■ 『고종실록』 권8, 8년(1871) 3월 20일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京畿)의 개성(開城) 송양 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 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 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 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 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 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 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 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忠淸道)의 연산(連山) 돈암 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 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의 태인(泰仁) 무성 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 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의 경주(慶州) 서악 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 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 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 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 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 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 소수 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 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 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 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의 영월(寧越) 창절 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 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의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 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 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의 북청(北靑) 노덕 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의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

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禮曹以“書院疊享毀撤事，謹依兩度下教，臣秉昌進詣大院君前稟議，則以爲‘聖廟東西廡配食諸賢及忠節、大義卓然炳烺，實合百歲崇奉之四十七院外，竝爲撤享撤額’之意，奉承教意，已賜額常存處，四十七院，謹茲別單書入，待啓下，行會各道”啓。【京畿：開城崇陽書院、龍仁深谷書院、坡州坡山書院、驪州江漢祠、江華忠烈祠、廣州顯節祠、金浦牛渚書院、抱川龍淵書院、果川四忠書院、陽城德峰書院、果川鷺江書院、高陽紀功祠。忠清道：連山遯巖書院、鴻山彰烈祠、清州表忠祠、魯城魯岡書院、忠州忠烈祠。全羅道：泰仁武城書院、光州褒忠祠、長城筆巖書院、慶尙道：慶州西嶽書院、善山金烏書院、咸陽藍溪書院、禮安陶山書院、尙州玉洞書院、安東屏山書院、順興紹修書院、玄風道峰書院、慶州、玉山書院、尙州興巖書院、東萊忠烈祠、晉州彰烈祠、固城忠烈祠、居昌褒忠祠。江原道：寧越彰節書院、鐵原褒忠祠、金化忠烈書院。黃海道：海州清聖廟、白川文會書院、長淵鳳陽書院。咸鏡道：北青老德書院。平安道：永柔三忠祠、安州忠愍祠、寧邊酬忠祠、平壤武烈祠、定州表節祠。】

■ 『고종실록』 권22, 22년(1885) 6월 9일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의 유생(儒生) 김진우(金晉祐)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작년 가을 경주(慶州) 유생인 진사(進士) 이능모(李能模)가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한 것과 관련하여 내린 비지(批旨)에서,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신(道臣) 조강하(趙康夏)가 성상의 비지(批旨)를 받들고 열읍(列邑)에 감결(減結)하여 신칙하기를, ‘내직(內職)으로는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지내고 외직(外職)으로는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지내는 사람이 연이으며 심지어 종묘(宗廟)의 제사에는 모두 다 축사(祝司)의 관리로 추천되고 문묘(文廟)의 제사에는 다같이 헌관(獻官)과 집사(執事) 반열에 참가하니 조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성균관(成均館)에서도 두루 통한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도(慶尙道) 한 지역에서만 건문이 막히고 제한하는 데에 빠져서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직임을 주지 않고 조상의 제사에서 배척하면서「신유(新儒)와 구유(舊儒)의 차이는 백세(百世)를 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을 어떻게 감히 조금이라도 대양(對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치로는 유임(儒任)을 통행(通行)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혹시 구유(舊遊)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짓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馳報)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처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은 임금의 명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윤리를 무시하고 상도(常道)를 해치는 변고가 이를 계기로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참의(前參議) 이만도(李晩燾)와 유학(幼學) 이만응(李晩鷹)은 임금의 명을 거역할 계책을 제창하고 겸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말을 마구 하였습니다. 여러 이씨(李氏)들을 서원 뜰에 많이 모아놓고 그 서자(庶子) 족속의 항렬(行列)이 높은 자 몇 사람을 잡아다가 뜰 아래에 결박하여 꿇어앉히고 장(杖)을 치고 태(笞)를 치며 노예처럼 취급하고는 ‘서자(庶子) 부류를 허락하지 말라.[勿許庶類]’라는 네글자의 글을 크게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읍(本邑)의 현감(縣監) 이학연(李鶴淵)은 조정의 명령을 거행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지를 받드는 신유(新儒)들을 잡아들이고 형리(刑吏)를 시켜 ‘조령(朝令)’이라는 두 글자를 먹으로 지워버리게 하고는 형장을 세 차례 엄하게 쳐서 몇 달 동안 단단히 가두어 놓고 있으니, 아! 통분할 일입니다.

교화에 저항하고 임금의 명을 거역한 무리들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이 무리들처럼 군명(君命)을 어기고 기강을 문란시키는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잘 살펴서 헤아려보고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명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특별히 엄한 교지(教旨)를 내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향교·서원·향당(鄉黨)의 여러 직임을 속히 통행(通行)시켜서 사람 속에 낄 수 있게 하고 전하의 혜택을 영원히 칭송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만약 상소의 내용과 같다면 악랄한 습성이 놀랄 만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라.” 하였다.

慶尙道安東儒生金晉祐等疏略: “昨秋慶州儒生進士臣李能模之鳴冤也, 批旨若曰: ‘宜有疏鬱之政, 令道臣詳查措處。’ 道臣趙康夏奉承聖旨, 甘飭列邑曰: ‘內而清顯歷敷, 外而相鉞相望, 以至宗廟之享, 竝擬祝司之任, 太學之祀, 同參獻執之列。 無間於朝著, 流通於儒宮。 而夫何嶠南一域, 蔽於見聞, 泥於防限, 校、院之任, 焉而不與之, 祖先之廟, 焉而擯斥之? 名之曰新舊, 百世而不改, 使斯人含冤齎鬱, 適足干和。 一哉王言, 曷敢不對揚萬一? 而措處疏鬱, 莫先於儒任之通行。 如或有稱以舊儒, 襲謬行闇之弊, 指名馳報。’ 以爲別般措處之意嚴飭, 而禮安之陶山, 非但不有君命, 蔑倫、敗常之變, 因此層生。 前參議臣李晩燾、幼學臣李晩鷹, 倡爲方命之計, 兼售逞私之說, 大會諸李於院庭, 捉致其庶族之行尊者幾人, 縛跪庭下, 杖之、笞之, 視同奴隸, 大書勿許庶類四字, 揭付壁上。 本邑縣監李鶴淵, 不惟朝令之不思奉行, 乃反捉致奉旨之新儒, 使刑吏墨削朝令二字, 嚴刑三次, 牢囚數月。 噫嘻! 痛矣。 梗化、方命之徒, 從古何限, 而豈有如此輩之違越君命、壞亂人紀者乎? 伏願殿下俯垂鑑諒, 亟令王府, 以正其梗逆成命之罪, 特下嚴旨行會各道, 校院、鄉黨之諸任, 斯速通行, 獲參人類歌詠聖澤, 千萬至祝。” 批曰: “苟如疏辭, 悖習可駭。 令道臣一一詳查登聞。”

■ 『고종실록』 권23, 23년(1886) 12월 8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를 보니,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에서 친구 유생(新舊儒生)들이 소동을 일으킨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정 관리는 이미 벼슬을 열어주고 유원(儒阮)의 직임은 유독 막혀 있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었

는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을 분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은택을 받아서 덕화를 베푸는 처지에 있으면서 어찌 우매함을 깨우쳐서 잘 인도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해당 지방 관리에게 신칙하여 각기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도모하여 잘 조정함으로써 다시는 감히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참의(前參議) 이만도(李晩燾)가 일을 이끌고 가지 않았고, 전 현감(前縣監) 이학연(李鶴淵)에게 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도사(道査)가 지적(指的)하였으니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유생들은 모두 감사로 하여금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卽見慶尙監司李鎬俊狀啓，則‘禮安陶山書院新舊儒作鬧顛末，査覈登聞，請令廟堂稟處矣。’ 朝廷之官，旣許疏通，儒院之任，而獨持枳塞，抱冤齎菀，安得不然？是非、得失，不辨可知。 其在承流宣化之地，豈無牖迷導和之道乎？另飭該地方官，俾各革舊圖新，善爲調停，更無敢推上號籲。 前參議李晩燾之不爲倡事，前縣監李鶴淵之不可論罪，道査指的，自在勿論。 其餘諸儒，竝令道臣酌量處之何如？” 允之。

■ 『고종실록』 권41, 38년(1901) 12월 31일(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가 아뢰기를,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유인(李裕寅)의 보고서를 보니,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있던 퇴계(退溪) 선생의 위판(位版)을 도적맞았습니다. 이런 변고는 만고에 없는 것이므로 극히 놀라고 당황하여 즉시 달려가서 살펴보고서 우선 원임(院任)과 원직(院直)을 잡아 가두라는 내용으로 해당 군(郡)에 훈령으로 신칙하였으며, 범인을 염탐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기찰(讞察)하는 포교(捕校)를 특별히 파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사액(賜額)한 서원에서 이런 도적질의 변고가 생긴 것은 더없이 놀라운 일이니 변고를 일으킨 죄인은 체포한 다음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며 위판은 즉시 다시 만들어 날을 받아 봉안한 뒤에 그 군에서 위안제를 설행하고 옛 위판은 기어이 찾아내어 깨끗한 곳에 묻으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三十一日。 掌禮院卿李正魯奏：“卽接慶尙北道觀察使李裕寅報告書，則以爲‘禮安陶山書院退溪先生位版，遭偷變。 今此之變，萬古所無，驚惶之極，卽以馳往看審，爲先院任及院直，捉囚之意，訓飭該郡，而該犯之詞捉，另派讞校。’ 云矣。 朝家賜額之院，有此偷去之變，極爲驚駭。 作變罪人，待捉得嚴覈處之，位版則卽爲改造，擇日奉安後，自本郡設行慰安祭，舊位版期於搜得，淨處理安之意，竝以分付何如？” 允之。

②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숙종 2년(1676) 11월 10일
- 숙종 2년(1676) 11월 13일
- 영조 8년(1732) 2월 17일
- 영조 9년(1733) 11월 19일

- 영조 9년(1733) 11월 22일 2건
- 영조 9년(1733) 11월 23일
- 영조 9년(1733) 11월 27일
- 영조 9년(1733) 12월 3일
- 영조 9년(1733) 12월 10일
- 영조 10년(1734) 1월 5일
- 영조 10년(1734) 11월 29일
- 영조 12년(1736) 5월 27일
- 영조 22년(1746) 6월 24일 2건
- 영조 23년(1747) 11월 25일
- 영조 24년(1748) 10월 12일
- 영조 30년(1754) 2월 30일
- 영조 30년(1754) 6월 14일
- 영조 32년(1756) 6월 13일
- 영조 36년(1760) 2월 30일
- 영조 36년(1760) 11월 9일
- 영조 39년(1763) 8월 25일
- 영조 44년(1768) 2월 1일
- 정조 즉위년(1776) 9월 26일
- 정조 즉위년(1776) 10월 21일
- 정조 즉위년(1776) 12월 20일
- 정조 원년(1777) 10월 27일
- 정조 3년(1779) 3월 14일
- 정조 3년(1779) 8월 30일
- 정조 5년(1781) 4월 23일
- 정조 5년(1781) 5월 5일 2건
- 정조 5년(1781) 윤5월 6일
- 정조 5년(1781) 7월 6일
- 정조 16년(1792) 3월 3일
- 정조 16년(1792) 4월 5일
- 정조 18년(1794) 3월 21일
- 순조 원년(1801) 3월 11일
- 순조 2년(1802) 1월 19일
- 순조 7년(1807) 3월 29일
- 순조 7년(1807) 4월 17일
- 순조 8년(1808) 4월 10일
- 순조 9년(1809) 4월 10일
- 순조 13년(1813) 5월 22일

- 순조 16년(1816) 8월 20일
- 순조 16년(1816) 9월 8일
- 순조 19년(1819) 1월 11일
- 순조 19년(1819) 3월 16일
- 순조 19년(1819) 4월 28일
- 순조 20년(1820) 2월 11일
- 순조 20년(1820) 11월 10일
- 순조 23년(1823) 12월 12일
- 순조 32년(1832) 8월 20일
- 헌종 2년(1836) 6월 26일
- 헌종 5년(1839) 11월 10일
- 헌종 5년(1839) 12월 3일
- 헌종 6년(1840) 3월 6일
- 헌종 14년(1848) 11월 8일
- 고종 6년(1869) 8월 1일
- 고종 10년(1873) 9월 14일

③ 일성록(日省錄)

- 영조 52년(1776) 12월 20일
- 정조 5년(1781) 4월 23일
- 정조 5년(1781) 5월 5일
- 정조 5년(1781) 윤5월 6일
- 정조 5년(1781) 7월 6일
- 정조 16년(1792) 3월 3일
- 정조 16년(1792) 4월 4일
- 정조 16년(1792) 4월 7일
- 정조 16년(1792) 4월 22일
- 정조 18년(1794) 2월 16일
- 정조 18년(1794) 3월 22일
- 정조 20년(1796) 8월 11일
- 정조 20년(1796) 8월 11일
- 정조 21년(1797) 6월 2일
- 정조 22년(1798) 9월 2일
- 정조 22년(1798) 10월 29일
- 정조 23년(1799) 10월 3일
- 순조 2년(1802) 1월 19일
- 순조 8년(1808) 4월 10일
- 순조 8년(1808) 6월 30일

- 순조 16년(1816) 8월 20일
- 순조 19년(1819) 1월 11일
- 순조 32년(1832) 8월 20일
- 헌종 5년(1839) 11월 10일
- 헌종 5년(1839) 12월 3일
- 헌종 6년(1840) 3월 6일
- 철종 2년(1851) 4월 18일
- 철종 4년(1853) 4월 12일
- 고종 10년(1873) 9월 14일
- 광무 4년(1900) 12월 29일
- 광무 5년(1901) 11월 21일

④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숙종 2년(1676) 11월 13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달 초10일 야대(夜對)할 때에 참찬관(參贊官) 권유(勸愈)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영남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서원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유적지입니다. 선묘조(宣廟朝) 때에 이미 노비(奴婢)를 주었고, 또 1점(店)을 주어 영구히 수호하도록 하였는데 한 도의 많은 선비들이 모여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의 백성을 모집해 사역(使役)을 시키고 많은 선비들에게 이바지하게 했었습니다. 지난번 중신(重臣)의 건의에 의하여 '모든 서원의 모집한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가려는 계책을 품고 있어 장차 수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원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참으로 그 폐단이 없지 않으니 찾아내는 조처는 부득이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한 제현(諸賢)에 이르러서는 백세(百世)까지 공(功)이 있어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실로 문(文)을 높이고, 도(道)를 일으키는 뜻에서 나와서 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될 처지이므로 설사 사소한 폐단이 있더라도 마음 쓸 것이 없습니다. 또 예안에는 고려(高麗)때 제주(祭酒) 우탁(禹倬)의 서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선정신 이황(李滉)이 창건한 것이니, 이런 서원은 그 모집한 백성을 찾아내지 말게 하고 흩어지는 폐단이 없게 하여 선비들이 모여서 읽고 외우는 장소로 삼으면 실로 유화(儒化)의 도를 돈독히 하는데 합당하며 사림(士林)을 격려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사(從祀)한 제현(諸賢)이 평생 거쳐하던 곳에는 모두 서원을 세우고 있는데 비록 낱낱이 모두 특전(特典)을 베풀 수는 없으나 예안의 도산서원과 경주(慶州)의 옥산서원(玉山書院), 현풍(玄風)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안음(安陰)의 용문서원(龍門書院), 양주(楊州)의 도봉서원(道峯書院), 연일(延日)의 오천서원(烏川書院)은 일찍이 모집해 들인 자들을 그대로 두어 빼앗지 말되 다만 한결같이 더 모집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兵曹啓曰, 今月初十日夜對時, 參贊官權愈所啓, 臣奉命嶺南, 回還之時, 過禮安陶山書

院, 書院, 卽先正臣文純公李滉藏修之所也, 宣廟朝旣給奴婢, 又給一店, 以爲永久守護之地, 而一道多士之所聚會, 猶不足以支給, 又募入若干民人, 得以給使用, 而供多士矣, 頃以重臣建白諸書院募入人等, 皆懷渙敬之計, 將無以守護云, 書院募入, 誠不無其弊, 搜出之舉, 出於不得已, 而至若文廟從祀諸賢, 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不可不厚爲之地, 設有些少弊端, 有不足爲念者, 且禮安, 有高麗祭酒禹倬書院, 而此乃先正臣李滉之所創建者也, 似此書院, 則似當勿令搜出其募入民人, 俾無渙散之弊, 以爲士子聚會講誦之所, 實合於敦儒化之道, 而足爲聳動士林之一助矣,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峯書院, 延日之鳥川書院, 則曾所募入者, 仍存勿侵, 但勿令一向添募似當矣, 上曰, 令該曹稟處。

■ 정조 16년(1792) 3월 3일

전교하기를, “정학(正學)을 높이려 하면 의당 선현(先賢)을 높여야 한다.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는 행차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일전에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옥산서원에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제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에 사학(邪學)이 점점 물들어 오고 있는데 오직 교남(嶠南) 인사들은 신중히 선정(先正)의 정학을 지켜서 굽히지 않으며 뜻을 빼앗기지 않고 검게 물들지 않으며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나의 양모(仰慕)가 더해졌다. 한창 봄에 주전(廚傳)으로 민폐를 끼칠까 우려되어 뜻을 두었으나 주저함을 면치 못하였다. 들으니 그 길의 거리가 돌아가게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대로 각신(閣臣) 이만수를 보내어 명령을 받들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현(禮安縣)에 있는 선정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서원에 달려가 제사를 지내라. 제문은 지어 내려 보내겠다. 우선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알리도록 하고, 도신이 순찰하는 도중에 있을 듯하면 또한 즉시 당해 고을에 직접 관문을 보내라. 선정의 자손들과 이웃 고을 인사들로서 제사에 참여할 자는 미리 모여 기다리게 하라. 제사 지내는 날 각신은 전교당(典敎堂)에 앉아서 여러 생도들을 불러 진도문(進道門) 안뜰에 서게 하고 가지고 간 글 제목을 게시하여 각기 글을 짓도록 하여 시험지를 거두고 조정에 돌아오는 날에 아뢰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작은 고을의 지응(支應)은 폐해가 반드시 적지 않게 되리니 묘당으로 하여금 도백에게 신칙하게 하고 곡물을 구획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欲尊正學, 宜尊先賢, 以奉使行之入其境, 昨有致祭玉山書院之命, 而更思行於玉山, 不爲於陶山, 其可乎哉, 向來邪學之漸染也, 惟嶠南人士, 謹守先正正學, 不撓不奪, 不涅不污, 自是以往, 增我曠慕, 方春廚傳, 恐貽民弊, 有意未免咨且, 聞其道里不至於迂回, 仍遣閣臣李晩秀, 奉命回路, 馳至禮安縣先正文純公李滉書院致祭, 祭文製下, 先令內閣知委道臣處, 道臣似在巡路, 亦卽直關該邑, 爲先正子孫者, 及隣邑人士之來參致祭者, 預須會待祭之日, 閣臣坐典敎堂, 招諸生立于進道門內庭, 以齋去書題揭示, 各令應製, 收捧試券, 還朝日以啓, 如是則小邑支應, 爲弊必當不少, 令廟堂申飭道伯, 區劃穀物。

■ 현종 5년(1839) 11월 10일

11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신이 ... 생각건대 정학을 밝히는 데에는 점차 갈고 닦아서 오래도록 누적하는데 있고, 엄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현(先賢)을 표장(表彰)하여 인사(人士)를 고무하고 권면(勸勉)하는 방도는 실로 이러한 때에 먼저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도의 서원(書院) 가운데 ...영남(嶺南)의 옥산(玉山)·도산(陶山)...이제 일제로 치제(致祭)하는 일이 있게 되면, 유학(儒學)을 존송하는 정사에 도움이 되고 덕(德)을 숭상하는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하니, 대왕대비전에서 답하기를 ...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一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趙所啓……臣於向者…以明正學而闢異端之本者，此如中州盛則戎羯不敢侮，元氣實則疾疫不能浸也，第念正學之明，在於漸磨積累之久，非可襲而取之，而至於表章先賢，風厲人士之方，實爲此時不可已之先務，各道書院中…嶺南之玉山·陶山…今若有一例侑典，則足可補崇儒之治，示尚德之義……大王大妃殿答曰…依此爲之可也…

■ 현종 5년(1839) 12월 3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치제문(致祭文)을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말을 만들 때에 살피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당해 제술해 올린 사람의 현고(現告)를 받아 파직의 법을 시행하고, 다시 홍문관에서 즉각 빨리 개찬(改撰)하게 하여 계하가 되면 본원에 보내 은유(恩宥 :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함)의 날짜에 당도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陶山書院致祭文啓下者，則措辭之際，多有未審處，當該製進人，捧現告，施以罷職之典，更令弘文館，卽速改撰待啓下傳送本院，俾及恩宥之日事，分付，何如，答曰，允。

■ 고종 23년(1895) 12월 8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상감사 이호준(李鎬俊)의 장계를 보니,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신구(新舊) 선비들 간에 난동을 피운 전말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조정의 관직에 대하여 이미 소통을 허락하였는데 서원의 직임에 대해서는 유독 막혀 있으니, 어찌 원망을 품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비와 득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왕명을 받들어 백성을 교화시키는 자리에서 어찌 미혹한 자를 일깨우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인도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해당 지방관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예전 습관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를 도모하여 잘 조정함으로써 다시는 감히 성상에게까지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참의(前參議) 이만도(李晩燾)가 주창하지 않았다는 일과 전 헌감 이학연(李鶴淵)을 논죄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신(道臣)의 조사가 분명하니, 자연히 논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그 나머지 여러 선비들에 대해서는

모두 도신이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慶尙監司李鎬俊狀啓，則禮安陶山書院，新舊儒作鬧顛末，查覈登聞，請令廟堂稟處矣，朝廷之官而旣許疏通，儒院之任而獨持枳塞，抱冤齎菀，安得不然，是非得失，不辨可知，其在承流宣化之地，豈無牖迷導和之道乎，另飭該地方官，俾各革舊圖新，善爲調停，更毋敢推上號籲，前參議李晚燾之不爲倡事，前縣監李鶴淵之不可論罪，道查指的，自在勿論，其餘諸儒，竝令道臣酌量處之何如，答曰，允。

2) 도산서원 관련 유적 자료

① 시사단(試士壇)

시사단은 강변에 세워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송백림(松栢林)이 무성하였으나, 안동댐 건설로 분천강이 침수되어 수위가 상승하자 원래 위치에서 10m 높이의 석축을 쌓아올려 원형대로 개건하였다. 이 때문에 주위의 송백림은 유지될 수 없었다. 1973년 8월 3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시사단은 본래 1792년(정조 16) 3월에 정조가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에게 명하여 퇴계 이황(李滉)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는 뜻에서 도산별과(陶山別科)를 신설하여 안동 지역의 인재를 선발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도산별과는 문과 2인, 진사 2인, 초시 7인, 상격(賞格) 14인을 선발하는 별시(別試)로서 그 과시(科試)가 시사단(試士壇)에서 거행되었다.

시사단은 나직하고 널찍한 2단의 자연석 돌림상단 위에 세워져 있다. 원래 설단(設壇)만 있었으며 석비는 후에 세운 것이다. 석비는 1796년(정조 20)에 세워졌으나, 지금의 비는 1824년(순조 24)에 비각(碑閣)의 개축과 더불어 고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지었다.

비각은 화반(花盤)과 초공(草工)의 새김이 매우 화려한 4면 단칸 팔작집이며, 중방(中枋) 아래는 모두 판벽(板壁)으로 둘러 막아 비바람의 침해를 예방하였다. 겹처마의 사면 추녀 아래에는 팔각 활주(滑柱)를 세워 구성이 견실하다. 내부는 도리 위에 아치 모양으로 장식된 보를 걸었고 그 사이 천장은 장방구(長方區) 소란반자로 치장되었다. 시사단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별과 시험을 치른 곳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서, 정조 때에도 이황의 학문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말해 준다.

② 도산잡영(陶山雜詠)

도산서당에 거처하면서 직접 읊었던 한시 40제, 92수를 모은 『도산잡영』은 서당 안팎의 건물과 그 명칭의 유래, 자연경관에 대한 느낌, 그곳 생활에 관련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도산서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퇴계 이황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를 사례로 들면 열정(冽井)이 있다. 열정(冽井)은 도산서원 어귀에 있다. 도산서원의 앞쪽으로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물은 어귀의 바로 앞 오른쪽(동쪽)에 위치한다. 퇴계는 열정의 물은 차고, 마시면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하였다. 열정은 『주역(周易)』의 '정렬

한천식(井冽寒泉食)', 즉 '물이 맑고 차가우니 마실 수 있네'라는 글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리고 이항은 "서당의 남쪽에 맑고 차며 단맛의 웅달샘이 있다(書堂之南 石井甘冽)"라며 열정과 관련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

「陶山雜詠」(并記)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 而命之曰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竈 故名之以其實也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拱揖環抱於此山然也 山之在左曰東翠屏 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清涼 至山之東 而列岫縹緲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峨 兩屏相望 南行迤邐 盤旋八九里許 則東者西 西者東 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 水在山後曰退溪 在山南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趨 至山之趾 則演漾泓渟 沿沂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竝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峯下 峯卽西者東而合勢之處也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偏於閨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甍遶廓 巖麓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野人田其中以資易之 有浮屠法蓮者幹其事 俄而蓮死 淨一者繼之 自丁巳至于辛酉 五年而堂舍兩屋粗成 可棲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 取朱先生名堂室記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之語也 東一間曰巖栖軒 取雲谷詩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之語也 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觀瀾 合而扁之曰隴雲精舍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對平 築之爲壇 而植其上梅竹松菊 曰節友社 堂前出入處 掩以柴扉 曰幽貞門 門外小徑緣澗而下 至于洞口 兩麓相對 其東麓之脅 開巖築址 可作小亭 而力不及 只存其處 有似山門者 曰谷口巖 自此東轉數步 山麓斗斷 正控濯纓 潭上巨石削立 層累可十餘丈 築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麓亦擬築臺 而名之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 盤陀石在濯纓潭中 其狀盤陀 可以繫舟傳觴 每遇潦漲 則與齊俱入 至水落波清 然後始呈露也 余恆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默坐 兢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發於憤悱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繹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 是則閒居養疾 無用之功業 雖不能窺古人之門庭 而其所以自娛悅於中者不淺 雖欲無言 而不可得也 於是 逐處各以七言一首紀其事 凡得十八絕 又有蒙泉, 冽井, 庭草, 澗柳, 菜圃, 花砌, 西麓, 南汧, 翠微, 寥朗, 釣磯, 月艇, 鶴汀, 鷗渚, 魚梁, 漁村, 烟林, 雪徑, 櫟遷, 漆園, 江寺, 官亭, 長郊, 遠岫, 土

城，校洞等五言雜詠二十六絕 所以道前詩不盡之餘意也 嗚呼 余之不幸晚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 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 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雖然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或曰 古之愛山者 必得名山以自託 子之不居清涼 而居此何也 曰 清涼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樂山樂水 缺一不可 今洛川雖過清涼 而山中不知有水焉 余固有清涼之願矣 然而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曰 古人之樂 得之心而不假於外物 夫顏淵之陋巷 原憲之甕牖 何有於山水 故凡有待於外物者 皆非真樂也 曰 不然 彼顏原之所處者 特其適然而能安之爲貴爾 使斯人而遇斯境 則其爲樂 豈不有深於吾徒者乎 故孔孟之於山水 未嘗不亟稱而深喻之 若信如吾子之言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 是必有其故矣 或人唯而退 嘉靖辛酉日南至 山主老病畸人 記

■ 十八絕(七言)

陶山書堂

大舜親陶樂且安，淵明躬稼亦歡顏。聖賢心事吾何得，白首歸來試考槃。

巖栖軒

曾氏稱顏實若虛，屏山引發晦翁初。暮年窺得巖栖意，博約淵冰恐自疎。

玩樂齋

主敬還須集義功，非忘非助漸融通。恰臻太極濂溪妙，始信千年此樂同。

幽貞門

不待韓公假大龜，新居縹緲映柴扉。未應山徑憂茅塞，道在幽貞覺坦夷。

淨友塘

物物皆含妙一天，濂溪何事獨君憐。細思馨德真難友，一淨稱呼恐亦偏。

節友社

松菊陶園與竹三，梅兄胡奈不同參。我今併作風霜契，苦節清芬儘飽諳。

隴雲精舍

常愛陶公隴上雲，唯堪自悅未輸君。晚來結屋中間臥，一半閒情野鹿分。

觀瀾軒

浩浩洋洋理若何，如斯曾發聖咨嗟。幸然道體因茲見，莫使工夫間斷多。(幸手本作縱)

時習齋

日事明誠類數飛，重思複踐趁時時。得深正在工夫熟，何啻珍烹悅口頤。

止宿寮

愧無雞黍謾留君，我亦初非鳥獸群。願把從師浮海志，聯床終夜細云云。

谷口巖

東躡江臺北入雲，開荒谷口擬山門。此名偶似前賢地，耕隱風聲詎易論。

天淵臺

縱翼揚鱗孰使然，流行活潑妙天淵。江臺盡日開心眼，三復明誠一巨編。

天光雲影臺(或只稱天雲臺)

活水天雲鑑影光，觀書深喻在方塘。我今得意清潭上，恰似當年感歎長。

濯纓潭

漁父當年笑獨醒，何如孔聖戒丁寧。我來叩枻吟風月，卻喜清潭可濯纓。

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安流帖帖始分明。可憐如許奔衝裏，千古盤陀不轉傾。

東翠屏山

簇簇群巒左翠屏，晴嵐時帶白雲橫。斯須變化成飛雨，疑是營丘筆下生。

西翠屏山

巖巖羣峯右翠屏，中藏蘭若下園亭。高吟坐對真宜，一任浮雲萬古青。

芙蓉峯(趙上舍士敬家在峯下)

南望雲峯半隱形，芙蓉曾見足嘉名。主人亦有烟霞癖，茅棟深懷久未成。

■「二十六絕」(五言○逐題又有四言詩一章)

蒙泉(書堂之東，有泉曰蒙。何以體之 養正之功。)

山泉卦爲蒙，厥象吾所服。豈敢忘時中，尤當思果育。

冽井(書堂之南，石井甘冽。千古烟沈，從今勿幕.)
石間井冽寒，自在寧心惻。幽人爲卜居，一瓢真相得。

庭草(閒庭細草，造化生生。目擊道存，意思如馨.)
庭草思一般，誰能契微旨。圖書露天機，只在潛心耳。
澗柳(澗邊垂柳，濯濯風度。陶邵賞好，起我遐慕.)
無窮造化春，自是風流樹。千載兩節翁，長吟幾興寓。

菜圃(節友社南，隙地爲圃。下帷多暇，抱甕何苦.)
小圃雲間靜，嘉蔬雨後滋。趣成真自得，學誤未全癡。

花砌(堂後衆花，雜植爛爛。天地精英，莫非佳玩.)
曲砌無人跡，幽香發秀姿。風輕午吟處，露重曉看時。

西麓(悄蒨西麓，堪結其茅。以藏以修，雲霞之交.)
舍西橫翠麓，蕭灑可幽貞。二仲豈無，愧余非蔣卿。

南汧(石之揭揭，槌之陰陰。于江之汧，納涼蕭森.)
異石當山口，傍邊澗入江。我時來盥濯，清槌興難雙。

翠微(翠微翠微，書堂之東。九日故事，感慨余衷.)
東隴上翠微，九日攜壺酒。卻勝陶淵明，菊花空滿手。

寥朗(寥朗寥朗，精舍之西。仰眺俯瞰，孰知其倪.)
西隴上寥朗，矯首望烟霞。安得陵八表，仍尋羽人家。

釣磯(臨江苔石，一絲颺風。貪餌則懸，冒利則訐.)
弄晚竿仍裊，來多石亦溫。魚穿青柳，蓑帶綠烟痕。

月艇(一葉小艇，滿載風月。懷人不見，我心靡歇.)
寒潭如拭鏡，乘月弄扁舟。湖老烟波，坡仙桂棹秋。

櫟遷(櫟之不材，多至壽老。厥或不免，乃壽之道.)
緣崖路呼遷，其上多樹櫟。何妨抱離奇，壽已過數百。

漆園(漆有世用，其割焉保。厥或免割，乃割之道.)
古縣但遺基，漆林官所植。見割有警言，蒙莊亦高識。

魚梁(丙穴底貢，編木如山。每夏秋，我屏溪間.)
玉食須珍異，銀脣合進供。峨峨梁截斷，濺濺罟施重。

漁村(太平烟火，宜仁之村。漁以代徭，式飽且溫.)
隔岸民風古，臨江樂事多。斜陽如畫裏，收網得銀梭。

烟林(吟不盡興，畫不盡變。春濃繡錯，秋老霞絢.)
遠近勢周遭，漠漠迷烟樹。延望足玩心，變態多朝暮。

雪徑(皓皓崖壑，迢迢磴徑。踏作瑤迹，誰先乘興.)
一徑傍江潯，高低斷復遶。積雪無人蹤，僧來自雲表。

鷗渚(舞而不下，渠未可干。狎而有盟，吾何敢寒.)
浩蕩浮還沒，毳毳晒復眠。閒情乃如許，機事定無緣。

鶴汀(鳴臯聞天，掠舟驚夢。野田有侶，盍慎媒弄.)
水鶴烟霄下，晴沙立遠汀。那能無飲啄，得處莫留停。

江寺(江上招提，老仙舊居。月寒庭蕪，風悲室虛.)
古寺江岸空，仙遊杳方丈。蟠桃定何時，結子重來賞。

官亭(官作之亭，歲月茫茫。樂匪知濠，舉似如棠.)
小亭境自佳，後江前臯隰。臯蓋不來時，野禽自栖集。

長郊(郊原膾膾，籬落依依。戴星而出，帶月而歸.)
炎天彌翠浪，商節滿黃雲。薄暮歸鴉望，遙風牧笛聞。

遠岫(如黛如簪，非烟非雲。入夢靡遮，上屏何分.)
微茫常對席，縹緲定何州。雨暗愁無奈，天空意轉悠。

土城(維彼南山，因山作城。海桑一朝，蠻觸何爭.)
禦難何代人，古籍莽難考。時平久已頽，兔穴深蔓草。

校洞(古縣鄉校，遺址宛然。麗季孱王，教化無傳.)
宮牆沒澗烟，絃誦變山鳥。誰能起廢規，張皇道幽眇。
(李滉，『退溪集』 권3)

③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퇴계 이황이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원에서 학문을 닦으면서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작품이다. 총 12수로 된 연시조로 전반부 6수는 자연의 감흥을 내용으로 하는 '언지(言志)'이고 후반부 6수는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언학(言學)'이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즐거움과 함께 후학들에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런들 엇더하며 더련들 엇더하리.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하료.

하말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덕 무삼하료.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가뇌.

이 등에 바라난 일은 허므리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한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삼할가.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도히.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대 묻하애.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만흔 갈매기난 오명가명 하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난 멀리 마음 하는고.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롬과 한 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늬 그지 이슬고.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한디.

만권생애(萬券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등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닛러 므슴할고.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야도 농자(農者)는 못 듣나니.
백일(白日)이 중천(中天)하야도 고자(高者)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충명(耳目聰明) 남자로 농고(農高)간디 마로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마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뵈도 녀던 길 알패 잇네.
녀던 길 알패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당시(當時)에 녀던 길흘 몇 해를 바려 두고.
어디 가 단니다다 이제아 도라온고.
이제아 도라오나니 년 디 마음 마로리.

청산(靑山)안 엇데하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靑) 호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서나 어렵거나 중에 늙난 주를 몰래라.

④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월탄(月灘) 김창석(金昌錫)이 그린 그림이다. 이현일(李玄逸)의 문도인 그는 학문 이외에도 시(詩)·서(書)·화(畫)에 두루 능하여 '삼절(三絶)'이라는 칭송을 들었는데, 그의 대표작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이다. 화폭은 가로 39cm, 세로 27.5cm의 크기로, 원래 횡폭(橫幅)이던 것을 뒤에 분할하여 화첩으로 개장한 것이다. 표제는 『이문순공도산도(李文純公陶山圖)』있으며, 뒤에는 「도산기(陶山記)」가 있다. 말미에 발문이 있다.

이 그림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부근의 경치를 그린 작품이다. 오른쪽부터 월란암(月瀾庵), 동취병(東翠屏), 의인촌, 어촌, 도산서원, 천연대(天淵臺), 운영대(雲影臺), 병암, 서취병(西翠屏), 애일당(愛日堂), 분강서원(汾江書院), 분강촌(汾江村) 등 도산서원 주변의 풍경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였다.

도산서원을 그린 그림 중에는 작자 미상의 작품도 다수 있으나, 가장 유명한 것이 검재 정선의 부채 그림과 강세황의 『도산서원도』이다. 김창석의 도산도는 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선 그림이며, 또한 당시 도산서원에 출입했던 안동 출신 선비의 작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⑤ 도산구곡(陶山九谷)

도산구곡은 안동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낙동강에 설정된 구곡으로 길이는 약 45리이고 강폭이 넓어서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원림이다. 이에 비해 퇴계구곡은 퇴계 종택 앞을 흐르는 퇴계천(退溪川)에 설정된 구곡으로 길이가 약 5리이고 시내 폭이 넓지 않아 배를 띄울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원림이다.

도산구곡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설정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퇴계 이황이 직접 설정하고 경영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퇴계의 문집과 그 제자들의 문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계는 주자의 「무이구곡도가(武夷九曲圖歌)」를 차운하여 구곡시를 지었지만 도산구곡을 설정하고 이를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도산구곡에 대해서는 이이순(李頤淳)[1754-1832]의 『후계집(後溪集)』에서 그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후계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아홉 굽이를 자신이 직접 설정하였다. 후계는 도산구곡의 아홉 굽이를 제1곡 운암(雲巖), 제2곡 비암(鼻巖), 제3곡 월천(月川), 제4곡 분천(汾川), 제5곡 탁영담(濯纓潭), 제6곡 천사(川砂), 제7곡 단사(丹砂), 제8곡 고산(孤山), 제9곡 청량(淸凉)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산구곡의 설정은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산구곡시도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眞城 이씨의 가학을 계승하려 했던 후손들에 의하여 많이 지어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계 이이순,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1755-1831],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1768-1844]이다.

후계 이이순은 자신의 선조인 퇴계 이황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도산구곡의 정확한 위치를 서술한 서문과 구곡시를 남겼고, 광뢰 이야순은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한 구곡시를 지어서 당시의 문인들이 차운하는 전범을 만들었으며, 하계 이가순은 회재, 퇴계, 한강 등의 유적지를 몸소 유람하고 구곡시를 지어서 영남을 성리가 구현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 밖에 이종휴(李宗休), 조술도(趙述道), 금시술(琴詩述), 최동익(崔東翼) 등도 도산구곡시를 지은 바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읊은 구곡시는 다음과 같다.

- 李頤淳(1754 ~ 183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 李野淳(1755 ~ 1831), 「次武夷九曲棹歌韻十首」
- 李家淳(1754 ~ 1832), 「陶山九曲」
- 李宗休(1761 ~ 1832),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
- 趙述道(1729 ~ 1803),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 琴詩述(1783 ~ 1851),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
- 崔東翼(1868 ~ 1912),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

이들 시에 나오는 도산구곡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李頤淳 - 제1곡 雲巖, 제2곡 鼻巖, 제3곡 月川,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

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李野淳 - 제1곡 雲巖寺, 제2곡 月川,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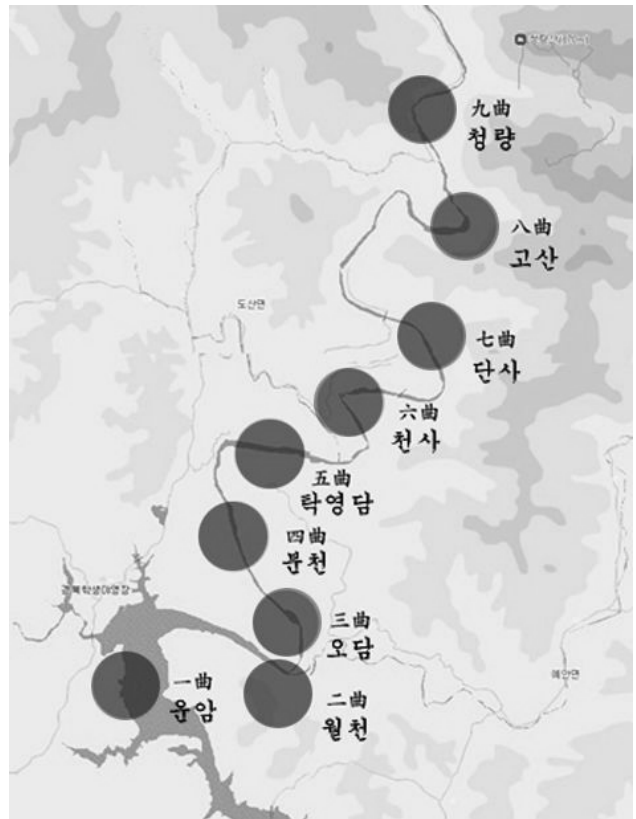
- 李家淳 - 제1곡 雲巖, 제2곡 鰲潭, 제3곡 月川,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李宗休 - 제1곡 雲巖寺, 제2곡 月川,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趙述道 - 제1곡 月川, 제2곡 鰲潭, 제3곡 汾川, 제4곡 石礪, 제5곡 濯纓, 제6곡 鏡潭, 제7곡 廣瀨, 제8곡 川砂, 제9곡 丹砂

- 琴詩述 - 제1곡 月川, 제2곡 鰲潭, 제3곡 汾川, 제4곡 石礪, 제5곡 濯纓, 제6곡 鏡潭, 제7곡 廣瀨, 제8곡 川砂, 제9곡 丹砂

- 崔東翼 - 제1곡 雲散甲, 제2곡 日戶,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月潤,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도산구곡

『오가산지(吾家山誌)』는 봉강(鳳岡) 이만여(李晩輿)[1861-1904]가 퇴계 李滉에 의하여 吾家山이라 명명된 바 있는 청량산과 관련된 이항의 시문 등을 모은 책이다. 일명 『청량산지(淸涼山誌)』라 불린다. 이 『오가산지』에서는 도산구곡의 1곡이 운암(雲巖), 2곡이 월천(月川), 3곡이 오담(鰲潭), 4곡이 분천(汾川), 5곡이 탁영(濯纓), 6곡이 천사(川砂), 7곡이 단사(丹砂), 8곡이 고산(孤山), 9곡이 청량(淸涼)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가순이 지은 「도산구곡(陶山九曲)」을 소개한다.

一曲巖雲繞壑船 일곡이라 바위 구름 골짜기 배를 두르니
小庵西出見烏川 작은 암자 서쪽으로 나가서 오천을 보네
當年講易論文地 그 해 역을 강론하고 문을 논의하던 땅에
山菊江楓鎖暝煙 산 국화 강 단풍이 어두운 안개에 잠겼네
雲巖曲

二曲芙蓉第幾峯 이곡이라 부용봉은 몇 번째 봉우리인가
林中一鳥謝塵容 숲 속에 한 새는 세속의 모습을 사양하네
滿川風月同心賞 시내에 가득한 풍월은 심상을 함께 하나

浩劫溪山隔萬重 오랜 세월 시내 산이 만 겹이나 막혔네
月川曲

三曲鰲潭客問船 삼곡이라 오담에서 객이 배를 물으니
文僖尸祝自庚年 문희공을 제향함이 경인년에 시작했네
燭幽一鑑神襟契 깊은 곳 비추는 한 치 거울 신금과 맞으니
講樹氷輪尙入憐 강론하던 나무의 달빛이 오히려 어여쁘네
鰲潭曲

四曲清川繞象巖 사곡이라 맑은 시내 상암을 두르니
漁歌驚起鷺毛毳 어부가는 해오라기 깃털을 놀라게 하네
蟠桃江寺留清韻 반도의 강사에 맑은 시를 남기고
仙伯風流共一潭 선백의 풍류는 한 못에 함께 하네
汾川曲

五曲盤陀水更深 오곡이라 반타는 물이 더욱 깊고
艮岑南望入雲林 남으로 바라보니 간방의 메뿌리 구름 숲에 들어가네
傳觴繫纜芳塵在 술잔을 돌리고 닳줄 매고 방진에 있으니
誰識通泉百世心 그 누가 통천의 백세심을 알겠는가
濯纓潭曲

六曲長虹抱玉灣 육곡이라 긴 무지개 옥만을 안으니
瀾臺遙望白雲關 월란대에서 멀리 백운관을 바라보네
紫霞西塢幽人屋 자하봉 서쪽 두둑은 유인의 집이니
萬卷中藏一味閑 만권 책에 한 맛의 한가로움 숨겼네
川沙曲

七曲仙臺印孔灘 칠곡이라 갈선대가 공탄에 비치니
雲靑水綠畫中看 푸른 구름 푸른 물이 그림 속에 보이네
伯陽眞訣留千古 백양의 진결이 천고에 남아 있으니
莫遣金丹鼎火寒 금단을 만드는 술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丹砂曲

八曲堅頑一斧開 팔곡이라 굳고 무딘 곳을 한 도끼로 여니

孤山孤絶石潭回 고산이 빼어나고 석담 물이 돌아 가네

主人好是惺惺老 주인은 성성한 늙은이 좋아하니

見許眞工了會來 참된 공인 알고 옴을 허락 받았네

孤山曲

九曲清凉更屹然 구곡이라 청량산 더욱 우뚝하니

祝融南下俯長川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를 굽어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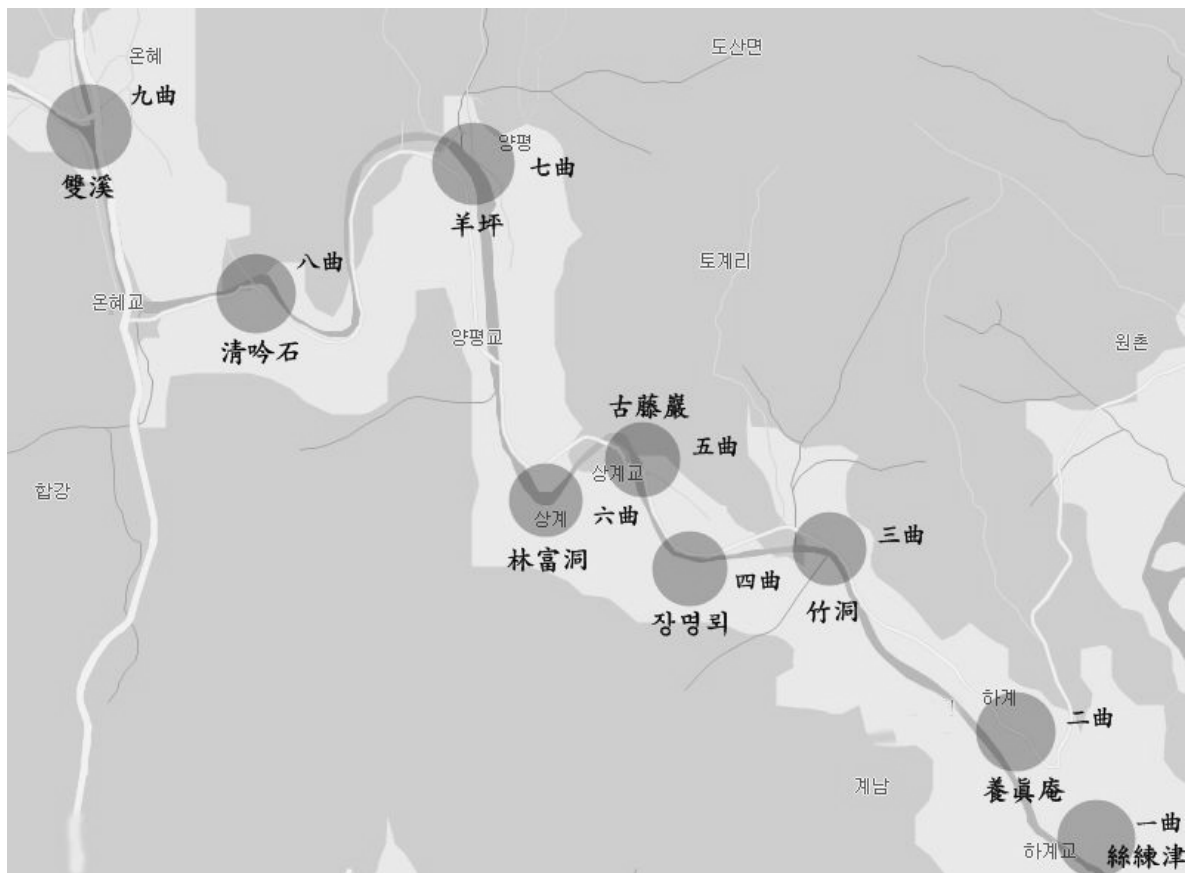
始知極處梯難上 비로소 극처는 사다리로 오르기 어려운 줄 아니

十二峯巒盡插天 열두 봉우리 모두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이네

清凉曲

⑥ 퇴계구곡(退溪九谷)

퇴계구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가순[1768 - 1844]의 퇴계구곡시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조사와 퇴계구곡 관련 시를 두루 찾는 과정에서 하암(下庵) 이종휴(李宗休)[1761 - 1832]의 퇴계구곡시도 창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순[1755 - 1831]도 퇴계구곡시를 지은 것 같으나, 그의 퇴계구곡시 작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창작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이이순의 『후계집』에서도 퇴계구곡시는 실려 있지 않다.



퇴계구곡

퇴계구곡 원림의 제1곡은 사련진(絲練津), 제2곡은 양진암(養眞庵), 제3곡은 죽동(竹洞), 제4곡은 장명리(鏘鳴瀨), 제5곡은 고등암(古藤巖), 제6곡은 임부동(林富洞), 제7곡은 양평(羊坪), 제8곡은 청음석(淸吟石), 제9곡은 쌍계(雙溪)이다. 도산구곡이 낙동강의 큰 물줄기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퇴계구곡은 퇴계선생의 유적이 산재하는, 낙동강의 지류인 퇴계(退溪), 즉 토계천(兔溪川)을 따라 5.5km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경관보다는 퇴계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설정된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이가순의 퇴계구곡시는 서시를 포함하여 10수로 되어 있고, 주자의「무이구곡도가」를 차운하여 앞에서 고증한 퇴계구곡 원림을 대상으로 읊은 시이다.

薪水仙家咏乞靈 신수의 선가에서 선령을 읊으니
兜溪風月一區淸 토계의 풍월에 한 구역이 맑아라
雲仍百世羹牆感 후손들 백세토록 사모하는 마음이
遙寓夷山古櫂聲 멀리 무이산 옛날 뱃노래 소리에 깃드네.

一曲絲津喚暮船 일곡이라 사진에서 저녁 배를 부르니
溪循山北入南川 시냇물 산북 따라 남쪽 내로 들어가네
何年鑄却銀唇貢 어느 해 은어 공물 물리쳐 버리고
依舊漁村畫裏煙 예전처럼 어촌이 그림 속의 경치 되려나.

二曲山門對兩峯 이곡이라 산문은 두 봉우리 마주하고
霞蒸蓮秀媚春容 노을에 연꽃 뻗어나 아름다운 모양이네
生涯萬卷眞休地 생애가 만권의 책이니 참으로 쉼만한 곳이며
西近陶山只一重 서쪽은 도산과 가까워 다만 한 겹이라네.

三曲茅齋小似船 삼곡이라 띠집은 작기가 배와 같고
不堪風雨庇多年 풍우를 막지 못하고 여러 해를 지내왔네
山空鳳去簞無實 봉황 떠나 산이 비니 대나무엔 열매 없고
石丈千尋任護憐 높이 솟은 돌이 가련함을 말아서 보호하네.

四曲花臺臺下巖 사곡이라 화대는 대 아래가 바위이니
魚川游泳鳥雲氤 물고기는 냇가에 노닐고 새는 구름 속에 나네
鏘鳴誰瀉薰絃入 금옥소리 누가 향기로운 현에다 쏟아 넣어
閑聽希音滿石潭 석담 가득 희귀한 소리를 한가롭게 듣게 하나.

五曲蒼藤古木深 오곡이라 푸른 등넉쿨에 고목이 깊으며
虛明一室擁泉林 텅 빈 밝은 집 한 채 임천에 쌓여있네

窓前自有彈琴石 창 앞엔 절로 거문고 타는 돌이 있지만
誰識龍門理韻心 누가 용문의 운을 다스리는 마음을 알겠나.

六曲溪回更一灣 육곡이라 시내 돌아 다시 한 굽이 되니
鳥鳴花發繞巖關 새 울고 꽃 피어 암관을 돌렀네
山林日用春來富 산림의 일상은 봄이 와서 한창이니
上下同流物物閑 위 아래로 함께 유행하여 사물마다 한가롭네.

七曲金華廿口灘 칠곡이라 금화는 스무 곳의 여울이고
牛山灑氣夜來看 우산의 청명한 기운은 밤에야 보이네
誰教濯濯頻從牧 누가 살찐 소를 자주 와서 먹이는가
却怕孤根雨露寒 문득 외로운 풀뿌리 우로에 추울까 두렵네.

八曲陂陀亂石開 팔곡이라 반석에는 어지러이 돌이 열리고
清吟臺下水彎洄 청음대 아래로 물굽이가 돌아가네
四山躑躅年年紫 사방 산에는 철쭉이 해마다 붉게 피고
曠想肩輿去不來 견여는 가서 오지 않을 줄 흰히 생각하네.

九曲雲山縹緲然 구곡이라 구름 덮힌 산이 아득히 보이고
雙溪十里走前川 쌍계가 십리를 흘러내려 앞 내를 달리네
蒼松古宅亭亭立 푸른 소나무 고택에 꼳꼳하게 서 있으니
道域栽培歲暮天 세모에 도가 서린 땅이 자라게 함이라.

이종휴의 본관은 고성(固城), 호는 하암(下庵)이다. 이종휴도 「무이구곡도가」차운시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퇴구곡시와 옥산구곡시,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다. 이 「퇴계구곡(退溪九曲)」시 역시 서시를 포함하여 총 10수로 구성되어 있다.

一朵萼芝萬丈靈 한 줄기 지초 빼어나 만 길이나 신령하니
山由人勝水由清 산은 사람으로 빼어나고 물은 맑아서라네
賡歌幾疊雲屏好 화답시 몇 첩이 구름 병풍보다 좋고
昭代洋洋有正聲 밝은 시대 양양하여 바른 소리가 있네.

一曲清溪不用船 일곡이라 맑은 시내 배를 쓰지 않으니
盈科日進放前川 웅덩이 넘쳐 날로 나아가 앞 내를 흐르네
沉絲七晝徵周禮 칠일 주야를 사련에 잠겨 주례를 징험하고
秦火何勞掇古烟 진시황 화마에 어찌 옛 연기 가리려 수고했던가.

二曲偉然第一峰 이곡이라 아름다운 제일봉은
 千年仰止德人容 천년토록 양모한 덕인의 모습일세
 養眞庵外無名樹 양진암 밖 이름 없는 나무는
 弟子當時植幾重 제자들 당시에 몇 번이나 심었던가.

三曲如登太乙船 삼곡이라 태을선에 오르는 듯 한데
 佳名青竹幾何年 아름다운 이름 푸른 대는 몇 해였던가
 高崗瑞鳳空千仞 높은 산 봉황은 천길 허공에서
 采采琅玕却自憐 옥을 캐고 캐니 절로 가련하네.

四曲清流嚙古巖 사곡이라 맑은 물은 고암을 물고 있고
 長鳴孤鶴羽衣綈 길게 우는 외로운 학은 깃털을 드리웠네.
 靈源十疊無人到 신령한 근원 열 겹인데 이르는 사람 없고
 山自重重水自潭 산 절로 거듭되고 물 절로 맑다네.

五曲幽棲占最深 오곡이라 그윽한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蒼藤文木鎖平林 푸른 덩굴 문목은 숲속에 얹히었네
 要看大老傳家訣 대노께서 전한 가결을 보려하니
 虎尾春氷證此心 조심 또 조심하며 이 마음을 징험하네.

六曲登登搥別灣 육곡이라 오르고 오르니 모두가 다른 굽이이고
 山扉風掩畫常關 산중 삼짝은 바람 막으려 그림처럼 닫혀있네.
 林居是處經綸富 숲속 이곳에 거처하니 경륜은 넉넉하고
 流水桃花共我閒 물 위에 떠 흐르는 복사꽃은 나와 함께 한가롭네.

七曲冷冷響遠灘 칠곡이라 맑고 맑게 멀리 여울 소리 울리고
 平郊牧夢畫圖看 평평한 들 목동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 본다네.
 今周氣象觀于野 오늘의 날씨 들판에서 점쳐 보자니
 溪草山花帶露寒 시내 풀과 산꽃은 차가운 이슬 머금었네.

八曲遙看洞府開 팔곡이라 멀리 보니 신선 사는 곳이 열렸고
 仙人十二好沿洄 열 두 명의 신선 물 따라 오르내리며 좋아 하네
 山前一帶清吟地 산 앞에는 한 줄기 청음지가 둘러있어
 如待閒筇邂逅來 한가한 지팡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듯하네.

九曲源深境杳然 구곡이라 근원 깊어 아득한 곳인데

雙流如鏡下成川 거울 같은 두 줄기 흘러 내를 이루네.
山河大地胚胎好 산하와 대지가 배태하기 좋고
開鑿人文摠是天 인문을 개발하여 하늘같이 드높다네.

⑦ 기타 도산서원을 읊은 시(詩)

• 「秋日，遊陶山夕歸」(己未)

秋懷惻惻蕙蘭腓，水落天空雁欲飛。不係窮通憂與樂，何知今古是兼非。天淵臺迴閒吟坐，柞櫟遷長帶醉歸。但使淵明終老地，衣沾夕露願無違。

李滉, 『退溪集』 권3

• 「次韻南義仲陶山雜興」

曠絕天開洞，高明地抱陽。幽居觀物化，同寓襲蘭香。菊色團楓色，山光映水光。圖書滿四壁，心事一何長

李滉, 『退溪集』 권5(續內集)

• 「宿陶山，夜雨曉霽，月色如畫，卽占所見。」

光風吹綠柳，霽月照清江。院靜人如玉，對山關曉窓。

李楨(1512-1571), 『龜巖集』 권1(續集)

• 「陪李退溪，遊陶山亭基，次口占韻」

暫輟雲臺讀易牀，冠童春服陟南崗。仙蹤放浪煙霞外，天眼披尋水石傍。專壑耕漁眞樂足，滿川風月道心長。林間異日開精舍，肯許承顏一飲芳。

黃俊良(1517-1563), 『錦溪集』 권2

• 「陪李退溪遊陶山亭基，次口點韻」

一臥溪堂歲月深，買田移卜闢雲岑。淵源洛水傳文獻，淳古陶山蔭樹林。風月剩添光霽趣，簡編長對聖賢心。從遊外客猶堪詫，假步門牆得賞音。

黃俊良(1517-1563), 『錦溪集』 권5(外集)

• 「暮春謁陶山祠」

束脩承指掌，喬木未遷鶯。時雨千林化，和風百卉榮。齊明如左右，髣髴拜平生。霽月濂溪後，何人是兩程

黃應奎(1518-1599), 『松澗集』 권1

• 「陶山祭後，登天淵臺」

人去山空谷鳥悲，薜蘿松桂自相依。秋雲太是無情思，閒向天淵弄晚暉。

趙穆(1524-1606), 『月川集』 권1

• 「陶山書堂」

容膝堂成審易安，陶匏登案足怡顏。優游卒歲知何事，象在方圓水在槃。
奇大升(1527-1572), 『高峯續集』 권1

• 「陶山祭後登天淵臺有感」

不盡三年築室悲，巖栖立雪夢依依。隴雲咫尺登臺感，無限秋山媚夕暉。
琴蘭秀(1530-1604), 『惺齋集』 권1

• 「陶山」

陶山芳躅我曾欽，今日風巖歷歷尋。試上天淵臺上坐，鳶飛魚躍自無心。
裴應聚(1544-1602), 『安村集』 권1

• 「陶山書院，次月川丈韻」(四首)

一道江流兩岸秋，胸中舊恨與新愁。逢場莫緩行盃手，忍負黃花對白頭。
今秋悲思倍前秋，處處干戈物物愁。千里美人消息斷，愛而搔首暮江頭。
過盡冬春又夏秋，一身兼摠四時愁。算來憂患年來劇，塵世如何不白頭。
平戎何日罷防秋，鐵鎧霜多壯士愁。四海干戈今二載，星文夜夜看旄頭。
金圻(1547-1603), 『北厓集』 권2

• 「陶山詠竹」

階上新莖一丈長，薄薄清露滴永香。光風霽月添幽興，考臥閑軒夢亦涼。
金光繼(1580-1640), 『梅園遺稿』 권1

• 「陶山謁廟日，登天雲臺」

春日溫和雨乍晴，閒花開盡午風輕。先生真樂從何問，識得雲臺水月明。
李回寶(1594-1669), 『石屏集』 권1

• 「登陶山示同遊」

十里光風蕙草稠，輕雲淡日晚悠悠。詩成鷄鶩群飛影，眼落芙蓉百丈頭。鳥作艷聲聊緩唱，花分春色與清流。秉簡續魄渾閑事，遙想風流洛社遊。
金佺(1597-1638), 『敬窩集』 권2

• 「過陶山書院」

山水清幽似武夷，先生已去有遺祠。斯文一脈無人繼，小子亡羊泣路岐。
趙錫胤(1605-1654), 『樂靜集』 권1

• 「陶山書院有吟」

太白清涼踏遍來，又於陶院暫徘徊。惆悵主人難共賞，強扶多病獨登臺。
李選(1632-1692), 『芝湖集』 권1

• 「陶山書院」

几杖依然舊考槃，若將承誨整衣冠。巖泉不敢加題品，明廟曾移畫裏看。
金昌翁(1653-1722)，『三淵集』 권8

• 「謁陶山書院」

先生我國之朱子，惟此陶山卽武夷。不遇道非甘隱遯，所嗟天未欲平治。冠童解講滄洲諭，院宇昭垂白洞規。肅肅廟庭瞻禮地，高風餘韻起遐思。
申聖夏(1665-1736)，『和菴集』 권2

• 「謁陶山」(二絶)

緬憶先生此考槃，至今松檜護溪山。如何一片幽居地，曾入當年御畫看。
山形不改枕江灣，往蹟依然指顧間。卻歎瑤琴空寶匣，風前獨立淚潺湲。
權槩(1672-1749)，『屏谷集』 권1

• 「陶山四詠」(첫번째 수)

書堂

小屋一畝半，小牆三尺餘。問孰所盤桓，先先昔此居。我來不敢入，再拜啓虛牖。想見臨古經，焚香坐清晝。青衿講奧義，溪叟許同聽。今來一百載，空看宵飛螢。
申靖夏(1681-1716)，『恕菴集』 권3

• 「宿陶山」

天爲東方生此人，不然吾道屬荆榛。文章自好徒成癖，言語相傳未是真。灑落襟懷岩月在，清明氣志野流新。廿年重入陶山裏，千古氤氳別有春。
沈鎔(1685-1753)，『樗村遺稿』 권8

• 「陶山」

立巖千仞仰，盤逕百迴穿。心內先香炷，堂中悅瑟絃。洞天如昨日，雲月滿前川。惆悵疑醒酒，瞢騰四十年。
吳光運(1689-1745)，『藥山漫稿』 권3

• 「陶山」

空庭日落鳥飛還，雲影天光自在閑。先哲已亡祠廟屹，斯文一脉此中看。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 권5

• 「陶山院齋，酬蘇一潭。」(凝天○二絶)

雪滿江頭風月清，沙邊白鳥兩三聲。良朋此夜話難足，耿耿孤燈曉未明。
驅馬江郊踏雪清，同攜蘇子獨詩聲。來朝分手湖山遠，細話衷情到曉明。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 권5

• 「陶山」

箕疇一發千年秘，左海居然生大賢。山色微微通粵峽，水光渺渺瀉沂川。青梧影斷空寒月，碧沼沙明獨遠天。廟貌肅清几杖在，巖棲軒下問遺絃。(巖棲軒下，有碧梧桐一株今老死，光影池亦沙塞無水。故三四句及之。先生藜杖几案，皆在軒中，故末句及之。)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 권6

• 「陶山」

陶岑眞面果如何，曾向圖中着眼過。會得龍眠難狀處，滿山松籟象弦歌。

徐錫麟(1710-1765)，『睡聲集』 권1

• 「重尋陶山，用前韻」

後生何處拜先生，江上陶山偃蹇青。春盡古齋人復到，牆梅庭竹似含情。

宋煥箕(1728-1897)，『性潭集』 권1

• 「敬謁陶山書院，用先生陶山書室韻」

日觀頽久仰將安，廟食百年配孔顏。欲識先生修進處，一心須着奉盈盤。

李恒茂(1732-1799)，『濟庵集』 권1

• 「陶山」

我行入陶山，山水馬前動。來峯鳳翼翔，去波龍鱗送。上有萬株松，窅然中作洞。下馬肅余容，徘徊瞻畫棟。再拜廟門前，慕情如隔夢。不有先生賢，疇廸此土衆。導以禮讓俗，播以詩書種。嶺人重爲邪，餘訓宗祏奉。卓爲南紀標，迥接東方統。昔我恭憲王，畫圖垂天寵。至今通三家，一辭無異頌。小子苦生晚，但抱圖書誦。先生今不在，且與鳶魚弄。

俞漢雋(1732-1811)，『自著』 권4

• 「敬次陶山雜詠」(十八首)

陶山書堂

洙泗宮牆是所安，却將山號揭堂顏。陶成後學知凡幾，負笈皆從在澗槃。

巖栖軒

道體元來等太虛，人人皆稟有生初。縱然識得全難得，細玩軒詩學莫疎。

玩樂齋

上達專須敬義功，聖謨賢訓理相通。除非學力如朱子，玩樂終身與誰同。

幽貞門

卜得幽貞不用龜，乾坤闢闔只存扉。蹈繩出入恒由是，正路人間更莫夷。

淨友塘

朵朵數紅映水天，向人解使遠觀憐。花中馨德全惟爾，不是先生取友偏。

節友社

竹松梅菊益人三，故把貞姿一社參。也識風霜嚴苦節，細看容色始眞諳。

隴雲精舍

剛憐澹白隴頭雲，難把幽姿遠贈君。盡日無心山外出，却和嵐氣混無分。

觀瀾軒

有本川流不逝何，晝宵無舍聖曾嗟。苟知道體元如此，肯使眞工作輟多。

時習齋

習飛雛鳥卒能飛，行解俱臻會有時。悅意深來方不住，先須將敬此心頤。

止宿寮

置齋宣爲及門君，好與磋磨永樂羣。堪笑莊生昧仁義，謂當一宿妄云云。

谷口門

谷口休言鎖白雲，欲尋精舍此其門。坦然正路趨深域，且把階梯歷躡論。

天淵臺

俯仰江臺意豁然，飛鳶天又躍魚淵。箇中化育流行妙，揭示昭昭述聖編。

天光雲影臺

徘徊雲影與天光，一一涵來半畝塘。更有澄湖收萬象，源頭活水較尤長。

濯纓潭

碧潭澄闊我心醒，斗覺天清又地寧。鏡裏纖塵留不許，先生去後濯誰纓。

盤陀石

賦得盤陀一定形，水中鋪在自分明。奔流濁浪渠徒爾，確不回移確不傾。

東翠屏

疊碧層丹是左屏，天教畫障入簾橫。最憐雨過山晴日，無數巖花盡意生。

西翠屏

玉笋瑤簪是右屏，鐘鳴蕭寺鶴飛亭。西風落盡盈山木，更露孱顏突岫青。

芙蓉峯

恰似芙蓉一朵形，古人多意錫峯名。雖然若未逢夫子，此地何緣勝地成。

鄭宗魯(1738-1816), 『立齋集』 권6

• 「陶山書院」

退老當年此有臺，清涼萬丈望中嵬。士林南嶺春秋享，吾道東方日月迴。翫樂齋邊幽草綠，詠歸亭上夕陽來。小子彷徨瞻仰久，依然風物爽襟開。

安德文(1747-1811), 『宜庵集』 권2

• 「陶山巖棲軒」

東國陶山北斗尊，巖棲流澤百年存。冠巾共赴宗師義，圭壁西來聖主恩。淵活臺前流放海，雲歸隴上影垂繁。乾坤吾道悠悠在，正學淵源孰敢論。

盧國賓(1747-1821), 『晚軒遺稿』 권1

• 「拜陶山書堂」

陶山書室退溪濱，扁字端嚴墨尚新。水有平和寬大像，山如溫藉篤恭人。隣邦刊稿媿朱子，太

守圖居進紫宸。藜杖竹儀餘手澤，函筵提命忭承親。

趙秀三(1762-1849), 『秋齋集』 권4

• 「奉審陶山書院，敬述」

陶山淑氣鎮南維，白鹿遺規大老祠。杖几盤壺餘舊物，笙簧金石宛當時。書中妙悟真儒契，畫裏幽居聖主知。仰認精靈如水在，一潭秋月照清漪。(院中有巖棲軒，僅三楹。先生講學之所，几席杖履槃壺璣衡尚在焉)

申佐模(1799-1877), 『澹人集』 권8

• 「尋陶山書院」

巖棲軒外掩柴扉，風韻千秋自發輝。眇眇吾生生苦晚，一心猶恨未摳衣。
權(土+耒)(1800-1873), 『龍耳窩集』 권1

• 「謹次陶山十八詠」

陶山書堂

爰居仁宅一身安，景仰師門好學顏。萬卷詩書生計足，時時三復碩人槃。

巖棲軒

惟人心界本靈虛，何幸斯翁乃復初。扁以巖棲因自勉，始知塵世與相疏。

玩樂齋

篤學平生敬字工，前溪活水泗濱通。翫索遺經知有味，其歸終與聖賢同。

幽貞門

一心肯作泥中龜，無事山堂日掩扉。衛護師門開後學，終令非惠又非夷。

淨友堂

一畝蓮堂映半天，濂翁以後退翁憐。含香美質清如玉，二老當時愛汝偏。

節友社

栽得寒梅枝二三，百花譜上爾嵬參。昨夜江村霜雪裏，新春消息最先諳。

隴雲精舍

一片浮來隴上雲，悠然自得我心君。靜中與爾同棲息，非是閒忙渾不分。

觀瀾軒

爲學之方取水何，曾於川上聖人嗟。靜觀不息生瀾意，認是其中道體多。

時習寮

相彼春林鳥數飛。群才初入德門時。常常溫故知新處，成就無非養正頤。

止宿寮

許巢幸遇舜堯君。甘作雲林鳥獸群。時有良朋來遠地，讀書談道樂乎云。

谷口門

陶山一抹起祥雲。來此堂時入此門。嗟吾蔑學生何晚，恨未登筵日夕論。

天淵臺

山自然時水自然，上爲臺築下爲淵。幾多此地沂雩興，風味無窮詠一篇。

天光雲影臺

閒雲淡影霽天光，活水前頭起此堂。晦老餘吟溪老和，流通千古一源長。
濯纓潭

衆人皆醉主翁醒，著處無非自得寧。俯看寒潭秋水淨，長歌一曲濯其纓。
盤陀石

隣川大石若盤形，淨洗塵埃鑿鑿明。萬古風渦磨一片，願將隻手補天傾。
東翠屏山

東望蒼崖若畫屏，臨軒淑氣半天橫。美材蔥蔚千章拔，始信牛山雨露生。
西翠屏山

西有名山亦翠屏，巖巖氣像獨亭亭。緬想先生居處樂，物中惟見老松青。
芙蓉峯

依得千年太古形，待人然後擅其名。孜孜當日爲山績，一簣無虧九仞成。
崔匡鎮(1816-1885)，『梅隱集』 권1

• 「謹次陶山溪堂偶興十絕」

霽月如明鏡，名花錯繡羅。鮮能知味者，樂意與誰誇。
茅棟塵區遠，松扉別界開。胸衿覺爽豁，隨處任徘徊。
造化非無意，千年石作門。春風噓滿谷，萬壑氣氤氳。
雲樹深藏處，四時佳景幽。遊人自不到，獨上意悠悠。
邵子吟安樂，嚴陵臥富春。名區非自擅，留待此人賢。
虛心對棐几，玩物倚明牕。四勿指揮處，千邪豎幟降。
不有斯翁出，誰任衛道愁。乾乾日夕惕，進步向竿頭。
飢饒商岫紫，夢遠洛橋青。窮通自有命，名利不須營。
滿壑得精彩，先生卜此居。一心誠敬字，四壁聖賢書。
適因偶起興，非是愛吟詩。十絕幽閒意，後生豈易知。
崔匡鎮(1816-1885)，『梅隱集』 권1

• 「拜定齋歸路謁陶山廟」

眞源泗洙出，正派閩洛回。東韓千百世，獨一天淵臺。(訪祀孫於古第，觀其海東闕里山南考亭之大書八字，因景仰彌高，感吟一絕)
李濟權(1817-1881)，『覺園集』 권1

• 「謁陶山書院」

瞻拜遺祠曠感深，空山肅肅大江臨。幽貞門外梧桐月，想得先生灑落襟。
宋秉璿(1836-1905)，『淵齋集』 권2

• 「謁陶山祠院」

雙屏翠影蘸清漪，海左陶山卽武夷。歲晏靈芝餘古洞，夜來寒月照方池。日星典訓中天揭，河洛眞傳百世師。昭示後人門路坦，還慚末學走傍歧。
許薰(1836-1907)，『舫山集』 권1

• 「陶山」

一行三千里，海嶽恣遊履。動靜驗仁智，胷中如有得。卻恐久勞攘，心爲景物役。衣裳忽齊整，仰瞻陶山卓。瑤琴宛餘韻，水木涵澄澤。圖書昭至象，如入孔林宅。小子生苦晚，傍走迷塗轍。蹶蹶始歸來，粗欲補黥剔。恭惟夫子靈，庶幾垂陰隲。

許薰(1836-1907), 『舫山集』 권5

• 「陶山書院，次韻李仲圓贈詩」(二首)

海東闕里宅，牆仞仰彌高。百世摳衣願，平生我退陶。

兩絕瓊琚幅，蒼黝驚法書。粹然全鼎味，略綽一嚮餘。

崔琬民(1837-1905), 『溪南集』 권2

• 「敬次陶山十八絕」

陶山書堂

行到陶山心界安，齋堂牀席宛承顏。(先生書牀枕席等遺物尚在)處非忘世出非仕，爛熟思來臥澗槃。

巖棲軒

此行真免此生虛，夫子巖棲我見初。博約淵冰真切訓，悠悠皆坐這工疏。

玩樂齋

樂之專藉玩而功，反復沈潛自有通。洽到終身不厭處，方知此樂古今同。

幽貞門

幽人素履協靈龜，縹緲雲山闢一扉。乾坤也識此間在，開闔隨宜却坦夷。

淨友塘

數朶馨香一鑑天，天然淨友正堪憐。主人一去巖棲寂，離索之憂久爾偏。

節友社

節友社前發歎三，逕荒草鞠一無參。(社時埋沒，無一友存)寄語書堂讀書子，風霜舊契恐宜諳。

隴雲精舍

我謂隴雲是谷雲，霖姿不乏合輪君。四海蒼生無福久，還將一半鹿兒分。

觀瀾軒

道之浩浩觀於何，有本如斯聖發嗟。前此此言非不誦，登軒更覺省心多。

時習齋

時習須如鳥數飛，無時不習是云時。齋名儘有無窮味，白首沈吟要自頤。

止宿寮

當年止宿豔諸君，幾箇英才共作群。賤子嘒嘒生苦晚，夜牀不復細云云。

谷口巖

呀然谷口蘸江雲，兩麓相當作洞門。想像逍遙當日趣，那將耕隱與同論。

天淵臺

努力登臺眼豁然，上有青天下有淵。箇中飛躍伊誰使，開發玄機思聖編。

天雲臺

活水天雲鑑影光，退翁潭是晦翁塘。挹清不是玄虛想，真的觀書有味長。
濯纓潭

漁父辭中嘲獨醒，聖言自取更丁寧。此潭之水清如許，宜有高賢來濯纓。
盤陀石

盤陀奚取此巖形，濁浪安流異隱明。明隱何曾加損有，蒼然本質不移傾。
東翠屏

不問吾知左翠屏，群巒簇簇帶雲橫。飛翔六六清涼骨，遠抱江郊活畫生。(東屏自清涼山來)
西翠屏

回首欣瞻右翠屏，群峯嶷嶷下園亭。偶然觸發簣蓄歎，一抹靈芝萬古青。(西屏自靈芝山來)
芙蓉峯

一朵芙蓉半露形，至今精彩足嘉名。晚生亦有烟霞癖，敬挹遺芬拙句成。
崔淑民(1837-1905)，권2

• 「陶山書院」

纔到天淵日隱岑，清江如畫樹陰陰。赤烏天球藏在地，心香瑤匣敬敷襟。左海千秋歸道德，寒
霜十月始登臨。宇宙如今多幻景，茫茫墜緒竟誰尋。

尹炳謨(1839-1934)，『弦齋集』 권2

• 「宿陶山有感」

滿山風月不論錢，畫裏幽居上聞天。闕里考亭恩賜字，煌煌楣額至今圓。

安鍾惠(1841-1907)，『石荷集』 권1

• 「陶山書院」

清涼南下好山川，會合真元降大賢。休明左海三千里，的脉朱門數百年。光明屋秘傳心寶，飛
躍臺高主理詮。百拜先生無一語，逝將林下讀遺篇。

尹胄夏(1846-1906)，『膠宇集』 권1

• 「院中效高峯古事，謹次老先生陶山雜詠十八絕」

陶山書堂

陶唐世遠我將安，義上清風灑醉顏。占據中原高一著，江山全局等棋槃。
巖棲軒

上聖如愚道太虛，閭然絢錦葆真初。當年冀效終腴燁，始信巖棲計非疎。
玩樂齋

主敬吾門第一功，還須精義入神通。年來靜觀成真趣，太極圖中妙理同。
幽貞門

不向名途舍爾龜，悠然天澤映山扉。任渠朝暮閒開闔，無限雲蘿鎖武夷。
淨友塘

友道嗟衰叔季天，濂溪翁後鮮相憐。從今莫作淤泥想，共爾亭亭不倚偏。
節友社

增一吾家益者三，貞姿堪與臭蘭參。分外風霜成女玉，歲寒心事孰相諳。
隴雲精舍

隴上多年悅白雲，山人非是永忘君。無寧乍慰三農望，教雨終看澤十分。
觀瀾軒

聖人觀水術如何，逝者如斯足一嗟。道體無窮流不滯，臨軒頻賞契心多。
時習齋

庭林日日鳥羣飛，看取諸君習習時。溫思篤踐無停息，漸覺神腹勝豢頤。
止宿寮

山水中央喜對君，隱居非爲樂離羣。留連賴有論心事，雞黍駒苗不足云。
谷口巖

谷裏宮牆谷口雲，世人常寡得其門。小可子真聊憶汝，別般深處肯同論。
天淵臺

層臺來坐正超然，鳶在青天魚在淵。非助非忘渾潑潑，異時辛苦抱陳編。
天光雲影臺

登臺姑緩別風光，天作澄江一鑑塘。徘徊乍會源頭活，當日觀書意味長。
盤陀石

灩澦孤根蘸怪形，仙翁茶竈却分明。潦霄行藏無不可，偃然相對兩心傾。
濯纓潭

一曲滄浪好喚醒，銀波瞥瞥浪花寧。乘流扣柁知何許，羞遣風埃染鬢纓。
東翠屏

東折蒼巒小隱屏，清涼佳氣望中橫。似嫌大界仍遮障，恐有人烟眼際生。
西翠屏(輦巖,賀淵,屏菴亭,皆在西翠屏)

西望逶迤大隱屏，緣崖作態簇仙亭。瑤環玉筍還多事，靜對儀刑萬古青。
芙蓉峰(下有月川書堂)

水盡南天露異形，亭亭玉幹可堪名。高人定住前川月，一樣馨姿喜育成。
郭鍾錫(1846-1919),『俛宇集』 권3

• 「謁陶山尙德祠」

嶷嶷山增翠，源源水恬波。夫子修初服，眷言此婆娑。百世宮牆在，緬懷考槃邁。苦我生也晚，志業易蹉跎。幸茲俎豆地，周旋警惕多。願以平生志，加之歲月磨。神聽如不棄，一心矢靡他。

李道樞(1847-1921),『月淵集』 권2

• 「陶山」

洛水澄源遠遠來，清涼秀色眼前開。江山本自成奇特，不獨先生好品裁。
金時洛(1857-1896),『莊庵文集』 권1

• 「敬次退陶先生陶山雜詠」

屏退陶山意泰安，書堂自此倍生顏。隨時出處皆中道，晦德何年詠考槃。(陶山書堂)
靈府寬閒灝氣虛，紛華掃退復吾初。巖雲巖月同棲息，不妨漁樵訪我疏。(巖樓軒)

貞吉幽居已協龜，天教雲霧護山扉。陽開陰闔玄機妙，胸裡何曾滯險夷。(幽貞門)
松菊竹爲益友三，晚年神契與之添。嚴霜虐雪皆經過，寒後貞姿獨爾諳。(節友社)
隴舍三間一朵雲，長隨處處不離君。欲知夫子安閒趣，千載悠悠證十分。(隴雲精舍)
瞻彼書林習鳥飛，不曾造次有休時。人如體物功無間，可免窮廬歎老頤。(時習齋)
魚躍鳶飛體自然，玄機誰識動天淵。天淵肇錫斯臺號，默究中庸費隱篇。(天淵臺)
雲葉霞叢列畫屏，化翁神筆任縱橫。障遮東面重重立，罷世褻氛不敢生。(東翠屏)
一朵金芙九疊屏，深深扶護主人亭。西來爽氣衣衿積，海岱如今未了青。(西翠屏)
崔鶴吉(1862-1936)，『懼齋集』 권1

• 「尙德祠陶山書院」

尙德祠中曉燕香，香煙左右宛洋洋。洋洋尙是興高景，親炙當時矧可量。
河鳳壽(1867-1939)，『柏村集』 권2

• 「宿陶山書院」

行程六百豈憚長，已足陶山一夜觴。徒爾平生如仰斗，依然曠世若升堂。人言吾黨歸無地，我
謂斯文壽似岡。不識當年偏愛物，古樓猶得幾盆香。
河鳳壽(1867-1939)，『柏村集』 권1

• 「謁陶山尙德祠」

淑氣吾東降大賢，青邱文物倍光鮮。詩書禮樂三千子，濂洛關閩五百年。壁立天淵瞻道像，春
深玩樂想函筵。摳衣不及平生恨，尙有遺編可習傳。
宋浚弼(1870-1940)，『恭山集』 권1

• 「謁陶山書院 禮安」

陶山蒼翠古猶今，幾樹寒梅手植林。沂水春風曾氏瑟，玉溪晴月考亭琴。先王備盡尊崇義，外
國猶存景慕心。愧我疏蹤誠意薄，白頭此日始來尋。
沈相福(1871-1951)，『恥堂集』 권2

• 「登陶山書堂光明室」

夫子風徽慕一生，行尋遺蹟此光明。投壺几杖渾依舊，隱隱如聞佩玉聲。
沈相福(1871-1951)，『恥堂集』 권2

• 「登陶山」

昔聞陶山好，今見陶山好。陶山何以好，李子講道好。李子何以好，山好水亦好。山水何以
好，幽靜光明好。
朴世煥(1874-1966)，『梨山文集』 권1

• 「謁陶山祠」

潢池流水一源深，尙德祠前拜起欽。萬古洪鍾鉤徹耳，中天白日燭幽心。
無邊光霽濂溪宅，博約門牆洙泗林。節友壇前梅數萼，長留手澤後來尋。

沈鶴煥(1878-1945), 『蕉山集』 권1

• 「謁陶山廟」

吾東理學祖先生, 只麼陶山萬古青. 再拜遺祠仍肅敬, 恍如親炙侍軒屏.

李翊九(1838-1912), 『恒齋集』 권1

• 「謁陶山書院」(四絶)

壇高古址傳崇典, 山對澄江見道心. 至今一草一花石, 海內含生誰不欽.

平生敬讀先生文, 爲拜先生始及門. 賤子進前疑欲質, 先生巾几寂無言.

東方理學賴誰明 爲有先生集大成. 歎息後人謾出入, 山河全陸氣機橫.

同堂何事久操戈, 公眼看來堪一嗟. 打得如何成一片, 斯文永使大羹和.

張錫英(1851-1926), 『晦堂集』 권2

• 「謁陶山書院」(二首)

天生夫子惠吾東, 聖道千年日正中. 猗歟晚暮藏修地, 俎豆無窮百世崇.

東楹獨享月川翁, 輿議于今同不同. 匪惟居近薰陶久, 效力師門最有功.

李斗勳(1856-1918), 『弘窩集』 권1

• 「謁陶山書院」

無窮陶水的源流, 禮樂絃歌三百秋. 河洛圖書凝石壁, 璣衡制度儼巖樓. 此遊汗漫何須說 吾道光明有所由. 端拜庭前因想像, 清涼日日照心頭.

安鍾彰(1865-1918), 『希齋集』 권1

2-6-2. 도산서원 소장 고문서

1) 도산서원 고문서의 정리현황과 특징

① 고문서 정리 현황¹⁰⁾

도산서원은 소장 자료(고문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1994년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도산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규(院規), 의례(儀禮), 일기(日記), 통문류(通文類) 등을 정리하여 『도산서원고문서(陶山書院古文書)Ⅰ』(1994)로, 토지매매문기, 노비매매문기 및 점련문기, 소지, 패지(牌旨), 입안, 완의, 완문, 관문, 첩정, 서목, 고목, 첩(帖), 표기(標記), 호적, 단자, 기록류, 택일기, 물목단자, 향사절의(行祀節義), 답통(答通), 간찰류(簡札類) 등을 정리하여 『도산서원고문서(陶山書院古文書)Ⅱ』(1997)로 편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고문서는 모두 원본사진과 정서(正書)를 같이 기재하여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1999)에는 단국대

10) 고문서의 목록은 『도산서원 고전적』(한국국학진흥원, 2006)을, 해제는 유교넷(<http://www.ugyo.net>)의 <도산서원 고문서>를 참조.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에 누락된 성책고문서들의 목록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서원경제 관계 자료 등이 너무 방대한 규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료를 선별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때문이었다. 소개된 것은 원임록(院任錄)·유원록(遊院錄)·집사기분정기(執事分定記) 등 서원의 인적 구성과 그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토지안·노비(신공)안·추수기·타작기·전장기(경리장부) 등 서원경제 관계 자료들이다.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이들 기탁 자료는『도산서원 고전적(陶山書院 古典籍)』(2006)이라는 목록집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유고넷(<http://www.ugyo.net>)으로 원문이미지와 해제를 서비스 하고 있다. 위 책에는 고서류 1,026종 4,605책, 고문서류(성책 : 702점 포함) 2,128점, 목판류 57종 4,014점, 서화류 11점, 기타(관모, 궤, 함, 연갑, 제복, 향상 등) 9종 30점 등 총 10,788점의 도산서원 유물의 목록과 서지사항, 규격이 조사되어 있다.

② 고문서의 특징

도산서원 고문서는 총 2,128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소지, 명문, 통문, 치부기, 망기(望記), 제문, 좌목(座目) 및 성책 고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고문서는 도산서원의 존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현실적인 존재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분류	점수	분류	점수
所・筭・狀・啓類	44	詩文・記錄類	24
牒・關・通報類	39	行狀・祭文類	63
戶籍類	2	事目・節目類	13
證憑類	3	名簿類	83
明文・文記類	50	成冊古文書	702
書簡・通告類	774	其他	3
置簿記類	328	계	2,128

도산서원고문서 분류표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참조

- 소지(43점) : 대개 서원소유 노비들의 소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관에 진정하는 내용이 주류이다. 이외에 1855년(철종 6)에 사도세자 추존상소가 있다. 소위 만인소로 널리 알려진 이 상소는 이휘병을 소두로 하고 모두 1,0094명이 참여했으며, 길이는 100M에 가깝다. 이를 통해 서원이 학문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 명문(38점) : 전답을 매매하거나 매도한 증명서로서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 전답들은 서원의 유지와 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 간찰(402점) : 『도산금문제현록』간행과 관련해 보낸 것이 많은데, 금문제현의 후손이 금문록 간행을 축하하며, 선조의 사적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간역에 부조금을 보낸다거나, 선조의 기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완요청도 있다.

- 통문(357점) : 개인 내지 타 서원에서 보내온 것이며, 모두 도산서원과 관련된 것이다. 통문을 보면 도산서원은 지역사회에서 공론을 모아야할 사안이 발생하면 그 판단자의 입장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통문은 도산서원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당시 도산서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과 도산서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내용은 『도산급문제현록』간행을 둘러싼 문제, 사도세자 추존 및 서원훼철이나 위정척사와 관련한 만인소를 제작할 당시의 상황, 한려시비·병호시비, 적서간의 시비와 관련한 내용 등이 있다.
- 성책고문서(702점) : 내용적으로 치부기, 좌목, 일기, 통문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것은 미곡을 비롯한 제반 물자의 출납, 서원소유 토지장부, 소출과 지세납부 상황, 집사분정, 각종 행사시 좌목, 광명실 소장 서적목록, (간행)부조기, 중건 및 수리시 금전출납, 소속노비안, 수호군안 등이 다. 특히, 서적 목록은 당회나 포쇄시, 신구(新舊)유사의 체임시 작성한 것으로 서원 소장 전적의 내력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2) 유형별 대표적 고문서

① 제향인물자료

■ 선생수적(先生手蹟)

필사본 5책으로 되어 있다. 퇴계 이황이 평소 글을 지을 때 남긴 다양한 형태의 초고(草稿)를 묶어 놓은 필첩이다. 행서와 초서로 자유롭게 쓴 초고들로서 완전한 글도 있는가 하면 조각들을 풀로 이어붙인 것과 날글자도 있으며, 심지어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묵으로 아무렇게 지운 흔적 등 그야말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쓴 퇴계의 필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문집에 수록된 내용과 조금씩 차이점도 있는데, 가령 윤승홍(尹承弘)의 행장은 본 필첩의 초고에는 행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퇴계 문집에는 묘갈명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 사문수간(師門手簡)

필사본 7책으로 되어 있다. 퇴계 이황이 제자인 월천 조목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간찰첩이다. 조목은 퇴계문하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입문하여 평생을 모셨던 관계에 있었던 만큼 각별한 사이였고 퇴계의 수간도 많이 받았다. 이 간찰첩은 다양한 형태의 퇴계 필적, 한글 표기, 수결 등 퇴계와 월천 사이에 있었던 생생한 사제관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간찰이 대부분이며 간혹 사문도 있는데 월천에게 보내서 감상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자신을 황(滄), 도노(陶老), 경호(景浩) 등으로 표기하고 수결을 붙였다. 첩의 면수가 세필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래 8권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장본은 권2에서 권8까지이다.

② 연혁변천자료

■ 창건록(創建錄)

도산서원을 비롯한 역동서원·청계서원(淸溪書院)·분강서원(汾江書院)·향현사(鄉賢祠)의 창건시기, 주향·종향·배향인물 및 그들의 생몰년, 치제(致祭) 등의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다. 도산서원 이외의 서원

들에 대한 기록이 부기된 것은 퇴계가 서원 건립에 대한 의례(儀禮)·원규(院規) 등에 깊이 간여한 경우와 이곳의 제향인물이 퇴계의 조부(祖父)·부형(父兄)이거나 제자·문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도산서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781년 이양정의 치제이후 1785년의 사제(賜祭) 사실이 다른 문서에서 발견되기에 이 문서 작성 시기는 1781년(정조 5)에서 1785년(정조 9)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도산서원사적(陶山書院事蹟)

1868년(고종 4)에 작성된 것으로 도산서원의 모체이자 퇴계 당시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이 건립된 때부터 고종연간의 치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외에 퇴계의 아버지·형·조부·숙부를 모신 계현사(啓賢祠)·청계서원·향현사의 사실도 아울러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서원창건연조」에 있는 사항과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되는 사실이 많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서원명	창건시기	주향	종 · 배향	사액	치제일시 · 예관
도산서원 (陶山書院)	1574 (선조 7)	이황 (李滉)	조목 (趙穆)	1575 (선조 8)	1614(광해군 6) 임성지(任性之) 1737(영조 9) 정형복(鄭亨福) 1756(영조 32) 이석상(李錫祥) 1781(정조 5) 이양정(李養鼎)
역동서원 (易東書院)	1567 (명종 22)	우탁 (禹倬)		1684 (숙종 10)	1684(숙종 10) 위정상(魏定相)
청계서원 (淸溪書院)	1667 (숙종 8)	이식 (李植)	이우(李堉) 이해(李滉)		구(舊) 계현사(啓賢祠) 1688(숙종 14) 승원(陞院)
분강서원 (汾江書院)	1700 (숙종 26)	이현보 (李賢輔)			
향현사 (鄉賢祠)	1702 (숙종 28)	이계양 (李繼陽)	김효로 (金孝盧)		
동계정사 (東溪精舍)	1702 (숙종 28)	금난수 (琴蘭秀)			

도산서원과 관련 원사의 연혁

③ 조직과 운영자료

■ 도산서원 원규(陶山書院 院規)

하나. 유생들이 독서하는 데는 사서[論語 中庸 孟子 大學]와 오경[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을 근본이 되는 필수 과목으로 하고 소학과 가례를 입문서로 한다.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침을 준수하고 성현의 친절하 가르침을 지킨다. 온갖 착함도 본래부터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으며, 옛 사람이 하던 도리를 지금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음을 믿는다. 모두들 몸소 실행하여 마음으로 증득하고, 인간의 실존을 밝혀 사리에 맞게 응용하는 학문에 힘쓴다. 설사 역사책(史)과 자기의 학설을 세운 학자의 저서(子)와 선비들의 문집(集) 그리고 문장을 배워 과거에 필요한 학업과 같은 것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은 부수적 학업으로서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데 힘쓸 것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마음공부와 외형적으로 행동하는 것,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 경미한 것과 중요한 것 그리고 천천히 할 것과 급히 해야 할 것의 차례가 있다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언제나 스스로 격려하여 진보하도록 노력하고 타락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나머지 사특하고 허황하며, 요망하고 괴이하며, 음란하고 편벽 된 글 따위를 서원 안으로 가져와서 가까이 두고 보면서, 정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현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하나. 유생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이 굳세고 취향이 정직하며, 원대한 곳에 학업의 목표를 두며, 도의로서 실천의 귀착점으로 하는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다. 만약 마음을 비천한데 두고, 행동하는 것이 남을 현혹시키며, 아는 것이라 해도 속되고 비루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가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만약 행실이 괴상하여 예법을 비난하고 웃어넘기며, 성현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며, 올바른 길을 속이며, 도의를 배반하며, 추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예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원에서 다 함께 의논하여 그런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

一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 爲善學 其處心卑下 取捨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 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侮慢聖賢 詭經叛道 醜言辱親 敗群不率者 院中公議擯之

하나. 유생들은 항상 조용히 각 방에 거처하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력을 쏟을 것이며,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강론하고 궁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부질없이 다른 방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허송세월하며, 피차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거나 학업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一.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하나. 아무 까닭도 없이 자주 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의관과 응모와 행동거지와 언행에 각기 서로 잘 보살피어 선행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一.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惇相觀而善

하나. 성균관의 명륜당에 정이천 선생의 사물잡, 회암 선생의 백록동규의 십훈 그리고 진무경의 속흥야매잠을 써서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 중에서도 이것을 써서 벽에 걸어 놓고 서로 타이르고 일깨워야 한다.

一. 泮宮明倫堂 書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하나. 서원 소유의 책을 밖으로 가져나가서는 안되며, 공부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도 안 되며, 술을 빚어서도 안 되며, 형벌을 써서도 안 된다. 책은 나가면 잃기 쉽고, 여자가 들어오면 문란하기 쉽고, 술은 학사에서는 마땅한 것이 아니며, 형벌은 유생들이 할 일은 아니다. 註-<형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생이나 혹은 유사가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외인을 종아리치고 구타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애초부터 절대로 그런 예를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서원에 속한 사람이 죄가 있어 그대로 용서할 일이 아니면, 적은 것은 유사가, 큰 것은 상유사와 같이 의논하여 처벌해야 한다.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刑謂諸生或有司 以私怒捶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則不可全赦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 同議論罰

하나.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품관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잘 알고 조행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골라서 상유사로 정하되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一. 院有司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皆二年相遞

하나. 모든 유생과 유사는 서로 예를 갖춘 모습으로 서로 사귀며 공경과 신의로 서로 대우해야 한다.

一.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하나. 서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돌봐 주어야 하며, 유사와 여러 유생은 항상 밑에 부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서원이나 재 이외의 일로 누구든지 사사로운 일로 사환을 부리지 못하며, 개인 감정으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一. 院屬人完恤 有司與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하나. 서원을 세워 선비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를 받들고 학문과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뜻이니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하여 그 제도를 도울지언정, 그 규약을 훼손함이 없다면, 유학에 있어서 어찌 다행한 일이지 않겠는가.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豈不幸甚

하나. 아이들은 학업을 받거나 유생이 불러오는 경우가 아니면, 진도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一. 童蒙 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德門內

하나. 기숙생은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정원은 없으나, 성재가 되어야 서원에 오를 수 있다.

一. 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 乃升院

도산서원 원규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정한강유안동향교유생서(鄭寒岡諭安東鄉校儒生書)」는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인 1607년(선조 40) 3월에 안동향교의 유생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힘써야 할 바를 제시해준 것으로서 당시 향교뿐만 아니라 서원, 사우에서 학업을 연마하는 제생(諸生)들에게 모범이 되어 온 글이다.

■ 정미년 식례(丁未年 式例)

정미년 4월 11일에 도산서원 당중 명의로 작성된 식례이다. 서원 내부의 세부규칙을 정리하였다. 식례에서는 서원 방문자의 준수사항, 당회에 참여하는 하는 인사들을 위해 제공되는 음식 및 물품의 종류와 양, 하인들의 관리 및 급여에 대한 규정 등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인적사항은 심원록을 참고토록 한다. 서원 방문자는 반드시 도포를 착용해야 한다. 손님 1명당 내놓는 쌀은 17합이며 반찬값은 2푼으로 한다. 서원에서 사용하는 용지는 때마다 구입하여 사용한다. 재무사항은 별하기에 기입한다. 담배는 상마다 2악을 제공한다. 제사 거행 시의 하인들은 매번 점고를 한 후 급료를 계산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式例

- 一. 無論本鄉與他邑往來賓客或留宿或午站. 當以尋院錄爲憑考事
 - 一. 客有不着道袍. 不入正門者. 不得書尋院錄事
 - 一. 無論享祀時與平常時. 所謂下處牀. 一不舉行事
 - 一. 前首奴或時使廟直另擇勤實者. 差出掌財一名. 庫直處量入上下事
 - 一. 客一員飯米一七合. 饌價二分式爲定. 而焚香時任員支供. 亦依此舉行. 有奴馬者. 米一七合. 太一升加上下事
 - 一. 堂會時. 米饌依定式舉行. 而狗一首價. 加上下事
 - 一. 享祀時. 齋儒支供. 飯米一七合饌價五分式定式事
 - 一. 前任若入院. 則饌價以五分式上下事
 - 一. 每歲十月. 燠造太一石三斗. 三食母處分給. 翌年正月監捧. 新庫直處量給鹽價沈醬是矣. 醬二斗舊庫直. 傳掌於新庫直事
 - 一. 享祀時. 燈油價三錢. 鹽價三錢式上下事
 - 一. 每一朔燈油價二錢五分. 鹽價二錢五分式上下事
 - 一. 院用紙地. 隨時貿用. 而掌財看檢. 別下記以入事
 - 一. 南草. 每牀頭二握式爲定. 而無時則切不入用. 三時使處. 每朔三把式上下事
 - 一. 每年三時使衣資. 每朔兩時使頒料. 依定式施行事
 - 一. 享祀時. 舉行下人每點考後懸料事
 - 一. 如是定式之後. 如有不得已別用下處. 則受帖於任員後舉行事
- 丁未四月十一日
堂中

■ 계사년 절목(癸巳年 節目)

도산서원의 규약을 싣고 있는 1893년의 절목이다. 절목의 내용은 수세(收稅)는 원임(原任)이 담당하여 모두 징수할 것, 본색(本色)으로 징수할 것, 토품(土品)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징수할 것 등 수세에 관련된 조항과 노비 공전 및 서원 노비의 소생을 침범하지 말 것, 원례를 이역하지 말 것, 원사가 아니면 함부로 구인하지 말 것 등 노비에 관련된 조항, 서원에서의 도포 착용, 임원교체시의 문적 점검 및 원우 상태 점검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으며, 춘간규정조건(春間規整條件)을 따로 두어 원중의 채전, 지정(紙政), 교정(轎丁)의 고세(雇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節目

癸巳十月 二十六日 堂會時

堂會時時到

上有司 行縣監 鄭 愚山 時榮川

前任 前承旨 李 遠村 幼學 李 遠村 幼學 李 宜仁 前監役 李 遠村

會員 前校理 李晚鉉 幼學 李中範 前正言 李晚燦 幼學 李晚瑗 齋任 李彙容

新上有司 行縣監 李 樊南 時慈仁

- 一. 田土班作 自明年移作于院隸 而如有不遵之弊. 雖已播種. 一竝反耕事.
 - 一. 新舊收稅未捧. 諸原任擔當. 收畢事.
 - 一. 春秋收稅. 谷依本色收捧. 毋得如前代錢事.
 - 一. 基田一斗落米牟一斗. 或皮牟二斗. 收稅者. 隨土品釐正事.
 - 一. 太紫山田土. 逐年看驗. 勿爲如前常定收稅事.
 - 一. 自今以後. 留谷流用. 勿爲秋糶春糶事.
 - 一. 奴婢貢錢. 歲以減損. 而至於年來. 猝遷無漸. 不可一任如是較數. 歲中以丁亥數收納. 而待花名後. 準捧事.
 - 一. 兒貢當年畢捧. 勿爲如前遷就事.
 - 一. 院底奴婢勿侵. 所生使之奠接事.
 - 一. 近地奴婢. 任員爲先花名事.
 - 一. 時使院隸. 毋得私役事.
 - 一. 任員當刻勵廉幹. 而或不加勉. 則隨輕重施罰事.
 - 一. 非關院事. 則雖或原任分付. 無得拘人於谷內事.
 - 一. 不着道袍. 則不得尋院留宿事.
 - 一. 任員交遞之際. 各項文籍一一照檢傳掌事.
 - 一. 交遞之際. 院宇弊完. 隨處摘檢. 而壞漏泛過者. 則其時任員. 難免重罰事.
 - 一. 假屬勿爲負役事.
 - 一. 春秋收稅記及日用下記. 月朔輪告于諸原任事.
 - 一. 院中自今春已用市斗. 永爲定式事.
- 癸巳十月二十六日. 堂中.

■ 정묘년 완의(丁卯年 完議)

정묘년 8월 17일에 上有司 李某 명의로 작성한 완의이다. 서원의 폐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였다. 완의에 의하면, 근래 본 서원은 폐해가 극심하여 몇 년 내에 향례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서원의 임원들은 몇 가지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대체로 서원 소속 재산을 엄정하게 사용토록 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서원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삽입한 항목도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원 소유의 전토에서 세를 거둘 때에는 그것을 일일이 살펴서 받은 후에 다시 서원의 수임이 정확한 양이 납부되었는가를 검사한다. 서원 소유의 전토 가운데 본손이 경작하는 것은 서원 소속 노비에게 맡겨 경작케 한다. 서원에서 매매한 전토는 일률적으로 응당 환원토록 한다.

서원 소속 노비와 사환은 원임 이외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서원에서 아직 받지 못한 옛날의 채무는 하나하나 따져서 거두어들인다. 본손이라 하더라도 원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새해 인사를 제외하고는 서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손이든 他姓이든 특별한 일 없이 서원에 들어온 자에게는 支供하지 않는다. 도포를 착용하지 않고 서원에 들어오면 역시 지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完議右完議事. 不佞忝在本院首席之任. 猥參秋享將事之列. 進退揖讓. 如侍於函丈之間. 完然如有得焉. 而但心所憂歎者. 卽本院凋殘之弊. 莫此爲甚. 聞其所聞. 見其所見. 若此不已. 未過幾年. 勢將闕享. 吾儕之恥. 當復何如. 不覺寒心寧欲無言. 僉前任丈. 慕先師之誠心. 非不至切且懇. 竟不得矯揉. 抵至今日者. 未嘗不由於含默之致不佞今帶院任. 又無一言. 則弊上加弊必至於莫可收拾之境. 第念諸先輩當日創設之本意列聖朝崇報之盛典. 果安在哉. 良有以無私四箇字. 敢陳愚意. 而謹且完議十許件事. 條列于左揭付院壁. 僉君子輪視惕念. 永久遵行. 俾爲萬一之助. 幸甚幸甚

一. 本院田土. 春秋收稅. 一一收刷畢捧後. 首任躬檢斗量入庫事

一. 本院田土之本孫中耕作. 一應移作於院奴之處. 俾爲支保事

一. 本院所賣之田土. 一應還退事

一. 本院奴婢之本孫處仰役者. 一一依例收貢. 無一遺漏事

一. 院奴使喚. 原任各宅外. 不得施行事

一. 本院各所未捧之舊債. 一一以本條收刷事

一. 雖本孫. 不入院案之人. 歲謁外勿許入院. 凡干事不得干涉事

一. 下記申飭. 無使濫下事

一. 本孫及他姓. 無事入院者. 勿爲支供事

一. 無論遠近本他姓. 不着道袍而入院. 則亦勿支供事

丁卯八月十七日

上有司 李

■ 집사록(執事錄) - 11건

- 계미 정월 계현사 영건시 파임(癸未正月 啓賢祠 營建時 爬任)
- 신축 5월 상덕사 환안시 집사(辛丑5月 尙德祠 還安時 執事)
- 갑진 3월 농운정사 중수시 파록(甲辰3月 隴雲精舍 重修時 爬錄)
- 계축 4월 도산제자록 간역시 파록(癸丑4月 陶山諸子錄 刊役時 爬錄)
- 헌관집사록(獻官執事錄) : 무오2월, 병자정월, 계해, 정축6월, 경오 6월

■ 유원록(遊院錄)

유원록(遊院錄)은 만력 4년 병자년(1576), 즉 도산서원 창건 2년 뒤부터 시작해서 1772년 임진년 2월 향례(享禮) 때까지 약 200년간 도산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한 사람들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책이다. 원생의 선발도 초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발하였으나, 차츰 매년 보충하는 형태로 선발하다가, 1616년에는 아예 “이 후에는 식년(式年)마다 입원(入院)한다.”라고 명기(明記)하기에 이른다. 이 문서는 도산서원의 초기부터 200년간 거쳐 간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전임록(前任錄) - 2책

전임안은 도산서원 상·하유사를 역임한 원임들의 명단이다. 서원 건립초기인 1576-1579년까지 3년 동안의 원임 명단과 을묘(乙卯)년에 작성된 것이 있다.

④ 교육·제향의례 자료

서원은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곳으로서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놓은 격식에 따라 행하였는데, 「의절(儀節)」과 「홀기(笏記)」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의례류의 내용을 파악한다면 도산서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의 내용과 과정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홀기가 고유(告由), 향례(享禮), 향음주례(鄉飲酒禮) 등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라면 의절(儀節)은 서원에서 거행되는 의식과 사무에 대하여 관장주체, 일의 내용, 절차를 기록한 문서이다.

치제는 왕이 도덕과 학문에 뛰어난 유현이 죽었을 때 직접 제문을 지어 학덕을 기리는 의례로서 통상 예조의 신하를 보내서 제사를 집전하게 하였다. 비록 신하가 대행하지만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절차와 범절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다. 치제의(致祭儀)·치제문(致祭文)·사제문(賜祭文)·사제일기(賜祭日記)·사제홀기(賜祭笏記) 등의 기록이 모두 비슷한 성격의 기록들이다. 치제는 해당 가문이나 서원에서는 매우 영광된 일이었기에 치제 후 그 치제문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록하였다. 도산서원에 이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제는 덕망있는 신하가 죽었을 때나 그 기일에 예관에게 향과 제문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그를 추모하는 의례로서 치제와 비슷한 뜻이다.

■ 1796년(정조 20) 사제시일기(賜祭時日記)

1796년(정조 20)에 작성된 '문순공 퇴계 이선생'의 사제시 일기이다. 1791년(정조 15)에 정조는 문순공 이항, 문원공 이언적, 문성공 이이의 사손들에게 관직을 내려 주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다. 이에 각 사손들은 관직을 제수 받는데, 이때 문순공 이항의 사손인 이지순(李志淳)도 관직을 제수 받는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지순은 평안도의 영유현감(永柔縣監)으로 제수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사손 이지순이 있는 곳으로 문순공 이항의 사판(위패)을 가지고 가야했던 것이다.

안동에서 영유까지는 상당히 긴 거리이고, 또 도중에 서울을 지나가게 되었다. 본 사제시 일기는 바로 문순공의 위패가 서울을 지나가면서 겪었던 일을 날짜별로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도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짧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문순공 이항에게 치제하였다. 지금 문순공의 사손은 영유현령이어서 사판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예관들에게 명하여 유생들을 인솔하여 강 부근의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고,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였다.” 비록 실록의 기사는 간단하지만 본 일기는 더욱 생생한 자료를 건네주고 있다. 관찬사료인 실록과 고문서가 서로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丙辰九月十三日文純公退溪李先生賜祭時日記

是年七月十九日政. 先生祀孫李志淳. 除拜永柔縣令. 辭朝下去. 後先生祠版. 以九月初四日. 發向治所. 陶山儒生. 幼學金是瓘. 本孫李龜福. 龜洪. 永淳. 鍾淳. 觀淳. 程淳. 龜恒. 陪來. 嶺以南沿路. 守令搢紳章甫. 祇拜迎送者. 甚衆云[醴泉郡守權省. 龍宮縣監金憲祚. 出境上祇迎. 醴泉則先生祀孫李曾蒞醴泉郡. 故舉行尤別.]

九月初六日夜左承旨李益運入侍時. 啓曰. [臣]近聞先正臣文純公祠版. 將過城闔事甚稀

貴。故敢此仰達矣。上曰。先正祠版。何以入城。對曰。永柔縣令李志淳。卽先正祀孫。故祠版將隨征矣。上曰。然則當致祭。臨時更爲提醒可也。對曰。似於十二日間將入城云矣。上曰。然則館學生。當有迎拜之節。前例問于太學而入稟也。對曰。聞先正卒逝之後。祠版初入都下云。似無前例之可攷矣。上曰。然則誠貴矣貴矣。先正祠版渡江。則館學生。例具巾服。東西成班而祇迎。此意使館學知之可也。對曰。然則自政院招致太學守僕。言于諸生。且以書通于泮長乎。上曰。此則予當有傳教矣。又教曰。入城後。祠版當住何處。對曰。當住泮村云矣[筵說]。承旨金翰東。來傳筵說。嶺人之在泮者。聚首感泣。不知所言。裁書募人。一邊通于行次所。以探行期。一邊送人于永柔縣。蓋祀孫李志淳。方在治所。距京城六百里。勢不得趁期來參。極可欠歎。

初八日。傳曰。先正李文純公祠版。將向祀孫永柔官治。聞於不多日內入京。而此先正祠版之入京。先正身後。數百年初有之事云。若覲伊人。勞我曠感。豈可只令諸生迎于江郊。備例而已乎。特遣禮官。押于青衿之班。以侈其行。以聳觀瞻。兼寓視意之意抵京日。遣承旨致祭事。分付禮曹。

初九日行次所下隸來到。將以十二日入城。本孫前應教李龜雲。生員李家淳。時在泮中。凡干區劃。與嶺人從便會議。

初十日。朝所送雇人來到。遇行次於忠州崇善云。致祭處所。則泮主李快益家甚狹窄。故定于四賢祠洞都家。

十一日。永柔由吏。自行次所來到。祠版行次已至圻郊。以鋪陳接待等節。李家淳。柳台佐。往稟于樊巖相公。相公曰。老先生平生操履。以謙約自居。其在體念之道。凡百必從簡便。絕勿張大云。致祭日子。初欲以十二日爲之。適值英廟誕辰齋日。退定于十三日乙卯夕。李龜洪入來。行次已到松坡云。正郎金熙周。注書金熙洛。裁書于蔡參議弘遠。通日子。兼及都監遮日輸送之意嶺中諸人。齊會于李應教龜雲舍館。分定有司。都執禮。承旨金翰東。執禮。幼學李重祖。修掃有司。前掌令李鎮宅。幼學琴宗烈李儒默。別檢金魯範。鋪陳有司。章陵令洪[이+爽]。幼學成啓直。裴顯良。接賓有司。監役李樹仁。典籍李志容。都事李[이+英]。副正字李英發。幼學李致榮。幼學裴顯明。崔柱昇。日記有司。副正字金熙洛。柳台佐。時到有司。監察李秉烈。士朴時源。生員李用正。幼學李徽延。前注書崔仁簡。正書貼于都家西壁。

十二日。都執禮金翰東。在政院貽書。而以明日禮官啓下云。故都執禮則姑闕焉。賜祭隔日。宜先告由。李龜雲。製告由文。往于松坡行次所。其文曰。聖明尚賢。曠百恩遇。卽地殊典。自天溫諭。曰予先正。祠版入城。若覲伊人。庸侈其行。旣遣春官。整我衿紳。申命承宣。秩爾豆籩。迺出常格。丕聳觀瞻。脩門近止。渭濱終南。穆陵遺眷。東湖舊路。今將分奉。用伸虔告。嶺中諸人。遂齊會于都家。太學入直官朴吉源。送下隸修掃等節。甚勤幹矣。戶曹判書李時秀。送賻儀錢貳拾兩。白木參尺。別壯紙伍束。前正言洪時溥。幼學許源。來見。

十三日，罷漏後，禮郎金熙周，以館學儒生押班次，先往松坡江郊，設依幕以待，嶺人以次齊進，泮隸以待陪，不令而來者，幾至數百名，引館學諸生，定座後，設小酌一巡，成均直講朴吉源，以掌務官，具公服來待，京中諸搢紳，亦次次來到，午時量，祠版行次渡江，禮官押班，掌務官次之，掌議班首以下，東西序立，鞠躬祇迎，訖，陪從入來，至馬場，搢紳章甫祇迎者，數百餘人，至往十里，卿宰以下，設依幕以待者甚衆，東門內外皆然，延亘十餘里，道路觀者，莫不欽聳，未時量，權安祠版于都家，致祭承旨金翰東，已來待，典祀官，禮賓直長金魯正，大祝，校書博士李夢龍，齋郎，尚衣別提洪章輔，贊引，假引儀黃稔，祝史，則押班禮官兼之矣，閣吏來傳朝紙，下教內，文純公祠版，今方入城，時原任閣臣，抄啓文臣，并爲進參，二提學[沈煥之]若出迎於門外，則必有不及之慮，直向成均館事知委，左議政原任閣臣蔡濟恭，右議政原任閣臣尹著東，率百官來會，館學諸生，具巾服，序立于庭，因行祭如儀，承旨李益運，蔡弘遠，於申退前出來，亦奉傳教也，注書柳遠鳴，自堂后亦出來，行祭訖，宴賓于庭。

祭文

(略曰) 考亭既遠，斯文復晦，王陳亂苗，家鳴喙喙，道東不墜，於卿乎在，金玉程姿，錦褰孔誨，致誠惟曲，用心惟內，研幾積真，人一我倍，粹然有輝，沛乎無碍，浸漬醲郁，尊瞻艮背，恬風舒日，淳淵崇岱，集而成之，四賢折輩，有來浚旄，載釋莘來民謠士歌，想望三代，曰我量能，禮恭而退，闡學圖炳，條筭辭剗，謂報涓埃，功實鼎鼎，修辭牋蒙，遯而無悔，書節朱要，經辨墩俏，羣髦丕變，炳蔚其采，聲施及蠻，洋溢灌溉，陶水泱泱，陶山鱣鱣，緒言遺秩，朝暮百載，取士卿卿，流風未沫，繾綣卿裔推其遺愛，愛之維何，銅符西佩，祠版過都，事曠難再，如將束帛，于垆延徠，春官表班，章甫成隊，藹藹濟濟，有儀可繪，嗟今之世，一何頽潰，異言孔陟，俗趨一態，鴻儒不作，斯道將廢，願治無臣，中朝屢慨，何處得來，予思如癘，忤官尊誅，靈有不昧[應教李明淵行進]

十四日巳時，離發，路出南門，禮郎押班，館僕侍陪搢紳章甫護從之節，一如祇迎時，東部令尹心約，陪送于東部界，左議政蔡濟恭，漢城判尹權[示+嚴]以下，諸卿宰，館學儒生數百餘人，隨往慕華館，自泮水橋，至迎恩門，連亘十餘里，班次整整不亂，朝搢紳儒冠姑勿論，下而至於婦僮童孺，皆曰，吾先生祠版過此，爭相俯伏路左，迎送有儀，祠版行次，踰慕華館，祇送諸人，設小酌一巡華暮而歸，蓋此中路賜祭，實是曠世盛典，自祇迎暨將事，班行整肅，觀瞻聳動，莫不感頌焉，泮村有酒狂數人，相戒曰，吾先生祠宇臨泮，吾輩慎勿飲酒，當日街路，無酗酒爭鬭聲，亦可見過化之妙也。

…賜祭時有司分定，祇迎陪祭參班錄 等 以下 名單 省略 …

■ 향음주례 홀기(鄉飲酒禮 笏記)

迎賓

主人速賓。賓拜辱。主人答拜還。賓拜辱。介亦如之。賓及衆賓。皆從之。主人一相迎于門外再拜賓。賓答拜。主人西南面拜介。介答拜主人西南面揖衆賓。主人揖賓先入[主人入門西面]。賓厭介介厭衆賓。皆入門左北上

獻賓

主人與賓三揖至于階。三讓。主人升。賓升。主人阼階上北面拜。賓西階上北面答拜。主人坐。取爵于篚。降洗[降阼階下洗爵]。賓降[西階下]。主人坐奠爵于階前。賓對主人取爵興。適洗。南面坐。奠爵于篚下。盥洗賓進東北面辭洗。主人坐。奠爵于篚。興。對賓復位。當西序東面。主人坐取爵。沃洗者。西北面卒洗。主人揖讓升。賓升。拜洗。主人坐奠爵答拜。賓西階上疑立。主人坐。取爵實之賓席前。西北面獻賓[向賓席]。賓西階上拜。主人少退。賓進。受爵以復位[復西階上]。主人阼階上拜送爵。賓少退薦脯醢[薦之者主人有司]。賓升席自西方。設折俎[主人有司]。主人阼階東疑立。賓坐。左執爵右祭脯醢。奠爵于薦西。興。右手取肺左手執本。右手絕末以祭。尚左手臠之興。加于俎。坐掄手。祭酒。興。席末坐。啐酒。降席坐。奠爵。拜告旨。執爵興。主人阼階上答拜賓西階上北面坐。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阼階上答拜

賓酢主人

賓降洗。主人降。賓辭。主人對。賓取爵適洗南北面。主人阼階東南面。辭洗。賓坐奠爵于篚興。對。主人復阼階東。西面。賓東北面。盥。坐取爵。沃洗者。卒洗。揖讓升。主人拜洗。賓答拜。主人阼階上疑立。賓實爵。主人之席前。東南面。酢主人。主人阼階上拜。賓少退。主人進受爵復位。賓西階上拜送爵。薦脯醢。主人升席自北方。設折俎。賓西階上疑立。主人坐。左執爵右祭脯醢。奠爵于薦北。興。右手執肺左手執本。右手絕末以祭。尚左手臠之。興。加于俎。坐掄手。祭酒興。自席前適阼階上。北面坐。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賓西階上答拜。主人坐。奠爵于序端。阼階上拜崇酒。賓西階上答拜

主人酬賓

主人坐。取觶于篚。降洗。賓降。主人辭降賓立當西序東面。主人卒洗。揖讓升。賓西階上疑立。主人實觶酬賓。阼階上北面坐。奠觶。拜。執觶興。賓西階上答拜。主人坐祭飲卒觶。興。坐奠觶。拜。執觶興。賓西階上答拜。主人降洗。賓降。主人辭。賓立當西序東面。主人卒洗。揖讓升。賓西階上立。主人實觶賓席前北面。賓西階上拜主人少退。主人進坐。奠觶于薦西。賓辭坐取觶。復位。主人阼階上拜送。賓北面坐。奠觶于薦東。復位。主人揖降。賓降立于階西當序東面

主人獻介

主人以介揖。至于階。讓。主人升。介升。主人北面。拜介右。介西階上北面答拜。主人坐取爵于東序端。主人降洗。介降。主人坐奠爵于階前。辭。介對。主人坐。取爵興。適洗。南面坐。奠爵于篚下。盥洗。介進。東北面辭洗。揖讓升。介西階上立。主人實爵介之席前。西南面獻介。介西階上北面拜主人少退。介進北面受爵復位。主人介右北面。拜

送爵。介少退。主人立于西階東。薦脯醢。介升席自北方。設折俎。介西階上立坐。左執爵右祭脯醢。奠爵。興。自南方降席。北面坐。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主人介右答拜復位

介酢主人

介降洗。主人降。介辭。主人對。阼階東南面辭洗。介坐奠爵于篚。興。對。主人復阼階東。西面。介東北面。盥。坐取爵卒洗。主人盥。介揖讓升。授主人爵于兩楹之間。介西階上立。主人實爵。酢于西階上介右。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祭飲卒爵。興。坐奠爵拜。執爵興介答拜。主人坐。奠爵于西楹南介右。拜崇酒。介答拜。主人復阼階。揖降。介降立于賓南

主人獻衆賓

主人西南面拜衆賓。衆賓皆答拜。主人揖升。坐。取爵于西楹下。降洗。賓長一人東北面辭洗揖讓升。主人實爵于西階上。獻衆賓衆賓之長三人以次升。拜受。主人薦諸其席。三賓坐祭立飲。不拜。既爵。授主人爵。衆賓獻則不拜受爵。坐祭。立飲。徧有脯醢。三賓降復位主人以爵降。奠于篚

舉觶旅酬始

主人揖讓升。賓厭介升。介厭衆賓升。衆賓序升卽席。一人[主人之執事]。洗升。舉觶于賓。實觶。西階上坐奠觶拜。執觶興。賓長席末答拜。一人坐祭。飲卒觶。興。坐奠觶。拜。執觶興。賓長答拜一人降洗升。實觶立于西階上。賓長拜。一人進坐。尊觶于薦西。賓長辭。坐受以興。舉觶者西階上拜送。賓長坐奠觶于其所[薦之西也]舉觶者降

迎僎

僎入門坐。主人降。賓及衆賓皆降復初位 [門內東面之位]。主人揖讓以僎升。拜至。僎答拜

獻僎

主人以爵降。僎降。主人辭降。僎對主人適洗。南面坐。奠爵于篚下。盥洗僎進東北面辭洗。揖讓升。主人實爵席前獻于僎。僎西階上拜。進受爵。返位主人僎之右拜送。乃薦脯醢。僎升席。設折俎。主人阼階東疑立。僎坐。左執爵右祭脯醢。興。西階上飲。卒爵。拜。主人答拜

司正奠觶

主人降席自南方。作相爲司正。司正禮辭許諾。主人拜。司正答拜。主人升復席司正洗觶。升自西階。阼階上北面受命于主人。主人曰請安于賓。司正告于賓。賓禮辭許。司正告于主人。主人阼階上拜。賓西階上答拜。司正立于楹間相揖復席。司正實觶降自西階。階間北面坐。奠觶。退拱少立坐取觶不祭飲卒觶。興。坐奠觶。拜。執觶興。盥洗。北面坐。奠觶于其所。退立于觶南

旅酬

賓北面坐。取俎西之觶。阼階上北面酬主人。主人降席立于賓東。賓坐奠觶。拜。執觶興。主人答拜。賓不祭立飲卒觶。不洗實觶。東南面授主人。[賓立飲卒觶因更酌以向主人將授]主人阼階上拜賓少退。主人受觶。賓拜。送于主人之西賓揖復席。主人西階上。酬介。介降席自南方。立于主人之西。介坐奠觶。拜。執觶興。主人答拜。介不祭立飲。不拜。卒觶。不洗實觶東南面授主人。主人阼階上拜。介少退。主人受觶。介拜送于主人之西。介揖復席。主人揖復席。司正升相旅曰。某子受酬受酬者降席。司正退立于序端。東西。受酬者。自介右。衆受酬者。受自介左。受酬者拜。執觶。興。司正答拜。不祭立飲。不拜。卒觶。徧卒受者。以觶降。坐奠于篚。司正降復位

無筭爵始

主人使二人舉觶于賓介。洗。升。實觶。西階上皆坐奠觶。拜。執觶興。賓介席末答拜。二人皆坐祭飲卒觶興。坐奠觶。拜。執觶興。賓介席末答拜。二人逆降。洗。升。實觶。皆立于西階上。賓介皆拜。二人皆進薦西奠之。賓辭。坐取觶以興。介則薦南奠之。介坐受以興。退二人皆拜送。降。賓介奠于其所

徹俎

司正升自西階。受命于主人。主人曰。請坐于賓。賓辭以俎。主人請徹俎。賓許。司正降階前。命弟子俟徹。[西階前也。弟子賓之少者]。司正升。立于序端。賓降席北面。主人降席。阼階上北面。介降席。西階上北面。僕者降席席東南西。賓取俎還。授司正。司正降。賓從之。主人取俎還。授弟子。弟子以降自西階。主人降自阼階。介取俎還。授弟子。弟子以降。介從之。衆賓皆降[取俎者。皆向其席既授弟子皆降復初入之位]

燕

說屨。揖讓如初升。坐。乃羞。無筭爵

賓出

賓出主人送于門外再拜

賓拜賜

明日賓服鄉服以拜賜。主人如賓服以拜辱

樂賓[以無樂工者之]

皇明崇禎後再丁未九月 日

■ 도산서원치제의(陶山書院致祭儀)

도산서원(陶山書院) 제사를 드릴 때의 의식의 방식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으로, 도산서원의 대문 밖 서남쪽으로 향축막(香祝幕)을 설치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신주(神主) 앞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어 앉아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일을 기록하였다.

前期. 本官設使者次於書院大門外之西南向. 設香祝幕次於使者次之東. [有卓]. 設諸執事次於使者次之後. [竝隨地之宜] 設主人以下諸生[主人則主祭儒生]位於院東階下西向北上. 設使者位於神位之東南向. 設主人位於神位前北向. 其日. 使者以常服陪 香祝至. 諸執事亦以常服就道左. 鞠躬祇迎. 香祝安於幕次內卓上. 掌次者. 引使者入次. 諸執事各就次. 大祝[盥悅]. 填祝文訖. 執事者. 盥悅後. 設香爐香合[盒] 竝燭於神位前. 設祝文案於神位之左. 設祭物. 如式畢. 主人以下. [儒生儒服]以常服先就東階下. 位西向立. 司儀引主人出. 詣使者次前. [臨時設席]司儀引使者出次. [盥悅以出]. 主人行迎賓禮[單拜]後. 先 就東階下. 位西向立. 執事者捧香祝以入. 主人以下. 鞠躬祇迎. 香祝陞安於案. 司儀引使者. 陞自東階. [諸執事從陞]. 詣神位之東. 南向立. 司儀引主人. 陞自西階. 俯伏於神位前. 諸生皆跪. 司儀引使者. 詣神位前. 北向立.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捧香爐. 以進使者. 立三上香. 執事者奠爐合于案. 執事者以盞酌酒以進. 使者執盞奠盞. 以盞授執事者. 奠于 神位前. [連奠三盞]. 司儀引使者詣. 配享神位前. 上香奠盞. 竝如上儀. 訖. 司儀引使者. 還復位. 大祝進主享 神位之左. 西向立讀 祝文訖. 主人以下. 俯伏. 興. 平身. 司儀引主人. 降復位. 司儀引使者出. [諸執事隨出]. 詣門外位. [臨時設席]. 主人出. 詣使者前. 行送賓禮. [單拜]. 使者還. 主人入. 主人以下. 再拜後. 徹饌乃退

■ 1792년(정조 16) 도산서원(陶山書院) 치제문(致祭文)

大東元氣 대동의 원기가
 養得眞儒 참다운 선비를 길렀으니
 天人性命 천인 성명의 논설과
 孔孟程朱 공맹 정주의 학문이었네
 執厥繩尺 그 승묵(繩墨)과 척도(尺度)를 잡고
 正我步趨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을 바르게 하니
 渾渾姿性 혼혼한 자품이요
 進進工夫 진진한 공부로
 道不墜地 도가 땅에 실추하지 않았던 것이
 實在先生 실로 선생에게 달려 있었네
 穆陵側席 선조(宣祖)께서 특별히 예우하시어
 洞開邇英 이영의 길을 활짝 열었으니

丘園帛賁 구원에 빛이 나 속백(束帛)이 쓰여져
 廈飴經橫 하전에서 경서를 펼쳤고
 角巾南歸 각건을 쓰고 남쪽으로 돌아가니
 介石之貞 돌처럼 굳은 절개가 있어 정길(貞吉)하였네
 維陶有山 저 도산에
 永矢衡泌 길이 형비를 다짐하여
 口餐杞菊 입으로는 구기자와 국화를 먹고
 手披籤帙 손으로는 고서를 넘기며 은자의 삶을 추구했네
 味哉深造 도를 음미하여 깊이 나아가
 毫縷四七 사단(四端) 칠정(七情)을 자세히 분석하니
 萬人山仰 만인이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고
 一方泉達 일방이 샘물에 달한 듯 통하였네
 靑衿蹈矩 선비들은 법도를 따라 행하고
 紅女知讓 길쌈하는 여인은 양보할 줄 알았으니
 仁人利博 어진 사람의 말은 이로움이 넓어
 太和胎蠶 태화의 기운이 성대하였네
 縱有異端 비록 이단이 있어서
 載胥以誑 서로 그른 말로 속였으나
 環嶠七十 교남(嶠南)의 칠십 주(州) 가운데
 一不迷向 한 주도 추향이 혼미하지 않았네
 是謂鄒魯 이는 이른바 추로의 고장이니
 繫誰之功 곧 누구의 공이던가
 觸類伸長 같은 부류에 미루어 나가 퍼지고 자라게 하였으니
 如挹高風 마치 선생의 높은 풍모를 접한 듯하네
 几杖林壑 임학에 노닐며 지내는 모습
 繪素之中 도산도(陶山圖) 가운데에서 보겠으니
 六條十圖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聖學十圖)로써
 請師我公 청컨대 나의 공을 스승으로 삼고자 하네
 與配食故參判趙穆 共饗之 같이 배향된 고참판 조목과 함께 흠향하길 바라노라
 (正祖, 『弘齋全書』卷22, 祭文4)

■ 강회록(講會錄)

강회록은 강회시의 규정과 절차를 적은 기록이다. 강회는 서원을 비롯해 성균관이나 향교에서도 행해지는 의례로서 제생들이 배우고 익힌 경전을 고강(考講)을 통해 평가하는 시험의 하나였다. 강회

시의 절차나 규정에 관한 기록들을 강회의(講會儀), 강습의(講習儀)라 한다. 도산서원 강회록은 1795년(정조 19) 2월 왕이 도산서원에 『주서백선』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서원건립의 본연의 목적을 되돌아보기 위해 실시한 강회의 경과와 당시 강회에 참석했던 강장(講長), 청강(聽講), 강생(講生)의 명부를 싣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왕이 『어제사문수간발문』1책과 경서 1질을 하사하였던 내용도 보이는데 기록의 후반이 결락되어 있다.

■ 강회일기(講會日記)

강회일기는 1854년(철종 4) 강회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향장(鄉長)들이 당년 12월 15일 강회를 열기로 하고 강회 전날부터 강회를 마친 17일까지 4일간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⑤ 서원 경제 자료

■ 수리일기(修理日記)

수리일기는 도산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건물을 수리할 때 쓴 일기이다. 수리일기는 건물 수리의 전말을 기록하여 후일에 이와 다름이 있을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도산서원에 있는 수리일기는 16건으로 여기에는 건물의 수리뿐만 아니라 창건일기(創建日記) 그리고 천방(川防)이나 도로 등 건물 이외의 수리일기도 함께 실려 있다.

- 「묘우수리시일기(廟宇修理時日記)」, 1753년 7월
- 「운영대전방시일기(雲影臺川防時日記)」, 1826년 3월
- 「전교당중수일기(典敎堂重修日記)」, 1836년 7월
- 「곡구도로수선시일기(谷口道路修繕時日記)」, 1931년 5월

■ 토지관련 문서

1576년 도산서원 속노 윤복·무화 명문(陶山書院 屬奴 倫福·茂火 明文)

비 현매(玄梅)와 비부 담순(淡順)이 환자와 신공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28일 다른 노비 3구를 아울러 초인하여 도망한 후 환자를 납부할 도리가 없어서 그가 갈아먹던 광현원 가자답 7두락지를 목면 35에 팔고, 나머지 대금은 전 5두락지에 아울러 판다는 내용이다. 즉, 12두락지를 목면 35필에 방매한 것이다.

- 전답안(田畝案)
 - 도산서원 전답을 기록한 전답안은 모두 9책이 있다. 이것은 정미 5월, 병인 윤3월, 가경을묘, 갑술, 정묘, 경자, 연대미상 2책, 임인4월 :존덕재전답반분책 등이다.

■ 노비관련 문서

- 노비안(奴婢案)
 - 도산서원 노비안은 17세기말부터 19세기 말까지 21책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서원 경제의 핵심인 노비들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경진년(庚辰年) 노비안(奴婢案)의 경우 1700년(숙종 26) 9월 현재 각처에 거주하는 도산서원 소속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이다. 거주지는 영해, 영양, 단양 등 다양하며, 성명, 나이, 거주지 순으로 기록하였다.
- 정유년 도산서원 재임 서목(丁酉年 陶山書院 齋任 書目)
 - 정유년 9월 28일에 도산서원의 재임 이모가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본원의 비(婢) 말질 열이 그녀의 무녀(巫女) 가포(價布)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 1700년 유학 금발원 명문(幼學 琴發遠 明文)
 - 아버지쪽에서 전해져 온 노 찬명(贊命)을 원노(院奴) 남국(南國)에게 전문 18냥에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남국이 올린 소지(所志)와 초사(招辭) 및 입안(立案)이 첨부되어 있다.

■ 기타 고문서

- 1870년 수표(手標)
 - 채전(債錢)으로 인하여 집류하고 있던 서원토지 3마지기를 금년 추수 후 1석 10말을 5냥에 대신하여 받고 남은 25냥을 받았으므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 이광춘 등 소지(李光春 等 所志)
 - 생원 이광춘 등이 도산서원 주위의 어로 등을 서리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고, 농암과 퇴계선생이 같이 노닐던 곳의 나무들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다.
- 1897년 권복삼 소지(權卜三 所志) 부첨 첩(附添 帖)
 - 임동면에 사는 권복삼의 자식인 권일억(權日億)에게 선무가포(選武價布)에 충정(充定)토록 하라는 통지문이 도착하자, 자신의 아들은 권일억이 아니라 권일옥(權一玉)임을 밝히고 잘못된 역의 부과를 면하게 해달라는 소지이다. 부사가 군포를 부과하는 첩이 첨부문서로 제출되었다.
- 전장기(傳掌記)
 - 전장기는 일종의 경리장부로서 서원경제관련 내용이 소상히 담겨 있다. 도산서원에는 1596-1634년, 1679-1683년, 1688-1695년, 1706-1727년, 1722-1763년, 1825-1856년 등 6책의 전장기와 1596-1634년까지의 전여기(傳與記)가 남아있어서 서원 건립이후 약 300년간의 경제변화를 알 수 있다.
- 도산서원 경제관련 자료
 - 도산서원춘추수봉기(陶山書院春秋收捧記), 신사봉입기(辛巳捧入記), 기사춘수(己巳春收), 고직봉입기(庫直捧入記), 무인지세기(戊寅地稅記), 미봉기(未捧記) : 정묘정월·갑술·정축·신사, 곡용부(穀用簿) 외 다수가 있다.

⑥ 향촌사회사 자료

■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思悼世子 追尊 萬人疏)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임오의리를 분명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1855년(철종 6) 이휘병(李彙炳)을 소두로 하고 모두 10,094명이 참여하였다. 이휘병은 이황의 후손으로 현감 이이순의 아들이었으며, 동생 이만희가 영남 사람들은 영조에 의해 죽은 사도세자를 추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1800년 정조의 사망과 동시에 세도정권의 대두와 벽파의 반격으로 인해 남인들이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된 상황^o을 만회하려는 영남 남인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 상소에 대하여 철종은 비답(批答)대신 승정원에 “되돌려주라”는 간단한 지시만 내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소는 비록 수용되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남 사람들을 결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 기사일기(記事日記)

- 「종사위개제시일기(從祀位改題時日記)」
 - 1809년(순조 9) 도산서원에 종향되던 월천 조목의 위패를 모신 독(櫝)에서 뱀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위패를 새로 제작하게 된 경과를 기록한 일기이다.
- 「도산서원서류사변시일기(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
 - 1884년(고종 21) 서열들이 서원 운영에의 참여와 평시에도 알묘(謁廟)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일으켰던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 「도산서원묘변시일기(陶山書院廟變時日記)」, 「陶山書院復室時張華植在京日記(陶山書院復室時張華植在京日記)」, 「구위판매안시일기(舊位版埋安時日記)」
 - 1901년 상덕사에 모시고 있던 퇴계선생의 위패를 도난당하면서 일어났던 일들과 이듬해 잃었던 위패를 되찾아 매안(埋安)한 사실의 기록이다.
- 「급문록영간시일기(及門錄營刊時日記)」
 - 1913년 4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존의 사가본(四家本)으로 전해지던 「도산급문제현록」을 1책으로 묶으면서 원고교감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는 6월 13일조의 후반부터 결장되어 교감을 마친 후의 진행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 갑술년 화부도회소 통문(甲戌年 花府道會所 通文)

공사원 이재두(李在斗) 등 82명이 도산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갈암 이현일의 관작과 시호를 회복 시키고자 하는 청원운동에 도산서원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경인년 원말 김정교 등 통문(庚寅年 院末 金庭敎 等 通文)

광산김씨 가문 여러 현인(賢人)의 문집은 도산서원에서 간행하고, 목판을 보관해온 바 있다. 김씨가문에서는 부득이하게 이 문집을 누차 다른 곳에 안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김정교 등은 운암(雲巖)·근시(近始) 양 선생의 유고는 별도로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였고, 계암(溪巖) 선생의 유고를 운반해 가는 일의 가부는 본손에게 달려 있으니, 이 두 문제를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 1575년(선조 8) 심원록(尋院錄)

1575년 5월부터 1607년 1월까지 도산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다. 1575년의 경우 당시 예안현감 손영제(孫迎濟)를 비롯하여 감사 윤근수(尹根壽), 정자(正字) 전경창(全慶昌), 찰방 이경원(李敬元) 등의 성명을 적고, 자(字), 거주지를 적었다. 본현에 거주하는 인물들은 거주지 부분을 비워 놓았다.

■ 신축년 관찰사 첩문(辛丑年 觀察使 帖文)

1901년(광무 5)의 위패도난 사건에 대하여 장본인을 탐색하여 연루자를 빠짐없이 적발하여야 하는데, 우선 수노와 묘직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본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조가(朝家)의 처벌과 사림의 성토를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 신축년 이진영 등 간찰(辛丑年 李進榮 等 簡札)

1901년 상덕사에 있는 퇴계의 위패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왕에게 고하고 관찰사에게 호소하여 대처하기로 논의가 되었는데, 이진영 등이 병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사죄하였다. 대신 젊은 사람 한 두명을 보낸다고 하였다.

■ 임신년 고봉서당 서목(壬申年 孤峰書堂 書目)

손가락을 잘라서 아버지의 위태한 목숨을 구해낸 효녀 윤례발의 여식이 평소의 효행을 일일이 들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이를 포양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강종건의 포보에 대한 역을 특별히 탈하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 을축년 김화 등 소지(乙丑年 金瑋 等 所志)

퇴계선생문집이 간행된지 오래되어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수본이 남아 있을 때 수정해야 하기에 순상(巡相)께서 허락하고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2-6-3. 도산서원 소장 전적의 특징

도산서원 고전적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서적의 수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행해온 각종 서책치부기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우선, 도산서원의 사액될 때 나라에서 내린 '내사본(內賜本)'이 있다. 이것이 도산서원 전적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로도 1588년, 1590년, 1793년, 1798년 등 수시로 내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치부기에는 『주자대전』, 『주자어류』, 『성리대전』 등의 성리서와 『논어』, 『춘추』, 『시전』 등 사서삼경이 내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지방관아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낸 경우로서 대개 퇴계의 제자나 후학들이 수령을 맡고 있는 경우, 관아에서 간행했거나 비축하고 있던 도서를 보냈다.

셋째,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간행하여 보낸 경우이다.

넷째는 도산서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행하거나 구입한 전적들이다.

『퇴계집』, 『송재집』, 『주자서절요』 등 문집과 성리서를 직접 간행하였다. 또한 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기류와 통문 등의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서 서적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도『궐리지(關里誌)』,『춘추좌전(春秋佐傳)』등 적지 않은 책을 구입했는데, 이는 치부기에 '무득(賃得)', '매득(買得)'으로 표기하고 있다.

도산서원에는 역동서원(易東書院)에서 이전된 전적들이 많다. 역동서원 치부기에는 퇴계가 보낸 『성리대전』,『통감』,『소학집성』,『성학십도』등과 사서삼경 등의 서책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인연으로 1868년(고종 5) 역동서원이 훼손될 당시 자연스레 도산서원으로 장서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역동서원 장서는 퇴계가 생전에 보낸 서적들이 많은 까닭에 임란이전의 오래된 선본이 많으며, 이는 도산서원 장서 가운데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계가 생전에 도산서당에서 소장하고 있던 수택본(手澤本)이 서원의 장서에 편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퇴계 생전의 서적들이 그러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문인이나 그 후손들이 퇴계와 관련된 전적을 서원에 헌정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사문수간(師門手簡)』은 퇴계가 월천 조목에게 보낸 간찰과 시문을 묶어 첩으로 만든 것으로 월천의 후손들이 서원에 헌정한 것이다.

도산서원 고서는 경부가 98종 614책, 사부가 161종 1,108책, 자부가 63종 384책, 집부가 704종 2,499책으로 총 1,026종 4,60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산서원은 국가적 관심 속에 수시로 내사(內賜)가 이루어졌고, 문도와 후학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서가 수집되었다. 또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 까닭에 임란이전 시기의 선본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도산서원 소장 고서는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어 목록(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전적 중 희귀·귀중본만¹¹⁾을 선별 수록한다.

책명	편·저자	간행연도	판본	책수	비고
國朝五禮儀	申叔舟·姜希孟 編	성종·명종 연간	을해자본	8권 6책	
國朝五禮序列	申叔舟·姜希孟 編	성종·명종 연간	을해자본	5권 2책	
後漢書	范曄	성종·명종 연간	을해자본	120권 32책	
晉書	房玄齡 等	중종·명종 연간	초주갑인자본	130권 43책	
論語諺解		1590	경서체자본	4권 4책	內賜本
論語集註大全		1570	목판본	20권 7책	역동서원 소장본
大學諺解		1590	경서체자본	불분권 1책	내사본
大學章句大全	朱熹 章句	1569	목판본	불분권 1책	남해현 기증본
大學章句大全	朱熹 章句	1570	목판본	불분권 1책	역동서원 소장본

도산서원 소장 희귀·귀중본-1

11) [도산서원 장서목록은 한국어문학회, 「도산서원 장서목록」 (『어문학』 1, 1956),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을 참조

책명	편·저자	간행연도	판본	책수	비고
大學章句大全	朱熹 章句	1793	활자본	불분권 1책	내사본
大學或問	朱熹	1570	목판본	불분권 1책	역동서원 소장본
孟子諺解		1590	경서체자본	14권 7책	내사본
孟子集註大全		1793	정유자본	14권 7책	내사본
文公家禮儀節	丘濬	1555	목판본	6권 3책	역동서원 소장본
附釋音 周禮註疏	鄭玄 註 賈公彥 疏	명종연간	을해자본	42권 22책	역동서원 소장본
書傳大全		1793	경서체자본	10권 10책	내사본
小學諺解		1587	경서체자본	6권 4책	내사본
詩傳大全		1793	활자본	20권 10책	내사본
詩傳大全		1570	목판본	20권 9책	역동서원 소장본
御定奎章全韻	正祖	1796	목판본	2권 1책	내사본
禮記集說大全	陳澧	1570	목판본	30권 15책	역동서원 소장본
五經百篇	內閣 編	1798	목판본	5권 5책	내사본
音註全文春秋括例始 末左傳句讀直解	林梅谿 註解	1454	목판본	70권 17책	역동서원 소장본
儀禮經傳通解續	黃幹(宋)註解	명종·선조 초	초주갑인자본	32권 29책	
儀禮經傳通解	朱熹 編	1570	초주갑인자본	37권 20책	내사본(퇴계)
儀禮圖	楊復(宋) 圖說	1536	목판본	17권 8책	
周易傳義大全	胡廣(明)	1793	활자본	24권 14책	내사본
中庸諺解	宣祖	1590	경서체자본	불분권 1책	내사본
中庸章句大全	朱熹 章句	1793	정유자본	불분권 1책	내사본
中庸章句大全	朱熹 章句	1570	목판본	불분권 1책	역동서원 소장본
春秋左氏傳	左丘明	1797	정유자본	27권 10책	내사본
春秋胡氏傳	胡安國	1570	목판본	30권 8책	역동서원 소장본
鄉禮合編	李秉模	1797	정유자본	3권 2책	내사본
景賢錄	金宏弼	1565	목판본	2권 1책	
古今歷代標題註釋十 九史略通攷	余進(明) 編	1582	목판본	6권 6책 (영본)	
關里誌	陳鎬 編	1502	초주갑인자본	13권 13책	1512년(병조판서 某씨) 내사본
大明一統志	李賢(明) 等撰	1564	을해자본	90권 60책	1564년 사헌부지평 某씨 내사본

도산서원 소장 희귀·귀중본-2

책명	편·저자	간행연도	판본	책수	비고
陶山及門諸賢錄	陶山書院 編	1913	필사본	1책	最初本
東萊先生音註唐鑑	范祖禹(宋) 撰	1562	목활자본	24권 5책	
文獻通考	馬端臨(元) 撰	1558	갑진자본	338권 133책 (7책 낙질)	사헌부 집의 李仲樞 내사본
師門手簡	李滉 著		필사본	7책	퇴계-월천 간찰첩
先生文集改刊日記		1817	필사본	1책	퇴계문집 보각시 일기
先生手蹟	李滉 著		필사본	5책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江贊	1603	목판본	50권 17책	
新增東國輿地勝覽	李荇 等 編	1531	목판본	55권 25책	
伊洛淵源二錄	楊方震(明)	1562	목판본	20권 5책	
前漢書	班固	성종·명종 연간	초주갑인자본	66권 16책	
增修附註資治通鑑節要續編	劉剡	1570 前	목판본	30권 15책	역동서원 소장본
忠烈錄	朴承宗	1621	목판본	2권 1책	
通典	杜佑	1560	을해자본	200권 75책	예조참의 李仲樞 내사본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李山海	1585	재주갑인자본	6권 3책	내사본 (초간본)
孝行錄	權近	1600	목판본	불분권 1책	
啓蒙傳疑	李滉	1915	목판본	불분권 1책	乙卯重刊時初校本
近思錄集解	葉采	1519	목활자본 (복간본)	14권 4책	
讀書錄	薛瑄	1573	목판본	22권 9책	
性理遺編	李楨	1564	목활자본	불분권 1책	
聖學十圖	李滉	1681	목판본	불분권 1책	내사본(1744)
旅軒先生性理說	張顯光	1642	목판본	8권 6책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周木(明)	1554	목판본	2권 2책	
五先生禮說分類	鄭述	1629	목판본	20권 7책	
二倫行實圖	曹伸	1730	목판본	불분권 1책	경상감영 刊
正俗諺解	王逸菴 著 金安國 諺解	1518	목활자본	불분권 1책	
朱文酌海	鄭經世 編		목판본	16권 8책	初刊本 추정
御定朱書百選	正祖	1794	활자본	6권 3책	내사본

책명	편·저자	간행연도	판본	책수	비고
朱子語類	黎靖德	1575	병자자(복간)	140권 75책	
朱子增損呂氏鄉約	呂大忠	17세기 이전	목판본	불분권 1책	국한문혼용
陳法	文宗(朝鮮)	1492	목활자본	불분권 1책	
太極問辨	鄭述	1623	목판본	2권 1책	
晦菴書節要序	李滉	1572	목판본	불분권 1책	
龜巖先生集	李楨	1641	목판본	2권 1책	初刊本
奎華名選	正祖	1793	再鑄韓構字	16권 3책	1794致祭時禮官 李益運 送來
德陽遺稿	奇遵	1605	목판본	3권 1책	
武陵雜稿	周世鵬	1581	목판본	7권 4책	重刊本
西厓先生文集	柳成龍	1633	목판본	18권 9책	初刊本
嘯臯先生文集	朴承任	1600	목판본	4권 2책	
睡軒先生詩集	權五福	1585	목판본	3권 2책	
雅誦	正祖	1799	활자본	8권 2책	내사본
旅軒先生文集	張顯光	1642	목판본	11권 6책	初刊本
溫溪先生逸稿	李滢	1772	목판본	4권 3책	陶山書院 刊
愚伏先生文集	鄭經世	1657	목판본	20권 10책	初刊本
月川先生文集	趙穆	1666	목판본	6권 4책	初刊本
劉向說苑	劉向(漢)	조선전기	목판본	15권 3책	稀貴本
六先生遺稿	死六臣	1658	목판본	3권 3책	
益齋亂藁	李齊賢	1600	목판본	10권 3책	三刊本
靜菴先生文集	趙光祖	1685	목판본	6권 4책	重刊本
朱子大全	朱熹	1575	을해자	100권 76책	復刊本
朱子大全	朱熹	1575	을해자	108권 83책	
秋江集	南孝溫	1577	목판본	5권 5책	영남본/휘귀본
恥齋先生遺稿	洪仁祐	1639	목판본	3권 2책	
濯纓文集	金駟孫	1631	목판본	4권 2책	중간본
退陶先生集	李滉	1600이전	필사본	20책	草稿本
退溪先生文集	李滉	1600	필사본	52권 40책	草稿本/零本
退溪先生文集	李滉	1600	필사본	37권 21책	草本/零本
退溪先生文集	李滉	1600	목판본	51권 32책	庚子本/初刊本
退溪先生文集	李滉	1600경	목판본	32권 21책	零本/경자본류

책명	편·저자	간행연도	판본	책수	비고
退溪先生文集	李滉	1600경	목판본	47권 27책	零本/庚子復刻本
退溪先生文集拾遺	李滉		필사본	12책	
退溪先生續集	李滉	1746	필사본	8권 4책	整稿本
退溪先生手簡	李滉		필사본	1책	
退陶先生草本	李滉		필사본	1책	
圃隱先生文集	鄭夢周	1607	목판본	3권 4책	중간본
鶴峯先生文集	金誠一	1649	목판본	8권 4책	初刊本

도산서원 소장 희귀·귀중본-5

2-6-4. 도산서원 소장 판목과 금석문

1) 서원소장 판목¹²⁾

판목은 책판, 시판, 서판, 현판 등이 있는데, 모두 57종 4,014점이다. 책판, 시판, 서판은 2003년에, 현판은 2007년 6월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되었다. 책판은 28종 3,928점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84년에 제작된 송재 이우의 『송재선생문집(松齋先生文集)』 55점이다. 『도산금문 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책판은 102점으로 1914년에 제작되었지만, 필사교정본(筆寫校訂本), 간역시 일기(刊役時日記)와 간행과정을 기록한 각종 고문서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시판은 8종 43점이며, 서판은 9종 30점, 현판은 12종 13점이 있다.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	책판	계몽전의의(啓蒙傳疑)	42
2	책판	계산세고(溪山世稿)	56
3	책판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26
4	책판	교남빈흥록(嶠南貧興錄)	24
5	책판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102
6	책판	몽재유고(蒙齋遺稿)	49
7	책판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2
8	책판	송재선생별집(松齋先生別集)	40
9	책판	송재선생속집(松齋先生續集)	21

도산서원 소장 판목 현황-1

12) 출전 : 『도산서원 고전적』 (한국국학진흥원, 2006)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0	책 판	송재시집(松齋詩集)	55
11	책 판	오가산지(吾家山誌)	37
12	책 판	온계선생문집(溫溪先生文集)	119
13	책 판	운암일고(雲巖逸稿)	6
14	책 판	월천선생문집(月川先生文集)	109
15	책 판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300
16	책 판	자성록(自省錄)	42
17	책 판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462
18	책 판	진성이씨족보(眞成李氏族譜)	10
19	책 판	치재유고(恥齋遺稿)	70
20	책 판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庚子本)	753
21	책 판	퇴계선생문집속집(退溪先生文集續集)	150
22	책 판	퇴계선생문집신판(退溪先生文集 甲辰重刊本)	1,143
23	책 판	퇴계선생언행록구판(退溪先生言行錄舊版)	102
24	책 판	퇴계선생언행록신판(退溪先生言行錄新版)	100
25	책 판	퇴계연보(退溪年譜(新))	65
26	책 판	퇴계연보(退溪年譜(舊))	40
27	책 판	무서변파록(誣書辨破錄)	1
28	책 판	후계집(後溪集)	2
29	시 판	퇴계시(退溪詩)	5
30	시 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3
31	시 판	회재시(晦齋詩)	5
32	시 판	도산잡영(陶山雜詠)	8
33	시 판	매화시(梅花詩)	13
34	시 판	성재팔영(惺齋八詠)	4
35	시 판	사시음(四時吟)	4
36	시 판	이정두 근제(李廷斗 謹題)	1
37	서 판	적선(積善)	1
38	서 판	병명(屏銘)	9
39	서 판	사물잡(四物箴)	4

번호	분류	명칭	수량
40	서관	전서체(篆書體)	1
41	서관	무자기 신기독(無自欺 慎其獨)	1
42	서관	송주희서(宋朱熹書)	1
43	서관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	1
44	서관	징분질옥(懲忿窒慾)	1
45	서관	대보잠(大寶箴)	11
46	현판	청계서원(淸溪書院)	1
47	현판	청량정사(淸涼精舍)	1
48	현판	계현사(啓賢祠)	1
49	현판	향현사(鄉賢祠)	1
50	현판	역락서재(亦樂書齋)	1
51	현판	암서헌(巖棲軒)	1
52	현판	관란헌(觀瀾軒)	1
53	현판	광명실(光明室)	2
54	현판	도산서원(陶山書院)	1
55	현판	농운정사(隴雲精舍)	1
56	현판	시습재(時習齋)	1
57	현판	완락재(玩樂齋)	1
소계		57종	4,014

도산서원 소장 판목 현황-3

① 책판

■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 102점

1914년(甲寅)에 간행된 도산급문제현록 책판이다. 총 309명의 문인이 수록되었고 판각 및 인출 작업과 관련한 일기(日記), 간찰(簡札), 시도기(時到記), 용하기(用下記) 등 많은 고문서가 함께 남아있다.

■ 송재시집(松齋詩集) - 55점

1584년(선조 17)에 제작된 송재(松齋) 이우(李塢)의 문집 책판이다. 임란 이전에 제작되었다는 점과 퇴계가 직접 편집하고 필사한 목판으로 퇴계의 필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 경자본, 753점

현존하는 퇴계선생문집 책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자복각본(庚子復刻本) 책판이다. 1600년(선조 33) 경자본이 제작된 이후 오래지 않은 시기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복각한 것으로 경자본류 책판

중 비교적 인출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획은 많이 마모되었지만 결락이 적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이 책판에는 1817년(순조 17)에 제작한 정축보각판(丁丑補刻板)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843년(숙종 19)에 전반적인 중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된 책판이다.

■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 갑진중간본, 1,143점

1724년(경조 4)에 제작된 중간본 퇴계선생문집 책판이다. 자획이 분명하며, 현존하는 퇴계문집 책판 가운데 상당수가 이 목판으로 찍은 것이어서 많은 수가 인출되어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시서판(詩書板)

■ 서판(書板)

- 무자기 신기독(無自欺 慎其獨), 퇴계친필, 16세기, 50.0 × 94.5, 대자(大字)판
-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 퇴계친필, 16세기, 50.0 × 94.5, 대자(大字)판
- 징분질욕(懲忿窒慾), 퇴계친필, 16세기, 대자(大字)판
- 적선(積善), 124 × 78.0
- 병명(屏銘), 9점, 89.0 × 49.0
- 송주희서(宋朱熹書), 25.5 × 60.1
- 대보잠(大寶箴), 11점, 41.5 × 70.0

■ 시판(詩板)

- 퇴계시(退溪詩), 1점, 29.5 × 106.5
 - 서원성명이역동(書院成名以易東) 일절견의(一絕見意) 역동서원시제군(易東書院示諸君)
- 퇴계시(退溪詩), 4점, 29.5 × 106.5
 - 천사곡(川沙曲)·경담곡(鏡潭曲)·고세대(高世臺)·단사곡(丹砂曲)·갈선대(葛仙臺)·천사택(川沙宅)·광뢰(廣瀨)·왕모성(王母城)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3점, 41.0 × 64.5
- 회재시(晦齋詩), 5점, 90.0 × 38.0
 - 초하(初夏)·추회(秋懷)·존양(存養)·희우(喜雨)·모춘(暮春)·민한(悶旱)·기몽(記夢)2수·유거(幽居)·동초(冬初)
- 도산잡영(陶山雜詠), 8점, 19.8 × 56.0
- 매화시(梅花詩), 13점, 39.5 × 68.7
- 성재팔영(惺齋八詠), 4점, 65.5 × 30.0
 - 성성재(惺惺齋)4수 - 활원당(活源塘), 임경대(臨鏡臺), 총춘대(總春臺), 풍호대(風乎臺)
- 사시음(四時吟), 4점, 53.5 × 25.0
- 이정두 근제(李廷斗 謹題), 37.8 × 64.0

③ 현판

■ 사우

- 상덕사(尙德祠), 16세기, 70.0 × 169.5
 - 도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상덕'은『논어』「헌문(憲問)」편에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도다, 이 같은 사람이여!”[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라고 한데서 인용한 것으로, 퇴계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이다.

■ 서당

- 도산서당(陶山書堂), 16세기, 58.5 × 27.8,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당의 편액으로, 퇴계가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도산'의 명칭에는 성군(聖君)인 순임금과 진나라 도연명의 인품을 흠모한 퇴계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편안한 기분을 주지만 정통성을 벗어난 상당히 독창적인 글씨다. 기본적으로 안진경체의 웅혼한 기풍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산'자를 상형자로 구성하고, '서당' 두 글자에 예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책을 가미한 점이 이채롭다.
- 도산서원(陶山書院), 1575년, 57.5 × 206.3, 한석봉(사액편액)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의 편액이다. 퇴계 사후 1574년에 서원이 지어졌고, 이듬해 1575년에 사액된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진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 뒤에 세워진 곳으로 여타 서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퇴계학파의 학문적 중심 역할을 하였다. 글씨는 선조의 명에 의해 당대 명필인 한석봉이 썼으며, '만력 3년(1575) 6월 일에 사액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으며,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 암서헌(巖栖軒), 16세기, 29.0 × 54.5,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당 건물 안의 마루에 걸린 편액으로, '암서'는 주자의「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의 하나인「회암(晦庵)」의 전구와 결구인 "오래되어도 자신이 없으니, 암혈에 살면서 작은 효험을 바라네.[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자에 대한 존모의 마음과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쓰기보다는 그린 듯한 예서풍의 글씨로 고매한 기풍을 느낄 수 있다. 퇴계 친필이다.
- 완락재(玩樂齋), 16세기, 30.0 × 62.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당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방의 편액으로 퇴계가 기거하던 곳이다. '완락'은 주자의「명당실기(名堂室記)」에 나오는 "도(道)와 이(理)를 즐기고 완상하여 일생을 마치어도 싫증내지 않으려다.[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고 한 것에서 인용하였다. 납작한 것이 예서의 틀을 본 뜬 해서이다.

■ 강당

- 전교당(典敎堂), 16세기, 76.1 × 208.8
 - 도산서원 정당(正堂) 편액으로, '전교'는 오전(五典)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인륜을 밝힌다는 뜻이다.
- 한존재(閑存齋), 16세기, 57.1 × 147.1
 - 도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의 편액으로, '한존'은『주역』「건괘, 문언전」의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誠]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는 것에서 인용하였다. 사악함을 막으면 자연히 성실함이 보존되는 것으로, 이는 경(敬) 공부의 방도이며, 퇴계철학의 핵심요소이다.
- 숙흥매야잠(夙興夜寐簾), 37.0 × 61.5, 남당(南塘) 진백(陳柏)
 -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숙흥야매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밤에 잠들 때 까지 자신을 경계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자세'를 논한 글이다. 송(宋)나라 때 남당(南塘) 진백(陳柏)이 지은 글로, 한마디로 공부와 수양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퇴계의「성학십도」중 제10도가「숙흥야매잠도」이다.

- 사물잡(四勿箴), 37.0 × 81.0, 이천(伊川) 정이(程頤)
 -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사물잡'은 눈(보는 기능), 귀(듣는 기능), 말(정보나 의사를 표현하는 기능), 움직임(의지나 마음의 표현 기능) 등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경계를 논한 글이다. 북송 때 주돈이의 제자인 정이(程頤)가 지었다.
- 백록동규(白鹿洞規), 38.0 × 98.0, 주희(朱熹)
 -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백록동규'는 남강군(중국 江西省 廬山の 五老峰 아래)에 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송나라 주자가 지은 학규(學規)이다. 여기에는 오륜(五倫)과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 퇴계의「성학십도」중 제5도가「백록동규도」이다.
- 국기(國忌)(1), 42.0 × 138.0
 -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태조부터 정조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 국기(國忌)(2), 35.5 × 55.5
 -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효의왕후 김씨부터 명성황후 민씨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 원규(院規), 55.5 × 145.0, 퇴계 이황
 -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교과과정, 공부방법 등을 규정한 서원 규칙으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가리킨다. 이후 이 원규는 영남지역 서원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 숙종병진...(肅廟丙辰十月初十日...), 18세기, 34.5 × 75.0
 -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백성들을 뽑아들이는 일에 대해 퇴계와 도산서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후 공급해 주도록 전교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 기일(忌日), 63.0 × 35.0
 - 도산서원 정당 서쪽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퇴계선생의 기일과 종향위(從享位)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기일이 적혀있다. 퇴계선생은 12월 8일이고 월천은 10월 29일이다.
- 도산서원 향사시헌관집사(陶山書院 享祀時獻官執事) 40.5 × 131.2
 -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도산서원 향사시 헌관집사 분정판이다. 임진(2012) 8월 18일 추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 임자삼월초삼일(壬子三月初三日), 1792년, 56.0 × 82.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李晩秀)
 -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3일에 정조가 전교(傳敎)한 내용이다.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퇴계선생 연보부록에는 시험보는 날에 이 내용을 전교당에 간게(刊揭)한다는 글이 첨부되어 있다.

- 도산서원견각신치제문(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1792, 54.0 × 73.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
 -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24일에 정조대왕이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치제(致祭)한 제문이다. 글씨는 정조대왕의 전교를 받들어 각신 이만수가 썼다.

■ 동·서재

- 박약재(博約齋)(동), 16세기, 53.5 × 141.5
 - 도산서원 동재(東齋) 편액으로, '박약'은『논어』「자한(子罕)」편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으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顏淵喟然歎曰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강하면서 아름답고 묵직한 해서체이다.
- 홍의재(弘毅齋)(서), 16세기, 58.0 × 148.0
 - 도산서원 서재(西齋) 편액으로, '홍의'는『논어』「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강약이 어우러져 있는 해서로 한석봉의 편액서에서 보여주는 기풍이 엿보이는 글씨로, 대단히 활달하면서도 숙달된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

■ 기숙사

- 농운정사(隴雲精舍), 16세기, 58.0 × 28.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당의 유생들이 기숙하던 곳의 편액이다. '농운'은 양나라 은사(隱士) 도홍경(陶弘景)의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언덕 위엔 흰 구름이 많지. 다만 내 스스로 기뻐할 뿐, 가져다 그대에게 줄 수는 없네.[山中何所有 隴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실의 이욕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에 침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퇴계 친필이다.
- 관란헌(觀瀾軒), 16세기, 25.3 × 56.7,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서쪽 마루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관란'은『맹자』「진심(盡心)」상(上)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물결이 세찬 물은 그 원천(源泉)이 깊듯이 성인(聖人)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전서, 예서, 해서의 서풍이 어우러져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편안한 글씨이다.

■ 외삼문

- 진도문(進道門), 76.0 × 209.0
 -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으로, '진도'는 도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주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도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며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서원 교문에 '진도'라는 편액을 걸어놓았다.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해서이다.

■ 장서루

- 광명실(光明室)(동), 48.2 × 108.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원 동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

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 광명실(光明室)(서), 46.5 × 106.2,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도산서원 서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 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 이주부공사적(李主簿公事蹟), 19세기(1848), 35.5 × 96.5, 고계(古溪) 이휘녕(李彙寧)
 - 도산서원 동쪽 광명실 건물의 뒤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선생의 위패를 안전하게 보관한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증손인 지산(芝山) 이운(李芸, 1568~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이다. 원래 1678년에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 닳고 흐려져서 이휘녕에게 새로 지어서 게판하도록 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는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기일에 약간의 제수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 서재

- 역락서재(亦樂書齋), 42.0 × 120
 - 죽헌(竹軒) 정두(鄭耄, 1508-1576)가 도산서당에 수학하는 아들 지헌(芝軒) 정사성(鄭士誠, 1545-1607)과 매창(梅窓)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을 위해 지은 건물의 편액이다. ‘역락’은 『논어』「학이」편의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힘이 강하면서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함께 한 해서체이다.
- 시습재(時習齋), 16세기, 24.7 × 57.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동쪽 방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시습’은 『논어』「학이」편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인용한 것이다. 학문에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의미이다. 퇴계의 친필이다.

■ 유물전시관

- 옥진각(玉振閣), 20세기, 80.5 × 177.0,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연민 이가원
 -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입구에 걸려 있는 편액으로, ‘옥진’은 『맹자』「만장(萬章)」하(下)의 “집대성이란 것은 금속 소리로 시작하고 옥의 소리로 거둔다.[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원래 처음과 끝을 두루 갖춘 공자의 성덕(聖德)을 음악에 비유하여 찬양한 말인데, 여기서는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 기타 현판

- 계현사(啓賢祠), 46.5 × 98.0, 17세기
 - 1667년(숙종 8) 건립하여 퇴계의 아버지인 이식(李植)를 주향하고, 숙부인 이우(李堦), 중형 이해(李滢)를 종향하였다. 1688년(숙종 14)에 서원으로 바뀌 청계서원(淸溪書院)이라 하였다.
- 향현사(鄉賢祠), 41.0 × 112.0, 18세기
 - 1702년(숙종 28)에 건립하여 퇴계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을 제향하였다.
- 청계서원(淸溪書院), 50.0 × 137.0, 17세기

- 퇴계의 아버지인 이식(李植)을 주향하고, 숙부인 이우(李堦), 중형 이해(李滢)를 종향하였다. 1667년(숙종 8) 건립된 계현사를 1688년(숙종 14)에 승원(陞院)하여 청계서원(淸溪書院)이라 하였다.
- 청량정사(淸涼精舍), 43.5 × 111.6, 19세기
 - 이항의 숙부 송재 이우가 처음 청량산에 건립하여 강학하던 곳이다. 『오산당중건기(吾山堂重建記)』에 따르면, 이항이 공부하던 곳에 사림(士林)들의 합의로 1832년(순조 32)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정사의 당(堂)은 오산(吾山)이고 헌(軒)은 운루(雲樓), 요(寮)는 지숙(止宿)이며, 문은 유정(幽貞)이라 되어 있다. 일명 '오산당'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산'은 주자(朱子)의 시구절 '명명직조오가로(明明直照吾家路)'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집 산'이라는 뜻이면서 '유가(儒家)의 산'이란 뜻도 내포하는 것이다.

2) 금석문(金石文)

① 석간대 전별시 암각서(石澗臺錢別詩 巖刻書)

석간대 전별시는 1562년 3월 퇴계 이항이 제자 구암(龜岩) 이정(李楨)과 이별하면서 써 준 당시(唐詩) 구절을 읊미년 2월 도산서원 옆에 있는 암벽 가운데 경치가 뛰어난 석간대(石澗臺)에 새긴 것이다. 이후 시를 새겼던 바윗돌이 물에 잠기게 되어 현재의 위치에 모사하여 옮겨 새겼다. 바위에 새겨진 시구는 7언 절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 가니 뉘와 더불어 이 봄을 노닐고 君去春山誰共遊
새 울고 꽃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 鳥啼落花水空流
오늘 아침 물가에 서서 그대를 보내노니 今朝送別臨流水
그립고 보고프면 물가에 다시 오리 他日相思來水頭

② 천연대 암각서(天淵臺 巖刻書)

퇴계 이항은 도산서원 어귀를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는데, 곡구암의 동쪽을 천연대(天淵臺), 서쪽은 운영대(雲影臺)라고 한다. 도산서원 어귀의 빼어난 경치를 나타내기 위해 천연대 절벽의 바윗면을 따로 다듬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절리가 된 자연 암벽에 글자를 새겼다. 글씨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세로 방향 한 줄로 새겨져 있는데, 한 글자의 크기는 약 90cm이다. 글씨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1539-1609]가 썼으며, 내용은 『시경(詩經)』 「한록(旱麓)」편의 '솔개는 하늘로 높이 날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논다(鳶飛戾天魚躍于淵)'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2-6-5. 도산서원 관련 전설

■ 비뚤게 쓰여진 도산서원 현판

선조(宣祖)는 어느 날 당시의 명필인 한석봉(韓石峯, 1543~1605)을 불러 도산서원의 현판을 쓰게 하려 했으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내가 만약 도산서원 현판 글씨를 쓰라고 한석봉에게 말하면, 놀

란 가슴에 붓이 떨어져 글씨가 잘 안 나올 테지' 그리하여 선조는 한석봉에게 이를 일러 주지 않고 도산서원 네 글자를 거꾸로 한 자, 한 자 붙렸다. 이에 한석봉은 영문도 모르고 받아 쓰게 되었다.

선조는 맨 처음에 '원(院)'자를 부르고, 다음에 '서(書)'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산(山)'자를 붙렸으며, 마지막에 '도(陶)'자를 쓰게 하였다. 한석봉은 순서대로 '원'자, '서'자, '산'자를 쓰고 나서 급기야 선조가 '도'자를 부르자 '아하. 이거 내가 도산서원 현판을 쓰는 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한석봉은 자신이 도산서원 현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가슴이 두근대는 중에 붓을 떨며 마지막 '도'자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도산서원 현판 글씨가 약간 비뚤어져 있는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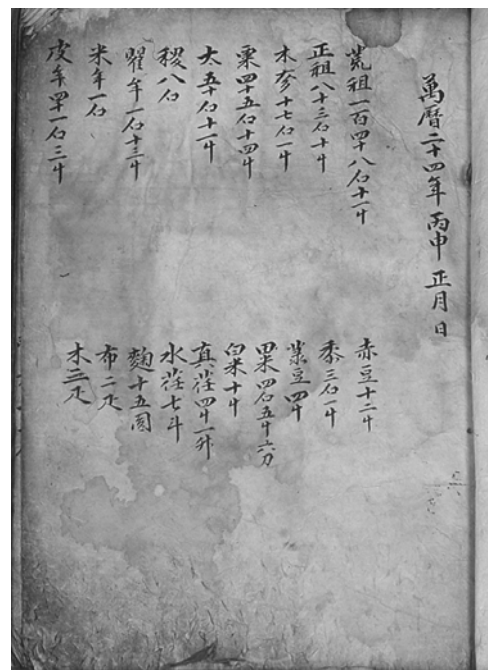
2-6-6. 도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도산서원은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정신적 지주인 퇴계 이황을 배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점에서 영남 유림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도산서원의 막대한 경제적 기반이 일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라 한다면 원위전(院位田), 원노비(院奴婢), 원속(院屬), 속사(屬寺)·속점(屬店)·제역촌(除役村)의 소출(所出)·공납(貢納)·신역(身役) 및 중앙관료·지방관·사림들의 현물 기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지만 그 핵심은 토지와 노비였다. 도산서원 역시 토지와 노비가 핵심적인 경제적 기반이었는데, 이들은 시기에 따라 비중이 달리 나타났다.

17세기의 도산서원은 예안 사족들에 의해 운영 되면서 그 경제적 기반 역시 예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서원 재정도 초기에 비해 확충되고는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원 재정의 확대는 18세기 들어 토지보다도 노비의 증가에 연유한다. 토지의 경우 당시 일반적인 서원들보다는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사액서원들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였다.

반면, 서원노비는 면역(免役) 특권 때문에 18세기부터 노비·양정(良丁)들이 부역의 도피처로 인식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 갔다. 여기에 18세기 중반이후 재개된 치제(致祭)와 별과(別科) 등을 통한 도산서원의 위상 강화는 다른 서원들에 비하여 압도적인 노비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처럼 노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신공(身貢)확대는 토지에서의 수확량을 뛰어 넘으면서 도산서원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1786년(정조 10) 가을에 작성된『전장기(傳掌記)』를 보면 토지와 노비신공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의 수원(首院)이라는 명성만큼이나 서원 내외로 각 종 지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채가 생기는 등 서원 재정은 어려움에 처해갔다. 나아가 19세기 들어 도망 노



1596년 도산서원 전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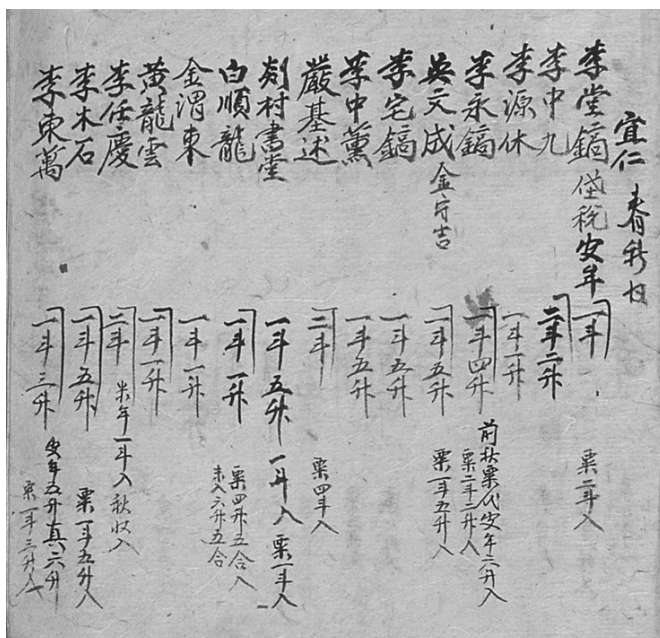
비의 증가와 노비제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노비 신공이 줄면서 토지 매매와 경작을 통한 수입이 도산서원의 주된 경제적 기반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도산서원에서는 토지와 노비 외에도 기타 재원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원속(院屬)은 서원 소속이라는 의미로서 넓게는 서원 내에서 잡역을 담당하는 차역노비(술거노비)와 신공을 납부하는 외거노비, 서원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장인(匠人), 국역(國役)을 피하기 위해 서원에 투신하여 신공을 납부하는 양인·서얼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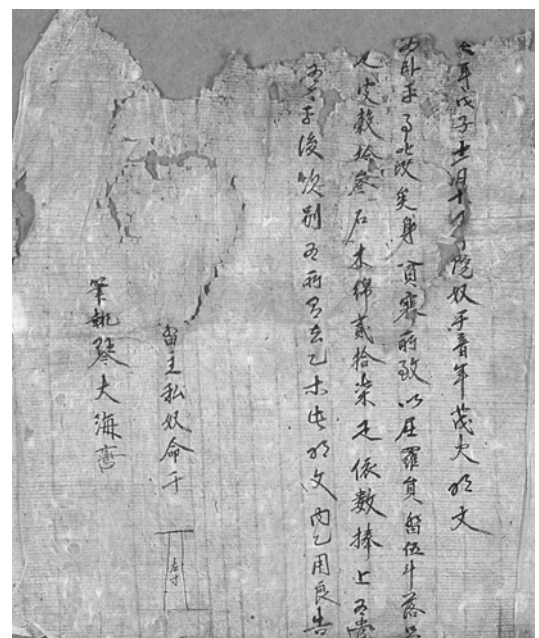
이들 원속은 신공을 납부하는 외거노비가 크게 확대되지 못한 17세기 초까지는 도산서원 경제에 있어서 노비신공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투탁인에 대한 국가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또한 외거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후 도산서원에서도 노비와 기타 원속(장인, 서얼, 양인)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④ 서원전(書院田)

조선중기 서원 건립 초의 서원전 확보에는 국가 또는 지방관에 의해서 토지가 지급되는 속공전(屬公田)과 조선 건국 이후 불교시설이 유교시설로 교체되는 가운데 서원에 귀속된 사사위전(寺社位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도산서원도 당시 경상감사였던 윤두수(尹斗壽)가 폐사(廢寺)인 진흥사(眞興寺)의 토지를 분속시켜 서원의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도산서당을 기초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서당 당시의 전답이 서원에 이속되고, 퇴계를 제향하는 안동 여강서원(廬江書院), 봉화 창해서원(滄海書院)의 전답 일부도 이속되었다. 이러한 서원간의 기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당시 일반적 행위였다.



도산서원 추수안



1588년 남승리가 우음년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도산서원 소유 토지는 17세기 초의 12결 이래로 계속 확대되어 18세기에는 약 20-25결, 19세기에는 약 30여 결에 이르렀다. 이는 옥산·소수·병산서원의 토지 결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외의 서

원에 비해서는 5-10배가량 많은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영남 지역내 여타 서원에 비하여 이들 서원의 위상이 높았으며, 그 위상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원전의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매득(買得)이었는데, 도산서원에서도 건립이후 경제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답을 꾸준히 매득하였다. 서원전의 확대는 18세기 이후 토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편으로 서원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고 그 추쇄가 어려워지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면서, 서원경제에 있어서 노비보다 전답의 중요성이 더해갔다.

도산서원 전답의 분포지도 17세기 초에는 서원 주위의 양반가 및 노비 전답을 매득하였기에 서원 소재지인 의동(宜東)에 집중되고 있었다. 원거리에 있는 전답보다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답을 확보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여타 서원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서원이 소속된 예안과 인근의 안동, 봉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19세기 들어 서원 재정의 전답 타작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답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② 서원노비(書院奴婢)

도산서원 노비는 서원 내의 각종 잡역 및 서원전답 경작 등의 생산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身貢) 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그 수의 증가와 함께 신공을 납부하는 납공노비가 크게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도산서원 측의 관심은 신공의 효과적인 징수에 있었고, 이 신공은 서원경제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도산서원 노비는 1619년 129구에서 1700년 462구, 1708년 706구, 1715년 977구로 증가하였는데, 18세기 중반에는 2,460구로 폭증하였다. 이후 노비 도망과 사망, 속량(贖良) 등의 이유로 노비수가 줄어들면서 1828년에는 1,604구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는 문서상의 기록일 뿐이지 실제의 납공노비는 1765년 524구, 1800년 456구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18세기 중반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 100-200여 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많은 수의 노비가 있었다.

18세기 초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1679-1759]의 『청대일기(淸臺日記)』에서는 1733년(영조 9) 12월의 치제(致祭) 당시 '도산서원 물력은 가을에 거둔 곡식이 불과 100여 석이었지만, 노비신공이 1,000냥 정도였기에 어디서 빌리지 않고도 서원에 저축해 놓은 비용으로 능히(치제에 참석한) 800명을 대접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서원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비들의 신공(身貢)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노비 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비신공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음을 말한다.

18세기 들어 증가한 도산서원 노비들은 대부분 예안 내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납공노비였다. 이들의 증가 요인은 기본적으로 출산과 혼인 때문이었지만, 병인년(丙寅年, 1746?) 3월에 순찰사(巡察使)가 발급한 「완문(完文)」을 보면, 각 읍에 거주하는 본원(도산서원)노비들을 위한 것이다. 군포(軍布)와 잡역(雜役)을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완문(完文)으로 성급하는 일이다. 병인 3월 검순찰사(서압) 안동(安東)·예안(禮安)·영천(榮川·영주)·봉화(奉化)·풍기(豊基)·순흥(順興)·예천(醴泉)·상주(尙州)·영양(英陽)·진보(眞寶)·청송(靑松)·영해(寧海)·영덕(盈德)·청하(淸河)·흥해(興海)·경주(慶州)·의흥(義興)·의성(義城) 즉, 도산서원 노비들은 각 관아로부터 군포와 잡역을 면제 받는 것이 관례로 되

어 있었다. 이러한 서원 노비들에 대한 면역(免役)특권 때문에 도산서원은 점차 노비·양정의 부역 도피처로 변모해 갔으며, 그 결과 18세기 중반 도산서원 노비들의 수가 최대 2,400여 구까지 증가하고, 여타 서원에 비하여 압도적인 수의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00여 년간 중단되었던 치제(致祭)의 재개와 도산별과(陶山別科) 시행 등을 통해 퇴계학파의 본산이라는 도산서원의 위상 강화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증가한 노비들은 「완문」에서와 같이 18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이들 지역 노비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18세기 중반 이래 도망 노비의 증가로 인한 노비 수의 감소는 서원 재정을 위협하였기에 도산서원은 도망 노비의 추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남아있는 노비들에게서 효과적인 신공의 징수를 위하여 그들 각각의 경제 형편과 거주지의 원근(遠近)에 따라서 차등 수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산서원 내에서 신역(身役)과 서원전의 경작을 담당하는 서원 인근의 노비를 제외한 납공노비를 노비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영천(榮川)·봉화·영양·진보·영해·예천·안동·예안의 8개 지역으로 나누고, 특히 노비 수가 가장 많았던 안동은 감천(甘泉)·내성(乃城)·풍산(豊山)·박곡(朴谷)·가구(佳丘)의 5개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예안의 노비는 서원 인근 노비를 제외한 상리(上里)·북면(北面)·서면(西面)·의동(宜東)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았던 풍기·순흥·평해·영덕·의성 등은 인접한 지역 또는 신공 수납에 편리한 지역으로 합쳐서 파악·관리 하였다.

납공의 형태도 시기와 서원을 중심으로 원근에 따른 차이를 두었다. 17세기 초에는 포납(布納)하던 것이, 17세기 말에는 포납과 미(米)·임납(荏納)의 병용으로 나타나며, 18세기 말에 오면 현물(現物) 또는 전납화(錢納化) 되었다. 특산물로 받은 현물에는 곱감·팥·담배(南草)·닭(鷄)·마철(馬鐵, 말편자)·방어(方魚)·강어(岡魚)·생문어(生文魚)·소금 등이 있었다.

이처럼 도산서원 재정은 노비신공과 서원전답, 부조 등을 통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이래 도산서원 위상이 강화되면서 정기적인 향사(享祀), 일용(日用) 외에도 각 종 모임 협찬과 서적 편찬, 건물 수리 및 중수, 빈객 접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다. 여기에 노비신공은 18세기 초·중반의 1,000여 냥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여, 1800년에는 473냥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또한 19세기 들어 전면적인 노비제 해체의 분위기 속에서 신공 수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비신공의 축소내지 소멸은 도산서원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기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다.

19세기 중반이후 도산서원에서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서원 소용비 감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해 나갔다. 예를 들면, 도내(道內)에서 추천을 받아 별유사(別有司)를 선정하여 서원 재정의 감독 내지 직접 운영토록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미납된 노비·원속의 신공과 서원 유생이 빌려간 돈(채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령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서원 운영의 주체인 원임(院任)에 대한 우대(優待)도 없었다. 즉, 전직 원임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식사와 상례(喪禮) 시 지급하던 부의(賻儀)를 없애고, 현직 원임에게는 연말에 제공하던 선물[세의(歲儀)]과 수행원(노비·말 등)의 동행 출입을 금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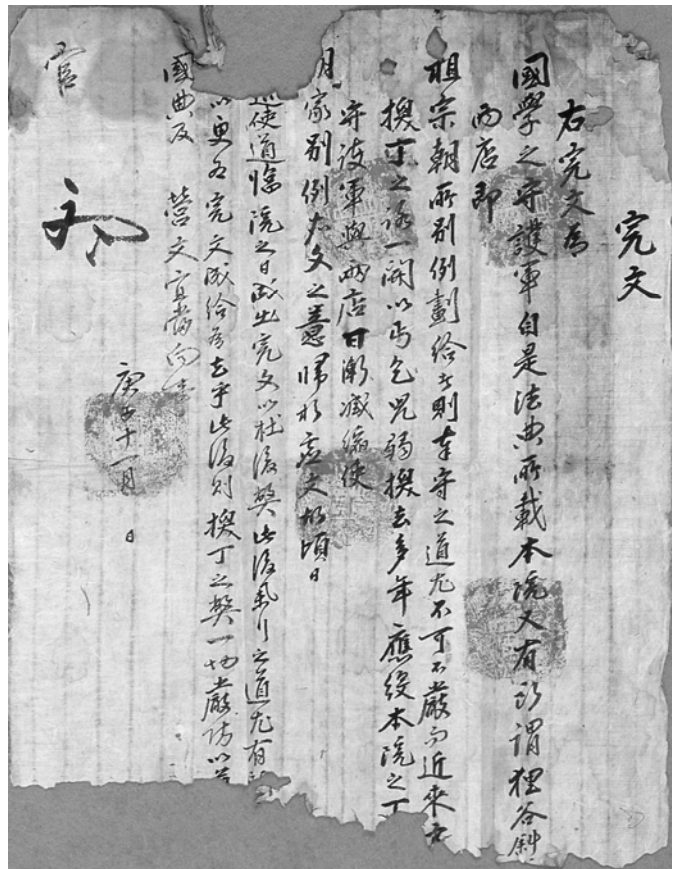
③ 원속(院屬)

원속은 서원 소속을 줄인 말로서 서원 재정을 위한 인적 재원을 일컫는다. 도산서원의 원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619년(광해군 11) 『원속안(院屬案)』이 유일하다. 이후 『원속안』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7세기 중반 이후 노비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노비신공이 서원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원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노비안』을 만들고, 그 외 원속 중 일부는 『수호군안(守護軍案)』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원속안』에는 256명 원속의 거주지·신분·직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서원)노비뿐만 아니라 양속서얼(仰屬庶孽), 양인(良人), 장인(匠人)까지 포함하고 있다. 노비는 전체의 62%인 158구이며, 이들은 서원 내에서 잡역을 담당하는 노비 29구와 서원을 중심으로 예안현에 거주하는 본관노비 89구,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타관노비 40로 구분된다. 반면,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장인(匠人) 47명과 국가의 공역(公役)을 피해 서원에 투속(投屬)한 서얼·양인이 각기 20인과 25인으로 나온다. 그 외 6인은 사노(私奴)로서 예안 사족들이 원납(願納)한 것으로 보인다.

서원 노비들 중 예안거주 노비와 서원내 잡역 담당 노비는 서원잡역과 토지 경작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타관노비는 군포(軍布)와 잡역(雜役)을 면제받는 대가로 목(木) 39필을 신공으로 납부하였다. 서원 속점(屬店)의 각 장인들은 웅기(甕器)·사기(沙器)·땀감·숯·등불(同炬)·계란·수박(西瓜)·채소 등을 납품하였으며, 양속서얼·양인은 신공으로 목 101필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초에는 노비신공보다 서얼·양인의 신공이 더 많았으며, 대부분의 노비는 서원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신공이 면제되었다. 결국, 17세기 초 도산서원 경제의 주요 재원은 토지에서의 수입과 양속인(仰屬人)들의 신공이 노비신공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투속인에 대한 국가적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외거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바뀌어 갔던 것이다.

이들 원속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노비는 거주지에 따라 본관과 타관노비로 나눌 수 있다. 본관노비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그 인근과 예안현에 거주하는 노비들로서 주로 서원 전답을 경작하며, 서원의 잡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경자년 관에서 서원수호군을 환정하지 말것을 인정하는
원문

타관노비는 외거노비로서 감사나 소재지 지방관으로부터 군포와 잡역을 면제 받고 있었다. 이들은 영천(榮川)·예천·상주·안동·영양·영해·창녕에 거주하였는데, 바다에 인접한 영해지역 노비는 신공으로 목(木)대신 어물(魚物)을 납부하였다.

장인은 도산서원 설립시 국가로부터 받은 속점(屬店)인 사곡점(斜谷店)과 이곡점(狸谷店)의 장인 15명이 있었다. 이후 지방관에 의해 다시 속점과 장인이 도산서원에 획급되어 17세기 초에는 이평점(伊坪店)의 장인 10명을 포함하여 모두 47명의 장인이 소속되었다. 이들 속점의 장인들은 서원에서 소용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대가로 장세(匠稅) 및 군역을 면제 받았다.

양속서얼과 양인들은 서원의 영향력을 통해 국가의 공역(公役)을 면제받고자 투속한 자들이었다. 특히 서얼의 투속은 양반의 첩 소생으로서 노비로 둘 수도 없고, 양인으로서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원속 양인들의 일부는 수호군(守護軍)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이처럼 양인·서얼들의 투속은 서원 재정의 확충이란 면에서 좋은 것이었지만, 이러한 투속이 증가하면서 그 폐해가 심해지자 국가에서 이들 원속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 17세기 중반이후 계속되는 국가의 제재는 서원 소속 노비가 아닌 이러한 양속인(투속인) 및 그와 유사한 성격의 원납유생(願納儒生)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제재는 서원 경제를 긴축시키는 것이기에 도산서원에서는 “원속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라는 선조와 숙종의 전교(傳敎)를 근거로 상서(上書)를 통해 국가의 제재에 대항하면서 원속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서원현황

3-1. 입지 및 배치

3-1-1. 서원의 입지적 특성

서원의 설립되는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뛰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¹³⁾

이는 서원의 입지 선정에 있어 선현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은둔과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은거하여 학문을 했던 무이구곡을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주희의 학문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무이구곡도_이성길(1562~?)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 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따라서 자각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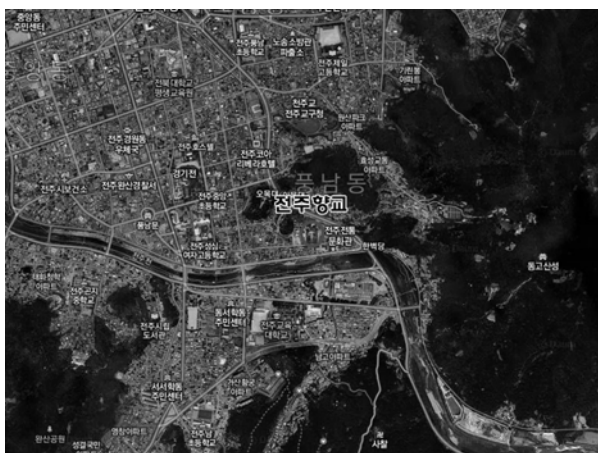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나 도를 강론하고 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시끄러움을 꺼리어 다투어 많은 책을 안고지고 한가한 뜰과 정막한 이곳에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그 덕을 쌓고 그 인을 익히어 낙을 삼는 까닭에 들떠 서원을 다닌다. 보건대 향교가 조시(朝市), 성곽(城郭) 중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의 구애가 되고 뒤에는 이물(異物)의 천탈(遷奪)이 있으니 그 공교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오직 선비의 학(學)이 서원에서 힘썼을 뿐 아

13)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361

나라 국가가 현자를 얻는 것도 반드시 서원에서 되며 저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여 서원의 은둔사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¹⁴⁾

아울러, 서원이 풍관이 좋은 곳에 자리잡게 된 요인은 그 설립의 배경에 있어서 관학인 향교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당당히 독립되었고,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결합되어 행정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학인 향교와 달리 서원은 발생기원에서 유생들의 장수처 역할을 겸했으므로 자연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성원이 산천경계가 소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서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⁵⁾



향교의 입지 특성



서원의 입지 특성

서원의 입지를 정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풍수지리사상으로 길지인 풍광경수의 뛰어난 곳을 선정하였고,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소수서원의 풍경에 대하여 ‘영천¹⁶⁾ 서북부쪽, 순흥부에 죽계가 있는데 소백산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들은 넓고 산은 낮으며 물과 돌이 맑고 밝다. 상류에 있는 백운동서원은 문성공 안휴를 제사하는 곳이다.....중략 소백산과 태백산의 아래와 황강의 상류는 참으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등의 입지에 풍수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14)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열당, 1995, p.21

15) 이상해, 앞의 책, p.361

16) 경상북도 영주의 옛지명

17) 김은중, 앞의 책, p.22 재인용



소수서원 입지 현황



소수서원 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원이 설립된 곳을 살펴보면, 배향(配享)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건립시기	고향	강학처	유배지	은거	성장지	묘소	합계
~1550	2개소 소수서원 상현서원	1개소 근암서원					3
~1600	3개소 남계서원 임고서원 선암서원	6개소 경광서원 신향서원 이산서원 도산陶山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월봉서원	2개소 옥천서원 경현서원	3개소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1개소 충렬서원	15
~1650	1개소 우저서원	4개소 병산서원 희연서원 돈암서원 동낙서원		1개소 서계서원		2개소 자운서원 심곡서원	8
~1700	1개소 임천서원	4개소 노강서원 화양서원 도산道山서원 칠산서원			1개소 미천서원		6
~1750		5개소 창계서원 흥암서원 부산서원 도정서원 고산서원	1개소 반곡서원				6
~1800				1개소 고산서원			1
1851~		1개소 단구서원					1

서원의 장소성¹⁾

3-2. 도산서원의 건축

3-2-1. 서원의 건축

1) 서원의 건축적 특성

서원 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로서의 강학공간과 제향을 위한 시설인 제향 공간 그리고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의 배치는 이들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서원의 건물 배치형태는 일반적으로 강학공간을 앞쪽에 두고, 제향공간을 뒤쪽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형조건에 따라 소수서원·회연서원과 같이 동쪽에 강학 공간을 두고, 서쪽에 제향 공간을 배치한 동학서묘東學西廟 방식을 따른 서원도 있다. 서원의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정문과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정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고, 강당 앞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장서각·장판각·제기고·전사청·고직사 등의 부속건물들은 적절히 배치해놓았다.



도동서원(전학후묘)



회연서원(동학서묘)

서원의 정문인 외삼문은 솟을 대문으로 이루어진 솟을삼문과 평삼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남계서원의 풍영루風咏樓, 도동서원의 수월루水月樓, 필암서원의 확연루廓然樓, 무성서원의 현가루絃歌樓, 금오서원의 읍청루挹淸樓 등과 같이 정문으로 누문을 세운 곳도 있다. 또한 외삼문을 들어서면 옥산서원의 무변루無邊樓, 병산서원의 만대루晩對樓, 서악서원의 영귀루詠歸樓, 자계서원의 영귀루詠歸樓 등과 같이 외삼문과 강학 공간 사이에 누각을 세운 서원이 있다.¹⁸⁾

18)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1.



도동서원 수월루



옥산서원 무변루

강학 공간은 일반적으로 일당양재一堂兩齋의 원칙에 따라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작은 서원의 경우 강당만 있거나 혹은 동·서 양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 강당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서원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일반적으로 정면 5칸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만들어 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 양측의 각 1칸은 온돌로 만들어 교수진이 사용하였다. 강당의 명칭은 향교의 명륜당과 같이 공통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도산서원의 전교당典敎堂, 무성서원의 무성서원武城書院, 덕양서원의 덕양강당德陽講堂과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쓴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으로서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이 동재, 오른쪽이 서재라 칭하며, 동재에는 선배가 되는 원생들이 기거하였다.



서원 전체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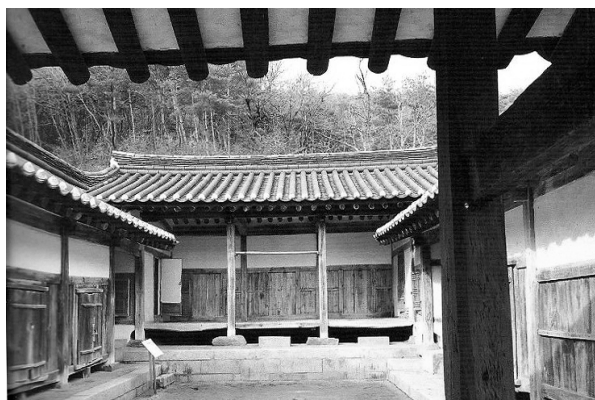
강당 및 양재



사당 및 내삼문

제향공간은 내삼문(신문)과 사당으로 구성되는데, 제향공간은 엄숙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위에 담을 쌓았다. 서원의 사당은 공자를 비롯한 선현과 우리나라 유학자 18현을 봉안하는 향교의 사묘와는 달리 특정한 인물을 배향하므로 향교에 비해 사묘의 크기도 작고 배향인물도 서로 다르다. 사당 건물은 보통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규모로 구성되는데 예외적으로 창절서원은 정면 5칸 규모이다. 이는 봉향자가 1~6명인 다른 서원과 달리 창절서원은 단종 복위와 관련된 사육신을 포함하여 봉향자가 1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당의 명칭도 강당의 명칭과 같이 도산서원의 상덕사 尙德祠, 옥산서원의 체인묘體仁廟, 필암서원의 우동사祐東祠 등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속 공간으로는 강학 공간에 부속된 건물인 장서각과 장판각이 있고, 제향공간에 부속된 건물로는 전사청과 제기고 등이 있다. 장서각은 서책을 보관하고, 장판각은 서책을 찍어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명문 서원에서는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책을 펴낸 뒤 다른 서원에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목판을 장판각에 수장하였다. 장판각은 서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건축구조에 각종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구조적으로도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은 마루로 만들고 창문의 크기는 통풍을 고려해 만들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판각 전후로는 가능한 다른 건물을 띄워서 배치하고 건물을 둘 경우 바람이 장 통하도록 배치하였다. 전사청은 제향 때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제기고는 제기와 제례용구를 보관하는 곳인데, 간혹 전사청과 제기고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사청은 일반적으로 사묘구역 내에 두지 않고 사묘와 별도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데, 함양의 남계서원은 유일하게 사묘구역 내에 전사청을 두었다.¹⁹⁾



도산서원 상고직사



돈암서원 장판각

또 교직사校直舍·주소廚所·주사廚舍 등으로도 불리는 고직사는 서원에 딸린 노비들이 생활하면서 원생들의 식사와 세탁, 제사 음식준비 등을 서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서원에는 향사와 관련된 성생단省牲壇·관세대盥洗臺·망료위望燎位·정료대庭燎臺와 같은 의례용 시설물들도 있다. 제사에 쓰일 가축을 생牲이라 부르는데, 제수를 마련하기 전날 향사의 관계자들이 희생 제물로 쓰일 '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쓰일 생이 정결한가를 검사하였다. 이때 '생'을 올려놓는 단을 성생단이라 부른다. 성생단은 소수서원과 같이 흙을 쌓아 만든 곳도 있으나, 돌을 쌓아 만

19)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19.

든 석단과 넓적한 돌로 만든 것도 있다. 또한 관세대는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대야를 올려놓는 시설물이다. 그리고 망료위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또한 정료대는 밤 중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사당이나 강당 앞에 세워놓는데, 제사는 한밤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정료대 위에 관솔불을 올려놓아 불을 밝혔다.²⁰⁾



성생단



관세대



망료위



정료대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어,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 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또 서원 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 중에는 도동서원 외 8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고산서원 외 많은 서원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된 서원들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들 지정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남계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20)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4.

2) 서원 건축물의 가치²¹⁾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왕조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중 서원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말 훼손을 면한 47개 서원은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서원 중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과 미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서원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지정된 서원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3-2-2. 도산서원의 창건과 변천

1) 도산서당의 입지배경

도산서원은 원지(院誌)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규장각(奎章閣)에 소장중인「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경상도)」는 1759년(영조 35년)과 1763년경에 전국 각 읍에서 서원(書院)·사우(祠宇)·영당(影堂)의 사적을 조사·정리하여 보고한 것을 중앙에서 각 도별로 합편한 책으로 여기에도 도산서원은 빠져있다. 확실한 고증 사료인 서원사(書院史)가 없고「열읍원우사적」에도 그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나 도산서원은 '기記', '록錄', '안案[회록會錄, 부장록傳掌錄, 원규院規, 노비안奴婢案, 전답안田畵案, 수호군안守護軍案, 심원안尋院案, 집사록執事錄, 중수사실기中修事實記, 연액시도延額時到, 문집정간일기文集政刊日記, 원의원議, 원문院文] 등의 일차적 사료가 온존溫存되어 있고, 그 밖에 도산서원에 연관된 인물들과 관련문헌 자료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²²⁾

퇴계가 만년에 복거卜居와 강학構學의 터로 도산을 정한 배경에는 그의 요산요수관樂山樂水觀에

2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1

22)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경상북도 안동군 1991, p.24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퇴계의 樂山水觀은 그의 제자인 권호문權好文에게 준 글인 답권 생호문答權生好文 논論요산요수樂山樂水에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요산요수(樂山樂水)란 성인의 말은 산이 인(仁)이 되고 물이 지(智)가 된다는 말이 아니며, 사람과 산수(山水)가 같은 성(性)이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진 자는 산과 같으므로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자는 물과 같으므로 물을 즐긴다고 말한 것뿐입니다.줄임.....

사람으로 하여금 산수에 나아가 인(仁)·지(智)를 구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 요(樂)의 뜻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자·지자의 기상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요. 인자·지자의 기상을 의사를 찾으려 하거든 다른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돌려보아서 그 실(實)을 얻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인(仁)과 지(智)의 실(實)이 있어서 속에서 충만하여 밖으로 드러나면 요산(樂山) 요수(樂水)는 애써서 구할 것 없이 저절로 그 낙(樂)이 있게 될 것입니다.....줄임.

또한 <상감사심공서上監司沈公書(상심방백통원上沈方伯通源)²³⁾> 에는 李滉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에 관찰사 심통원 沈通源 에게 백운동서원에 편액과 전토田土를 하사할 것을 주청하도록 청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

隱居求志之士。講道肄業之倫。率多厭世之囂競。抱負墳策。思逃於寬閒之野寂寞之濱。以歌詠先王之道。靜而閱天下之義理。以蓄其德。以熟其仁。以是爲樂。故樂就於書院。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前有學令之拘礙。後有異物之遷奪者。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由是言之。非唯士之爲學得力於書院。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

은거하면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선비와 도를 강론하고 학문을 닦는 무리가 대부분 세상의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경서를 안고 한적한 들이나 물가에 숨어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고요히 천하의 의리를 살펴보면서 덕을 쌓고 인(仁)을 성숙시키는 것을 낙으로 삼기 때문에 기꺼이 서원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국학과 향교는 저자와 성 안에 있는 데다, 앞으로는 학령(學令)에 구애받고 뒤로는 외물에 영향을 받게 되니, 그 효과를 어찌 같은 등급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진 인재 또한 서원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조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할 이상에 가득한 입지 관인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치만이 서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으며, 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향인물과 관련된 요건 즉, 봉향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유배지나 묘소 등과 관련된 지역이 우선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도산잡영(陶山雜詠)이란 시를 짓고 이 시에 붙인 병기(并記)의 전반부에는 도산서당의 입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23) 죽계지竹溪志의 권2 - 백운동서원에 관한 기록을 모은자료로서 상심방백서上沈方伯書 라도고 함

靈芝之一支 東出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而命之曰 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故 名之以其實也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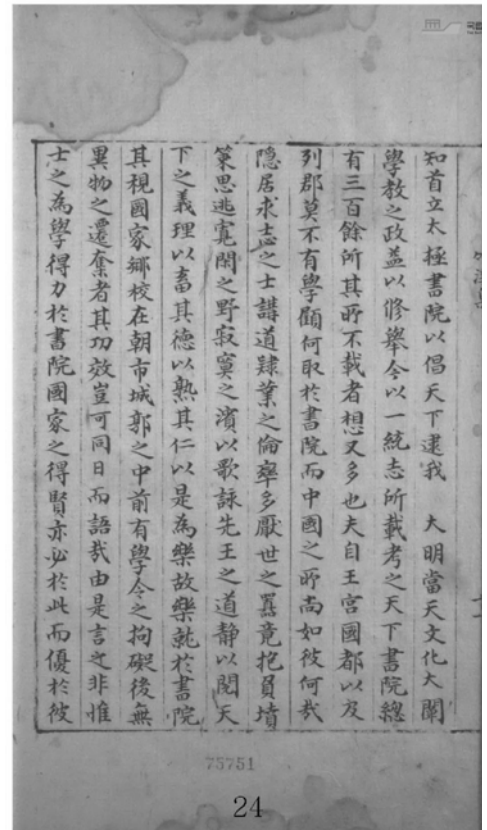
영지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 혹자는 “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이름 하였다” 하고, 혹자는 “옛날 이 산 중에 도기굴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따라 도산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지만 널리 트인 곳에 자리 잡아 형세가 빼어나고 방위도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다.

山之在左 曰東翠屏 在右 曰西翠屏 東屏來自清涼 至山之東 而列岫??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 兩屏 相望南行 ??盤旋八九里 許 則東者西 西者東 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산을 서취병(西翠屏)이라 한다. 동병(東屏)은 청량산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아득하게 늘어져 있고, 서병(西屏)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두 취병산이 서로 바라보며 남쪽으로 구불구불 8,9리쯤 내려가다가, 동병은 서쪽으로, 서병은 동쪽으로 달려와서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의 아득한 밖에서 산세가 합쳐진다.

水在山後 曰退溪 在山南 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 趨至山之趾 則演?泓?淙?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峯下 峯 卽西者東 而合勢之處也.

산 뒤에 있는 물을 퇴계라 하고 산의 남쪽에 있는 것은 낙천이라 한다. 퇴계는 산의 북쪽을 돌아 산의 동쪽에서 낙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낙천은 동병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기슭 아래에 이르러 넓어지고 물이 깊어졌다. 여기서 몇 리나 내려가다가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는데 물이 깊어 배가 다닐 만 한데, 지금 같은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가운데 여기가 이른바 탁영담이다. 서쪽으로 서병의 벼랑을 지나서 그 아래의 물까지 합하고, 남쪽으로 큰 들판을 지나 부용봉 아래로 들어가는데, 부용봉은 곧 서병이동으로 와서 형세가 합쳐진 곳이다.



죽계지 1권 중 상감사심공서上監司沈公書
(국립중앙도서관)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 偏於?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遼廓 巖麓??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처음에 내가 퇴계의 가에 복거하여 시내 옆에 몇 칸을 엮어서 집을 짓고 책을 간직하고 웅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다. 세 번이나 그 터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더군다나 시냇가가 너무 한적하여 마음을 넓히기에는 적당하지 못했다. 이에 다시 옮기고자 하여 도산의 남쪽에다 땅을 얻었다.

여기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려다보인다. 그 모습이 그윽하고 아득하며 멀리 트이었으며 바위 기슭은 초목이 뺨뺨하고도 또렷한데다가 돌우물은 달고 차서 은둔할 곳으로 적합하였다. 농부의 밭이 그가운데에 있었으나 재물로 바꾸었다.²⁴⁾



도산기(도산잡영병기)_유교넷

이러한 택지선정과정과 더불어 서당 주위의 자연경물에 일일이 이름을 붙음으로서 이들을 서당의 공간들과 연계시켜 생각하고 자연을 상대 객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로 동화하려했던 점은 선생의 자연 합일적인 교육관과 실학적인 사고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2) 도산서당의 영건(營建) 과정

퇴계는 생전에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 대부분의 저술을 퇴계집에 정리, 수록하였다. 이러한 퇴계집의 내용은 도산잡영(陶山雜詠) 병기(井記) 와 도산기(陶山記), 성재(惺齋) 금난수의 「도산서당영건 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²⁶⁾, 그리고 권오봉의 퇴계가년표(退溪家年表) 등에 도산에 사당터를 조성하고

24) 국역 퇴계집 I, 민족문화추진회, 경인문화사, 1976, p.34~5. 이장우, 장세우 옮김, 도산잡영, 을유문화사, 2005, p.50~60

25) 장석하, 곽동엽 도산서원 배치에 관한연구, 경북산업대, 1993 p.7~8

26) 성재선생문집 권3, 한국문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1996.

배경하게 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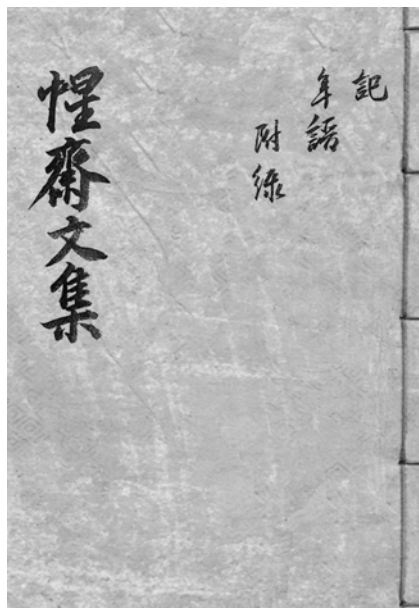
도산서원의 연혁은 퇴계가 57세 때인 1557년에 이곳에 도산서당을 건립하면서 비롯되었으므로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궁구(窮究)하며 후학을 양성한 도산서당 시기와 퇴계 사후 선생의 학문을 잇고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퇴계 생존 시에 건축된 것은 도산서당과 부속 건물인 학생들이 거쳐하며 공부하던 농운정사(隴雲精舍)와 역락서재(亦樂書齋) 3개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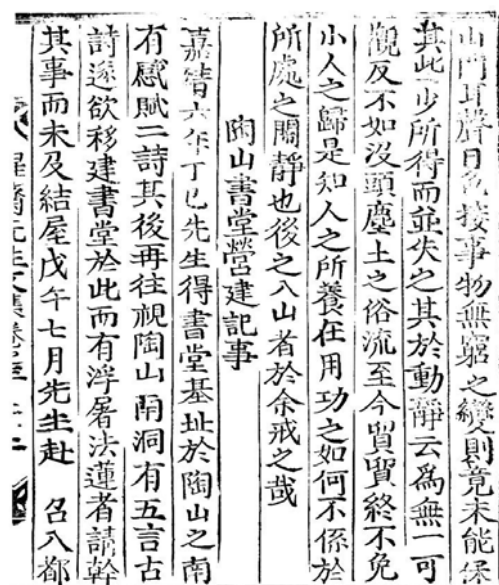
도산서당의 영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57년 3월 면진재(勉進齋) 금응훈(琴應勳) 등 그의 문인들이 수업할 정사를 세우자고 간청하였으나 서당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거절하였다. 그러나 도산에 터를 보아 놓고 다시 간구(懇求)하므로 홀로 그 터를 살펴보고 마음에 들어 새로 서당을 짓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때의 심정을 퇴계는 시 몇 편에 남겼다.

다음 해인 1558년 용수사의 승려인 법련(法蓮)에게 건축을 맡겼다. 준공되기 전에 나라의 소명을 받아 상경하여 같은 해 11월 초에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옥사도자(屋舍圖子) 두 종류를 보내어 법련과 의논하여 정하게하고, 같은 달 하순에 앞서 보낸 설계도에 미진한 데가 있어 다시 그러 이문량(李文樑)에게 보내면서 법련과 상하게 하였다. 1559년 정월에 건축을 진행하던 법련이 사망하자 이문량이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승려를 찾기로 하여 승려 정일(靜一)에게 이를맡겼다. 1560년 11월에 서당이 준공되었는데 당(堂)은 모두 3칸이었으며, 암서헌(巖棲軒)과 완락재(玩樂齋)를 합하여 도산서당이라 편액 하였다. 1561년 3월에 서당 동쪽에 절우사(節友社)를 만들고 송(松), 죽(竹), 매(梅), 국(菊)을 심었으며, 같은 해 가을 서당의 서쪽에 정사(精舍) 8칸을 지었는데, 휴식 공간인 헌(軒)은 관란(觀瀾),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인 재(齋)는 시습(時習), 잠자는 공간인 요(寮)는 지숙(止宿)으로 하여 농운정사(隴雲精舍)라 이름하였다. 1557년 택지를 하여 1661년 농운정사를 완성하기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



금난수의 성재문집_유교넷



성재문집 「도산서당영건기사」 _유교넷

역락서재는 1562년에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처할 장소로 지은 것으로「논어(論語) :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에서 취한 이름이다. 역락서재는 서원 초입 왼쪽에 있고 농운정사는 서원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바로 있다. 도산서원도에서는 농운정사의 좌측 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농운정사 좌측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역락서재의 위치가 어떠한 이유에서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건립 당시에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서당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위치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배치에서 비켜선 농운정사 전면 좌측으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7)

도산서당의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의 3량가 박공지붕의 건물이다. 여기에 좌우측에 뒷간을 1칸씩 증설하였다. 1칸씩 증설된 이 뒷간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김동욱 교수는 제자 금난수(琴蘭秀)의 영건기사를 참조하여 퇴주(退柱)를 세우고 익침을 달았다. 고하여 처음부터 퇴계가 계획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반면에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에는 3칸의 규모를 완성한 후 후대에 증설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8)

3-2-3. 도산서원의 건축과 배치

1) 배치 분석

도산서원은 건축물 구성면으로 볼 때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1575년 8월에 서원이 낙성되자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 받음으로써 사액(賜額)서원으로서 영남유학의 총 본산이 되었으며, 다음해인 1576년 2월 퇴계의 위패를 모셨다. 1615년 사림이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 ~ 1606)을 종향(從享)했다.



도산서원 195.0 × 46.0 석봉 한호가 선조의 명을 받고 어전에서 썼다고 전한다. 만력 3년 6월이라는 연호가 있다. _유교넷

도산서원은 강학공간을 중심으로 제향공간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강학공간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門)과 중앙의 전교당(典敎堂:보물 제210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27)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P.28

현재 역락서재는 농운정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애보(西涯譜)나 표암 강세황(1713~1791), 허주 정(1581~?), 월탄 김창석(1652~1720)의 '도산서원도'를 살펴보면 농운정사의 서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권오봉은 김동욱의 의견과 같이 그 시기에 가설지붕이 조영되었으나, 퇴계가 고산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스님이 마루를 한칸 더 달았다는 것이다. 퇴계는 그 서당이 너무 크고 화려하다고 부끄러워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윤천근은 후대에 마루가 증설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하튼 증설된 현재의 모습은 정면 5칸, 측면 1칸이고, 건평 10평 정도이다. 권오봉,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2004, p.34. 윤천근, p.61, 김동욱, p.27,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p.102

책을 보관하는 서고인 동·서광명실(光明室), 유생들이 거쳐하면서 공부하는 동·서재가 이에 해당하며 동재를 박약재(博約齋), 서재를 홍의재(弘毅齋)라 한다.

대개의 강당은 좌·우협실(夾室)로 구성되어 좌협실은 원장이, 우협실은 부원장이 기거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곳 전교당은 좌협실은 없고 우협실인 한존재(閑存齋)만 있다. 동재 뒤편에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제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셔놓은 상덕사(尙德祠:보물 제211호)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매년 음력2·8월 중정일(中丁日)에 제향을 드린다. 부속 건물로는 서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고직사(上庫直舍)가 있으며 이는 홍의재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 설립된 유물전시관 '옥진각(玉振閣)'이 있는데, 퇴계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969년 서원을 중심으로 임야 및 전답 19필 324.945㎡이 사적170호로 지정되었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에도 훼손(毀撤)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였다. 1969~70년 정부의 고적보존정책에 따라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

도산서원의 배치를 살펴보면 주요건물인 전교당과 상덕사, 그리고 도산서당이 동일한 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맥선(地脈線)을 따라 입지시켰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의 건축배치는 전당후묘(前堂後廟) 양식을 따르고 있다. 강학공간인 전교당의 뒤편에 존현의 신성한 공간인 상덕사가 있고, 전교당 앞쪽으로는 후학들이 기거하는 동, 서재가 위치해 있다. 전교당을 정면으로 오른쪽에는 장판각이 있고, 왼쪽 후편에는 전사청과 상고직사가 위치해 있다. 동, 서재 아래에는 광명실이 있고, 이들 사이로 진도문을 통하여 서원 출입을 하게 된다. 여기서 기능과 배치별로 건축군을 나누면 크게 3개로 대별된다. 첫째는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와 관련된 건축군, 둘째는 서당의 강학공간이고, 마지막으로 강학공간을 지원하는 부속공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들을 나뉘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산서원 건물 배치

퇴계의 일생과 주거공간

주 거 지	나 이	중 요 기 사
· 생가(노승정) · 청량산(13, 15세) · 봉정사(16세) · 용수사(12, 20세)	1~20	· 2세 6월 부친 사망 · 12세에 숙부에게 논어를 배움 · 13, 15세에 형, 사촌 자형과 청량산에 들어가 독서함 · 16세-사촌동생, 친구와 봉정사에서 공부함 · 20세-용수사에서 홀로 주역 공부에 몰두함
· 분가 · 불명	21~25 23	· 허씨 부인과 결혼 · 서울에 올라가 태학에서 공부함
· 삼백당(온계 형의 집)	26~30	
	27	· 허씨 부인 사망
	27 가을	
	28 봄	· 진사 생원시 합격
	30	· 진사 회시 합격, 권씨 부인과 재혼
· 지산와사(보선당, 양곡당)	31~45	
	32	· 상경, 문과 초시에 2등
	33 봄	· 남행 여행 : 의령, 준지, 함안, 곤양
	33 여름	· 태학에 입학
	33 가을	· 귀향,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
· 경저(서울 서소문의 집)	34~35	· 3월 문과에 급제
· 양진암(계장)	46~49	
	46	· 권씨 부인 사망
· 경저	47	· 서울로 올라감(8~12월), 아들 결혼(의령)
· 단양공관	48	· 단양군수로 부임, 아들 사망
· 풍기공관	49	· 풍기군수로 이임
· 한서암(계장, 퇴계초옥, 정 습당, 계사, 계제)	50	
· 한서암 옆 회암대에 금공이 지은집	50 2월	· 5종의 나무를 심어 화원 조성
· 계상서당(계당초당)	51~60	· 서당으로 이사함
	52	· 고향에 머무름(1, 2, 3월)
	53~54	· 서울에 머무름
	55~57	· 고향에 돌아옴
	57	· 도산서당 공사 시작
	58	· 율곡 이이를 만남, 9월 상경
	59	· 서울에 머무름(1, 2월)
	60	· 도산서당 완공(11월)
· 도산서당(산당, 陶舍, 산사, 정사, 陶社, 陶庵, 정려)	61~70	· 도산 서당 교육 시작
	67	· 서울에 머무름(6, 7월)
	68	· 다시 상경함(7월)
	69	· 귀향(3월)
	70	· 사망(12월)

2) 도산서원도 분석

도산서원은 과거 많은 그림의 대상지가 되어 왔으며, 명종은 도산기와 함께 주변경치를 그려 침소에 병풍으로 장식할 정도로 주변 경관이 빼어나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들은 현재 전해 지지 않으며 대부분 그림은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 많다. 대표적은 그림은 월탄 김창석(月灘 金昌錫, 1652~1720)이 그린 도산도,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도산서원도, 국립현대미술관-1721년, 간송미술관-부채그림 소장)와 부채그림(연도미상), 강세황의 도산서원도(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성길의 무이구곡도(무이구곡도, 1592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민화풍으로 그린 도산도도 여러 점 알려져 있다.

도산서원관련 옛 그림 목록

연번	제목	저자	연도	소장처	비고
1	도산서원도	허주 이징	1581~?	계명대학교 도서관	
3	분강촌도	월탄 김창석	1710년	연세대학교 도서관	
4	도산서원도	겸재 정선	1721	국립현대미술관	
5	계상정거도	겸재 정선	1746	개인소장	
6	도산서원도	표암 강세황	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7	도산전도	고봉	연도미상		
8	도산서원(부채)	겸재 정선	연도미상	간송미술관	
9	작자미상 1점	작자미상	조선후기 추정	개인소장	

이러한 그림들을 연대순으로 정렬하여 이것을 토대로 도산서원의 배치 변천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일부 그림들의 개인적인 화풍에 따라 다소 과장하거나 생략한 부분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 허주 이징

허주 이징(1581~?)의 도산서원도는 상덕사, 전사청, 전교당, 동·서재, 도산서당, 농운정사 등과 정우당, 곡구암, 천광운영대, 천운대가 표현되어 있으며 특히 역락재가 현재의 위치와는 달리 도산서원의 건축군에서 속하지 않고 도산서원과 떨어져 좌측 비탈에 건립되어 있다.

대략적인 위치는 농운정사와 박약재의 중간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허주 이징(1581~?), 도산서원도

■ 월탄 김창석

1600년대 제작된 이 작품은 월탄 김창석(1652~1720)이 그린 도산도로 4면의 화첩으로 되어 있으며, 도산서당, 농운정사, 전교당과 동서재, 상덕사, 전사청, 역락재가 보이며 서원 전면에 곡구암, 천연대, 운영대 등이 나타난다. 눈여겨 볼 점은 허주 이징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역락재의 위치가 농운정사 좌측하단이 아닌 좌측 중단 즉 농운정사와 박약재의 중간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운영대의 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몽천의 형태가 정확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도산서원의 접근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월탄 김창석, <도산도>, 1600년대 후반 추정

■ 겸재 정선

겸재 정선(謙齋 鄭勲, 1676~1759)은 도산서원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 한명으로 도산서원도, 도산서원도 부채그림, 계상정거도등이 있으며. 그 중 도산서원도는 1721년에 제작되었다.

현재 이 그림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림을 살펴보면 앞의 그림들에서 보이지 않던 상고직사가 나타난다는 이는 1600년대 후반과 1700년대 초반 사이에 상고직사 신축되었음을 의미하여 또한 역락재가 앞의 그림들과 근사한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 월탄 김창석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도산서원 접근로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그림의 좌측 하단 즉 분천 인근에 있는 농암 이현보가 건립한 애일당도 표현되어 있다.



겸재 정선, 도산서원도, 1721년_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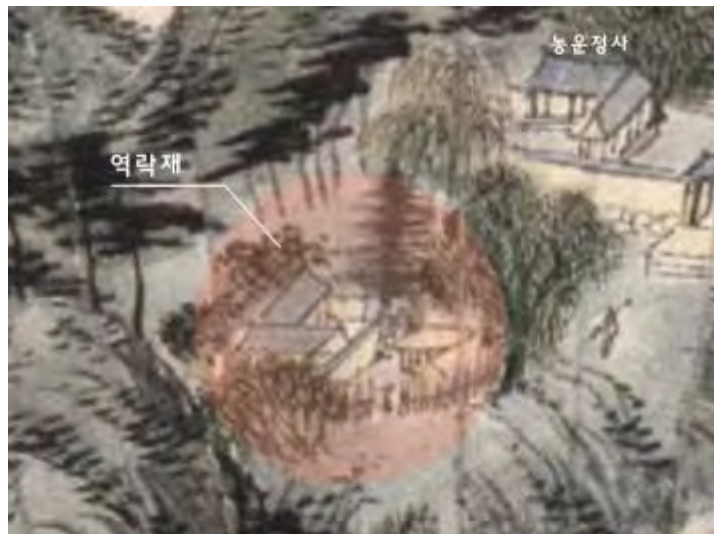


겸재 정선, 도산서원, 1735년_간송미술관 소장

한편 정선의 도산서원도 중 하나인의 부채그림은 동일인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도산서원도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의 도산서원보다는 주변 경관에 주안점을 두고 묘사한 듯 동재와 서재는 보이지 않고, 전사청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앞의 그림들과 달리 상덕사 우측에 위치해 있다. 또한 농운정사와 도산서당의 건물형태 달리 나타난다.²⁹⁾ 전체적으로 도산서원의 자연경관에 중점을 두고 그린 탓에 도산서원은 생략 혹은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도산서원 전면 좌측에 있는 건축물로 현재의 역락재와 비슷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운영대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그림 및 현재의 역락서재와 달리 ㄱ자로 표현되어 있다.

두 그림을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전자의 그림이 도산서원의 표현에 있어 좀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의 그림은 도산서원의 표현에 있어 생략, 과장 등으로 인하여 도산서원 배치 특성파악의 자료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좌측 하단에 있는 굵은 자집이 역락재라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암 강세황

좌측 하단 건축물 확대



표암 강세황, 1751년

1751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91)의 작품으로 현재 보물 제5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상덕사, 전사청, 전교당, 동·서재, 도산서당, 농운정사 등 도산서원을 구성하는 모든 건축물과 경관요소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일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분천에서 도산서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분천서원, 애일당, 병암정, 석간대 등도 잘 묘

29)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ㄱ자' 형태로 그려져 있음

사되어 있어 도산서원 일대의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락재가 검재 정선의 부채그림 외의 모든 그림과 같은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



표암 강세황, 1751년 확대

■ 고봉 친필본 『도산기』에 수록된 도산서원 배치도

이 그림은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³⁰⁾의 친필본 『도산기』에 실려 있는 그림으로 고봉 친필본은 퇴계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陶山雜詠을 필사한 것으로 원제목은 <도산잡영 병기(陶山雜詠 并記)>이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장에 도산서원의 전체 배치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시사단이 그려져 있는데 시사단은 1792년(정조 16년)에 건립되었으므로 이 그림은 고봉 기대승의 사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1792년 이후의 그림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그림에서도 역락재의 위치는 앞의 그림들과 동일한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

30) 고봉친필본 <陶山記>해제-임준성 발췌



고봉 기대승, 도산전도, 연대미상

■ 결 론

위의 그림들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도산서당, 농운정사, 상덕사, 전교당 등의 주요 전각들의 배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현재의 배치형태와도 거의 일치한다. 다만 현재 역락서재의 위치와 그림들에 나타난 역락재의 위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들 간의 비교에 있어서 검재 정선의 부채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5점의 그림에서는 역락재의 위치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검재 정선이 그린 2점의 도산서원도 중 한 점의 그림에 나타난 역락재의 위치는 다른 그림들과 동일한 위치에 묘사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점의 부채그림의 경우 좌측 하단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은 현재 역락서재의 위치와 근접하여 있으나, 현재는 역락서재가 농운정사 좌측 하단에 연접하여 있는 반면 그림에 나타난 건축물은 농운정사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 건축물의 형태 또한 다른 그림 및 현재의 역락서재와 다르게 곽은자 집으로 나타나 있다.

정리하면 이 그림에 나타난 건축물은 역락재가 아니거나, 역락재를 이건한 후 그린 그림이라 추정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그 이후에 그려진 강세황의 도산서원도(1751년)와 시사단 건립(1792년)이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의 친필본 『도산기』에 실려 있는 그림에는 역락재가 다른 그림과 동일한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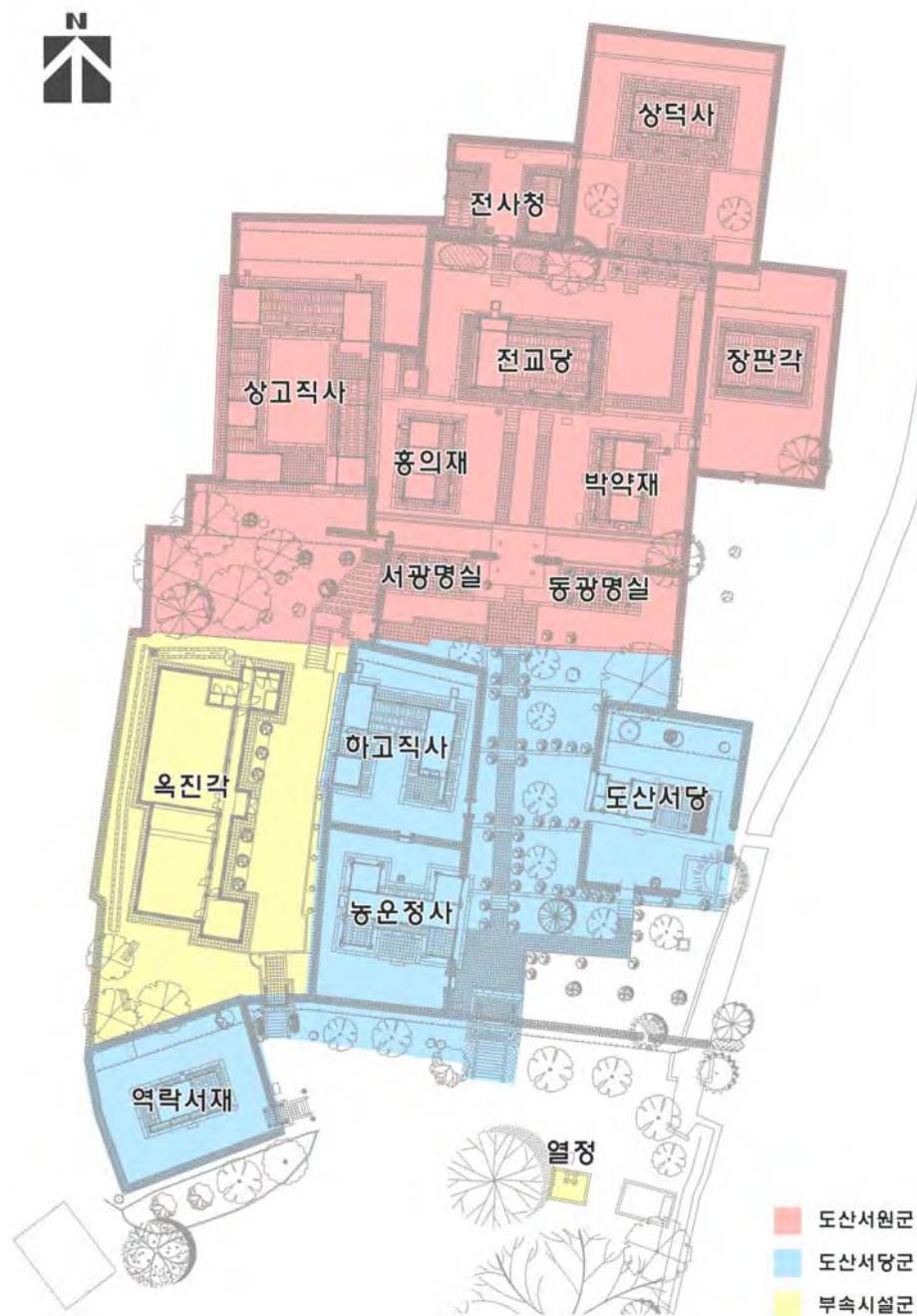
작 가	허주 이징 (1581~?)	월탄 김창석 (1652~1720)	정선(1721)	정선(1735)	강세황 (1751)	미상 (1792년 이후)
위 치	동일	동일	동일	다름	동일	동일

그림에 나타난 역락재의 위치

결국 정선의 부채그림에 나타난 좌측 하단의 건축물은 역락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할 수 있겠으며, 이 추론을 토대로 한다면 역락재는 최소 시사단이 건립된 이후에 현재의 자리로 이건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2-4. 현재의 도산서원

현재 도산서원의 건축군은 도산서당군과 도산서원군, 부속시설군으로 구분된다. 도산서원군 내에 서 다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되며 서원의 배치 형태는 교육 시설인 강당이 앞에 있고 제사 시설인 사당이 뒤에 있는 전형적인 전학후묘로서, 후대의 많은 서원들이 이를 본받았다. 특히 조선 성리학의 본산이자 영남 유학의 구심점인 도산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산서원 영역도

1) 도산서당군

도산서당군은 퇴계 이황 생전에 건립된 건축물군으로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하고직사로 구성된다.



도산서원 영역

① 도산서당

도산서당은 퇴계가 을사사화의 피해를 입고 고향에 칩거할 때 지은 건물로 1557년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1561년에 완공하였으며 원래 부엌, 방, 마루가 각각 하나씩 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자족과 겸손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으나 후대에 마루 쪽으로 성글게 짠 평상형태의 마루칸을 내었고 부엌쪽에 정지칸을 증축하기 위해 반 칸의 익침을 달아서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바뀌었다.

도산서당은 자연석허튼층쌓기로 기단을 구성하고 상면을 강회다짐으로 마감한 후 자연석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평면은 좌에서부터 부엌에 딸린 골방, 부엌, 방, 대청, 살마루로 구성하였다.

완락재(玩樂齋)는 정간 방으로 부엌과 배면 쪽에 각각 약 450mm정도 확장하여 수납공간인 벽장을 시설하였다. 창호는 대청쪽과 전면에는 각기 3분합문과 외여닫이 세살문이 달려있고, 부엌쪽 벽장의 실내부쪽과 전면에는 외여닫이 세살문과 불박이 광창이 설치되었다. 암서헌(巖栖軒)이란 편액이 달린 대청은 전·후·우측면을 간살보다 약 450mm정도 확장하였는데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창호는 배면에는 가운데 설주가 있는 쌍여닫이 띠장널창(영쌍창)을 달았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조성하였다.

도산서당은 건립 시 3량가에서 후대에 좌우 퇴칸이 증설되면서 2량가의 가적지붕이 달렸다. 정간과 우협간의 가구는 배면부가 후대 증설된 관계로 반 3량가로 구성되었다. 3량가의 보는 4본으로, 보 상부에 동자주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은 간결한 구조이다. 처마는 훌처마이며, 박공지붕의 좌우에는 박공과 박공벽이 있으며 가적지붕의 전·후면에는 반 박공이 있다. 지붕은 박공지붕에 좌우 퇴칸의 가적지붕이 붙은 형식이며 기와 끝에 암막새와 수막새를 끼웠으며 우퇴칸의 가적지붕에만 수막새 없이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도산서원 중수기에 따르면 자연석기단은 그대로 재축하였고 사립문을 보수 복원하였으며, 단청은 원래 백골집으로서 고색 단일 색으로 보수하였다. 따라서 도산서원 성역화사업 당시 외형의 변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도산서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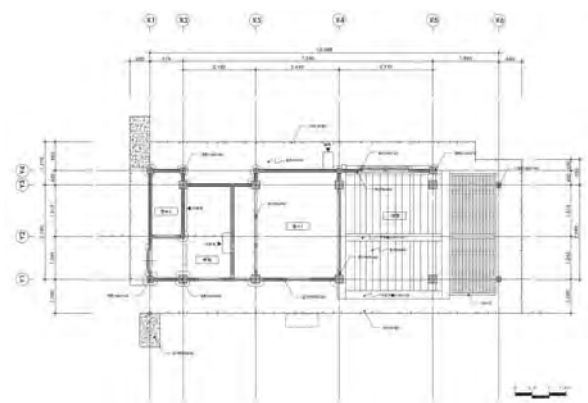
도산서당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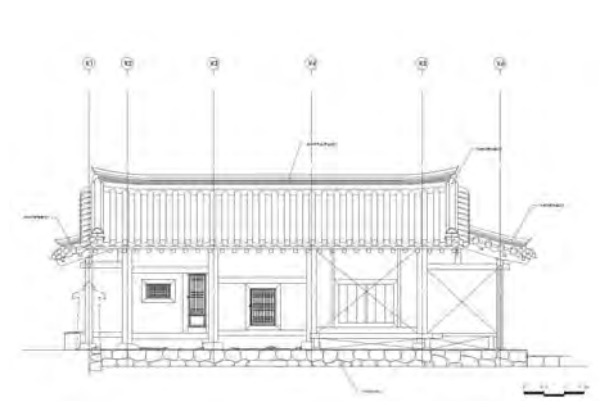
도산서당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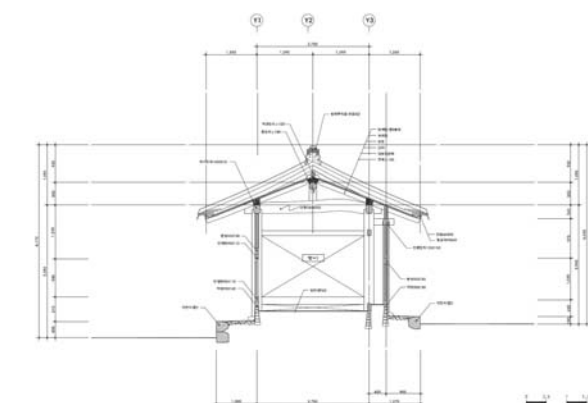
도산서당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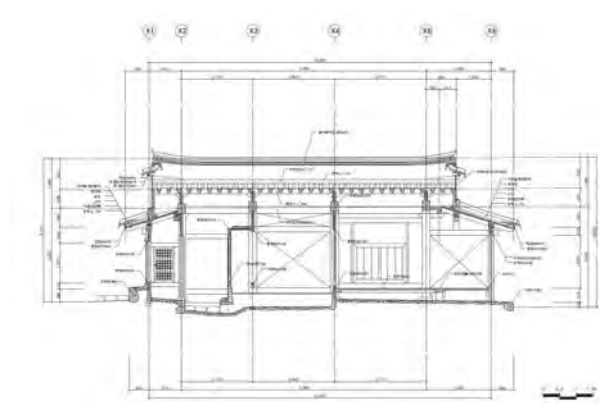
도산서당 평면도



도산서당 정면도



도산서당 종단면도



도산서당 횡단면도

② 농운정사

제자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8칸 규모의 도투마리 형태의 '공(工)'자 집으로 퇴계의 문하생이 공부하던 강실(講室)로, 건축승 법련(法蓮)과 퇴계의 합작품이다. 동재서헌(同齋書軒)의 유교적 위계질서를 적용하여 제자들이 공부하는 동편 마루는 시습재(時習齋)라 하고 휴식하는 서편 마루는 관란헌(觀蘭軒), 가운데 잠자는 방은 지숙료(止宿寮)라 하여 심체공부(心體工夫)를 상징하였다.

농운정사는 지형이 전저후고(前低後高)로 기단의 구성이 사면이 모두 다른데, 전면은 장대석 네벌대로 높인 후 양 측면은 세벌대에서 외벌대로 지형을 따라 높이를 조정하였고 배면은 외벌대로 정면과 수평을 맞춘 후 상부는 사면 모두 방전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주초를 놓았으며 그 위에 각주를 세웠는데, 평면을 살펴보면 중앙에 가로놓인 4칸의 '—'자형 공간의 좌우 퇴칸 전·후에 각 1칸씩을 달아내어 '工(H)'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자형 가운데 공간은 벽으로 막아 2칸씩 통칸의 온돌방을 구획하였고, 좌우 돌출된 1칸의 평면 중 정면 쪽은 모두 대청인데 귀틀을 짜고 청판을 까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줄대를 대고 그 위에 청판을 얹은 방식이다. 배면쪽은 모두 창고로 구성하였는데, 창고 바닥은 토당으로 처리하였으며 창고 후면 벽은 판벽으로 마감하였고 각 창고의 측면에 쌍여닫이 굽널 띠살 창호를 달았다. '—'자형 공간의 가운데 2칸 전·후로 쪽마루를 달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온돌방에는 좌우 모두 배면 쪽으로 벽장을 시설하고 쌍여닫이정자살창호를 달았다.

각 방마다 달린 창호를 상세히 살펴보면, 좌측 통칸 온돌방의 좌측면에는 쌍여닫이 굽널 띠살 창호와 외짝 들어열개 정자살 창호가 달려 있으며, 우측 온돌방의 좌측면에는 외여닫이 정자살 창호, 쌍여닫이 굽널 띠살 창호, 외여닫이 정자살 창호와 외여닫이 띠살창호가 달려 있으며 우측면에는 외여닫이 굽널 띠살 창호와 외짝 들어열개 정자살 창호가 시설되었다. 정면의 관란헌은 우측면이 개방되었고 둔테를 단 골판문과 띠장널문을 달았으며, 시습재는 좌측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전면과 우측면에는 둔테를 단 골판문이 설치되었다.

지붕의 양 익사는 박공지붕으로 꾸미고 그 사이를 박공지붕으로 연결하여 '공'자형 지붕이 되게 하였다. 양 익사 박공부는 풍판이 설치되었고 온돌방 상부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양 익사의 지붕을 따라 올라가 용마루 부고에 맞게 하였다.



농운정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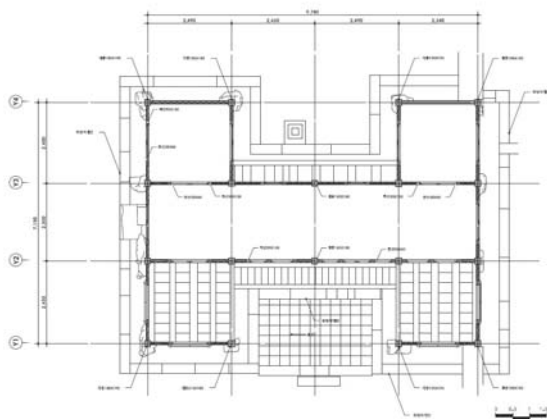
농운정사 몸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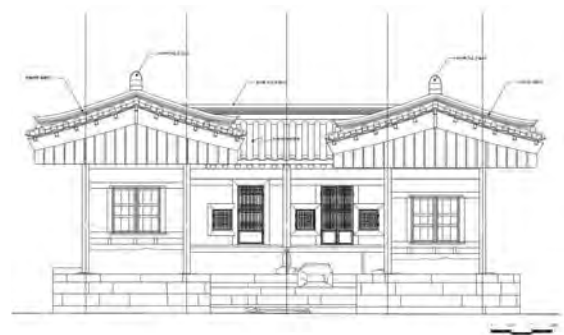
농운정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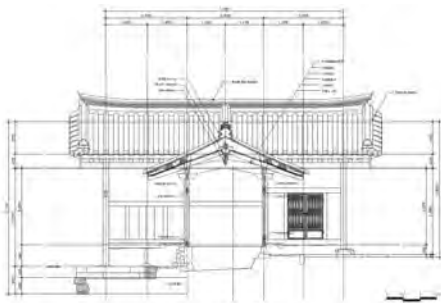
농운정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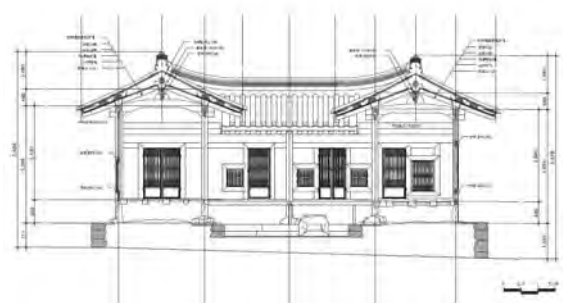
농운정사 평면도



농운정사 정면도



농운정사 종단면도



농운정사 횡단면도

③ 역락서재

역락서재는 도산서원과의 별개의 건물로 본 이름은 동몽재(童蒙齋)이며, 퇴계의 제자인 지현(芝軒) 정사성(鄭士誠)을 공부시키기 위해 그의 부친인 침(琛)이 특별히 지어주었으며, 서원 외곽 남쪽 일원에 향을 달리하여 담장을 따로 두르고 배치된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부엌, 방 마루방으로 좌에서 우로 배치되었으며 전면에는 폭이 510mm 정도인 뒷마루를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단은 화강석 장대석 기단으로 지형의 고저로 인해 사면의 높이가 각각 다르며 기단 상부는

250mm정도의 콘크리트 전돌을 깔았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기둥은 각주로 되어있다. 평면 우측에는 1칸의 마루를 방으로 구획하고 바닥은 우물마루로 꾸몄으며 4면에 창호가 시설되었는데 4면 모두 쌍여닫이 세살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벽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중앙은 1칸 반 규모의 온돌방이며 전면에는 외여닫이세살문과 쌍여닫이세살문이 각각 설치되었으고 좌측으로는 좌측벽이 개방된 부엌이 설치되었는데 온돌방과 사이에 외짝 여닫이 창문을 설치하였다.



역락서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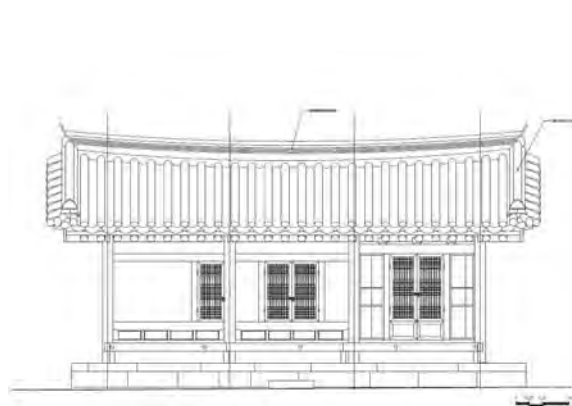
역락서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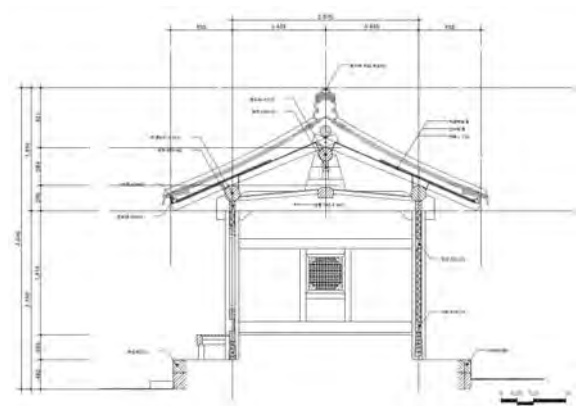
역락서재 좌측면



역락서재 우측면



역락서재 정면도



역락서재 종단면도

④ 하고직사

하고직사는 'ㄷ'자형의 민가 건축양식의 집이며 평면 가운데의 마당을 바라보는 중앙 2칸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기 3칸 반과 3칸의 익사를 단 평면구조이다.

지형에 따라 대청칸은 익사보다 약 200mm정도 높였고 기단도 역시 경사를 이루어 지형에 순응하여 조성하였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그 위에 모두 각주를 세워 골격을 구성하였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중앙의 대청은 귀틀을 짠 후 청판을 끼운 우물마루로, 전면은 개방하고 배면에는 판벽으로 처리하고 각 칸에 쌍여닫이띠장널문을 달았다.



하고직사 전경



하고직사 몸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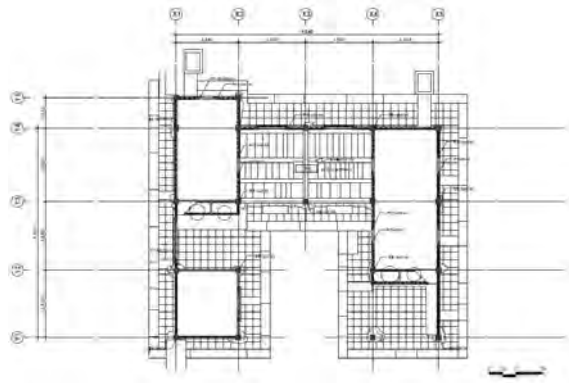
하고직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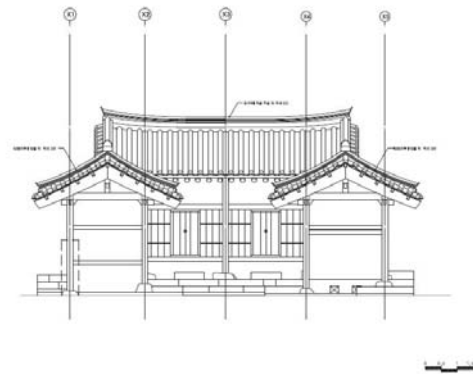
하고직사 정칸 가구부 상세

대청의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종도리와 주심도리로 구성된 민도리집 3량가로, 종량 위에 동자주대 공을 세우고 장여를 끼워 종도리를 받도록 한 단순한 구성이며 보아지는 외부는 직절하고 내부는 사절하였다. 처마도리는 모접이한 납도리로 장여를 받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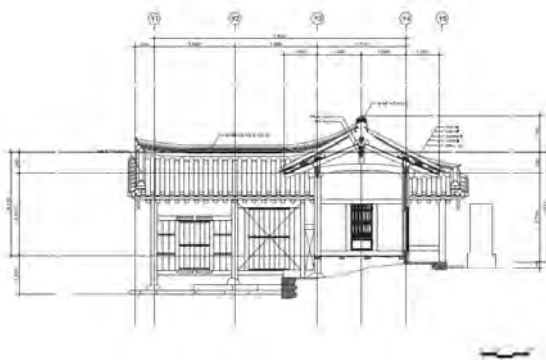
대청의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지붕은 양 익사를 맞배지붕으로 하고 대청 부분 역시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여 서로 연결하였는데 양 익사의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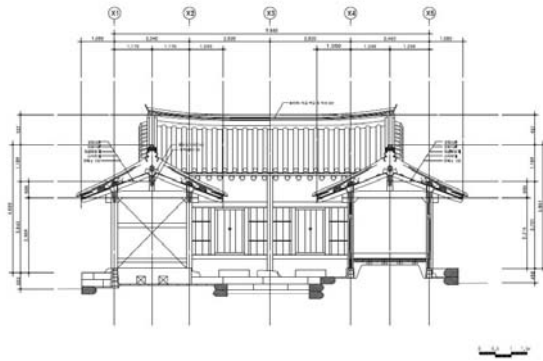
하고직사 평면도



하고직사 정면도



하고직사 종단면도



하고직사 횡단면도

좌익사는 전면으로부터 창고, 부엌이 각각 1칸으로 구성되고 1칸 반의 온돌방을 뒤로 배치하였는데, 반 칸은 대청 뒤로 돌출되었다. 고방(庫房)은 토방 바닥으로 마당 쪽에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내고 판벽을 돌렸다. 1칸의 부엌은 바닥에 전을 깔았으며 가운데 마당 쪽은 개방하였으며 반대쪽으로는 판벽을 설치하고 쌍여닫이 띠장 널문으로 외부로 출입하도록 하였다. 온돌방은 부엌쪽으로 벽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별장의 중앙을 심벽으로 양분하여 한쪽은 개방하고 다른 쪽은 외여닫이 정자살 창호를 달았다. 방의 대청 쪽에는 외여닫이 굽널띠살 창호를 내고, 좌측면과 배면에는 각기 외여닫이 세살창호를 달았다.

우익사는 전면으로부터 부엌 1칸과 2칸의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부엌의 경우 바닥에 전을 깔았으며 전면과 마당 쪽으로 개방하였고, 2칸을 통칸으로 사용한 온돌방은 부엌쪽으로 좌익사와 같은 형식의 벽장이 시설되어 있고 대청 쪽으로는 외여닫이 굽널 띠살 창호를, 반대편에는 외여닫이 띠살 창호를 설치하였다. 그 외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벽은 모두 회사벽이다.

2) 도산서원군

도산서원군은 퇴계 이황 선생 사후 후학들이 그의 학덕을 기리고자 지은 서원과 사당으로 이루어지며 진도문, 전교당, 박약재, 홍의재, 동광명실, 서광명실, 장판각, 상고직사로 구성된다.



도산서원군

① 강학공간

■ 전교당

전교(典敎)란 '공자의 법과 교를 밝힌다.(顯宣尼之典敎)'라는 글에서 따온 것인데, 전교는 선니(宣尼: 文宣王 仲尼), 곧 공자를 말하며 '늘 지켜야 할 가르침과 가르침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이 건물은 도산서원의 강당(講堂)으로 유생들의 자기 수양과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좌측 온돌방에는 한존재(閑存齋)라는 현판을 걸었는데, 원장(原長)이 거처하면서 원생들의 수업을 감독하던 곳으로 한존재의 한존은 헛된 생각을 막고 성심을 보존한다는 뜻이다. 전교당은 퇴계 사후인 1574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에 걸린 현판(陶山書院)은 당대의 명필인 한호(韓濩)의 글씨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흙처마 굴도리 건물로서, 조선 성리학자들이 기피하는 짝수 칸의 구성이 특이하며, 평면은 좌측칸의 1칸을 온돌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3칸은 모두 우물마루를 깔아 대청으로 꾸며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가운데 설주가 있는 쌍여닫이세살창을 설치하였고, 대청 전면은 문짝이 없이 개방되었으며, 좌측면에는 각 칸마다 외여닫이세살문을, 벽장 좌측 벽에는 불박이 광창을 달았다. 우측면과 배면에는 각 칸마다 둔테에 달린 쌍여닫이판장문을 두고 문틀 중앙에는 가운데 설주를 설치하였다. 배면의 대청뒷부분과 온돌방의 우측면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기단은 본래 막돌로 쌓았던 흔적이 있으며, 기단 상면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변형되었던 것을 방형의 전돌로 교체한 것이다.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은 모두 각재를 사용하였다. 가구는 5량가의 민도리계 팔작집으로 대량 위에는 윗면이 사절(斜切)된 동자주형 대공을 세워 종량과 중도리를 받게 하였고, 종량 위에는 운공(雲工)을 둔 복화반(覆花盤) 형상의 대공을 세워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다. 전교당 뜰아래에는 정료대(庭燎臺)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료대는 돌기둥 위에 올려놓은 윗면이 팔각인 반원형의 돌 위에 술가지나 기름통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던 것으로, 야간에 치르는 제례 때 사용되었다.



전교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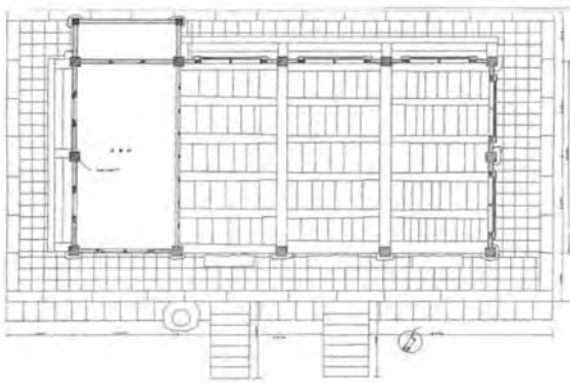
전교당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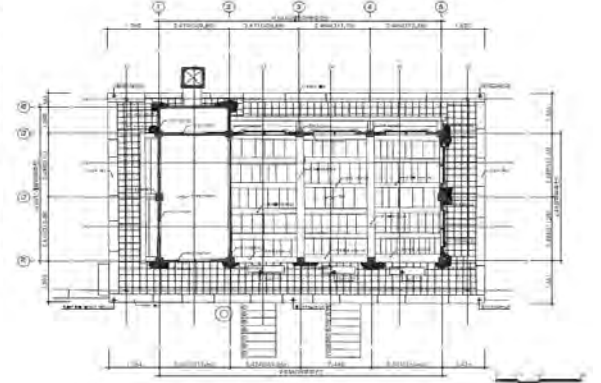
전교당 좌측면



전교당 가구부



1971년 실측도면



1997년 실측도면

■ 박약재 및 홍의재

유생들이 기거하면서 강학하는 곳으로 동·서재가 전교당을 중심으로 서로 바라보며 배치되어 있으며 동일한 규모로 건립되었다. 박약재(博約齋)와 홍의재(弘毅齋)로 명명되어 있으며, 2동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집으로 전면에 쪽마루를 달았다.

박약재(博約齋)의 박약(博約)은 논어의 박문약예(博文約禮)에서 따온 말이다. '널리 글을 배우고 예로써 절제하면 도가 어긋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학자가 폭넓은 학문을 하여 교양을 풍부하게 쌓는 동시에 이것을 집약하여 실행하는데 있어 예(禮), 즉 바른 생활양식 규범으로 한다면 어긋나지 않아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홍의재(弘毅齋)에서 넓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홍의(弘毅)라 하는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선비는 너그럽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仁)을 자기의 임무로 맡았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하라? 죽은 뒤에 그만 둘 것이니 또 멀지 아니한가.'를 뜻한다.

기단은 원래 막돌을 쌓아 시멘트 모르타르로 상부를 마감하였으나 1969년 보수 시 화강석 장대석 기단으로 교체하고 상부는 전으로 마감하였다. 주초는 기단 위에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위에 각주를 세웠다. 평면은 동·서재가 동일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전면에 퇴칸을 둔 형태이며 퇴칸은 우물마루로 조성하였고 기단에서 약 500mm높이로 각 칸마다 머름을 드리고 쌓여담이 세살문을 달아 퇴와 결구하였다.

상부구조 형식은 전면 외진주와 내부 기둥을 크게 만곡 된 퇴량을 걸고 배면 외진주의 대량과 내진주 상부에서 합보한 후 대량 위에 동자주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은 3량가구이다. 기둥 위 보의 훌춤은 보아지 대신 단장여를 끼워 받쳐 주었고 도리 밑은 장여로 받아 보강하였다.

처마는 훌처마이나 서까래를 길게 내어 처마 깊이가 깊으며 내림마루 쪽으로 처마를 약간 치켜들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꾸몄으며 1969년 보수 시 막새기와를 첨가 하였고 굿기단청으로 시공하였다.



박약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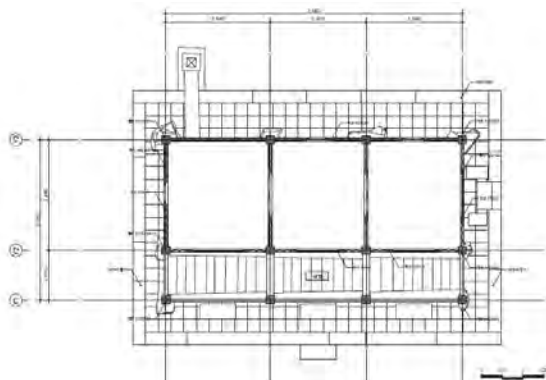
박약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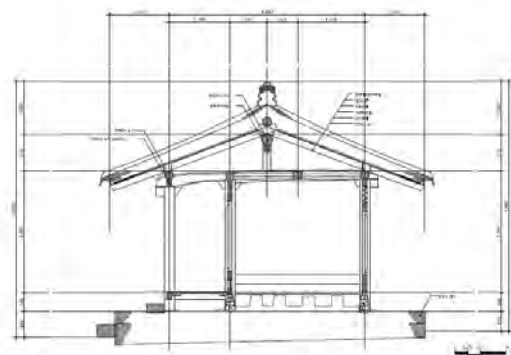
홍의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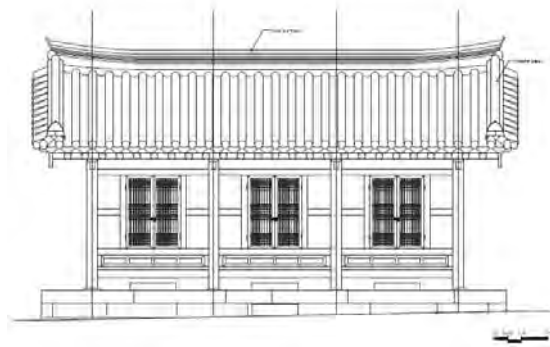
홍의재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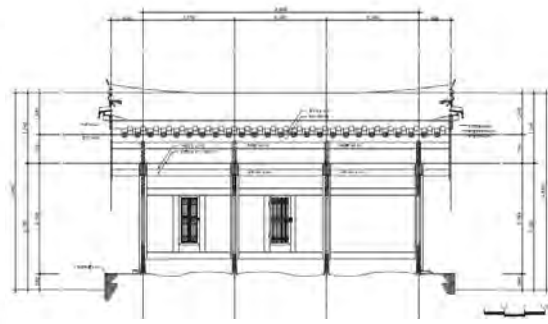
박약재 평면도



박약재 종단면도



홍의재 정면도



홍의재 종단면도

■ 동·서 광명실

퇴계의 수택본 및 역동서원(易東書院)을 철폐할 때 그 서적과 후세의 수증본을 간직하고자 지은 건물로, 현판은 퇴계의 수서(手書)이며 역동서원 광명실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광명실의 명칭은 주자의 사언시 중에 '만권의 서적이 내게 광명을 안겨주는 구나(萬卷書籍 惠我光明)'에서 유래한 것이다. 광명실은 동·서 두 동이 있는데 동광명실에는 퇴계가 직접 보던 책들을 보관하였고 서광명실은 근래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도난의 우려가 있어 1969년 보수정화사업 당시 옥진각을 건립하고 소장품을 옮겼다. 서광명실은 동광명실이 협소하여 소장 서적을 나누어 보관하고자 1930년에 추가로 건립한 것으로 동광명실보다 마룻바닥 높이가 200mm정도 낮으나 구조의 형식은 같다.

광명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의 2층 누각 건물로 축대를 이용하여 전면은 단층, 배면은 2층의 누마루로 구성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누 하부는 전으로 깔았으며 축대를 제외한 3면이 개방된 형태이며 누 상부는 청판을 이중으로 시설한 3칸의 통칸 마루방이다. 마루방의 외부 4면에는 쪽마루에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내어 전교당 앞마당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배면에는 작은 창문을 내어 서장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통풍이 원활토록 하였다. 난간은 동·서광명실이 같으나, 난간 난간대의 단면형이 동광명실은 4각형이나 서광명실은 원형으로 되어있다.



동광명실 전경



동광명실 좌측면



서광명실 전경



서광명실 배면

기단은 화강석 장대석 두벌대 기단으로 본래 자연석으로 구획만 되어있던 것을 보수정화사업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주초는 자연석 덩벙주초로 초석위에 약한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고 2층은 이 기둥위에 각주를 사용하여 올렸다.

마루방 정면과 배면의 정간과 좌우 협간에는 각기 쌍여닫이와 외여닫이 창호가 달렸는데 현재의 창호는 외부에 복재, 내부는 철재로 구성된 2중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재창호는 후대에 설치한 것이며 창호의 형태는 안팎 모두 궁창 정자살 창호이다.

상부가구는 3량가로 종량 위에 동광명실은 제형판대공을, 서광명실은 동자주 대공을 세우고 장여를 통홈으로 넣어 종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동광명실의 보아지는 초각이 되어 있으며 서광명실의 보아지는 사절하였다. 처마도리는 굴도리로 장여가 생략되었으며 도리의 양단부 위에는 합각지붕에 주로 사용되는 갈모산방이 가로 놓여있다. 지붕은 맞배이며 지붕의 측면에는 풍판이 설치되었는데 기둥이 풍판 밖으로 다소 빠져나와있다.

■ 장판각

전교당 동쪽에 있는 건물로 출판소(出版所) 역할을 하는 건물로, 서원에서 찍어내는 여러 가지 서책의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다. 퇴계 문집을 비롯한 유묵(遺墨), 언행록(言行錄), 도산 12곡, 선조어필(宣祖御筆), 병서(屏書), 액자(額子) 등 총 2,790장의 목판(木板)이 보관되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석 장대석기단 위에 방주를 세우고 목판을 보관해야 하는 건물의 특성상 습기 방지에 유리하도록 전면 바닥을 우물마루로 깔았다. 바닥은 기단 상면에서 약 200mm정도 높게 설치하였으며 하부는 사방을 개방하고 전면 상부에는 살창을 내어 통풍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목판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을 배치하였고 벽체는 사방을 판벽으로 마감하여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게 하였다. 정면 양 협간은 둔테를 두고 쌍여닫이 판문을 달았으며 정간은 쌍여닫이 세살문을 달았으며 문틀 상부에 살창을 내었다.



장판각 정면



장판각 배면

상부가구 구성은 5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량을 건너지르고 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세운 후 보아지를 끼우고 종량을 받았으며 종량 위에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았다. 대공은 전교당 및 상덕사에 사용된 대공과 같은 형식으로 방형동자주를 중앙부분에서 상부로 사절하고 접시받침을 올려놓은 형태이며 상부에 장여와 종도리를 얹은 후 안초공으로 감쌌다.

기단 및 단청은 본래 없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장대석기단과 고색칠로 보수하여 변경되었으며 기와는 막새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와구토 마감으로 환원되었다.



장판각 상부가구 상세



장판각 보머리 상세

■ 상고직사

강당 일곽 서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고직(庫直)이 거처하던 고직사로 하고 직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건물이다.

상고직사는 정면 5칸, 측면 7칸의 'ㄱ'자형 평면을 가진 안동지방의 'ㄱ'자형 민가 형식을 차용한 총 칸수 20칸, 건평 약 121㎡의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화강석 외벌대이며 상부는 전으로 마감하였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 지형에 순응하여 대청칸은 익사보다 약 700mm 가량 높게 조성하였고 중앙 대청마루와 양측에 온돌방을 배치했으며 측랑에는 부엌과 광으로 사용하고 대청과 마주한

전랑에는 대문과 사랑방 용도의 온돌방을 배열하였다. 기둥은 각주로 대개 200mm 내외의 크기를 가지며 벽체는 온돌방부분은 심벽이나 고방과 대청부분은 판벽이다.



상고직사 정면



상고직사 우측면

3칸 대청 좌우로 1칸X2칸 및 1칸의 온돌방이 배치되었는데 대청은 바닥을 우물마루로 꾸미고 마당 쪽으로 개방되었으며 배면은 3칸 모두 판벽으로 처리하고 쌍여닫이띠장널문을 각각 달았다. 온돌방의 출입문은 세살문이며 두 방 모두 대청쪽으로 각각 1개씩의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였다. 좌측랑은 1칸 방과 2칸의 고방이 배치되었는데 고방은 우물마루이고 벽은 판벽으로 둘렀고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문은 쌍여닫이띠장널문이다.



상고직사 내부 정간



상고직사 문간채

② 제향공간

제향 건물로는 상덕사, 상덕사 삼문, 전사청이 있으며 이곳에서 향례, 의례가 이루어진다.

■ 상덕사

상덕사는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574년에 건립한 사당으로, 도산서당의 제향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 주위를 담장으로 둘러싸고 앞쪽으로 삼문을 내어 일곽을 구성하였는데 담장과 정문을 포함하여 보물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교당 동쪽 뒤로 자리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검소한 모습이다.

상덕사에는 주향위로 정면 중앙에서 남향으로 퇴계의 위패를 모시고 종향위로 동쪽벽에서 서향으로 월천 조목의 위패를 모셨다. 사당에는 처음 퇴계선생만을 봉안하였으나, 이덕형(李德馨), 이원익(李元翼) 등의 주청(奏請)으로 1674년에 임금의 재가를 받아 선생의 제자인 월천 조목을 종향하게 되었다.



상덕사 정면



상덕사 우측면



상덕사 배면



상덕사 상부가구 상세

평면구성은 단순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1칸 반은 마루방을 꾸미고 바닥에는 여러 겹의 왕골자리를 깔았다. 장대석 기단 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단의 상면에는 전돌을 깔았다. 전면에 반 칸 규모의 개방된 퇴칸을 두어 배례공간(拜禮空間)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상덕사의 담장은 원래 막돌진흙쌓기하여 기와를 올린 모습으로 상덕사, 삼문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중요한 유구였으나 1970년의 중수공사 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현재와 같은 사고석(四塊石) 담장을 설치하여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향사를 지낸다.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단부는 전면에 4단의 화강석 장대석기단을 높게 쌓았고 양쪽으로 계단을 두어 통행하도록 하였으며 본래 자연석 기단으로 쌓았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화강석 장대석 기단으로 교체한구 상면을 전돌로 마감하였다. 배면은 화강석 장대석기단을 외별대로 구성하였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였고 기둥은 모두 각주를 사용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도리게 팔작집으로 상부가구는 전교당과 거의 유사하다. 윗면은 사절한 동자주를 대량위에 세워 중량과 중도리를 받게 하고, 중량위에 운공을 둔 복화반 형상의 대공을 세워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다. 대량은 전면과 배면의 기둥머리에 보아지를 끼운 후 결구 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충량을 두고 머리를 대량위에 직각으로 걸쳤다.

지붕은 부연 없이 연목으로만 구성된 흘처마이며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와는 막새로 마감하였다.

■ 상덕사 삼문

상덕사 삼문은 상덕사 전면에 위치하여 상덕사의 출입문이자 전교당 영역과 상덕사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전교당, 상덕사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 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민도리계 맞배집으로 정간과 좌우 협간으로 구성되는데 정면 협간에는 기단을 오를 수 있는 계단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 계단 앞으로는 화강석 전돌을 깔아 길을 내었다.

삼문은 3단의 높은 축대를 쌓고 상덕사의 출입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기단은 잔다듬 한 화강석 장대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첫째 단은 3단으로 좌우 협간 앞에 3단의 계단을 놓았으며 둘째 단은 기단 1단만 올렸다. 셋째 단은 다시 3단의 높이로 좌우 협간 앞에는 다시 2단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기단위로 대체로 위가 편평한 자연석을 골라 초석을 놓고 하부를 그랭이질 한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삼문 각 칸마다 창호를 달았는데, 모두 쌍여닫이 띠장널문으로 판자 4~5장을 이어붙이고 뒤쪽에 띠장을 가로 대어 못을 박아 고정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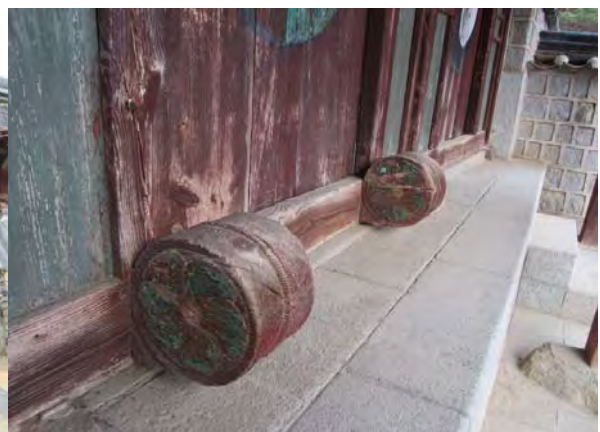
상덕사 삼문 정면



상덕사 삼문 배면



상덕사 삼문 좌측면



상덕사 삼문 신방목 상세

가구부는 3량가 민도리계 맞배집으로 보와 주심도리가 화통가지에 결구된 단순한 형식이다. 보위에는 위가 좁은 대공을 세워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다. 대공과 장여 사이에는 소로를 끼웠고 장여

에는 운공을 끼웠는데, 형태는 초각으로 장식 했던 전교당 및 상덕사와 달리 단순한 장방형의 판재로 마감하였다. 가운데 정간의 신방목은 하인방에서 정면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양옆으로 문양을 새겼다.

■ 전사청

전사(典祀)란 조선조 장례원에 소속된 제사(祭祀)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서원에서는 향사(享祀)할 때 쓸 제물(祭物)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이곳은 평시에는 사당을 지키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기도 한데, 제수를 마련해 두는 곳과 술을 놓아두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도산서원 전사청은 동·서의 두 건물이 약 5m가량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동전사청은 주고(酒庫)로 정면이 서향하고 있다. 기단은 화강석의 외벌대로 주초를 자연석 주초석을 사용하였고 기단 상부는 콘크리트 전돌을 깔았다. 평면은 온돌방과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루방은 전면을 개방하였다. 온돌방에는 4면 모두 창호가 시설되었고 사면은 심벽으로 구성되었다. 마루방의 좌측에는 외짝여단이 판문이 설치되었다. 상부가구는 3량가로 일반 한식 납도리집의 형식으로 주두 없이 장여로 도리를 받쳤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지붕의 좌우측면에는 풍판이 설치되었다.

서전사청은 제기고(祭器庫)로 사용되었는데 전면이 동향하여 동전사청과 마주하고 있다. 기단은 동전사청과 같은 외벌대 기단이며 자연석 덩벙주초이다. 평면은 마루방과 헛간으로 꾸몄는데, 마루방에는 정면에만 쌍여단이 판문을 달아 출입구로 사용하였으며 헛간은 전면을 개방하고 그 외 벽면은 판장벽으로 짜 돌렸다. 상부가구는 단순한 일반 한식 납도리 형식의 3량가이며 그 외 구성은 동전사청과 동일하다. 기단과 단청은 본래 없었던 것을 보수정화사업시 새로 조성하였으며 단청은 가칠로 하였고 기와는 본래 와구토였으나 막새로 변형된 후 다시 와구토로 환원하였다.



전사청 전경



서전사청(제기고)



동전사청(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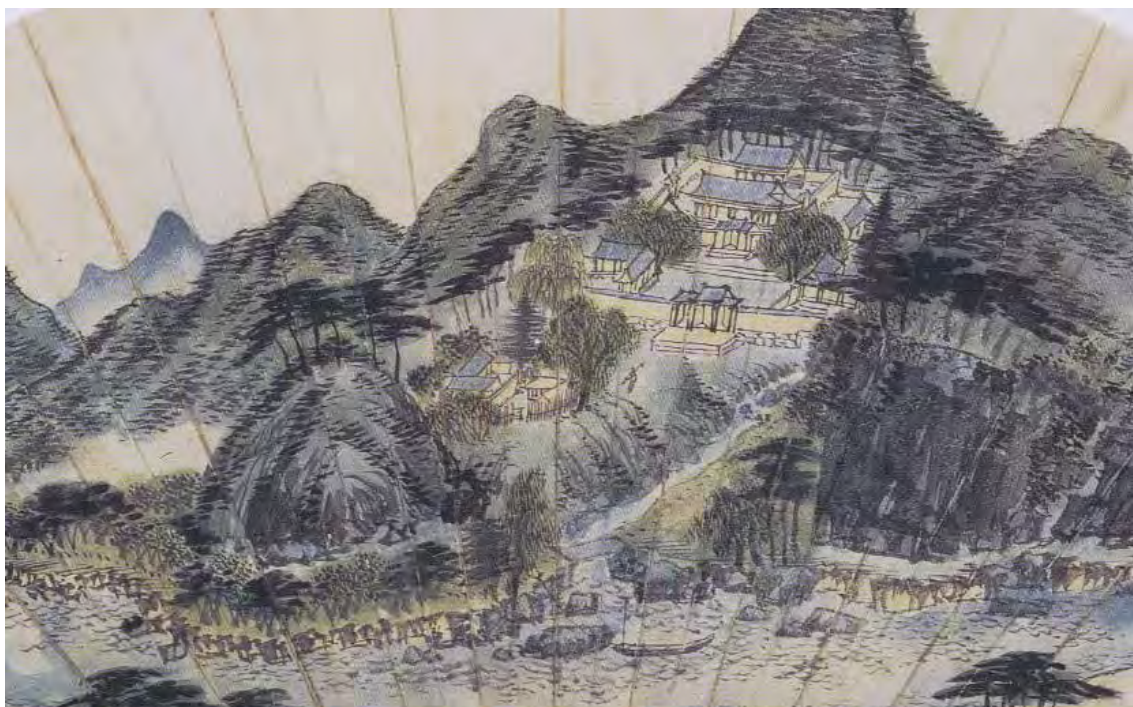
서전사청 배면

3-3. 서원의 입지 경관³¹⁾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자연성이다. 전면 경지·강, 그리고 산이 있어 개방적이고 시원한 전면 경관과 여기서 마을에 다가오는 푸른 산색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또 서원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하며,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 경관은 첫째 안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개방적 자연 경관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인합일’을 정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다.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원에 진입하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외삼문-안마당-강당-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존경 경관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성격 때문에 서원은 공공적 종교적 시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과는 반대로 매우 개방적이다. 낮은 담장과 벽 없는 기둥으로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마루 공간,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상대향과 복합적 축선 등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자연성은 폐쇄적인 중국 서원과는 다르다. 풍수적 자연관과 관련된 위요경관도 시각적·심리적으로 장소를 내부화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계를 제한하기 위한 위요경관이 아니다.



검재 정선의 도산서원도

3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2-30 참조.

3-3-1. 천인대대天人對待의 전망경관

전망 경관은 서원의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 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이다. 풍수에서는 안대라고하고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의를 감통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인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경관이다. 서원의 구체적 입지 유형과 서원 창설자들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천인감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다. 서원 문루의 이름과 기문이나, 관련된 인물의 시문을 통해서 전망 경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입지	서원
야경(野景)	확연대공(廓然大公, 필암서원), 음풍영귀(吟諷詠歸, 남계서원)
산경(山景)	취병만대(翠屏晩對, 병산서원)
강경(江景)	추월한수(秋月寒水, 도동서원)
계경(溪景)	관수유술(觀水有術, 구연서원)

입지유형 천인감통 유형

- 필암서원 : 확연대공廓然大公의 필암서원은 탁 트여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 경관이다.

夫天地之常，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以其情順萬事而無情，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

- 『定性書』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

-『정성서』

- 남계서원 : 풍영루風詠樓는 경주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게 생기 있게 보이는 경관이다.

“다락집의 제도가 매우 굉장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 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백암산의 두어 . 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석뢰계石雷溪의 한쪽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논에서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점치도다. 풍월風月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구름과 아지랑이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보아도 천 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 뜻이 있도다. 두류산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

天花林川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氣像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되시고 서서 증점會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 하였다.”

-남계서원濫溪書院'풍영루기문風詠樓記文'

- 병산서원 : 취병만대翠屏晩對의 병산서원은 생기 충만한 푸른 산색山色을 마주하며 생의生意체득이 뚜렷한 경관이다.

翠屏宜晩對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니 좋고 - 두보杜甫 시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

만대봉 저녁놀은 푸르고 높아 차가운 하늘과 가지런한데, 푸른 절벽을 선명하게 비추네.

- 주자朱子 시



병산서원 입교당에서 본 병산

- 도동서원 :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의 도동서원은 가을 달 찬 강물에 비추는 군자의 마음을 느끼는 경관이다.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

- 구연서원 : 끊임없이 흘러오는 물에서 자강불식하는 성인의 마음과 물의 지혜를 읽는 경관이다.

龜淵源接泗洙汀 活潑清流繞廟庭

混混續來知有本 悠悠過去自無停

盈科豈憚經千曲 勇進終能達四溟

觀水名樓誠有意 有形觀處覺無形

구연서원의 연원은 수사洙泗의 물가에 닿아,
 활발한 맑은 시내 서원의 돌을 돌아 흐르네.
 끝없이 흘러오니 근본이 있음을 알겠고,
 유유히 흘러가 스스로 정체함이 없네.
 웅덩이를 채운 뒤 흐르니 천 굽이를 꺼리랴,
 용감히 나아가 끝내 큰 바다에 이르리라.
 관수루라는 이름 참으로 의미가 심장하니,
 형체 있음을 보는 곳에서 형체 없음을 깨닫네.

1) 전저후고의 풍수적 위요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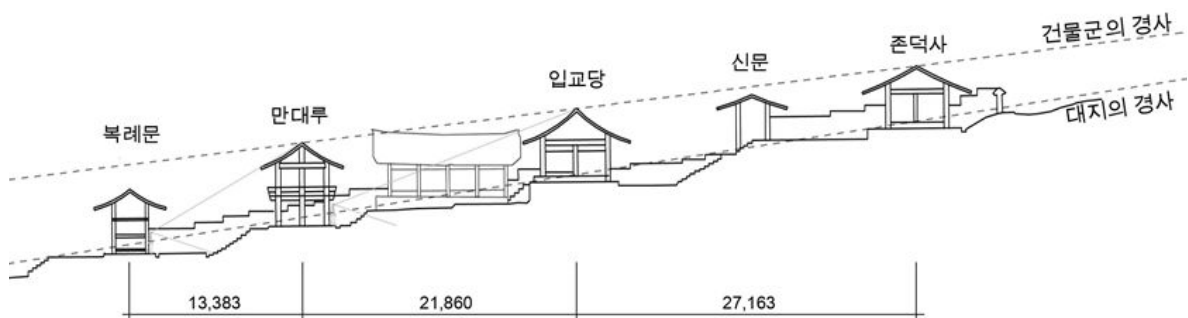
서원은 주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를 타고 갈무리 하도록 둘러싸인 풍수 경관을 이루며, 유교적 관점에서는 서원이 산줄기의 맥을 타는 것으로 연원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위요경관은 바람을 막아 기를 안정시키는 미기후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을 내부 장소화함으로써 보호되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게 심리적·상징적 효과가 크다. 사신사四神砂라고 부르는 풍수적 위요 경관은 주위 산세山勢와 담장과 대문, 강당과 동-서재로 둘러싸인 안마당(중정中庭)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담장은 주로 돌이나 흙 혹은 돌과 흙을 섞어 울타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낮은 담장을 통해서 서원 외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면서 서원의 인위적 경관을 담장 너머 대자연과 합일시킨다.

서원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의 위요 경관은 내부를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으로 둘러싸서 내부자(insider)라는 지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산과 담장은 높지 않고, 안마당을 둘러싼 건물도 틈새가 크다.

2) 위계적으로 분절分節된 예禮경관

예를 실천하는 서원경관은 서원의 내부 경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느껴지도록 개별 장소로 분절된 공간으로,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서원의 장소들은 상승 축을 따라서 좌우대칭적 구조에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입구에서부터 지형경사를 따라 차례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진행하도록 한다.



병산서원 대지 종단면도

3) 서원의 연못 경관

서원경관에서 수경관水景觀은 풍수적 취수 집수 기능과 유교적 관조의 대상이라는 상징적 성격이 중복된 연못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방형方形이 많다. 서원 연못은 풍수적 맥락에서 보완경관 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서원의 연못도 취수, 집수, 수구로서 우기 때 집수 장소가 되어 서원 내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마당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며 화재 때는 수원의 역할을 한다.



남계서원 연지



병산서원 연지

4) 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中庭)경관

서원 내부는 기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되는데, 서원의 중심인 강당 앞에는 보통 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데,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서원 후면의 숲으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안마당의 규모는 보통 건물사이의 거리가 20-25m 정도이며, 마당 폭과 건물높이 사이의 비례는 2-3배이고, 마당한쪽 끝에서 반대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양각은 18-27도이다. 이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간격이며,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답하지는 않을 정도의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다. 또 중정의 사면을 막는 건물들 사이 모서리는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20-25도로, 중정 사면의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게 하는 크기이다.



옥산서원 안마당



도산서원 안마당

5) 수목식재 경관

-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 식재는 제한적이다. 식재 수종의 특성을 서원 경외는 진입 공간과 담장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과정의 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장소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어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식재가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괴목槐木) 등이 있다.



도산서원 절우사 식재현황



병산서원 만대루 앞 식재현황

6)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

서원의 주위에는 서원 창립자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많은 장소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자연과 합일하려는 서원 창설자의 사상이 바위글자로 새겨져 있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유교적 가치와 관련된 이름이 부여되고 구곡九曲등으로 경영되기도 한다, 이는 주자의 무이정사武夷精舍 사례에서 유래하고, 퇴계의 도산잡영陶山雜詠 병기並記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당 앞 출입하는 곳을 막아서 사립문을 만들고 이름을 유정문幽貞門이라 하였는데, 문밖의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하고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닦으니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아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바로 탁영담에 이르는데, 그 위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어서 새는 날고 고기는 뛰며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하였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넓적하여 배를 매 두고 술잔을 돌릴 만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아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도산서원의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문성공文成公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 ‘경敬’ 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만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면 되지, 어찌 굳이 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 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고서.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敬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단 말인가?

일찍이 이르기를, ‘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이 회옹(주자)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석각石刻이 마멸되지 않아 1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경석敬石’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죽계지竹溪志 권5 : 잡록雜錄》·《무릉잡고별집武陵雜稿別集 권6 : 백운동석벽경자白雲洞石壁敬字》

<소수서원 경자敬字바위, 「경敬」*자를 새긴 내력>



소수서원 경자바위

3-3-2. 도산서원의 경관

1) 도산기 나타난 도산서원 경관

도산서당이 완성된 1561년 가을, 이항은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도산의 서당과 정사 건물, 그 주변의 자연을 두고 긴 글을 하나 지었다. 『도산기(陶山記)』로 불리는 이 기문은 도산의 산세로부터 시작해서 도산에 정사를 짓게 된 연유, 서당과 정사 건물, 주변에 못과 화단을 만든 이야기와 외곽의 경관을 자세히 적고 마지막에는 산수간에 머물게 된 자신의 심사를 차분히 늘어놓았다.³²⁾

그 중 도산서원의 주변 경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芝之一支東出。而爲陶山。或曰。以其山之再成。而命之曰陶山也。或云。山中舊有陶窟。故名之以其實也。爲山不甚高大。宅曠而勢絕。占方位不偏。故其旁之峯巒溪壑。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山之在左曰東翠屏。在右曰西翠屏。東屏來自清涼。至山之東。而列岫渺渺。西翠來自靈芝。至山之西。而聳峯巍巍。兩屏相望。南行??。盤旋八九里許。則東者西。西自東。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水在山後曰退溪。在山南曰洛川。溪循山北。而入洛川於山之東。川自東屏而西趨。至山之趾。則演泓渟。沿數里間。深可行舟。金沙玉礫。清瑩紺寒。則所謂濯纓潭也。西觸于西屏之崖。遂其下。南過大野。而入于芙蓉峯下。峯則西者東 而合勢之處也。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陶山)이 되니 어떤 이는 “이 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이름하였다.”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에 이 산 중 도기굴[陶窟]이 있었으므로 그런 사실로 도산이라 한다”하였다.

이 산 됴이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험하게 비었고 지세(地勢)가 뛰어나고 위치(位置)가 편벽되지 않으므로 그 옆의 산봉우리와 계곡(溪谷)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이 산을 둘러 안은 것 같다.

산의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취병(西翠屏)이라 한다. 동병(東屏)은 청량산(淸涼山)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선 산들이 아련히 보이고 서병(西屏)은 영지산(靈芝山)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이 두 병풍이 마주 바라보며 남쪽으로 구불구불 기어 내려가서 8~9리쯤 가다가 동병(東屏)은 서로 달리고 서병(西屏)은 동으로 달려서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의 아득한 밖에서 합세(合勢)하였다.

산 뒤에 있는 물을 퇴계(退溪)라 하고 산 남쪽에 있는 물을 낙천(洛川)이라 한다. 퇴계(退溪)는 산 북쪽을 따라 낙천(洛川)에 들어가서 산 동쪽으로 흐르고 낙천(洛川)은 동병(東屏)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기슭 아래(山趾)에 이르러 넓고 깊게 고여서 몇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길이가 배를 놓을 만한데 금(金) 같은 모래와 옥(玉) 같은 조약돌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디찬 징담(澄潭)이 이른바 탁영담(濯纓潭)이다.

32)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p.134

서쪽으로 서병(西屏)의 벼랑을 지나서 그 아래의 물까지 합하여 남으로 큰 들판을 지나 부용봉(芙蓉峯)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서병(西屏)이 동병(東屏)으로 와서 합세(合勢)한 곳이다.

堂之東偏。鑿小方塘。種蓮其中。曰淨友塘。又其東爲蒙泉。泉上山脚。鑿令與軒對平。築之爲壇。而植其上梅竹松菊。曰節友社。堂前出入處。掩以柴扉。曰幽貞門。

당(堂)의 동편에 작은 연못을 파고 그 속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堂)이라고 이름하고 또 그 동쪽은 몽천(蒙泉) 위의 산기슭을 파서 헌함과 맞대고 평평하게 쌓아 단(壇)을 만들고 그 위에 매화, 대나무, 술, 국화를 심어서 절우사(節友社)라 불렀다.

당(堂) 앞에 출입하는 곳에 싸리문을 달고 유정문(幽貞門)이라 하며 문 밖의 오솔길은 개울을 따라 내려가 동구(東口)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헤치고 터를 닦아 자그만한 정자를 지을 만하나 힘이 모자라서 다만 자리만 남겨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이 트인 곳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탁영담(濯纓潭)이 가로 놓여 있는데 그 위에 큰 돌이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십여 길이 되는데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드니 우거진 숲은 해를 가리며 위로는 하늘과 밀으론 물에서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左右)에 푸른 병풍처럼 둘러 쌓인 산이 물에 비쳐서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천연대(天淵臺)라고 한다. 그 서쪽 기슭에 또한 대(臺)를 쌓아서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라고 하니 그 경치가 천연대(天淵臺)와 못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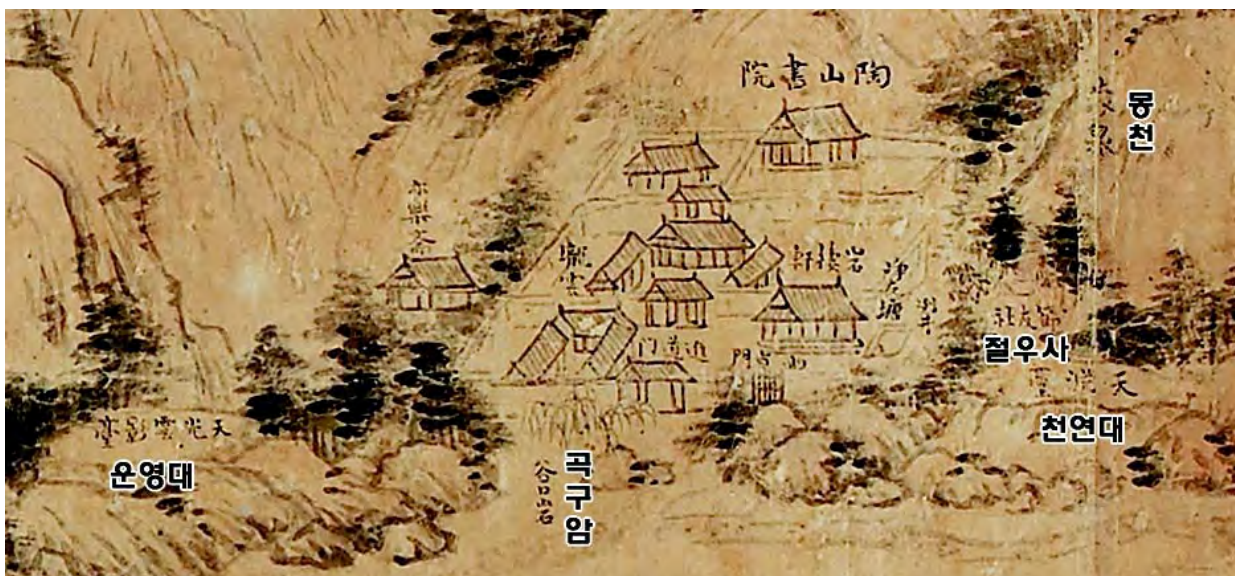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濯纓潭)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평평하여 배를 매고 술잔을 전할 만하며 매양 큰 홍수 때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은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門外小徑緣澗而下。至于洞口。兩麓相對。其東麓之脅。開巖築址。可作小亭。而力不及。只存其處。有似山門者。曰谷口巖。自此東轉數步。山麓斗斷。正控濯纓。潭上巨石削立。層累可十餘丈。築其上爲臺。松棚?日。上天下水。羽鱗飛躍。左右翠屏。東影涵碧。江山之勝。一覽盡得。曰天淵臺。西麓亦擬築臺。而名之曰天光雲影。其勝?當不減於天淵也。盤陀石在濯纓潭中。其狀盤陀。可以繫舟傳觴。每遇?漲。則與齊俱入。至水落波清。

2) 도산서원 주요 경관요소

① 곡구암谷口巖

서당에 이르는 오솔길 입구는 마치 바위가 문의 형상을 하고 있어 곡구암이라고 붙였다. 곡구는 중국 섬서성의 지명인데, 이곳 출신의 정박鄭朴이란 사람이 진짚나라 성제成帝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그를 칭송하여 “곡구의 정박은 암석 아래에서 발을 갈면서도 명성이 도성까지 떨쳤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황이 도산서당의 입구 이름을 곡구암이라고 한 데는 비록 시골에 묻혀 지내지만 자신과 제자들의 학문 명성이 도성에까지 널리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도산서당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은 지금은 흔적이 분명하지 않고 곡구암의 위치를 알리는 작은 표석만 남아 있다.³³⁾



도산서원도(강세황-1712~1791)



이문순공도산도(김창석-1652~1720)



도산서원도(정선-1676~1759)

33) 김동욱, 앞의 책, p.141-142

곡구암 고찰

옛 그림에 나타난 곡구암



이문순공도산도(김창석)



도산서원도(정선)



도산서원도(강세황)



1960년대 곡구암 전경-1



1960년대 곡구암 전경-2

② 절우사節友社

절우사는 꽃나무를 심은 화단으로 여기에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었다.

절우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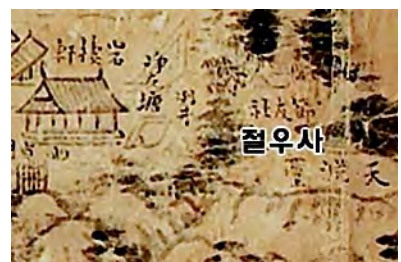
옛 그림에 나타난 절우사



이문순공도산도(김창석)



도산서원도(정선)



도산서원도(강세황)



절우사 표지석



절우사 현황

③ 몽천蒙泉

몽천은 정우당淨友堂 동쪽 산기슭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 이름이다. 몽蒙은 산 밑에 샘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주역에서는 몽괰蒙卦가 있어 군자가 샘을 본받아서 행하며 덕을 기르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몽천 고찰

옛 그림에 나타난 몽천



이문순공도산도(김창석)



도산서원도(정선)



도산서원도(강세황)



몽천 전경

④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곡구암에서 동쪽으로 가면 탁영담 바로 위에 바위가 열 길 남짓 층을 이룬 곳이 있어서 이곳에 대를 쌓고 천연대라고 하고. 그 건너편 서쪽 기슭에도 대를 쌓고 천광운영이라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천연대는 도산서당에서 보아 왼쪽에 강 쪽으로 나아간 산줄기의 높은 대로서 그 오른쪽에 운영대가 있다. 천연대는 처음 이름은 창랑대(創浪臺)였다. 도산에 터를 잡고 아직 집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흙을 쌓아 만든 곳이 창랑대였다.

이황이 아들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창랑대에는 붕가(棚架)라고 해서 비바람을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 그 아래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창랑대 붕가는 서까래를 엮고 거름대를 엮어 잇는다면 몇 해를 건딜 수 있을 것이다만 그냥 내버려둔다면 나무꾼들이 모조리 흠쳐가버리고 말 것이니 어찌겠느냐? 그런데 종들이나 마소가 곡식을 실어 나르기에 지쳐서 서까래를 운반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마을의 가을걷이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서 동네의 여러 집들에서 마소를 빌려 마을 노비들을 시켜 서까래를 실어 날라 지붕을 덮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만일 남은 서까래가 있다면 동사의 동쪽에도 몇 칸의 가가(假家)가 없을 수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고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대는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하는 곳이 아니라 대에도 서가를 만들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산기』에서는 서당 외곽의 거점을 여기까지 언급하였다. 기문의 서술로 보아서 이황은 곡구암에서 그 바깥으로 천연대와 천광운영대까지를 도산서당의 영역으로 삼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⁴⁾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고찰

옛 그림에 나타난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이문순공도산도(김창석)



도산서원도(정선)



도산서원도(강세황)



(천광)운영대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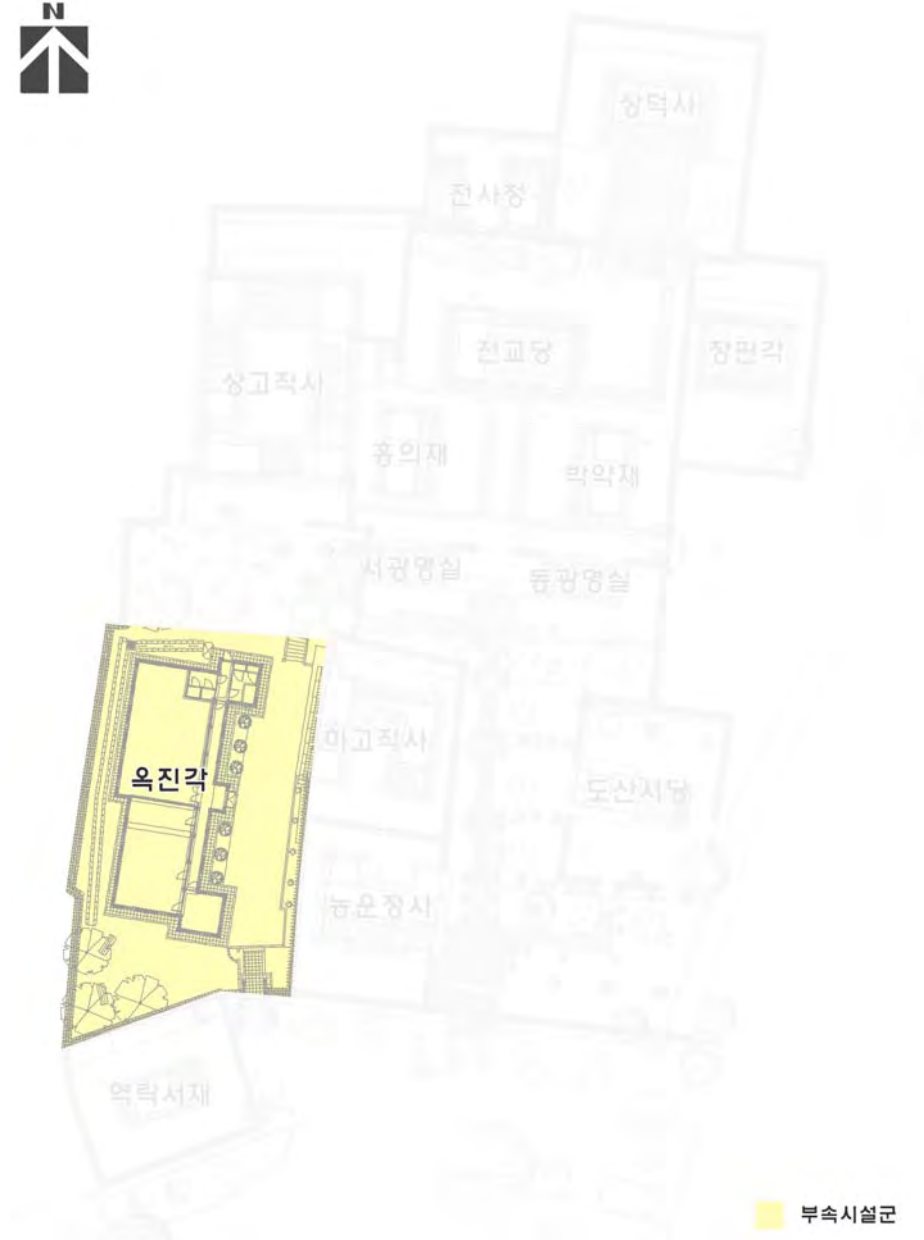


천연대에서 바라본 전경

34) 김동욱, 앞의 책, p.142-143

3-4. 시설물 현황

3-4-1. 부속시설



부속시설군

1) 옥진각

건평 192.9㎡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유물의 도난을 방지하고 전시 및 보호를 위해 1969년 보수 당시 지은 신축 건물로 강당 1실, 전시실 1실, 응접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구비한 한식 형태의 팔작집 홑처마 형태이다. 단청은 굵기로 마무리하고 주위에 담장을 세워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옥진각 전경

3-4-2. 서원 내 유적조사 현황

1) 열정

석정감열(石井甘冽 - 돌로 된 샘물의 물은 달고 맑다), 네모지게 조성된 석조 우물이다. [역경]의 정괘(井卦) "정열한천식(井冽寒泉食)"의 우물의 의미를 취하여 '열정'이라 하였다. 도산서당 시절부터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물이 맑고 맛이 좋다. 선비들의 세심장(洗心場)과도 같다. '우물은 마을이 떠나가도 옮겨가지 못하고, 길어도 줄지 않으며, 오가는 사람 모두가 즐겨 길어 마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주인 없는 무궁한 지식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마시듯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인격과 지식을 쌓아 누구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샘물과 같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안동댐 건설당시 수물선이 열정인근까지 측정되어 진도문 앞마당을 2m~3m정도 성토하여 지금의 앞마당이 되었으며 본래의 열정은 오석바위사이로 물이 흘러나오는 형태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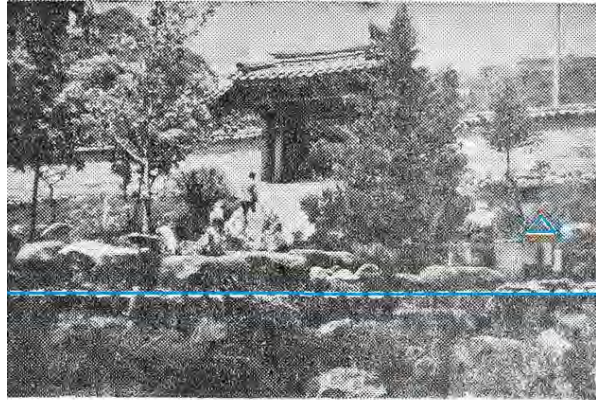
열정 전경



열정 근경



열정 표지석



수몰선에 들어가는 도산서원 앞 열정 (△표) 밑부분. 적어도 점선이 찢어질 때까지 수몰이 예상된다.

1972년 5월 31일 동아일보 7면

2) 시사단

시사단(試士壇)은 도산서원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섬이 되는데 원래는 위치가 낮았으나 안동댐 건설로 수몰의 위험이 있어 현재의 위치만큼 높였다.

정조 임금 당시 탕평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영남지방 선비들을 등용할 목적으로 1792년에 영남 선비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인 퇴계선생과 관련되어 이곳에서 도산서원 앞에서 '도산별시'라는 특별한 시험을 치렀다. 7,000여명이라는 많은 선비가 시험을 보았다.

시사단은 나직하고 널찍한 2단의 자연석 돌림상단 위에 세워져 있다. 원래 설단(設壇)만 있었으며 석비는 후에 세운 것이다. 석비는 1796년(정조 20)에 세워졌으나, 지금의 비는 1824년(순조 24)에 비각(碑閣)의 개축과 더불어 고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지었다.

비각은 화반(花盤)과 초공(草工)의 새김이 매우 화려한 4면 단칸 팔작집이며, 중방(中枋) 아래는 모두 판벽(板壁)으로 돌려 막아 비바람의 침해를 예방하였다. 겹처마의 사면 추녀 아래에는 팔각 활주(滑柱)를 세워 구성이 견실하다. 내부는 도리 위에 아치 모양으로 장식된 보를 걸었고 그 사이 천장은 장방구(長方區) 소란반자로 치장되었다.



시사단 원경



시사단 근경

성격 구분	시설물 명칭	위치		연대			개 소	유형
		경내	경외	서원건 립당시	복원 (수리)	신 설		
전통 시설물	정료대	강당 전면	-	○	-	-	1	편익시설
	관세대	강당 전면	-	-	2005년	-	1	
	우물	도산서당 전면	서원 입구	○	1970년	-	3	휴양시설
신설 시설물	매표소	-	서원 입구	-	-	○	1	안내시설
	종합안내판	-	서원 입구	-	-	○	2	안내시설
	동선안내판	옥진각 전면	서원 입구	-	-	○	2	안내시설
	설명판	누·강당·사당 ·우물·역락서 재·도산서당· 고직사 전면	천광운영대 우물 천연대 절우사	-	-	○	19	안내시설
	표 석	하마석	사당내삼문전면	-	-	○	1	안내시설
		차량진입금지	-	서원 진입부	-	○	1	
		천광운영대	-	서원 진입부	-	○	1	
		우물 표석	몽천·정우당 서쪽			○	1	
		매화원 표석	도산서당 서쪽	-		○	1	
		박정희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표석	서원입구 (금송 앞)	-	-	○	1	
		절우사 표석	-	서원 동쪽	-	○	1	
		상덕사 표석		-	-	○	1	
		도산서원 중수기념비	-	서원 입구 광장	-	○	1	

도산서원 기타 시설물 현황-1

성격 구분	시설물 명칭	위치		연대			개 소	유형
		경내	경외	서원건 립당시	복원 (수리)	신 설		
신설 시설물	가로등	고직사 전면	서원 서쪽 동쪽 언덕 서원 북쪽 담장	-	-	○	7	방범시설
	방범카메라	-	서원 동쪽 좌측 언덕 사당 북쪽 담장			○	13	방범시설
	소화전	도산서당 서쪽 고직사 전면 박약재 남쪽 사당 전면	-	-	-	○	4	방재시설
	방범센서	-	서원 북쪽	-	-	○	1	방범시설
	등의자	옥진각	서원 진입부	-	-	○	20	휴양시설
	평의자	-	서원 입구 광장	-	-	○	3	휴양시설
	휴지통	-	서원 진입부 화장실 전면	-	-	○	2	편익시설
	화장실	-	역락서재 서쪽	-	-	○	1	편익시설
	매점	-	주차장 전면	-	-	○	1	편익시설
	주차장	-	서원 서쪽	-	-	○	1	편익시설

도산서원 기타 시설물 현황-2

3-4-3. 방재시설

1) 현황 분석

■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체는 목구조이며, 지붕재료는 기와로 구성되어 있다. 기와지붕은 기와 자체의 내화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비화에 의한 연소의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적심 속의 화재는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화진압활동이 지연되며, 낙하와 붕괴로 인한 후속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양식의 건축물은 재료가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연소의 우려, 진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목조건축물의 경우, 2005년 낙산사와 2008년 송례문 화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화재의 최성기까지

도달 시간이 불과 15~20분이므로 초기 소화 혹은 예방 활동에 주력하지 않으면 전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서원의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건축물에 전이될 위험도 크다.

■ 소방시설 현황

현재 소방시설은 서원내에 옥외소화전, 소화총,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뢰침, CCTV,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불꽃감지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옥외소화전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산서당 서쪽, 동재 좌측배면, 상덕사 마당, 상고직사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화전의 물탱크는 상덕사 배면 담장밖에 위치하고 용량은 30Ton이다.



상덕사 소화전 배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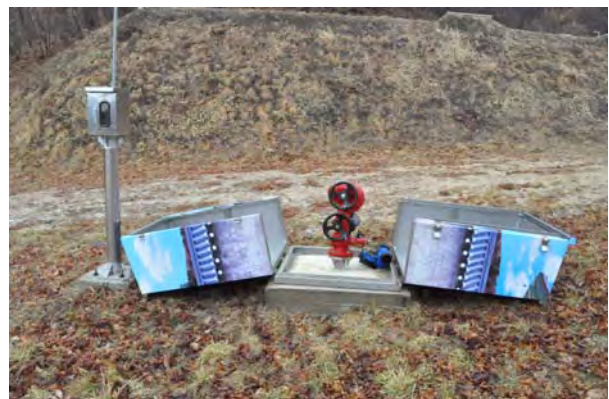


소화전 물탱크

소화총은 서쪽 상고직사부터 장판각 동쪽까지 도산서원 배면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치된 개소는 6개소이다. 소화총은 360° 회전이 가능하며 살수범위는 40~50m 이며, 소화총의 물탱크는 상덕사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210Ton이다.



소화총함



소화총

건물별로 4.5kg 분말소화기와 3.3kg 축압식 소화기를 각1개소씩 비치하였으며, 전교당의 경우 4개, 옥진각은 3개를 비치하여 총 29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전교당 소화기 비치현황



소화기 점검표

낙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옥진각 배면과 장판각 전면에 2개소 설치하였으며, 도산서원의 담장외곽을 따라 옥진각 배면에서 능선을 따라 상덕사 배면까지 스프링클러를 12개소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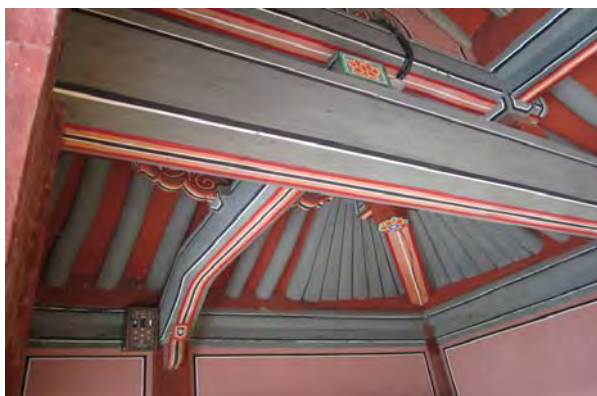


스프링쿨러



피뢰침

서원 건축물 내·외부에 CCTV와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및 불꽃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상덕사 내부 불꽃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상덕사 CCTV



역낙서재 화재경보기



장판각 내부 불꽃감지기



CCTV와 불꽃감지기, 가로등 설치현황



가로등 단독 설치현황

최단거리 소방서는 도산면 서부리에 도산119지역대를 두고 있으며, 거리는 5km로 도산서원까지 도달시간은 15분내외이다.



소방·방재시설 현황도

2) 도산서원 자치 방재 시스템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재 지정구역 내부의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상고직사에서 당직근무자 2인이 상주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시험가동은 월 2회 이상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3) 합동 소방훈련

2009년 02월 10일, 도산서원 문화해설사, 안전지킴이 등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가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³⁵⁾

2010년 1월 20일, 안동소방서 법흥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도산서원의 화재 예방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동식 소방펌프를 이용한 소방용수 공수작전을 실시하였다. 도산서원 앞마당에서 낙동강 수면까지 65mm수관 4본을 연결한 상태에서 관창을 결합하여 방수를 실시하였다.³⁶⁾

2012년 11월 06일, 시청, 경찰서, 군부대, 전기안전공사 등 200명의 인원과 장비 14대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2012년도 하반기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진압능력 및 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³⁷⁾



2009년 가상 소방훈련



2010년 소방용수 공수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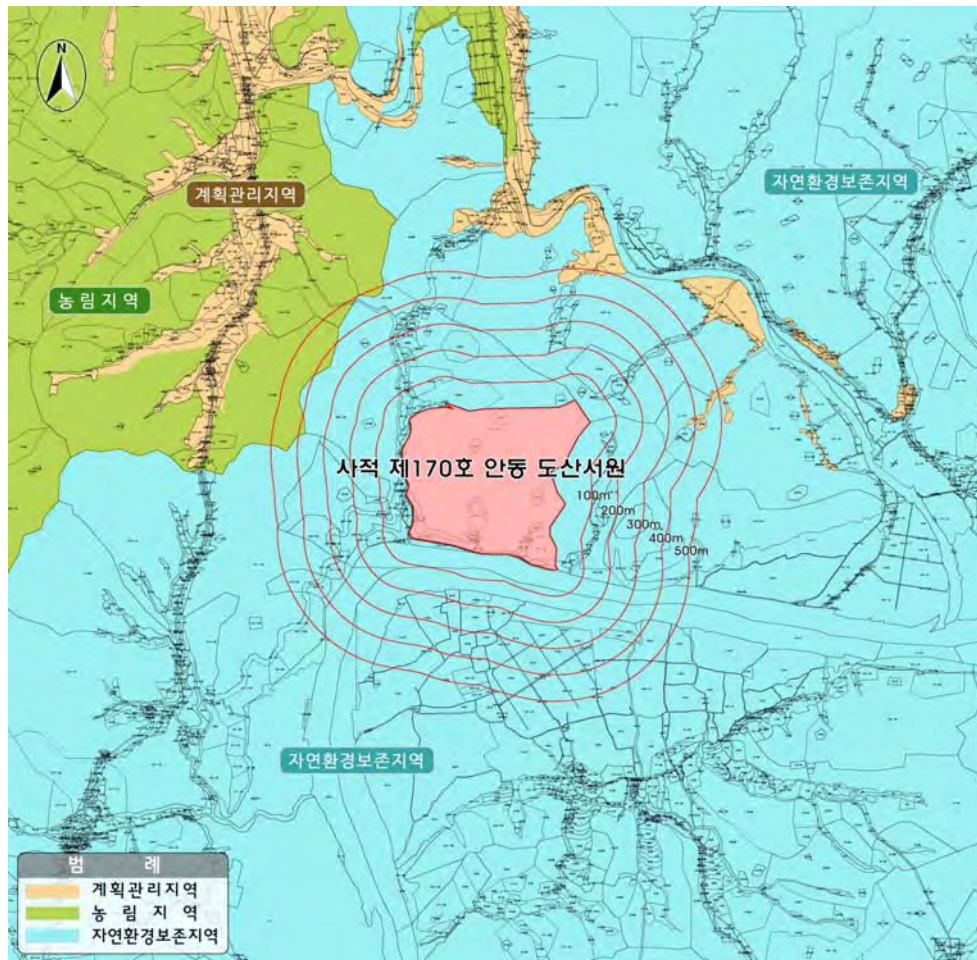
2012년 합동 소방훈련

35) 안동소방서>소방뉴스>안동소방서 도산서원 소방훈련 실시

36) 안동소방서>소방뉴스>안동소방서 도산서원 소방용수 공수작전 동영상

37) 안동뉴스>안동소방서, 도산서원 합동소방훈련 실시-조승엽 기자

3-4-4. 주변 토지이용계획



도산서원 주변 토지이용계획 현황

도산서원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의 남쪽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북쪽으로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9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3-4-5. 주변문화재 현황



도산서원 주변 문화재

도산서원 인접 문화재로는 도산서원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퇴계이항 묘소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30호 수졸당 및 재사, 퇴계묘소가 있으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42호 퇴계종택과 남쪽의 중요민속자료 제268호로 지정된 안동 변남택이 있다.

주변문화재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문화재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한다.

종 목	경상북도 기념물 제42호	
명 칭	퇴계종택 (退溪宗宅)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 생활유적	
수량 / 면적	2,119m²	
지정(등록)일	1982.12.01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2	
시 대	-	
소 유 자	이근필	<div>문화재개요</div> <p>퇴계 이항선생의 종가이다. 원래 있던 집은 없어지고 이 건물은 1926~1929년 사이에 선생의 13대손 하정공이 옛 가옥의 규모를 따라 새로 지었다. 원래의 건물은 없어졌으나 1929년에 선생의 13대 사손(嗣孫) 하정공(霞汀公)이 사림(士林) 및 중종(中宗)의 협조로 옛 종택의 규모를 참작하여 지금의 터에 새로 지었다. 종택의 우측에는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종택은 정면 6칸 측면 5칸의 ㄷ자형으로 높은 석축(石築) 위에 둥근기둥과 네모기둥을 혼용하여 지었으며 전면(前面)에 솟을대문을 갖추었다. 추월한수정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p>
관 리 자	이근필	

종 목	민속문화재 제130호	 <div>문화재개요</div> <p>수졸당(守拙堂)은 퇴계 이황(李滉)의 손자인 동암(東巖) 이영도(李詠道, 1559~1637)와 그의 아들 수졸당 이기(李岐, 1591~1654)의 종택이다. 수졸당은 이기의 아호이다. 재사는 이영도의 묘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황 묘소가 건물 바로 뒤편 산에 있어 이황의 묘사 준비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 이영도는 음보(蔭補)로 군자감참봉(軍資監參奉)을 거쳐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를 역임하였다.</p>
명 칭	수졸당및재사 (守拙堂및齋舍)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 가옥	
수량 / 면적	4동	
지정(등록)일	2003.08.14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251	
시 대	-	
소 유 자	이재령	
관 리 자	이재령	
종 목	중요민속자료 제268호	 <div>문화재개요</div> <p>번남댁은 퇴계 이황의 둘째 손자 계열의 집으로 창덕궁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건물로서, 순조 때 번암 '이동순'이 건립하였고, 그의 손자 좌산 '이만윤'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당초는 99칸의 규모로서 영남 제일 규모의 집이라 전하나, 한국전쟁 등으로 일부가 소실되어 현재는 50여칸 정도가 남아있으며, 규모와 배치 및 평면형식 등이 안동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옛 건물터와 내외법·기능성에 따른 세분된 공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p>
명 칭	안동 번남댁 (安東 樊南宅)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 가옥	
수량 / 면적	일곽	
지정(등록)일	2011.11.09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108번지 일원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진성이씨 의인파 번남문중	
관 리 자	진성이씨 의인파 번남문중	

3-5. 식재 현황

일반적으로 서원에 식재되는 수목은 한정적이다. 이는 서원에 식재되는 수목은 서원이라는 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일부 수목만이 식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원에 현존하는 노거수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³⁸⁾에 의하면 소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등이 가장 많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래 퇴계가 조성한 도산서당 주변 시설물과 조경은 도산잡영(陶山雜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도산잡영에 기록된 것은 연(蓮), 소나무(松), 대나무(竹), 매화(梅), 국화(菊), 약초(藥草) 등이며, 도산별곡에 기록된 것은 벽도(碧桃), 홍화(紅花), 단풍(楓) 등이다.

현재 도산서원의 조경수는 1970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시행된 보수정화사업당시 식재한 금송³⁹⁾ 및 매화, 배롱, 목단,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감나무, 산수유 등의 화목류와 유실수가 주로 식재되어 있다. 서원 내부에 식재된 수종 중에 매화가 다수 나타나는 것은 절개와 고고함으로 상징되는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수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서원의 고사목이나 별채목은 조사목록에서 제외하고 내·외로 구역을 나누어 식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수목은 총 241주이며 이 중 교목이 103주, 관목이 138주이고 이대와 오죽을 교목에 포함 시키면 전체 수목은 250주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 도산서원의 식재 모습



도산서원의 식재 현황

도산서원 내부에 식재된 수종은 낙엽수와 상록수를 합하여 총 14종류이다. 교목은 매화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목련, 배롱나무, 향나무, 금송, 오죽 등 8종류이고, 관목은 목단, 산철쭉, 옥매, 진달래, 회양목, 옥향 등 6종류가 있다. 서원 경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종은 목단으로 46주, 그 다음은 매화나무로 15주, 단풍나무 11주, 산철쭉 8주, 회양목 7주, 옥매·향나무 2주 순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배롱나무·감나무·목련·진달래·금송·옥향이 각각 1주씩 식재되어 있다. 또한 전사청 입구 양쪽에 분포하는 오죽은 군식되어 있다.

38) 노송호 외, 2005, 향교 및 서원 공간별 상징수목과 배식유형, 한국전통조경학회 24(1): 1-12

39) 1970년에 최초 식재된 금송은 2년 후에 고사했으며, 현재의 금송은 이듬해 1973년 4월 당시 안동군이 정부예산 50만원을 지원받아 나무를 구입하여 동일 장소에 재식재한 것으로 국가기록원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도산서원 내부 식재



도산서원 외부 식재

한편, 도산서원 외부에 식재된 수종은 낙엽수와 상록수를 합하여 총 17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은 매화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물박달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수양매화, 굴참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산수유나무, 향나무, 이대 등 13종류이고, 관목은 산철쭉, 회양목, 옥향, 주목 등 4종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 외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종은 회양목으로 64주, 그 다음이 매화나무로 48주, 단풍나무 7주, 산철쭉 5주, 왕버들 3주, 물박달나무·배롱나무·벚나무·수양매화·옥향·주목이 각각 2주, 굴참나무·느티나무·모과나무·산수유나무·향나무가 각각 1주씩 식재되어 있다. 도산서당 동쪽편에 조성된 절우사에는 이대가 군식되어 있다. 서원 외부는 대체로 대형수목이, 서원 내부는 중소형의 수목들이 분포하여 외부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반해 내부는 서원 특유의 절제된 식재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서원의 주기적인 관리로 수목들의 수세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파악된다.

3-5-1. 낙엽수

낙엽수는 서원 내·외부를 통틀어 상록수의 2배 가까이 분포하고 있었다. 교목은 서원 내·외부를 통틀어 총 99주가 있는데, 그 중에 매화나무가 63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풍나무도 18주로 조사되었다. 매화나무의 흉고직경은 3~52cm, 단풍나무는 흉고직경이 20~73c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광장 구역의 왕버들은 흉고직경이 150cm에 이르는 노거수이다. 이외에도 배롱나무, 물박달나무, 벚나무, 수양매화, 굴참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산수유나무, 감나무, 목련 등이 경내·외에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다.

관목은 총 62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경내에 식재된 목단이 46주로 조사되어 다수를 차지했으며 산철쭉은 8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특히 목단은 서원 경내를 관통하는 중심 진입계단 인근에 화계 형태로 집중 조성되어 있었으며 도산서당 담장 전면부에는 밀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철쭉과 옥매, 진달래는 대부분 건물 주변이나 담장에 인접하여 나타나고 있다.



매화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왕버들



벚나무



느티나무



수양매화



감나무



산수유나무



모과나무



목련



옥매



목단



산철쭉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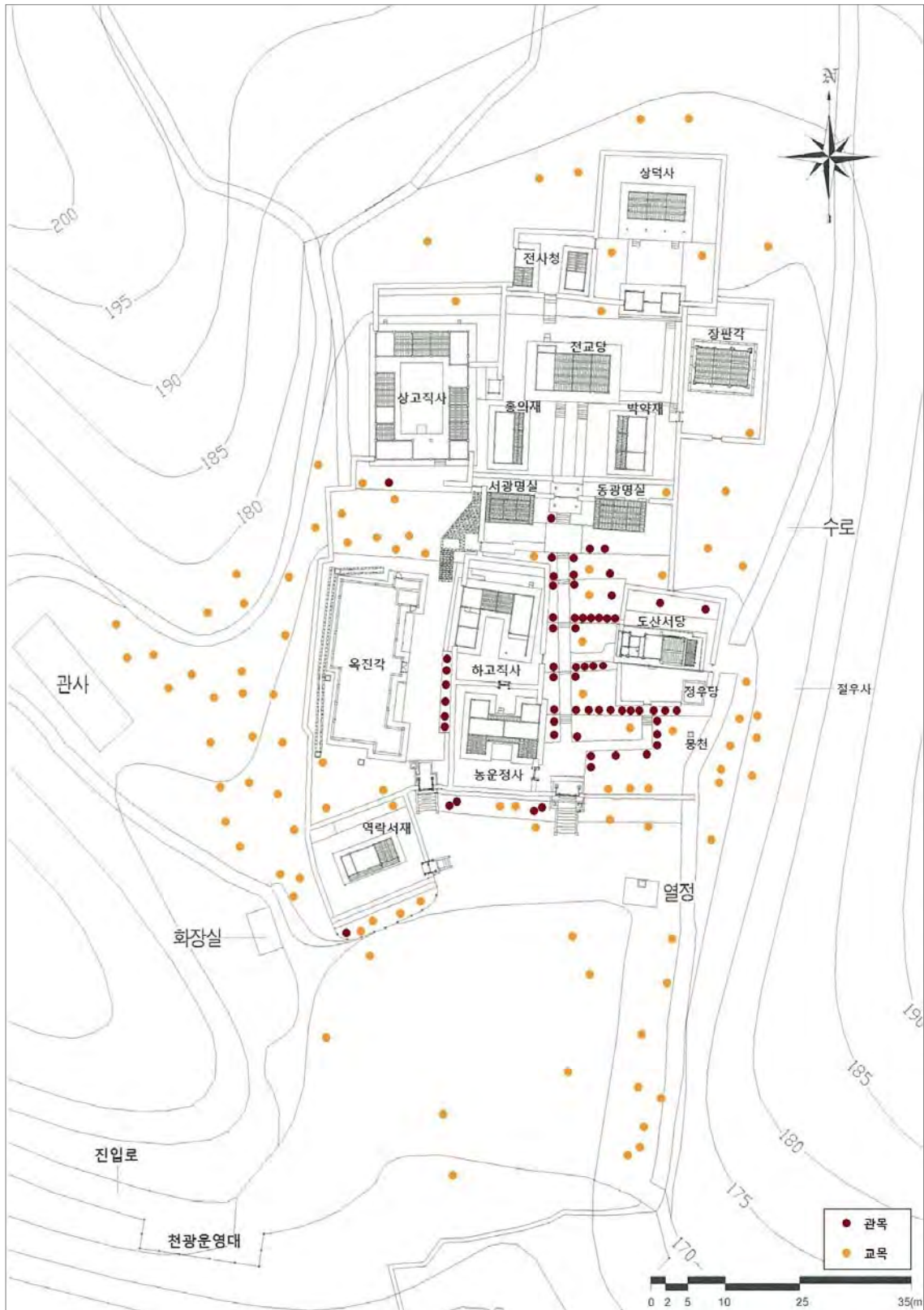


굴참나무



물박달나무

도산서원 낙엽수 현황



낙엽수 분포 현황

3-5-2. 상록수

상록수는 낙엽수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었으며 교목은 군식된 이대와 오죽을 포함하면 약 10여주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서당 전면에 기념식수목인 금송과 향나무, 오죽, 이대 등이 교목에 속했으며 낙엽수에 비해 개별로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산서당 전면의 금송은 수고가 15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내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유교문화의 상징적인 수목으로 제한 식재 한다는 일반적인 서원 식재 개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목은 경내·외를 통틀어 총 76주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중 회양목이 71주로 압도적이었다. 회양목은 건물 주변이나 진입계단 좌우측, 경계부에 식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옥향은 건물 주변에, 주목은 광장 구역과 배수로 인근에 개별식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도산서원 진입로에 가로수로 식재된 옥향은 금번 조사 수량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수고가 1.5m 정도 되며 진입로를 따라 260여주 정도 열식되어 서원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진입로 하부의 가파른 경사면과 보도 사이의 경계 산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람 키 정도의 수고로 자라나있어 안동호로의 조망에 방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산서원 상록수 현황



향나무



이대



오죽



금송



회양목



옥향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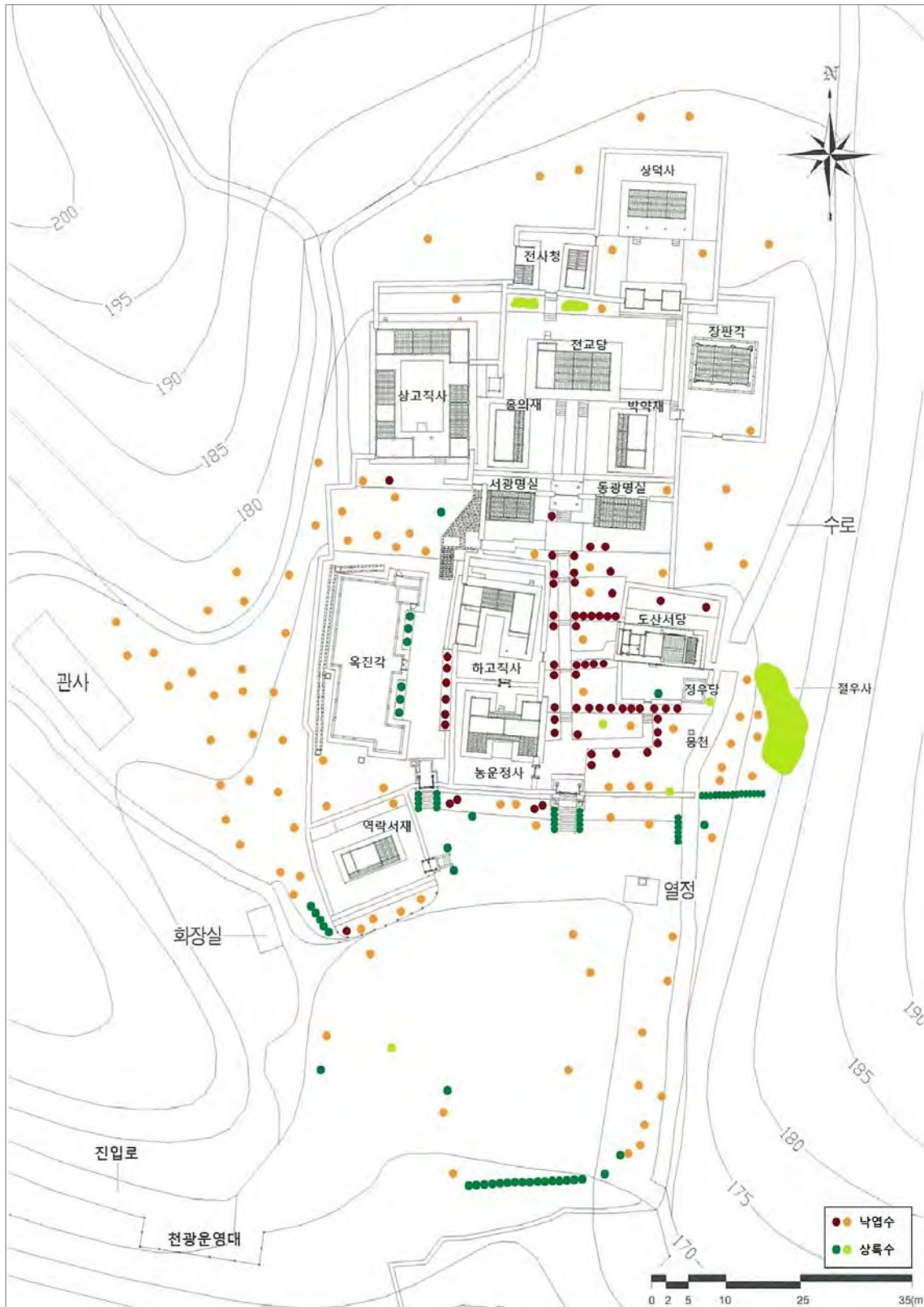
진입로 가로수 옥향



상록수 분포 현황

구분		수종	수고(m)	흉고직경(cm)	수관폭×식재길이(m)	수량	
						주	m²
낙엽	교목	매화나무	1.5~9.5	3~52	0.5~9	63	-
		단풍나무	6~12	20~73	3~6	18	-
		배롱나무	2.5	8~40	2~3	3	-
		왕버들	12~16	110~150	3~8	3	-
		물박달나무	2.5~3.5	8	1.5~2	2	-
		벚나무	7~8	33~55	3.5~4	2	-
		수양매화	1	1	1	2	-
		감나무	7	38	3.5	1	-
		느티나무	16	140	6	1	-
		모과나무	6	32	3	1	-
		목련	7	19	3.5	1	-
		산수유나무	4.5	18	2.5	1	-
		굴참나무	19	64	10	1	-
	소계	13	1~19	1~150	0.5~10	99	-
	관목	목단	0.5~1.5	-	0.5~2	46	-
		산철쭉	0.5~1.5	1	1~1.5	13	-
		옥매	1~2	-	1~2	2	-
		진달래	1.5	1	1	1	-
	소계	4	0.5~2	1	0.5~2	62	-
합계		17	0.5~19	1~150	0.5~10	161	-
상록	교목	향나무	2~5	35~38	2.5~5.5	3	-
		금송	15	25	4	1	-
		이대	5	-	4×15	-	60
		오죽	1~1.5	-	1×8	-	8
	소계	4	1~15	25~38	-	4	68
	관목	회양목	0.5~3.5	1~11	0.5~4	71	-
		옥향	0.5	-	0.5~2	3	-
		주목	2.5	12	2~2.5	2	-
	소계	3	0.5~3.5	1~12	0.5~4	76	-
합계		7	0.5~15	1~38	-	80	68
총계		24	0.5~19	1~150	-	241	68

도산서원 내·외부 수목별 현황



전체 수목 분포 현황

4. 관리현황

4-1. 관리조직 및 현황

4-1-1. 문화재청

사적으로 지정된 도산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의 보존정책과로 도산서원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적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 사적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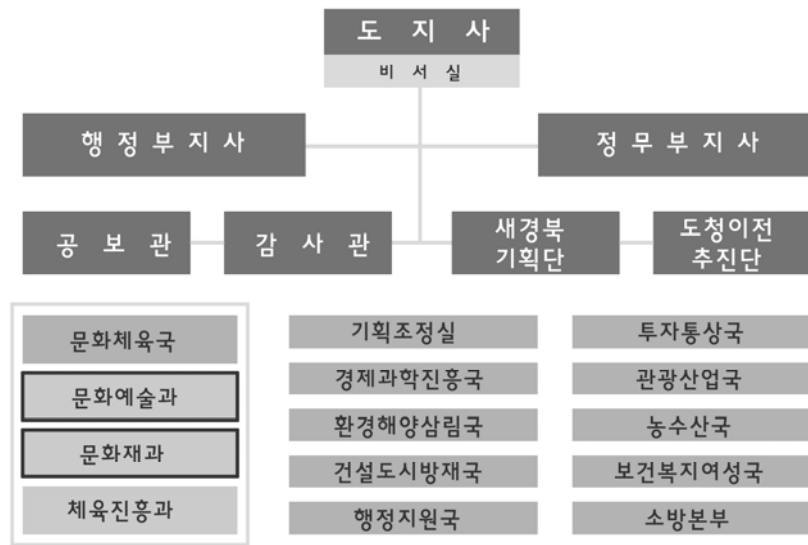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4-1-2.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상북도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도산서원의 보존관리에 관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국 소속의 문화재과이다. 문화재과 업무 가운데 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 문화재보수 및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이외에도 관광산업국의 각 부서에서는 문화관광마케팅과 관광컨텐츠 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도산서원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상북도 행정조직도

4-1-3. 안동시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산서원의 원형보존을 위해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보수에 대한 조사 및 보수사업,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 도산서원 관광지화 계획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시 문화예술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심사분석, 기술지도 및 설계실시
- 고가옥박물관, 유교문화센터, 연계도로망
- 유교문화권 개발계획거점화, 루트화 사업
- 유교문화권 개발중점정비, 관광개발사업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발굴
- 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지정
-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 관리



안동시 행정조직도

4-1-4. 관리사무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도산서원을 관리하기 위해 안동시 직할로 만들어진 관리사무소가 도산서원 진입로에 위치한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서비스단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업무는 도산서원 문화재지정구역 내 문화재 보존 및 시설물 관리와 도산서원 방문관광객 관리, 선비문화수련원 운영과 도산서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의 직원구성

직 위	인 원
사무관	1명
행정직(6급)	1명
별정직(6급)	1명
행정직(8급)	1명
기능직(7급)	2명
기능직(8급)	2명
청원경찰	3명
문화재해설사	8명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

업 무	내 용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 지원	서원에 상주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 파손 및 훼손여부를 조사 및 안동시에 보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비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수목관리와 환경정리 문화해설사사무실 및 매점 관리 관광지 부대시설 운영에 효율화
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선비문화체험 연수생 교육을 통해 겸손과 배려하는 정신함양 선비문화체험 수련생 다양화에 상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문 관광객관리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정신문화 중심도장으로서 역할 수행 전통문화의 가치제고와 감각적인 홍보활동 실시 다양한 홍보자료 배부 및 관광객에게 정보제공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및 운영 ⁴⁰⁾	관람료 수익의 용도에 관한 사항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애호심 고취·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지정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

도산서원 관람료 (2013.1.현재)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린이		600원	500원	-
청소년, 군인, 경찰		700원	600원	부사관 이하
일 반		1,500원	1,300원	20세 이상
안동시민	어린이	300원	200원	-
	청소년, 군인, 경찰	400원	300원	부사관 이하
	일 반	800원	700원	20세 이상
주차장		대형 4,000원	소형 2,000원	-

※ 참고 : 단체관람은 30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40) 도산서원의 관람료 징수 및 운영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따르며, 도산서원의 관람료는 2013년 1월, 현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는 09:00~18:0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로 관람이 가능하다.

4-1-5. 운영위원회 41)

도산서원을 움직이는 것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이다. 당회堂會는 서원, 향교 등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의 결사이며 전통적인 유림 의결기구로는 요즘으로 치면 유림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당회의 소집이나 의결 등은 관례에 따르는데, 과거의 관례에는 없는 ①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②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의 선임 ③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 등은 당회를 통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①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②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 후보자의 확정(1981년 추가) ③원무 처리규정변경(1981년 추가), ④재산의 취득 및 처분(1981년 추가)19, ⑤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981년 추가) 등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운영위원회는 2012년 10월 현재 임원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위원 6명을 두며,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5일 전에 부의사항附議事項을 명기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며, 회의가 소집되면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 5인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만일 10일 이상 소집을 하지 않을 때는 위원연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 중에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결된 사항은 집행 후 당해 년 최초의 당회 때 집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구 분	임원구성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①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상임위원 2명	② 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 후보자의 확정
	위원 6명	③ 원무 처리규정변경(1981년 추가) ④ 재산의 취득 및 처분(1981년 추가)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981년 추가)



도산서원 원규

41)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자료(2012) 및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참조)

4-1-6. 기타 조직

도산서원의 기타 조직으로는 부설양사기구와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등이 있다.

1) 부설양사기구

도산서원 부설양사기구

구분	설립년도	법인격	목적	대상	방법	실적(명)
선비문화수련원	2001	사단법인	도덕입국을 위한 윤리 실천의 주체 양성	학생, 교원, 군인, 기업인, 일반인	생활체험, 현장탐방, 자기성찰	58,196
거경대학	2006	없음	성학십도 생활화로 선생 경사상 계승	학생, 일반인	정좌, 활인운동, 경독 등	4,598

2) 퇴계학 연구기관/단체

도산서원 퇴계학 연구기관/단체

명 칭		창립	목 적	소재	업 적
대 학 부 설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3	선생 교학정신 계승	대구	한국철학(연간) 발행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선생과 후학의 학문사상 연구	안동	퇴계학(연간) 발행 퇴계학자료총서간행 고전번역실 운영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6	퇴계학 연구로 한국사상 심화확산	서울	도산서원 고문헌조사 2009년부터 동양학연구소와 병합
민 간 단 체	퇴계학연구원	1970	퇴계학통의 학문 사상연구	서울	퇴계학보(연간) 발행 한적 국역 퇴계학 연구지원
	퇴계학부산연구원	1982	선생과 제현학문 사상연구	부산	퇴계학논총(연간)발행 유학강연회 월 1회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퇴계학통의 업적연구	대구	퇴계학논총(년간)발행 학술대회 년2회
	국제퇴계학회 및 지부	1985	퇴계학 선양으로 세계의 사상문화발전	서울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개최 퇴계학 국제교류

3) 퇴계사상 보급운동 단체

도산서원 퇴계사상 보급운동 단체

단체명	창립	창립목적	소재	회원수	주요행사
박약회	1987	퇴계선생 학행 연구, 학습, 실천적 사회운동	서울	26지회, 4천명	학술행사(년2회), 박약(교양지, 연간)
도운회	2000	선현학덕 선양, 도덕과 예절정립, 사회기풍 조성	안동	도산급 문후예	선생탄신 500주년 승모제(년1회 정기모임)
퇴계학 진흥 협의회	2007	퇴계학 전승, 전개, 진흥사업 지원, 국위 선양	서울	400여명	매월 조찬모임 강연회, ※ 퇴계학연구원 부설

4)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도산서원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유계명	유족지	창립	목적	회원	업적
관청폭포 유계	봉화 명호 관청폭포	1919	유족추모 및 보존	지역유림	시비 및 정자 건립
신암폭포 유계	안동 녹전 신암폭포	1664	유족추모 시작	후학유림	회상록 간행, 시비건립
오산당 당회	봉화 명호 청량정사	1832	정사건립, 학술모임	후학유림	정사건립, 복원, 매년 정기모임
월란척축회	안동 도산 월란정사	1993	유족지 표방, 회원돈목	후학유림	월란지 간행, 기적비 건립, 격년 모임
명옥대계회	안동 서후 명옥대	1664	정자, 사적비 건립, 원돈목	후학유림	유족지보존, 사적비건립, 사적지 간행
비암유적보존회	마산 무학산 비암	1990	유적지 보존	인근유림 (12명)	유족지 표석건립
반석계	안동 도산 반석	미상	유족추모 등	지역유림	시비건립
소백산유산심사회	경북 영주 소백산	미상	소백산 유산	지역유림	년 1회 정기모임
경도단수계	함안 산인 경도단	1901	선생추모,	인근유림	설단, 표석설치, 경도단비이건
작도유림계	사천 서포 작도정사	미상	선생추모	지역유림	정사 건립 및 운영, 년1회 향사봉행

4-2. 건축물 관리현황

4-2-1. 보수정화사업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예산 및 공사내역-1

전각명	부위	원형	보수정화사업	현재
도산서당	기단	자연석기단	자연석기단 재축	자연석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맞배지붕+좌측가섭지붕-막새, 우측가섭지붕-와구토
	단청	백골집	고색단청	고색단청
농운정사	기단	자연석막돌기단	화강석장대기단	화강석장대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역락서재	기단	자연석기단	화강석장대기단	화강석장대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상덕사	기단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신재교체	장대석기단
	앞마당	마사토다짐	전돌(콘크리트)	전돌(콘크리트)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가칠단청	긋기단청	긋기단청
전교당	기단	막돌기단 (시멘트몰탈 보수)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계단	자연석계단	장대석계단	장대석계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모로단청
	굴뚝	-	전돌로 쌓음	전돌로 쌓음
상덕사 삼문	기단	장대석으로 보수, 박석시공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	긋기단청	긋기단청
동재·서재	기단	막돌기단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전사청	기단	없음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단청	없음	긋기단청	긋기단청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예산 및 공사내역-2

전각명	부위	원형	보수정화사업	현재
장판각	기단	없음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와구토마감
동·서광명실	기단	자연석기단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간략한 띄돌림	긋기단청	긋기단청
중 문	기단, 계단	자연석	장대석	화강석장대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모로단청
상고직사	기단	자연석기단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하고직사	기단	자연석기단	장대석기단	장대석기단
진도문	기단, 계단	장대석	화강석장대	화강석장대
	지붕	와구토마감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긋기+약간의문양	모로단청	모로단청
시사단	기단	-	장대석기단	장대 경계석
	지붕	-	막새기와	막새기와
	단청	-	-	모로단청
	• 해체보수			
일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기의 일각문 보수와 2기의 사주문 보수, 3기의 일각문신축 • 단청은 긋기단청으로 하고 재래방앗간을 철거하여 그 위에 설립 			
유물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92.9㎡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도난을 방지하고 유물의 전시 보호를 위해 세워진 신축건물로 강당 1실, 전시장 1실, 응접실, 사무실, 변소 등을 구비한 한식 팔작집 홀 처마 구조, 단청은 긋기 단청으로 하고 재래방앗간을 철거하여 그 위에 설립하고 주위에 담장을 세움 			
담장 및 축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내 원 담장은 막돌 진흙쌓기 위에 기와를 올렸던 것을 도산서당 주위를 제외하고 전부 사고석 담장으로 개축, 축대역시 경내 전부를 장대석으로 교체, 전면 담장 및 고직사 도산서당의 축대만은 자연석으로 보수 • 원형은 대부분이 자연돌로 가공없이 사용, 정문에서 상덕사에 이르는 통로는 자갈 및 막돌을 깔았으나 이번 보수때 전체 작석으로 교체 시공하였고 상덕사 앞마당에도 박석을 깔아 시공 			
고직사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59.2㎡를 시멘트 벽돌조 양기와 지붕으로 신축하여 원래 고직사에서 기숙하던 고직이를 이주시킴 			
조경 및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내 - 백도, 홍도, 매화, 산수유 등 관상수 수종 18종 311주, 잔디 401㎡식재 • 경외 - 13종 1131주, 자연석 잔디 등으로 조경, 산림청에서 조림사업 및 사방사업 실시 • 서원 좌우 배수로에 자연배수로를 막돌 석축으로 축조하였음 • 경외에 1,500m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출입을 금지시킴 			

4-2-2.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⁴²⁾

도산서원 수리이력-1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69-70	96,600	96,600			정화보수(문공부 직영)
72					공개관람료 징수
74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설치
75	2,061	2,061			진입로 개설 1.5Km
77	7,109		3,595	3,595	서원 광장 조경
78	3,714		1,857	1,857	굴뚝 및 기반보수
79	19,697	13,787	2,956	2,954	경보기, 보안시설(장판고 외)
80	1,760		880	880	경보기 설치(동·서광명실)
82	3,147		1,574	1,573	안내판 이건
83	26,168		13,084	13,084	화장실 신축(9.19평)
84	45,000	30,000	6,000	9,000	소화전 시설
88	11,000	11,000			배수로 설치, 흙관매설
88	3,000			3,000	주차장 배수로 복개공사
89	19,580	13,580	3,000	3,000	장판각 및 도산서당 보수
90	40,000		40,000		서원실측(영남대학교)
93	100,000			100,000	안내소 신축
93	1,000			1,000	사주문 보수
94	15,000			15,000	주차장 간이 상수도 설치
94	9,000			9,000	하교직사 외 4개소 보수
94	6,000			6,000	옥진각 전기보수
94	8,000			8,000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94					방연제 도포
97	40,000		20,000	20,000	수거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신축
97	40,000		20,000	20,000	"

42) 안동시 협조(69~2011)

도산서원 수리이력-2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98	428,571	300,000	64,285	64,286	전사청, 상고직사, 하고직사, 농운정사, 동광명실 보수
99	571,420	400,000	85,714	85,715	
2001	200,000			200,000	관리사무소 홍보관 설치
2001	80,000			80,000	
2003	700,000	35,000	105,000	245,000	옥진각, 안내판, 주변정비 등
2004					방충작업
2007	200,000				도산서당, 장판각 및 협문 번와 보수
2007	180,000				동·서재 보수, 진도문, 협문, 동·서광명실 보수
2009					소화시설 증설 <전통 사업과>
2010	500,000				전선 지중화, 화장실 개축
2011	130,000				역락서재, 진도문 등 단청

5. 활용현황

5-1. 유교문화교육 체험⁴³⁾

도산서원에서는 유교문화 중 특히 선비정신의 전승을 위해 서원제례와 유학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선비정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의 정신과 그 삶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의 가치 있는 정신세계의 유산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 사례¹⁰⁾

도산서원 부설 교육원으로는 전통예절교육원, 거경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전통예절 교육원은 전통 의례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수료생은 수료증(전통예절교육원장)과 예절사자격증(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을 수여 받는다. 거경대학은 도산서원 부설 교육원으로 정신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수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인간 본성 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퇴계의 가르침인 '경'을 공부한다.



선비문화 체험(퇴계종택 종손과의 만남)



선비문화체험

43)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인용 및 발췌

도산서원 부설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도산서원 부설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절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례와 생활(현대 일반 예절) · 생활인의 교양(기계와 보학 등) · 전통관 · 계례 및 성년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 전통 및 현대 혼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 다도 및 음식 예절 · 전통 예절과 생활 사례 · 전통 및 현대 제례 의미와 내용 및 실습 · 현대 생활 예절 및 언어 예절 · 전통 및 현대 상례 의미와 내용 및 절차와 실습 · 전통 유가 견학(전통 및 현대 예절과 생활 사례) · 미래의 예절(미래에 활용할 예절 사례)
거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학십도의 강해 · 독송 · 퇴계 선생의 활인심방 실수 · 정좌거경 · 소요유 · 걷기 명상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기본구상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1-1. 기본개념

1-1-1. 기본원칙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 기준(ii),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
 - 기준(iii),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줌
 - 기준(iv),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을 반영
 - 기준(vi),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 기능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 분	기 준	사 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공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1)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

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함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것은 안됨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

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함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해야함

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건축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됨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됨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됨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서원 주변 자연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함
- 문화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함
-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함

1-1-2. 계획의 기본방향

■ 유적 정비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여 진정성을 부각시키도록 함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 경관 정비

-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자연 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 조경계획은 과거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하되, 주변 경관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 시설물 정비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1-1-3. 계획의 지표설정

-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음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
-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등으로 정비하여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함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

1-2.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구상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함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

■ 주변경관 보전에 관한 구상

- 주변 경관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

사적지 조경 정비의 대상

분류 구분	경관	식물	시설물							
			휴게시설	편의시설	장식시설	포장시설	안내시설	홍보 전시시설	방재 방법시설	토목시설
전통 조경 유구	지형 지물 수림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樓亭臺 평상 石榻	계단·담장·우물·석등·샘·정료대	괴석·석함·대석·석지·석조·석수·造山·壇·연못	박석포장 전돌포장 디딤돌	하마비 신도비 공적비	-	울타리	화계 배수로 다리[橋]
현대 시공 조경	-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정자 의자 평상 퍼걸러	주차장 화장실 경계휀스 음수대 가로등 휴지통	화단·화계·괴석·석함·대석·석지·석조·석수·造山	보도블록포장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황토포장	설명판 안내도 방향지시판	전시시설 교육시설	소화전 방수층 CCTV 방법센서	배수로 집수정

1-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 관람편의시설에 관한 구상

- 음수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의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
- 안내판의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
- 안내판은 서원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계획

■ 소방방재시설에 관한 구상

- 소화전은 장내 매립 또는 지중화 등으로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전 함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정비

■ 기타시설에 관한 구상

- 서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현대식 재료 사용은 최소화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계량기, 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키도록 함
- 조명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정비
- 전시시설·체험 학습 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의 어느 정도 규모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적 지정지 밖에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사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의 규모 및 의장이 과대해지지 않아야 함

2. 기본구상

2-1. 기본방향

-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되어 있는 도산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찾음
- 도산서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위적, 자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여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은 최대한 원형으로 환원하되,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대체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도산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회복
- 도산서원의 가장 큰 변형은 1969년에 시작된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이다. 이당시 거의 모든 건축물의 변형이 일어났으며 담장은 도산서당 전면과 서쪽, 배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담장이 사고적담장으로 개축되었으며, 진입로, 상덕사 앞마당과 각 건물 기단 상부에 콘크리트 전돌이 시공되었다. 지붕부는 막새기와로 변형되었고 유물전시관인 옥진각이 건립
- 또 1976년 안동댐준공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의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안동댐의 수위로 인하여 도산서원 앞마당을 성토하여 지면 레벨이 높아졌으며 이호인해 시사단의 단을 높여 조성하였고 도산서원의 예전 진입로가 침수되고, 본래 입구에 있던 곡구암과 석교가 유실

2-1-1. 건축물 정비

-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으로 변형된 부위를 파악하고, 옛 사진을 참고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도산서원의 진정성을 찾음
- 과거 존재하였던 동몽재를 문헌과 옛 그림들을 참조하여 환원

2-1-2. 경관정비

- 안동댐 수몰로 인하여 유실된 도산서원의 옛길을 옛 문헌과 그림을 통하여 재현한다. 재현의 의미는 도산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찾기 위함이며 현대인들에게 과거 농암선생과 퇴계선생이 거닐며 주변 경치를 보며 시를 읊던 길을 재현해 주기 위하여 정비

2-1-3. 주변정비

- 옥진각은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당시 신축된 건물이며, 옥진각과 함께 고직사 3동도 함께 신축되었다. 도산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위하여 도산서원 영역 밖으로 이전
-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당시 기념식수로 금송이 식재되었으나 현재 도산서당의 경관 저해 요소로 인식되어 이식을 계획
- 도산서원의 앞마당이 성토됨에 따라 열정의 본 모습을 잃게 되었으므로 원형을 찾아 본 모습으로 환원
-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당시 몽천과 정우당의 모습이 변형되어 원형을 찾아 다시 본모습으로 환원

2-2. 활용계획

- 서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상실한 원형은 형태를 재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사성은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보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함
-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함
-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함
-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
-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 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2-2-1.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서원문화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한다.

- 서원문화의 본질은 지성사, 정신사적 성격
- 서원문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건축물[hardware]을 보존
-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민속·인문학적 내용을 발굴하여 스토리 메이킹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에 충실
-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효과적인 교육 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아이디어 개발 추가
- 서원스테이 : 토론, 전토와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등의 활용 위주
- 국민적 문화향수 욕구에 충족되는 서원 관리운영체계[humanware]를 정립

2-2-2.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주변 경관과 건축물은 인류의 삶의 흔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소성, 역사성, 경관성에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원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2-2-3.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서원이 현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주류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원 활용 프로그램이 시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직접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문화 추세에 주목하여 인관과 자연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자연경관 감상' 체험

2-2-4. 경쟁력 있는 문화 체험공간 활용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원 활용은 서원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사찰, 민가와 다른 건축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과 문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또다른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도심 속 학원가의 한문학원, 역사공간으로서 고급선비문화의 공간으로 입장
- 강학 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방침
- 과거공간으로의 완벽한 이동(철저한 과거식 교육방식)
-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

2-2-5.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서원이 역사 문화 장소적, 경관적, 공간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에 비해 서원 활용 지원 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 문화재 원형 및 주변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 서원 활용계획과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활용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함
- 일률적인 활용계획 보다는 서원 활용의 성과가 우수한 서원, 서원문화 재생산에 기여한 서원에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
- 활용에 지원된 예산은 집행과 기대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예산지원에 반영

프로그램 유형		주요 내용
체험	교육의례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 유림과의 토론 ·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교육 ·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 관련, 서원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원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2-3. 단계별 정비

- 서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
-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가능하도록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업과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공정을 구분하여 계획 수립
- 다양한 사업에 동시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시기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 분산

1 단계 서원영역정비	건축물 정비	담장정비, 기단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기타정비
	주변 정비	서원경내 석축정비, 몽천정비, 정우당정비, 열정정비, 금송이식
	관람편의시설	음수대, 벤치, 탐방로,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야간조명시설 설치
2 단계 서원시설정비	유물전시관 건립	옥진각 철거, 시발굴 조사, 유물전시관 건립
	서원경외 석축정비	시사단 정비 진입로석축 서원입구 석축
3 단계 서원주변정비	옛길재현	수물선 상부에 옛 접근로 재현

단계별 정비계획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2. 경관정비계획
3. 주변정비계획
4. Master Plan



V. 종합정비계획

1. 서원정비계획

1-1. 유적 및 유구정비

1-1-1. 보수정화사업 환원 및 건축물 훼손정비

- 도산서원은 1969~1970년 1,2차로 이루어진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후 많은 기단 및 담장 등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또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서원을 구성하거나 혹은 서원의 경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경관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 다행스럽게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통하여 도산서원 원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도산서원의 원형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현재 도산서원 건축물의 기단, 단청, 지붕마감 등은 검소하고 소박한 양식에서 변형되어 있으므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되찾기 위하여 변형된 부분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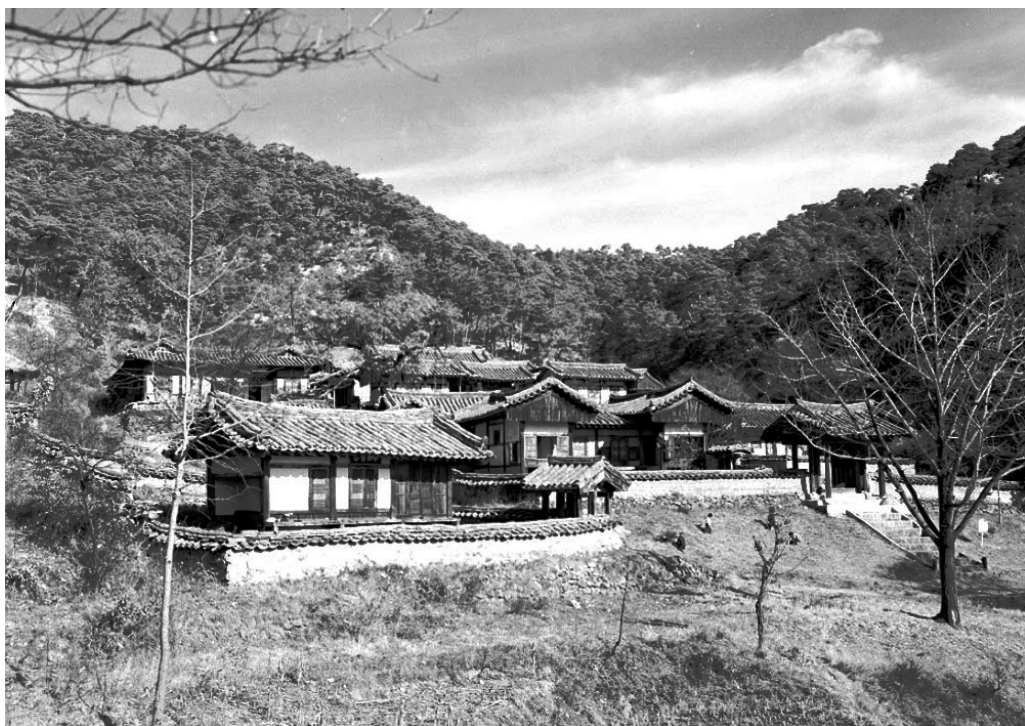


현재 도산서원 전경

■ 보수정화사업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지 시찰 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산서원 창건 당시부터 남아 있는 재목 등 원자재를 손실하지 않고 제 위치에 잘 복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
- 각 건물 지붕의 추녀 끝 및 처마 끝 수키와의 공간 처리를 흙으로 하지 말고, 백토(와구토)로 하고 내림새 기와를 붙이도록 할 것
- 각 건물의 단청은 현충사, 영빈관의 단청색을 참고할 것
- 도산서원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 각판, 유품 등은 습기 온도조정, 제충장치를 갖춘 전시관을 따로 지어 그 속에 영구보존토록 할 것(전시관의 외형은 여타 건물과 같이 한식으로 하되 내부는 현대적 시설을 갖출 것
- 서적류는 서고를 정하여 집중 보관할 것
- 영구 보존물은 목록대장을 비치하고, 중요 서적류는 영인본을 제작하여 원본에는 축수를 금하도록 할 것
- 담장은 현재보다 높이 쌓고 아산 현충사와 같이 사고석 담장으로 할 것
- 산림전문가(산림청)의 도움을 얻어 아카시아 등 잡목과 잔소나무 등은 제거하고, 벗겨진 땅은 잔디나 풀로 입히는 등 조림, 녹화에 힘쓸 것
- 배산(背山)에는 철조망을 쳐서 사람들의 사방통행을 막아 경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

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물전시관인 옥진각 건립 외에도 현재의 전교당 및 상덕사의 단청과 사고석 담장, 지붕의 와구토, 막새 등은 정화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며 특히 상덕사 일곽을 구성하던 사주토병은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사주토병은 근대에 개축된 것이며 토병 자체를 원상대로 보존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사고석 담으로 개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960년 도산서원 전경_국가기록원

-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당시 작성된 도산서원 중수기에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예산 및 공사내역

연차별	공사명	공 사 내 용	공 사 금 액	시 공 기 간	비 고
69년도	도산서원 보수정화 제1차공사	1) 건물보수 31동 ㄱ. 해체보수:도산서당, 한존재, 고직사, 시사단, 사주문 등 18동 ㄴ. 부분보수:상덕사,삼문,전교당,동·서재 등9동 ㄷ. 신축:일각문 4동	15,000,000	9.23~12.30	문화재관리국
		2) 축대보수 345m 박석도로 140m ²	2,830,000		
		3) 기타	7,636,000		
	소계		25,466,000		
70년도	도산서원 보수정화 제2차공사	1) 단청공사 30동 ㄱ. 모로 114m ² ㄴ. 굿기 1,099m ² ㄷ. 가칠 2,772m ² ㄹ. 기타	4,610,000	3.31~10.30	문화재관리국
		2) 유물전시관 신축 ㄱ. 건평 192.9m ² ㄴ. 한식 팔각지붕 철근 콘크리트조 ㄷ. 사고석담장 71m ㄹ. 진열장 보수 15개 ㅁ. 서가보수 및 기타	25,340,000	6.3~11.20	
		3) 조경공사 ㄱ. 경내: 백도, 홍도, 매화, 산수유 등 1,462주, 기타	7,000,000	8.6~11.20	
		ㄴ. 경외: 관상수 2,850주, 조림 38,000주	4,200,000	3.1~4.30	산림청
		4) 담장 개축 및 토목공사 ㄱ. 사고적담장 416m ㄴ. 철조망 신설 1,500m ㄷ. 도로보수 26km	30,000,000	3.31~10.30	경상북도
	소계		71,150,000	문공부 경북 산림청	36,950,000 30,000,000 4,200,000
합계			96,616,000	문공부 경북 산림청	62,416,000 30,000,000 4,200,000



보수정 화사업 준공식 후 도산서원 전경_국가기록원



1969.10.06 보수정 화사업 기공식_국가기록원



도산서원 준공식_국가기록원

- 보수정화 공사는 1969년 12월 30일 제1차 공사로 건물보수, 축대공사를 완공하고 1970년 4월에 제 2차 공사에서 단청, 담장, 조경, 전적정리, 유물정리 등의 사업을 발주하고 1970년 6월에 유물전시관을 착공하였다.
- 경상북도청에서 1970년 3월31에 담장 공사와 경계 철조망 공사를 착수하고 산림청은 1970년 3월1일에 경외 조림 및 사방사업을 착공하였다.
- 1970년 12월 8일 준공을 하고, 내용은 건축물 정비, 진입로의 박석 포장, 계단을 화강암 장대석 교체, 도산서당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담장을 사고석 담장으로 교체 하였다.

1) 도산서당



보수정화사업 전 도산서당_국가기록원



현재 도산서당 전경

- 기단은 본래대로 자연석으로 보수되었으나 과거사진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변형되었다.



과거의 기단-조선고적도보



현재의 기단

- 지붕부는 와구토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현재의 지붕은 서쪽가섭지붕과 중앙 맞배지붕 부분이 막새기와로 되어 있고, 동쪽 가섭지붕의 측면이 막새기와로 되어 있으며 가섭지붕의 정면은 와구토 마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붕 부 전체를 와구토 마감으로 환원해야 한다. 따라서 기단을 옛 형태와 같이 환원하고 지붕은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붕부 확대-조선고적도보



현재 지붕부 확대

2) 농운정사



1960년 농운정사 전경



현재 농운정사 전경

- 본래 기단은 자연석막돌기단으로 되어있었고 화강석 장대기단으로 변형되었다.



농운정사 기단



자연석기단 사례-병산서원 입교당

- 지붕은 와구토마감으로 되어 있었고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1960년대 농운정사 지붕



농운정사 현재 지붕현황

- 따라서 기단을 자연석기단으로, 지붕을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역락서재



1960년 역락서재 전경_국가기록원



현재 역락서재 전경

- 역락서재는 보수정화사업 당시 자연석기단을 화강암 장대석기단으로 변형하였다.



화강석 장대기단으로 변형



자연석기단 사례-도산서당_조선고적도보

- 중수지에 나와 있지 않으나 역락서재의 지붕부가 막새기와로 되어 있고, 보수정화공사 전 사진에서도 와구토마감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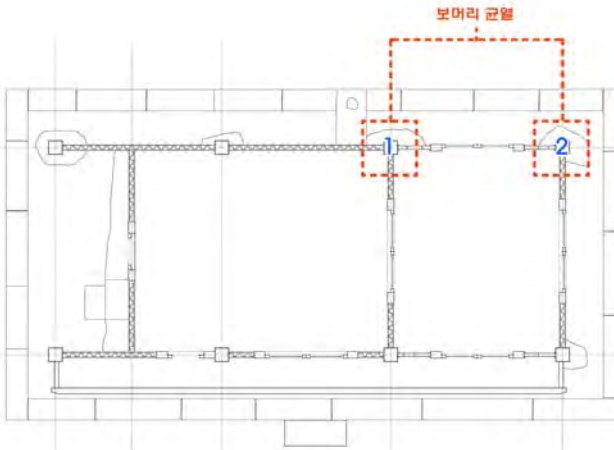




1960년 역락서재 지붕부



지붕마감 변형

- 따라서 역락서재의 기단을 자연석으로 환원시키고 지붕마감을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훼손내용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역락서재 평면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①보머리 균열 ②보머리 균열 </div>

역락서재 훼손현황

4) 상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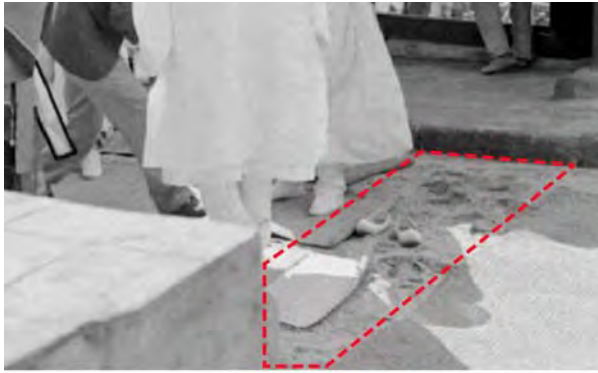


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 지정 당시 사진_국가기록원



상덕사 전경_조선고적도보

- 상덕사는 장대석기단을 신재로 교체하였고 기단상부와 앞 공간을 콘크리트 전돌로 마감하였다. 도산서원 중수지 46p에 나와 있는 “정문에서 상덕사에 이르는 통로는 자갈 및 막돌을 깔았으나 이번 보수 때 전체 박석으로 교체 시공하였고 상덕사 앞마당에도 박석을 깔아 시공하였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상덕사 전면 마당에는 방전이 깔려 있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을 살펴보면 모래와 같은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앞마당에 명석을 깔아 제를 지내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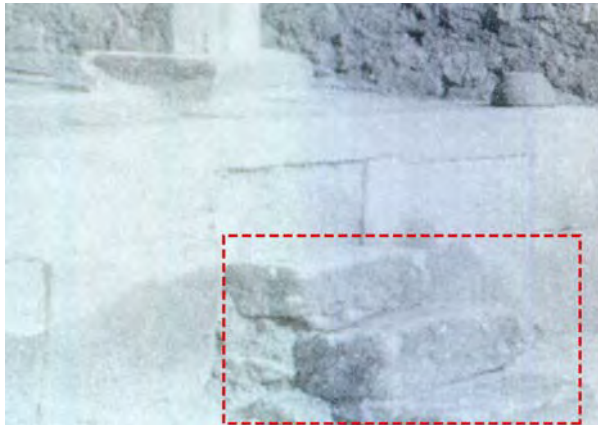


상덕사 앞마당의 모래_국가기록원



현재 상덕사 앞마당

- 보물로 지정된 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⁴⁴⁾은 담장의 훼손이 심하여 사고석담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물지정이 해제되고 현재는 상덕사와 삼문만 보물로 재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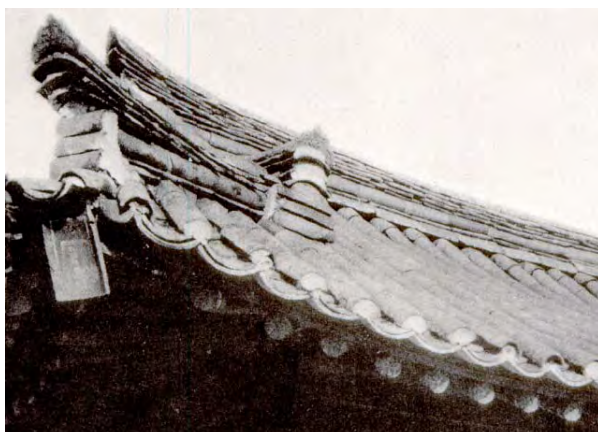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덕사 기단 및 계단_조선고적도보



현재 상덕사 기단 및 계단

- 지붕은 와구토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조선고적도보의 상덕사 지붕



현재 상덕사 지붕

44) 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은 상덕사, 상덕사삼문, 상덕사 담장 일원을 말하는 것이며, 보수정화공사 당시 담장의 훼손이 심하여 사고석으로 시공하고 현재 담장을 제외하고 보물로 재 지정되어 보물 제211호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安東 陶山書院 尙德祠 및 三門)으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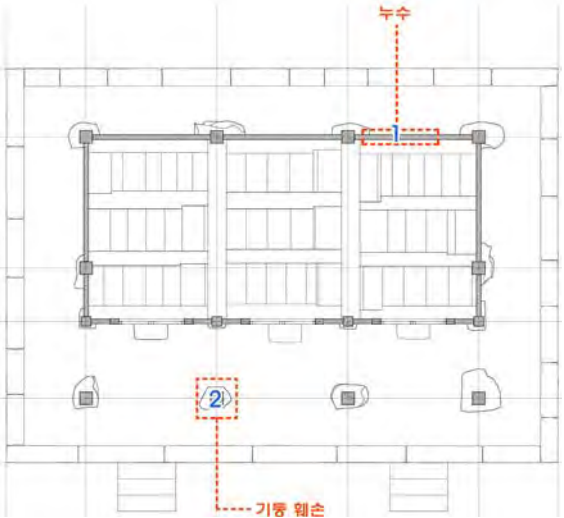


- 따라서 장대석계단을 자연석계단으로 환원하여야 하고, 지붕은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여야 하며, 현재 앞마당은 잔디 및 방전은 걷어 내고 보수정화 사업전의 모습으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원의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마사다짐과 각종 제례 행사를 위하여 일부 영역을 자연석 박석마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사토다짐 마감 사례



자연석 박석 마감 사례

훼손내용	사진	
 <p>상덕사 평면도</p>	 <p>①기둥 훼손</p>	 <p>②누수</p>

상덕사 훼손현황

5) 상덕사 삼문

- 상덕사 삼문은 보수정화사업 전 자연석막돌기단을 보강하기 위해 시멘트를 덧발라 보강하고 있었다. 과거사진에는 현재와 같은 태극무늬의 단청도 보이지 않으며, 계단 또한 자연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덕사 삼문-보수정화공사 이전_국가기록원



1969년도 상덕사 삼문_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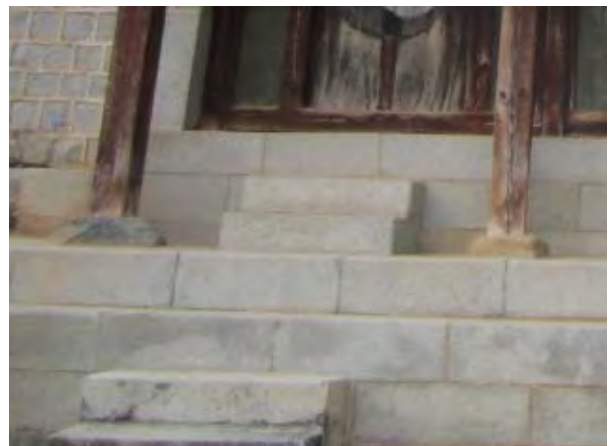
1977년 상덕사 삼문



현재 상덕사 삼문



보수정화공사 이전의 기단 및 계단 현황



현재의 기단 및 계단 현황

- 지붕은 와구토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1969년도 상덕사 삼문 지붕부상세_국가기록원



현재 지붕현황

- 따라서 지붕부는 와구토 마감으로 환원하고 화강석장대기단과 계단을 자연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훼손내용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상덕사 삼문 평면도</p>	 <p style="text-align: center;">기둥 하부 파손</p>

상덕사 삼문 훼손현황

6) 전교당

- 도산서원 중수지를 보면 "기단은 중도에서 변형되어 장대석으로 전면을 쌓아 올렸으나 원래는 막돌로 쌓았던 흔적이 있고..."라는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본래는 막돌로 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에 장대석기단으로 개축하고 시멘트를 덧발라 보강하였고 보수정화사업 당시에 장대석기단으로 다시 재축하였다.



보수정화사업 이전의 전교당 전경_국가기록원



2012년 현재의 전교당

- 또한 중문에서 전교당 전면의 계단까지는 계단 폭 만큼의 방전이 깔려 있지만 보수정화사업 이전의 과거 사진들을 확인해보면 전교당 계단에서 자갈이 깔려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사토다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지츠카 치카시_藤塚鄰(1879~1948) 기증
유리원판사진 (왼쪽에서 4번째)



계단 및 기단 현황



전교당 앞마당_국가기록원



현재 전교당 앞마당

- 단청은 굿기단청에서 머리초에 문양이 가미된 모로 단청으로 변형되었다.



전교당 과거 가구부 단청 문양_국가기록원



전교당 가구부 단청 현황

- 지붕은 와구토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1960년 전교당 지붕 현황-국가기록원



전교당 지붕 현황

훼손내용	사진
 <p>전교당 평면도</p>	 <p>기동하부 균열</p>

전교당 훼손현황

- 따라서 변형된 기단을 자연석기단, 지붕부를 와구토마감, 단청을 굿기단청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며, 중문에서 전교당에 이르는 길은 보수정화사업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격식에 맞지 않는 방전은 걷어 내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석 박석마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동·서재

- 동재와 서재(홍의재, 박약재)의 경우 보수정화사업 당시 막돌기단에서 장대석기단으로 변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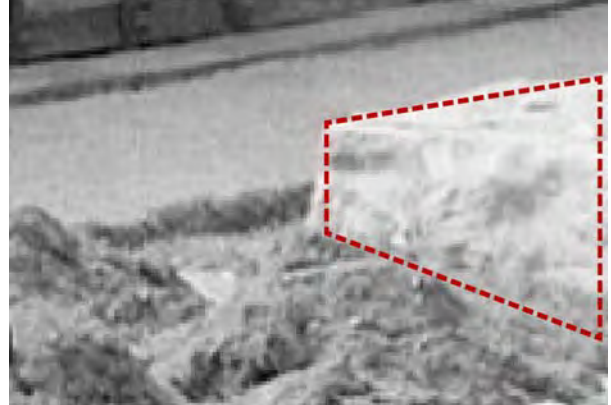
박약재



홍의재



1969년 동재 기단 현황-국가기록원



1969년 서재 기단 현황-국가기록원



홍의재 기단현황



박약재 기단 상부 현황

- 지붕부의 와구토마감이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홍의재 지붕부_국가기록원



박약재 지붕부_국가기록원

- 따라서 기단을 장대석기단과 기단 상부 방전은 강회다짐으로 환원하고 지붕부의 막새기와는 와구토마감으로 환원시키도록 한다.



홍의재 지붕부 상세



박약재 지붕부 상세

8) 전사청

- 도산서원 중수지에 따르면 전사청에는 본래 기단이 없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장대석을 쌓아 기단을 신설하였으며, 상부는 방전을 깔아 마감하였다. 본래 원형대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통목조건축물에서는 지면으로부터의 습해를 1차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기단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단의 존치를 고려해 볼만 하다. 단 기단의 형식을 주변 건축물의 격식과 부합되도록 자연석 기단으로 하고, 상부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주고



현재의 제기고



주고 기단현황



제기고 기단현황



자연석기단 사례-옥산서원_암수재



자연석기단 사례-옥산서원_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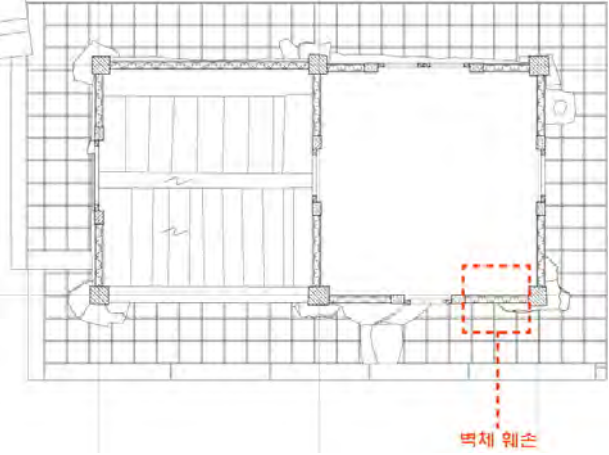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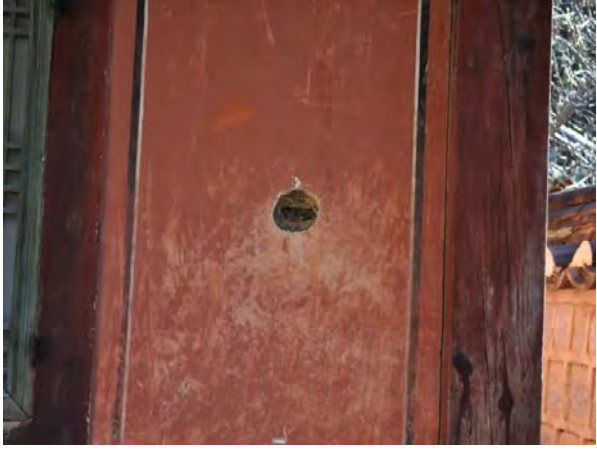
- 본래 없던 단청을 긋기단청으로 시공하였으므로, 백골집으로 환원시킨다.d



전사청 단청현황



단청 정비사례_백골집-옥산서원 고직사

훼손내용	사진
 <p>전사청(제기고) 평면도</p>	 <p>벽체 훼손</p>

전사청 훼손현황

9) 장판각



현재의 장판각



1969년 장판각 전경

- 본래의 장판각은 기단이 없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기단을 화강암 장대석기단으로 시공하고 상부는 방전을 깔아 마감하였다.
- 따라서 현재 화강암 장대석기단을 철거하고 기단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나 장기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석 외별대 기단으로 정비하고 기단상부의 방전은 걷어 내고 이질적이지 않게 강회다짐으로 마감한다.

훼손내용	사진
<p>장판각 평면도</p>	<p>①보머리 파손</p>
	<p>②보머리 파손</p>
	<p>③동자주 균열</p>
	<p>④보아지 뒤틀림</p>
	<p>⑤창살 뒤틀림</p>

장판각 훼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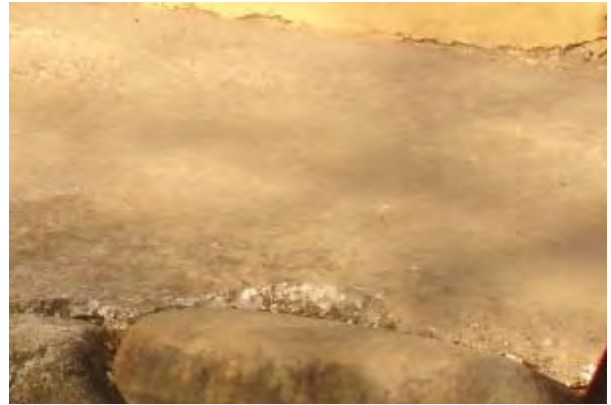
장판각 기단 상부



장판각 기단 현황



자연석기단 정비사레-독락당



기단 상부 강희다짐 정비사레-독락당

10) 동·서 광명실



보수정화사업 이전 서광명실-국가기록원



보수정화사업 이후 동광명실-국가기록원



현재 서광명실



현재 동광명실



보수정화사업 이전 서광명실 배면-국가기록원



보수정화사업 이전 동광명실 배면-국가기록원

- 기단은 본래 자연석으로 구획만을 지어 주는 정도였으나, 장대석기단으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자연석기단으로 정비한다.



현재 서광명실 기단현황



현재 동광명실 기단현황



자연석기단 정비사례-안동 소호현



기단 상부 강회다짐 정비사례-안동 소호현

- 지붕은 와구토 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으므로 다시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한다.



1969년 서광명실 지붕현황



1969년 동광명실 지붕현황



현재 서광명실 지붕현황



현재 동광명실 지붕현황

- 따라서 동·서광명실의 기단을 자연석기단으로 환원하고 지붕부를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한다.

11) 상고직사



1969년 상고직사 전경-국가기록원



상고직사 내부전경



현재 기단 현황



자연석기단 사례_도산서당-조선고적도보

- 본래 자연석기단이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장대석기단으로 변형하였다. 따라서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장대석기단을 자연석기단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좌측 배면 벽면에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사용 중으로 보일러실은 평면을 변형한 것으로 철거함이 바람직하다.

훼손내용	사진
 <p>상고직사 평면도</p>	 <p>보일러실 증축현황</p>

상고직사 훼손현황

12) 하고직사



현재 하고직사 전경



현재 하고직사 정침 전경



하고직사 기단 상세



자연석기단 정비사례-안동 탁정정종가

- 본래 자연석기단이었던 것을 장대석기단으로 변형되어 다시 자연석기단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훼손내용	사진
 <p>하고직사 평면도</p>	 <p>기둥하부 부식</p>

하고직사 훼손현황

13) 진도문



1951년 진도문_사진으로 보는 20C 안동의 모습



1970년 진도문



1977.11.03 진도문_국가기록원



현재의 진도문

- 보수정화사업 이전의 사진을 살펴보면 진도문의 전면부는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 있었으나 화강암 장대석 기단을 설치하고 전면에 마찬가지로 화강석 장대석 계단을 설치하였다.



진도문_사진으로 보는 20C 안동의 모습



현재의 진도문 계단 및 기단

- 지붕부는 와구토마감을 막새기와로 변형하였다.



1963년 진도문 지붕



현재 진도문 지붕

- 중수지에 따르면 단청은 굿기단청에서 약간의 문양이 가미된 단청에서 모로 단청으로 변형되었다.



1951년 진도문-20C 안동의 모습



현재 단청 현황

- 진도문 전면의 경우 도산서원 전면 마당이 안동댐의 건설로 인하여 지표면이 많이 성토된 관계로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하기 불가능하며, 진도문의 전면부 또한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대석 기단 및 계단을 자연석 기단 및 계단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변형된 처마 끝의 막새기와를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고 단청의 경우 굿기단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14) 중문



1931 중문_국사편찬위원회한국데이터베이스



1960년 중문_국가기록원



중문 배면 1963.09.26_국가기록원



현재 중문

- 중문 전면 자연석기단 및 계단이 장대석으로 변형되었다.



1931년 기단 및 계단



현재의 기단 및 계단

- 지붕은 와구토마감에서 막새기와로 변형되었다.



1931년 지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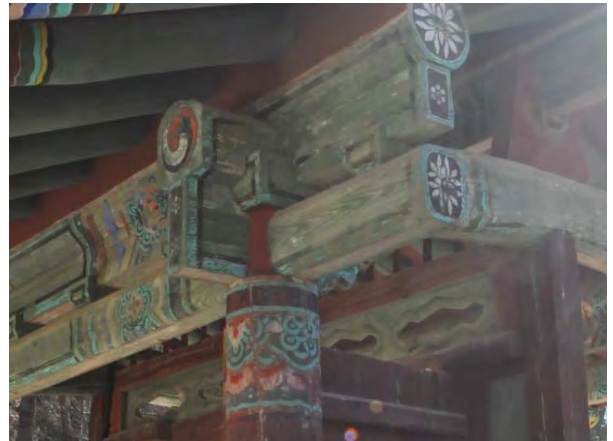


현재 지붕 현황

- 단청은 굿기단청이었으나 모로 단청으로 변형되었다.



1969년 중문 단청 현황



현재 단청 현황

- 따라서 원형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기단 및 계단을 자연석으로 환원하고 지붕을 와구토마감으로 환원하며,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15) 시사단

- 시사단은 보수정화사업 당시 훼손이 심하여 해체보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단을 장대석기단으로 개축하고 지붕을 막새기와로 변형하였다. 이후 안동댐 건설에 따라 수몰될 위기에 처하여 현재의 모습처럼 사고석으로 축대를 쌓아 성토하고 그 상부에 대지를 조성하여 시사단을 해체·보수하였으며 주변으로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1978.02.09 시사단의 모습-국가기록원



현재의 시사단 모습



성토전 시사단 모습



현재 시사단 전경



단을 높이는 중인 시사단 모습



1969년 시사단 전경

- 1977년~2011년 34년간의 안동댐 저수위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9년 9월의 저수량이 159.40EL.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사단의 지반고는 161EL.m으로 나타나므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다만 수몰 이전의 숲을 재현하기 위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의 시사단 석축

- 또한 현재의 석축 쌓기 방법은 전통양식이 아니므로 전통양식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6) 담장 및 축대정비

- 서원 전체의 원래 담장은 토석담이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도산서당 주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고석담장으로 개축하였으며 축대 역시 경내 전부를 장대석으로 교체하였고 다만 전면 담장 및 고직사, 도산서당의 축대만 자연석으로 보수하였다.



1963년 전교당 앞마당_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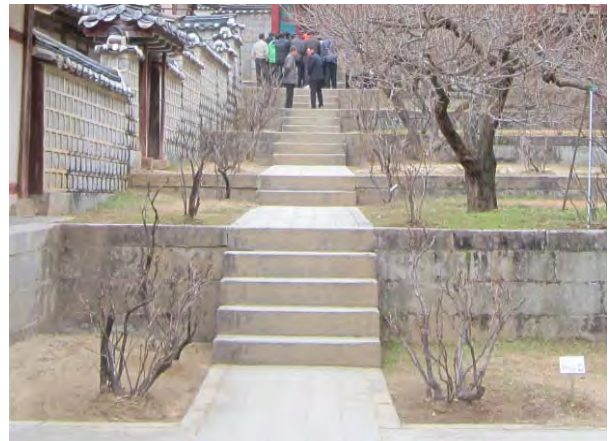


현재 전교당 앞마당 현황

- 중문에서 상덕사에 이르는 통로는 자갈 및 막돌을 깔았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전체 정형화된 가공석 박석으로 교체되었고 상덕사 앞마당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산서원의 담장이 대부분 사고석담장으로 개축되었고 높이 또한 높아졌다. 본래 담장은 농운정사의 관란헌에서 담장 밖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는 높이였으나 현재는 그 높이가 높아져 일반적인 키의 사람이 외부를 조망할 수 없다.
- 본 계획에서 사고석담장을 전체 철거하여 자연석 토석담으로 환원하며 가공석 박석으로 교체된 진입로는 원형을 회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자연석 박석 등으로 정비한다.



진도문 앞 진입로_국가기록원



현재의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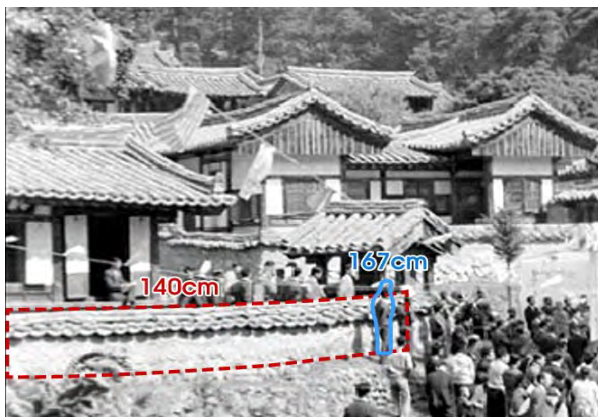


현재 역락서재 담장



1960년대 역락서재 담장

- 담장의 높이는 과거 사진과 문헌을 토대로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형태는 과거의 사진의 담장을 참조하여 환원하도록 한다.
- 담장의 높이는 과거 사진들과 현재 사진들을 비교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역락서재의 사 고석 담장의 높이는 2m정도로 과거의 사진을 토대로 담장의 높이를 추정했을 경우 당시 남자의 평균 165cm~170cm로 대략 167cm로 보았을 경우 담장의 높이가 담장에 면하여 서있는 남자의 어깨 높이 정도에 다다름으로 역락서재 전면의 담장 높이는 밖에서 보았을 경우 대략 140cm정도로 추정된다.



1969.10.06 역락서재 협문과 담장-국가기록원



현재 역락서재 협문과 담장



도산서당 앞 담장_조선고적도보



현재 도산서당 앞 담장



1931년 중문 앞 담장



현재 중문 앞 담장



상덕사 부정문 및 사주토병 당시 담장-조선고적도보



1969년 하고직사 동쪽 담장-국가기록원

- 아울러 담장의 정비에 있어 도산서당, 중문, 하고직사 상덕사 담장 등의 높이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도산서원 전체의 담장을 정비하도록 한다.



1931년 도산서당 석축 및 계단



2012년 도산서당 석축 및 계단

- 또한 축대 및 계단을 살펴보면 1931년도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사진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형을 회복한다.

1-1-2. 부속시설물 정비

1) 동몽재 or 역락재 재현

- 과거 도산서원 관련 그림에는 동몽재라는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도산서원 관련 고문헌에서 동몽재라는 이름이 나타난다.
- 『지헌선생 문집』에서 동몽재와 역락재가 거론되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나 정황상으로 유사한 문맥을 이어보면 우윤공이 아들 공(정사성)을 퇴계 이황선생에게 입설⁴⁵⁾시키기 위하여 3칸짜리 재(齋)를 하나 지어줬는데, “그 재의 이름은 동몽이었다. ”와 “곧 지금의 역락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나타난다. 지헌선생문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恭惟我先祖芝軒府君。生有異質。自幼孩時。已見賞於先輩長者。甫成童。以先右尹公命。立雪于陶山。築室而居學。卽今之亦樂齋是也。先生嘉其志。深加愛予。命名與字以畀之。

- 한글로 의역하면 "삼가 생각건대, 나의 선조 지헌 나면서 비범함이 있었고, 어린아이 때부터 일찍이 선배와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커서 청소년이 되어 우윤공의 명으로 도산(이황)에게 입설入雪하여 집을 짓고 기숙하며 공부하였으니 곧 지금의 역락재亦樂齋가 바로 그것이다. 선생께서 그 뜻을 훌륭하게 여겨 더욱 사랑했으며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手書以贈之。右尹公爲公構小齋於陶山。使之居學。先生名其齋曰童蒙⁴⁶⁾。顧謂公曰。

- 한글로 의역하면 “글재주가 뛰어난 우윤공의 아들을 위하여 도산에 작은 집을 지어주고 퇴계 선생에게 보냈다. 선생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선생을 따르게 하였고, 선생은 그 집을 동몽으로 명하였다.
- 지헌선생문집의 이러한 문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두 글의 공통된 점은 우윤공이 아들 지헌之軒을 퇴계선생에게 보내고 도산서원에 작은 집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은 동일하며 단지 한글에서는 이것을 역락재라 쓰고 있고 다른 글에서는 동몽재라 이르고 있다. 결국 문맥상 역락재와 동몽재는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久違掃拂、且疎候問。居常慕德、益愧向上之薄也。柳先生行狀、聞已公傳、斯文之幸。吾祖文字、亦當次第料理。區區慰祝之誠、曷有其已。亦樂書齋地、侯方葺修、而欲專資鶴巖財用。故鄙村聯書三數次、以明鄭氏不可獨擔之意。蓋

先祖手筆、溪山雜詠曰、諸人構茅舍於西麓名曰亦樂續集第二卷亦如。此再見年譜。陶

45) 입설(入雪, 스승을 존경함;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

46) 지헌집>지헌집발[정래성] a_056_042a-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山書堂成下、小註有曰:學從於精舍之西、築室以處、名曰:亦樂。廣瀨翁所撰年譜。補遺曰:世人以此齋認作芝軒、鄭公家獨力創成者、非矣。其可據、信筆如此。而地主則以鄙家之交惡、鄭氏目之、以沮役門論則曰:言行錄教人篇、芝軒筭錄曰:家親爲某受學、構童蒙齋於陶山云。爾。則童蒙、亦樂、必是二齋。而以廢無亦樂齋之額、移揭于鄭氏之童蒙齋、諸說紛紜。故又考思軒集中、與廣瀨翁往復兩書、有曰:先祖十七登門、故混稱以童蒙。其後改之以亦樂云云。梅窓撰其先考墓誌曰:府

君親往陶山、助構亦樂齋云爾。則於是乎童蒙、亦樂、元非二齋、而於助構二字、尤知芝軒家之非獨力創始矣、乃理屈而辭窮也。則曰:毋論如此如彼、先父老曾無此等言語。而鄭氏既已數次修葺、則當依中世先父老之爲不可援引以前之蹟、是豈成說乎。芝軒已列於當日諸學徒之中、則非敢曰不關於此齋、但體守當日之義、通于及門諸賢之家、以爲公共修築之論者、有何加損於芝軒、而致此矛盾也。自有公平大論、於及門諸賢之家矣。未知門下以爲如何⁴⁷⁾

- 한편 『효암문집曉庵文集』에⁴⁸⁾ 서 도산서원 안에 있는 역락서재를 보수하는 재원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역락서재가 지한 정사성 집안의 전유물일 수 없음을 주장하며 계산잡영, 퇴계문집, 퇴계연보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역락서재가 정씨 집안만의 부담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급문제현들이 협력하여 만든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 중에 동몽재와 역락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산서원관련 옛 그림 목록

연번	제목	저자	연도	역락재 표시
1	도산서원도	허주 이징	1581~?	0
3	분강촌도	월탄 김청석	1710년	0
4	도산서원도	겸재 정선	1721	0
5	계상정거도	겸재 정선	1746	X
6	도산서원도	표암 강세황	1751년	0
7	도산전도	고봉	연도미상	0
8	도산서원(부채)	겸재 정선	연도미상	알 수 없음
9	작자미상 1점	작자미상	조선후기 추정	X

- 한편, 도부학渡部學의 『역락서재재론亦樂書齋再再論』에서는 역락재와 동몽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한양공행상芝軒仰公行狀』에 적혀있는 『童蒙齋』와 『퇴계선생년보退溪先生年譜』에 적혀있는 『亦樂書齋』와 이 『亦樂齋』의 관계를 의문을 던지며 『역락서재』라는 것은 정지상의 아버지 정두가 세운 『동몽재』를 개축改築하고 개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⁴⁹⁾
- 그리고 과거 도산서원도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역락서재』란 글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 『역락재』라 쓰여 있다. 추론하면 『역락서재』는 『역락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역락재』는 곧 『동몽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7) 曉庵文集卷之二, 書, 上西山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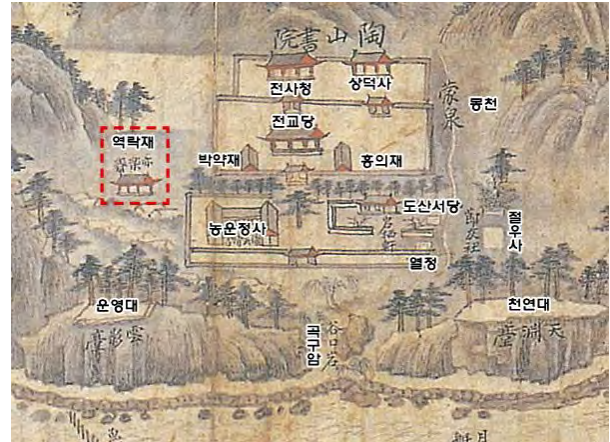
48) 효암문집은 근세의 유학자 효암曉庵 이중철李中轍(1848~1937)의 시문집으로서 이 책은 아들 덕호德鎬가 편집하여 1937년에 간행하였다.

49) 도부학, 『역락서재재론亦樂書齋再再論』, 퇴계학논집 4권, p.14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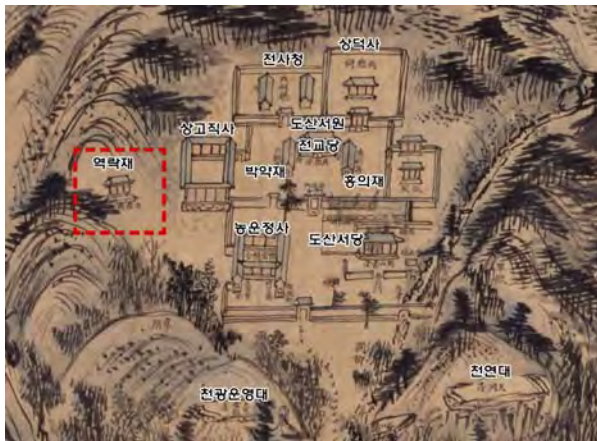
- 도산서원이 그려진 총 6점의 그림 중 검재 정선의 부채그림⁵⁰⁾을 제외하면 모두 서원의 좌측 박약재와 농운정사 사이쯤의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3칸으로 모두 동일하다.



역락재 위치_허주 이징



역락재 위치_월탄 김창석



역락재 위치_검재 정선



역락재 위치_표암 강세황



역락재 위치_고봉 기대승 친필본 『도산기』 수록 배치도



역락재 위치_검재 정선 부채그림

50) 역락재임을 확인할 수 없음.

- 결국 『지헌선생문지비』 및 『효암집』의 검토 결과 역락재와 동몽재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도산서원이 묘사된 옛 그림들을 분석한 결과 과거 역락재는 농운정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 역락재의 재현 및 환원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옥진각 해체 후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유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 결과에 따라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역락재 혹은 동몽재의 재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재현한 역락재는 현재 도산서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유사들의 공간이 부족하므로 도산서원의 각종 행사, 향사 시 관리실 및 숙직실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열정

- 현재의 열정은 도산서원 전면 바깥마당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검재 정선의 도산서원도 및 표암 강세황의 분강촌도를 보면 열정이 정우당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탄 김창석의 그림에서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산서당의 우측면에 정우당이고 그 하부에 열정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



검재 정선 도산서원도_검재 정선



분강촌도_표암 강세황



도산서원도_월탄 김창석



현재의 열정



도산서원 내부 몽천 표지석이 있는 우물

- 하지만 문헌과 고증에 따르면 열정은 현재의 위치로 확인되며, 현재 1972년 안동댐 건립 시 서원 앞마당이 성토됨에 따라 열정 또한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산서원 유사들의 고증에 따르면 과거 열정은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검은 오석바위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형태라고 전해지고, 원형 그대로 매몰되었다고 하니 정확한 형태 파악을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원형을 현재의 전면 마당 레벨에 복원하고 문화재 안내판에 본

래 있던 위치와 복원한 내용 등을 수록한다.



현재의 열정 위치



수목선에 들어가는 도산서원 앞 열정 (△표) 일부분. 적어도 점선이 처진 곳까지 수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1972년 열정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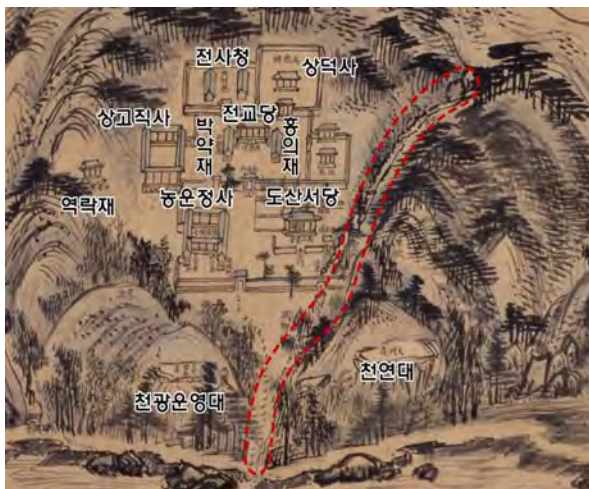
3) 몽천



분강촌도_월탄 김창석



도산서원도(부채그림)_겸재 정선



도산서원도_겸재 정선



도산서원도_표암 강세황

- 옛 그림을 살펴보면 몽천은 도산서원 동쪽 상부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과 같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 「도산잡영」등의 고문헌과 도산서원 유사들의 고증을 통하면 현재 도산서당 전면에 위치한 샘이 몽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헌을 살펴보면 몽천(蒙泉)은 蒙-꿈(몽), 泉-샘(천)으로 나타나므로 샘의 형태가 옳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관련 문헌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몽천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형 파악은 어렵다. 따라서 문헌과 서원관계자들의 고증을 통하여 원형을 파악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몽천 표시석



몽천 현황

4) 정우당

- 도산서원 좌측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정우당은 국가기록원 소장 1969년 사진에 따르면 자연석 쌓기로 축조되어 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자연석을 견치석으로 교체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상부면에는 화강암 장대석을 돌렸다. 보수정화사업 당시 이전의 사진을 토대로 옛 모습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겸제 정선_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표암 강세황_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69년 정우당 모습_국가기록원



현재의 정우당

5) 도산서원 진입로 및 운영대, 시사단 석축정비



도산서원 진입로 견치석 석축



운영대 견치석 석축



시사단 석축현황 상세



시사단 석축현황

- 안동댐 건설로 인한 기존 접근로 수몰에 따라 도산서원으로의 접근을 위하여 1975년 현재의 진입로가 설치되었으며 경사지에 진입로가 개설되는 관계로 석축의 설치는 불가치하다 할 수 있으나, 석축이 견치석으로 쌓여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자연석 쌓기로 정비한다.



자연석 석축 사례-1



자연석 석축 사례-2



자연석 석축 사례-3

2. 경관정비계획

2-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2-1-1. 서원의 경관 가치

1) 고유성

-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나,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중국 송양서원(후주)



악중국 록서원(송나라)



중국 응천서원(송나라)

2) 조화성

-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과 책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꾀해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 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그림 463 중국 아호서원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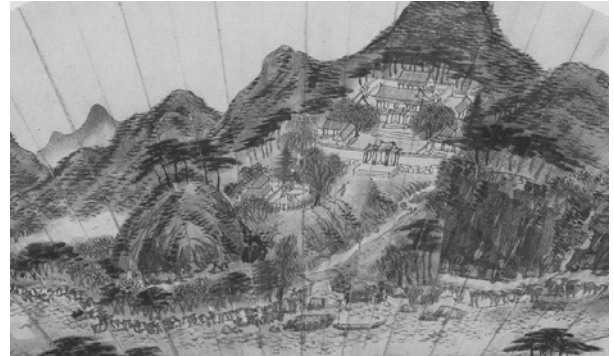


그림 464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2-1-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1) 전제조건

- 서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천인합일’의 사상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현재 서원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 서원의 경관을 심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거의 현재의 경관을 통해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⁵¹⁾

51)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보전관리 계획, 2010, p.131 참조



그림 465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본 경관



그림 466 도동서원 주변 경관

2) 보존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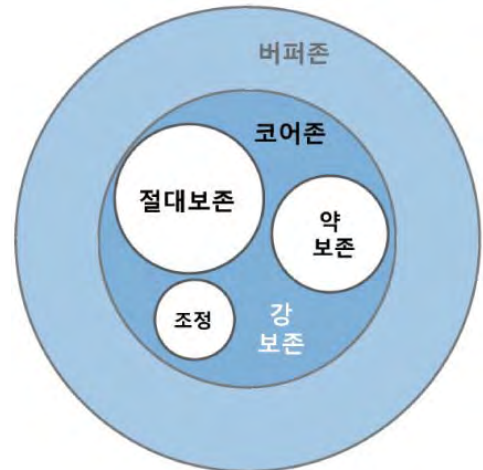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정 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 서원 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힘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을 발굴하는 것
 - 조선의 서원은 서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자연이 빼어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하고 구곡시가(九曲時를歌)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곡도(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면서 성리의 이념을 꽃피우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구곡문화(九曲文化)를 형성한다.
- 이러한 구곡문화를 조사·발굴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서원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여 서원경관의 활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을 발굴·도입한다. 단 도입하는 경관은 기존의 서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1-3. 보존영역의 설정

1) 서원경관의 보존 범위

-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존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 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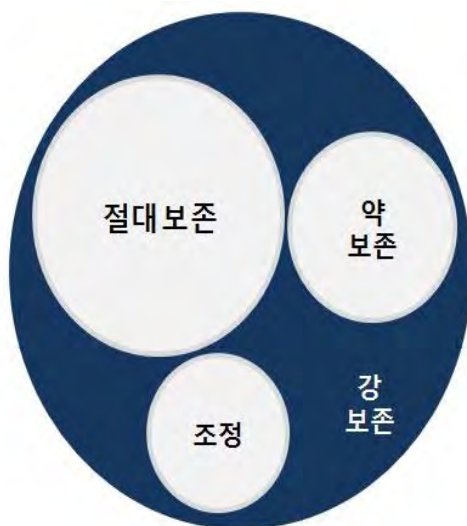
-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서원의 보존 범위

2)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존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절대보존지	절대적인 보존 가치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동결보존이 필요한 곳
강보존지	'절대보존지'보다는 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절대보존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완기능 수행 및 주로 문화재를 제외한 건물 및 외부공간이 해당
약보존지	보존가치가 낮으며, 마을 중심과 이격되어 있어 마을 전체적인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서원 전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융통성 있게 흡수하여 서원의 생명력을 유지, 확장 할 수 있는곳
조정지	원형에서의 변화정도가 가장 심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이며, 입지상 서원 보존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의 도입이 가능한 곳

보존 위계 설정

2-2. 경관 보존구역 설정

2-2-1 경관보존구역 설정

1)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의 설정

- 코어존
 - 도산서원을 기점으로 도산서원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으로 도산서원에서 조망되는 최대한의 구역을 설정하여 동결 보존한다.
 - 도산서원의 가시·조망권에 들어오는 서원 주변의 산 능선 내부와 도산서원이 입지하고 있는 산 너머의 퇴계종택과 일부 지역까지 일괄 코어존으로 설정하여 도산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지조건을 보존하도록 한다.
- 버퍼존
 - 도산서원 경관의 간접영향권으로 코어존의 기준이 된 서원 주변 산 능선에서 조망되는 2선의 산 능선을 연결하여 버퍼존으로 설정하여 도산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공간이 되도록 한다.



도산서원 조망



도산서원 정면 조망



도산서원 전면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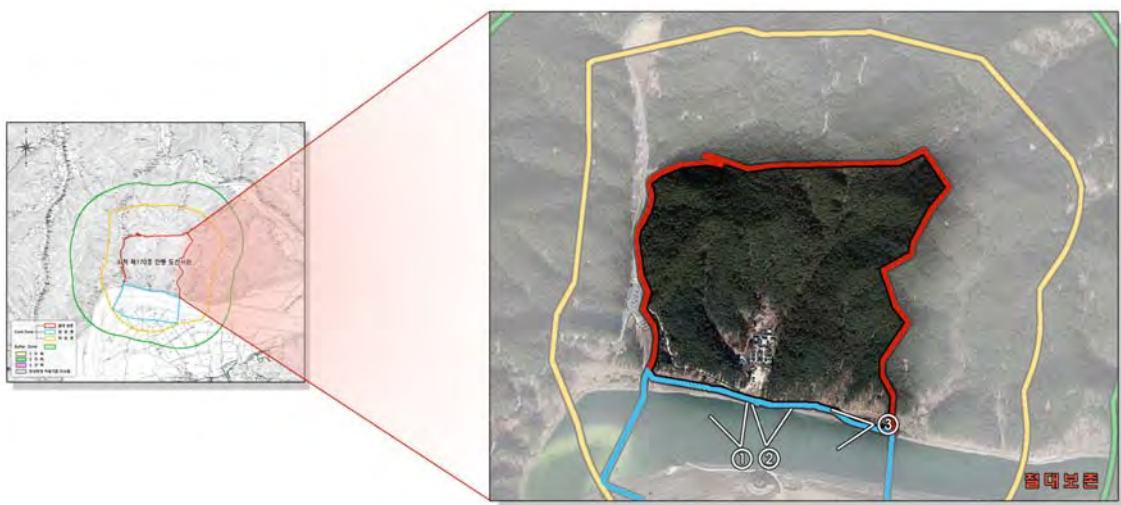


도산서원 우측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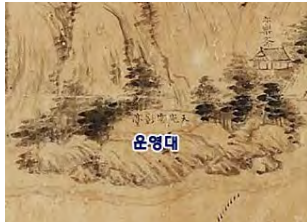
■ 코어존 내부의 구역설정

• 절대보존구역

- 도산서원 및 퇴계 이황선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자연 경관구역으로 도산서원과 도산서원의 운영대와 천연대를 포함한 주변 일대, 도산서원 전면의 강과 탁영담濯纓潭, 그리고 시사단을 포함한 주변 일부는 동결 보존하도록 한다.



절대보존구역 상세도



윤영대_표암 강세황



현재의 윤영대



천연대_월탄 김창석



현재의 천연대



탁영담과 반타석_겸재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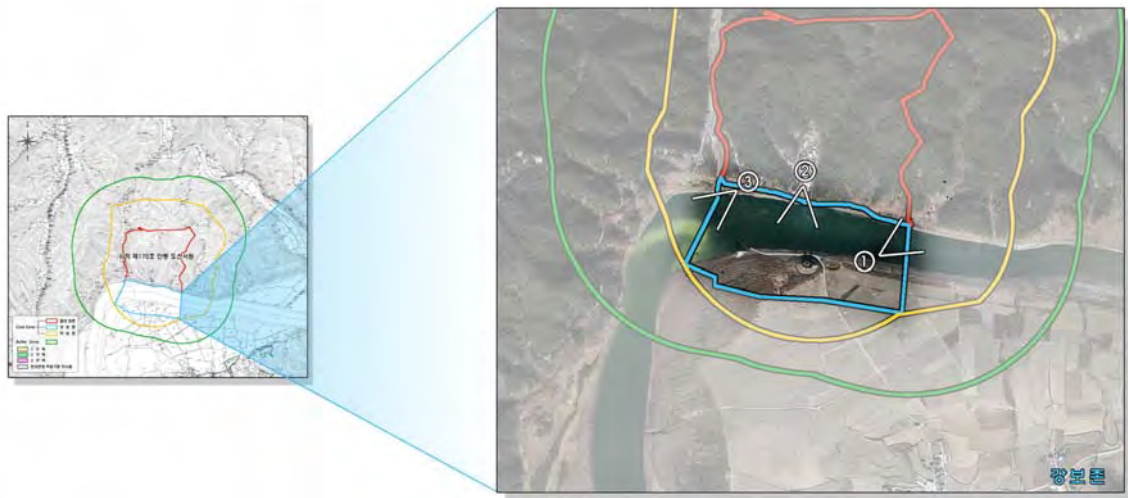
현재의 탁영담



현재의 반타석

• 강보존구역

- 경관 저해 요소 발생 시 치명적 타격은 발생하지 않으나 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주는 보완적 공간으로 절대보존지역의 전면 농경지를 제외하고 현재 도산서원의 진입부 및 서원 배면의 산 능선 내부를 강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강보존구역 상세도



절대보존구역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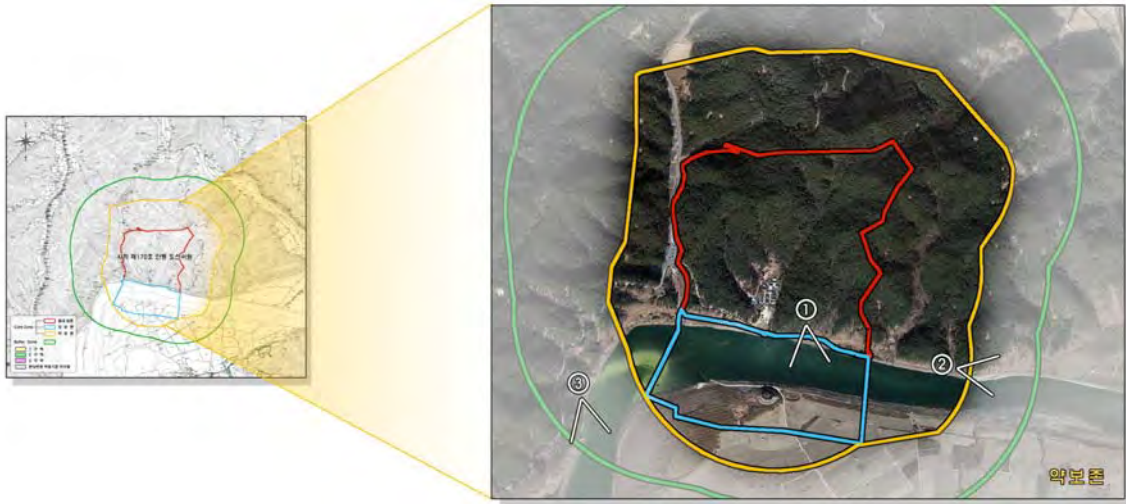
절대보존구역 정면 시사단



절대보존구역 우측

• 약보존구역

- 절대보존구역과 강보존을 제외한 전체 코어존으로서 서원과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서원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으로 보존의 강도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서원의 고유한 입지조건에 포함되어 서원 경관의 완전성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이므로 약보존 구역으로 설정한다.



약보존구역 상세도



도산서원 좌측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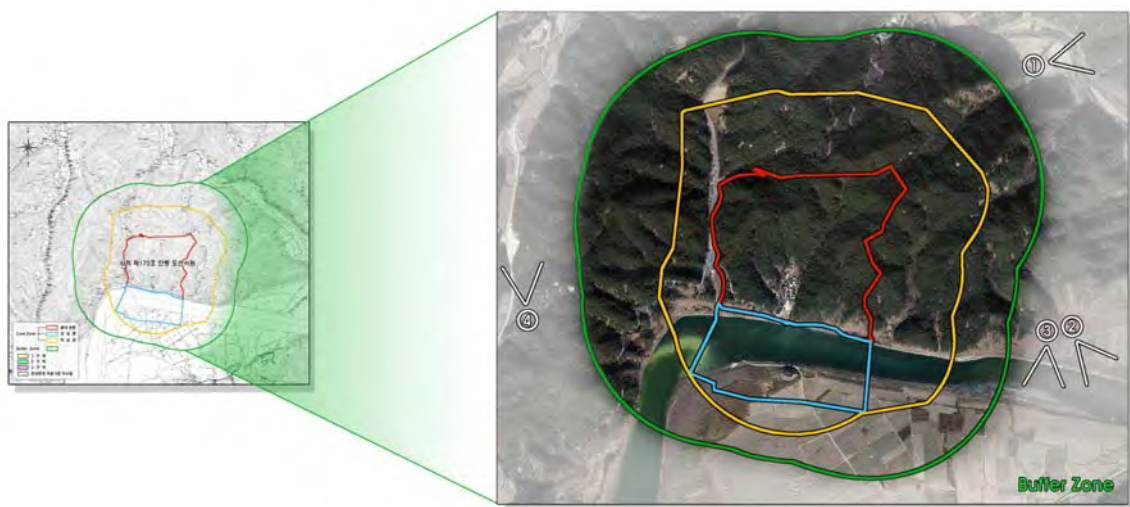


도산서원 정면 원경



도산서원 우측 원경

■ 버퍼존 내부의 구역설정



버퍼존 상세도



버퍼존 조망-1



버퍼존 조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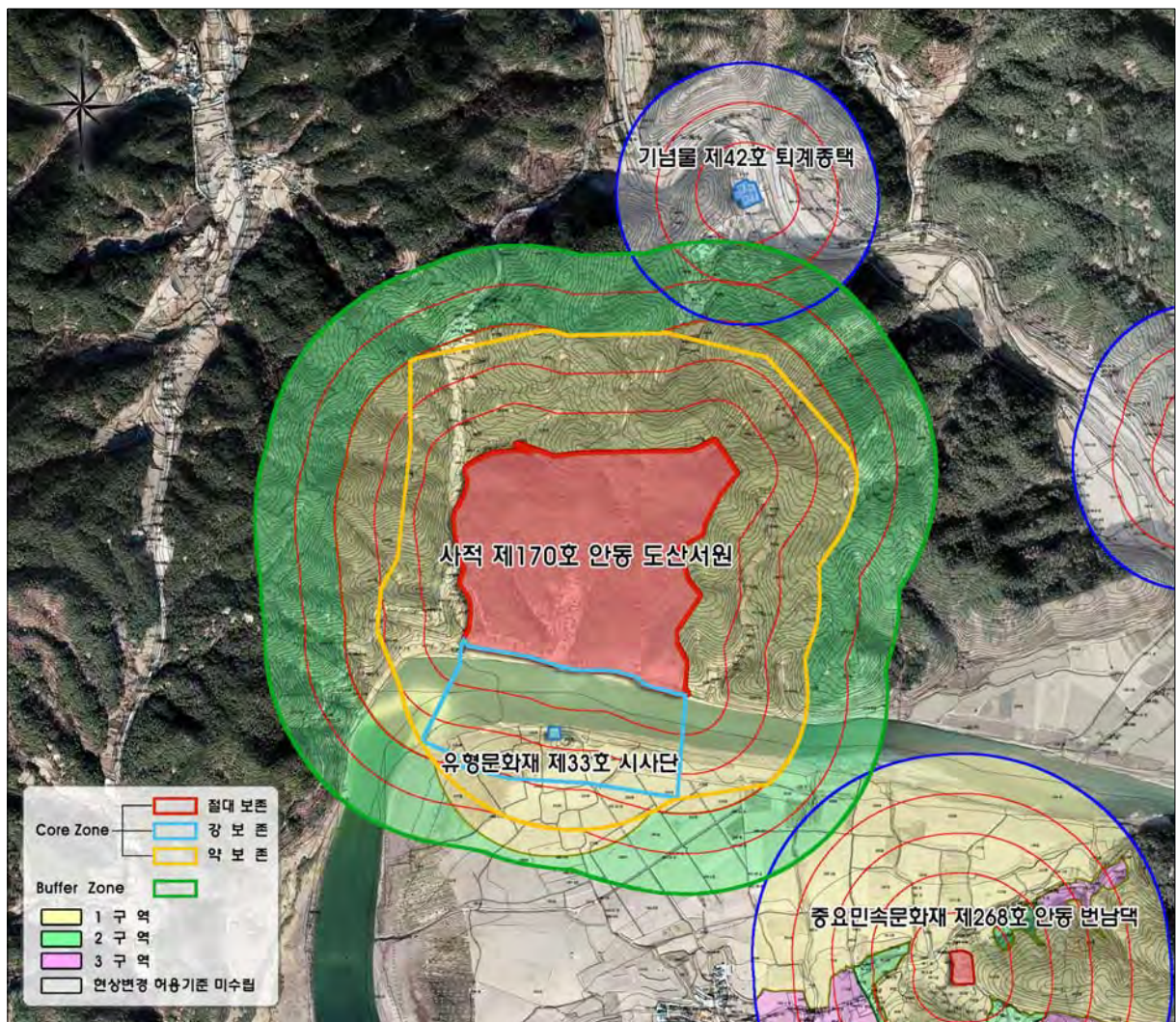


버퍼존 조망-3



버퍼존 조망-4

- 이 모든 구역설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팀과 안동시청,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조율 및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등재신청대상의 8개 서원도 함께 부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도산서원 경관보존구역 설정 안(위성)

2-3. 식재정비

2-3-1. 서원영역 내 구역

▪ 현황

- 도산서원은 계곡에 위치하여 사방에서 물이 모여 드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의 성역화사업 때 담장과 화계를 화강석과 시멘트로 교체 시공하여 더욱더 배수가 힘든 상태로 만들고 당시 서원 내외부에 너무 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바람길을 막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서원은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목련·일본후박나무·칠엽수·은행나무 등과 같이 크게 자라는 대교목을 점차 매화나무·단풍나무 등과 같은 중교목 수종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체 수목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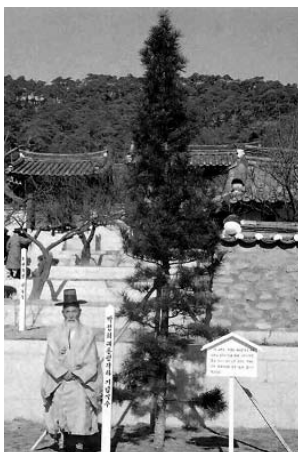
▪ 정비계획

- 서원 경내 진입부에 조성된 화계와 도산서당 담장 전면에 식재된 목단은 화계의 면적에 비하여 너무 밀식되어 있고, 여름철이면 너무 크게 자라고 우거져 서원 경내의 전체적인 경관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목단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위해서라도 화계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며 기 식재된 수목의 밀도조절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금송

▪ 현황

- 한편 도산서당 앞에 식재된 금송은 1970년 도산서원 정화사업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원에 방문하여 기념식수한 수목으로 1970년 12월 8일 현 위치에 최초 식재되었다.
- 일반적으로 금송과 같이 추위에 약한 상록침엽수는 추위가 가신 후의 봄에 이식하는 것이 정석이나 대개 기념식수는 이식시기에 맞추기보다 건물의 완공이나 식수자의 방문 시점 등에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금송은 원래 이식이 어려운 나무에 속한다. 게다가 묘목 상태일 때보다 성목일수록 이식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성목을 식재하며 정상적인 이식시기에 맞추어 심기가 힘든 기념식수의 특성상 고사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산서원의 금송 역시 이러한 연유로 봄이 아닌 겨울에 이식되어 식재 이후 정상적인 활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기념식수한지 2년 만에 해당목이 고사하게 되어 1973년 4월 같은 자리에 동일 수종으로 재식재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재 금송의 수고는 약 15m 정도로 파악되는데 최대 40m까지 첨탑형으로 자라나는 금송의 특성상 현 위치에 존치할 경우 서원의 전통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서원 경내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 서원 식재의 기본 개념에도 어긋나게 되며 불의의 도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인접한 건물에 직접적인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념식수 당시 모습



금송 현황



기념식수 표지석 상세

- 1970년 12월 8일 도산서원 정화사업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기념식수 하였으나 2년 뒤 고사하여 1973년 4월에 현재의 금송으로 재 식재되었다. 원래의 기념수가 고사하였으므로 현재의 수목은 대체목에 지나지 않을 뿐 역사적인 의미를 논할 수 없으며 일본 특산종인 금

송을 우리나라 서원 경내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민족 정서에 어긋나므로 이식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식 후 식수지 관리방안은 추가 식재나 안내판 없이 공지로 남겨두는 것, 주변에 밀식된 목단의 밀도 조절을 위해 일부 이식하는 것, 기념식수 표지석 대신 금송 제거 안내판으로 대체하는 것의 3가지 안을 제시한다.

- 이식 위치는 이에 적합한 이식 후보지로 물색하였다.



서원 외부에서의 조망



절우사에서 조망

▪ 정비방안

- 금송은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 정화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1970년 식수한 이래 도산서원과 40여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나무이므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기념식수목 자체의 의미에 존재 가치를 두어 현 위치에서 이식한 후에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현재 금송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 뒤 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식 예정지는 서원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 1안 : 전면마당에 이식

- 현재 금송은 서원 경관과 식재 개념, 수종의 성장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위치에서 이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이식을 하게 된다면 최초 식수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서원 식재의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서원 경내에 존치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바 경내를 벗어나 경외 전면마당으로 이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대신 최초 식수지에는 식수 당시의 자료 사진이나 이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전된 금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치는 전면마당에서 조망이 쉽지 않은 산지가 인접해있는 곳을 물색하여 이식한다.
- **장점** : 서원 내부의 경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던 금송을 외부로 이식함으로써 경내의 조망이 유리해지며, 도산서당에 대한 조망확보를 할 수 있음
- **단점** : 전면마당에 분포하고 있는 수종과 상이한 수종이 식재되기 때문에 자칫 이질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며, 현재 금송의 수고가 다른 수종들과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경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도산서원 내부에서 조망할 시 경관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2안 : 진입부 광장에 이식

- 도산서당 앞에서 관리사무소 인근으로 이식할 경우, 도산서당을 가리지 않는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어 현 위치에 있는 것보다 서원의 조망이 용이해지며 전반적인 서원 경관의 측면에서도 이질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다.
- **장점** : 관리사무소 인근으로 이식하여 도산서원 경내의 경관을 확보하게 되고, 도복사고로 인한 훼손위험에 처해있던 건축물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됨
그리고 본래 서원 내부에 수고가 큰 수종은 식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하게 됨
- **단점** : 서원 진입 공간 초입에 위치하므로 자칫 관람객들이 서원전통수종으로 오해할 수 있음



금송 이식 계획 안

▪ 결론

- 금송은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으로 전통수종에 속하지 않으며, 서원에는 수고가 높지 않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금송은 최대 40m까지 생장하는 수종이며 형태 또한 삼각의 침탑형으로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서원의 역사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
- 결국 현재의 금송은 서원역사경관의 진정과 완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도복사고 발생 시 인접한 건물에 직접적인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입부 광장에 이식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산서원 전면부 마당

▪ 현황 및 문제점

- 안동댐 조성 시 서원이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산서원 전면부 마당을 5m 가까이 성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느티나무는 1그루가 4그루인 것처럼 보이고 왕버들도 지하고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 정상적인 수목의 외관이 아닌 까닭에 미관상 어색함을 감출 수 없는 상태이

다. 일반적으로 복토된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토된 부분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토 시기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경우에는 이미 수목이 복토에 적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선부른 정비는 노거수에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토된 토양 제거작업 등의 행위는 현재 수목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이 선행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느티나무



왕버들

▪ 정비방안

- 이와 같이 도산서원의 전반적인 식재 정비는 서원 경내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식재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의 상징적인 수목으로 제한 식재한다는 기본적인 서원 식재 개념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이에 향후 경내에서의 추가 식재는 지양하도록 하고 현재 경내 외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식재밀도의 조정에 주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2. 서원 주변 구역

▪ 현황 및 문제점

- 1975년 안동댐 착공으로 인하여 새로 조성된 진입로에는 강변 쪽 비탈에 옥향이 식재되어 있으며 1.5m 정도의 수고로 260여주가 열식되어 있다. 서원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유도식재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고가 보행자의 눈높이에 가까워 안동호를 바라보는 시야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식재지 아래로는 비탈 경계면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기존 수목의 존치, 대체 식재 혹은 수목 제거의 3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진입로 옥향나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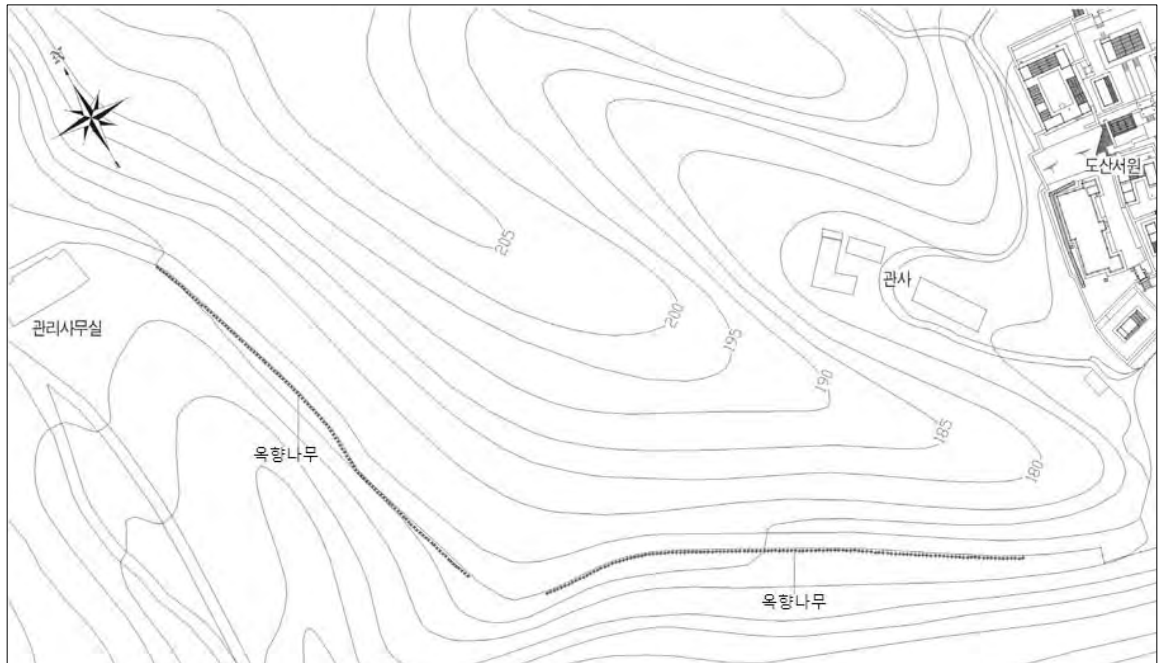
낙동강으로의 불리한 조망



천연대 주변 옥향현황-1



천연대 주변 옥향현황-2



옥향 식재현황

▪ 정비방안

• 존치

- 옥향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경계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 상태로 존치하도록 하며, 수고조절을 통한 시야확보를 위해 상단부 전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재 옥향의 수고가 약 1.5m 정도이므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적정선까지 전정하게 되면 잎이 달린 상단부 대부분이 제거되므로 수목의 생장 및 외관상 저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 대체 식재

- 향후 안동호로의 조망을 확보하려면 기 식재된 옥향 대신 수고조절이 용이한 사철나무나 팽팡나무 등의 관목류로 대체 식재하도록 한다. 사철나무나 팽팡나무 등의 상록수는 무성하고 치밀한 잎이 사철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 산울타리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 산울타리는 인공 경계책보다 자연스럽고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울리므로 식재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사철나무



깽깽나무

• 수목 제거

- 현재 안동호로의 시야확보를 위해서는 식재된 옥향을 전정해야 하는데 수고조절을 위해 전정을 하게 되면 앞이 달린 상단부가 대부분 제거되고 줄기부만 남게 될 형편이므로 미관상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거 후에는 안동호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고 전정 등의 추가 관리가 필요 없는 인공 웬스나 방부목 울타리 등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경계 목책



목책 예시

▪ 결론

- 3개의 정비 안을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존치 후 상단부 전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옥향을 존치 후 상단부만 전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옳다.

2-4. 도산서원 접근로 재현

1) 도산서원 접근로 재현의 의의 및 원형 추정



도산서원도에 나타난 옛 길_월탄 김창석



도산서원도에 나타난 옛 길_표암 강세황

- 서원의 입지는 '천인합일'의 유가적 관념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립하였다. 도산서원의 경우 영지산과 청량산 줄기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서원 전면으로 낙천(洛川)이 굽이쳐 흐르고 낙천과 면하여 너른 경작지와 그 뒤로 부용봉이 솟아 있는 수려한 경관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 이 일대는 도산서원과 더불어 애일당(愛日堂), 분천서원(汾川書院), 병암정(屏庵亭) 등의 건축물들과 이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찬양하는 다수의 시와 그림 그리고 퇴계 이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설화 등을 품고 있는 곳이다.



도산서원 우측 진입부_표암 강세황



도산서원 우측 진입부_월탄 김창석

- 그리하여 이 일대는 다수의 도산서원도에 표현된 바와 같이 하천을 따라 이 지역을 경유하여 청량산에까지 이르는 접근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안동댐의 건설에 따라 이 접근로는 사라지고 현재 아스팔트 우회도로 등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도산서원 접근도로 현황_1



도산서원 접근도로 현황_2

- 이 옛길은 단순히 접근의 수단으로서의 물리적 도구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이 길을 통하여 농암과 퇴계가 왕래하며 정을 주고받았으며 퇴계가 제자와의 헤어짐이 아쉬워 바위에 글을 새기는⁵²⁾ 등 이 길에는 무수한 역사와 설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청량산을 찾았던 조선의 수많은 학자와 선비들이 거쳐 간 흔적이 살아 있는 곳이다.



수물 전 도산서원 진입로_1931



수물 전 도산서원 진입로_1969

52) 이것을 석간대石澗臺라 이르며 퇴계 이황이 62세 때 제자인 구암龜岩 이정李楨 작별할 때 그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당시唐詩를 바위에 새긴 것이다.

君去春山誰共遊 그대 가니 이 봄을 누구와 더불어 노닐고
鳥啼花落水空流 새 울고 꽃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
今朝送別臨流水 이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
他日相思來水頭 그리워 만나려면 물가로 다시 오리



애일당_1960



석간대

- 한편 도산서원에서 시사단에 이르는 주요 수단은 썰다리와 나룻배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이곳에는 잠수교가 설치되어 있어 수위가 낮을 시 통행이 가능하나 수위가 높아져 다리가 잠수되는 시기에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도산서원 앞 썰다리-국가기록원



시사단 옛 모습_1956

2) 도산서원 접근로 계획

▪ 현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 그림을 통하여 도산서원 접근로의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도산서원의 주요 접근로 및 도로현황에 관하여서는 1976년 안동댐 완공전인 1971년 항공사진에서 도산서원 주변의 전체적인 접근로 및 도로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산서원 주요 접근동선을 살펴보면, 분천리 일대에서 시작하여 낙천과 면하여 운영대와 천연대 아래를 지나 도산서원의 동쪽산인 동취병 기슭을 따라 토계천으로 이어진다. 다시 이 길은 토계천을 따라 퇴계 종택에 이르게 되며 더욱 나아가면 앞서 살펴본 퇴계구곡의 종점이 된다.



1971년 도산서원 주변 동선 현황



2012년 현재 도산서원 주변 동선 현황

- 본 계획에서는 도산서원의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 회복을 위하여 옛 도산서원 접근로를 재현하고자 한다. 비록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위 증가로 옛 길의 복원은 불가능하나 이 지역의 최대 수위를 조사하여 그 상부면을 따라 탐방로를 재현하고자 한다.**
- 현재 시작점에 해당하는 분천리 일대에서 동취산 산기슭까지 끊어진 동선을 회복한다면 예전과 동일한 주변 탐방로 연계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도산서원 접근로의 역사적경관의 회복과 더불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진 『퇴계구곡』과의 연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산서원 주변 최대 수위점



최대수위 시뮬레이션

안동댐 도산관측소 년월별 수위현황-1

단위 : EL.m

월 년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계
1977	144.00	143.51	142.91	143.11	144.35	141.74	139.60	138.67	140.63	142.17	141.96	142.01	142.06
1978	141.06	139.99	139.98	140.47	139.00	133.34	142.86	147.37	149.05	146.51	144.60	142.46	142.22
1979	139.71	137.63	137.12	141.71	142.83	143.85	147.81	146.47	147.73	148.84	148.40	147.89	144.17
1980	146.28	144.91	143.17	145.43	147.44	147.72	148.29	152.37	156.13	155.35	154.82	153.68	149.63
1981	152.55	150.02	147.82	147.68	146.12	140.22	141.74	143.01	151.48	151.61	151.78	151.44	147.96
1982	150.53	149.05	147.28	146.54	144.17	140.10	129.40	130.85	139.96	140.36	139.24	139.32	141.40
1983	138.86	136.95	137.53	139.37	144.00	142.18	143.13	146.24	150.15	151.99	150.52	149.01	144.16
1984	146.89	144.52	142.75	140.65	142.79	143.31	147.67	149.66	156.54	152.84	150.68	148.40	147.23
1985	145.91	143.51	143.30	144.87	146.52	143.55	144.63	149.11	154.28	158.06	158.05	156.18	149.00

안동댐 도산관측소 년월별 수위현황-2

단위 : E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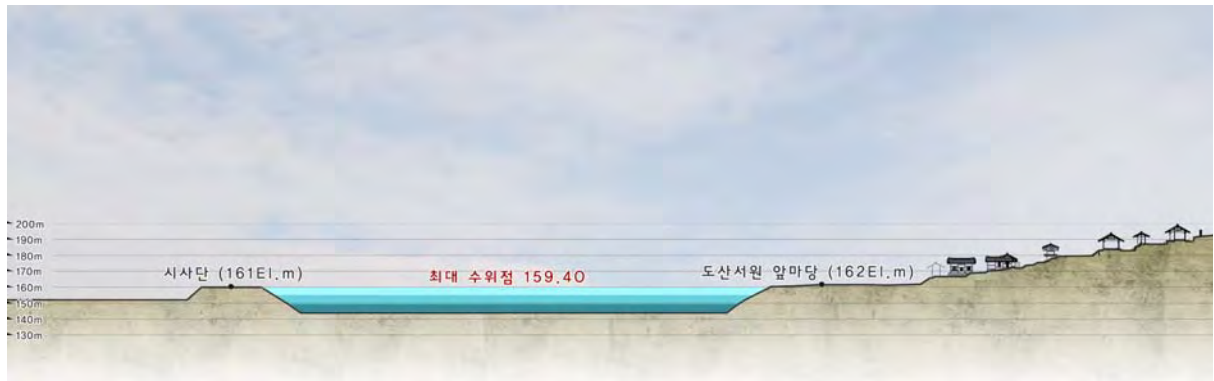
월 년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계
1986	154.04	152.39	150.87	149.09	147.28	145.59	147.48	150.52	150.95	151.11	150.08	148.13	149.79
1987	146.85	146.12	145.92	146.79	146.61	147.97	148.92	155.22	154.42	151.09	148.96	147.84	148.89
1988	146.04	143.93	141.84	141.06	140.96	139.50	143.01	149.85	148.70	147.92	146.79	145.44	144.59
1989	143.98	143.67	145.71	147.17	145.70	142.27	140.77	148.56	151.70	152.51	152.26	150.61	147.08
1990	148.76	147.54	148.55	149.19	149.30	148.56	151.34	150.34	153.02	154.55	153.41	151.60	150.51
1991	149.31	147.07	145.23	145.26	145.21	144.19	146.30	152.96	154.78	154.84	152.60	150.19	149.00
1992	147.70	145.14	142.97	142.17	141.93	138.48	134.76	137.01	141.26	144.52	144.35	143.00	141.94
1993	141.23	140.03	140.14	140.82	143.21	146.20	148.58	156.59	156.29	155.37	154.30	153.56	148.03
1994	151.71	148.33	145.86	144.09	142.54	140.42	142.58	139.26	137.04	135.57	136.76	136.06	141.69
1995	132.58	131.21	131.39	132.53	132.84	132.13	136.16	144.83	146.52	146.26	145.72	144.68	138.07
1996	143.49	142.21	141.69	141.21	139.87	143.09	146.25	145.52	144.25	144.53	143.87	142.75	143.23
1997	141.59	140.45	140.28	140.75	144.45	144.22	152.03	154.16	152.82	151.43	151.17	149.49	146.90
1998	148.11	147.73	147.48	149.84	149.00	146.39	151.19	156.08	153.68	153.49	153.57	152.12	150.72
1999	150.40	148.75	147.49	148.98	147.42	147.16	145.74	151.89	159.40	155.86	154.83	152.91	150.90
2000	151.16	149.17	147.37	146.10	145.43	142.83	141.79	144.10	152.66	151.51	146.03	143.48	146.80
2001	142.80	141.75	142.59	141.79	139.47	138.60	142.26	140.75	139.89	140.51	139.91	138.64	140.75
2002	138.26	137.27	136.83	138.65	144.48	142.92	145.78	157.76	153.32	152.54	150.54	148.52	145.57
2003	146.33	144.32	143.08	147.02	145.55	142.35	150.90	152.05	156.47	154.24	153.07	151.46	148.90
2004	149.25	147.05	144.28	142.30	143.48	144.24	148.66	150.17	151.32	149.78	148.00	146.25	147.07
2005	143.69	141.34	140.30	141.44	139.07	135.60	145.19	147.61	149.90	149.83	148.71	146.92	144.13
2006	145.03	143.27	141.10	141.13	140.76	136.63	155.22	152.69	151.17	150.29	149.26	147.81	146.20
2007	145.72	143.93	143.48	142.57	140.07	135.35	139.20	145.98	152.41	151.47	150.60	149.13	144.99
2008	147.61	146.02	145.40	144.87	142.95	140.54	146.48	147.29	145.28	143.50	141.79	139.89	144.30
2009	137.64	135.92	134.48	133.74	133.87	132.32	144.81	146.52	145.20	144.01	143.08	142.05	139.47
2010	140.70	140.64	141.76	140.14	140.63	136.62	134.16	138.61	147.35	147.12	146.35	145.37	141.62
2011	144.04	143.03	142.59	142.94	147.2	152.37	154.58	154.25	153.86	152.89	152.24	151.63	149.3
평균	145.48	143.90	143.12	143.46	143.61	142.07	144.84	147.88	150.13	149.72	148.68	147.14	145.66
평균 저수량 (백만 m³)	596.33	551.13	534.43	550.43	536.55	504.26	647.71	743.38	795.91	760.57	719.59	661.17	633.46
평균 저수율 (%)	47.79	44.17	42.82	44.11	43.00	40.41	51.91	59.57	63.77	60.95	57.67	52.98	50.75

-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도산면 수위 관측자료⁵³⁾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1977년~2011년 34년 간의 안동댐 저수위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9년 9월의 저수량이 159.40EL.m⁵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160EL.m지점들과 기존의 산책로를 연계하여 수몰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53) 『안동 다목적댐 관리연보』, 한국수자원공사, 2003

54) 지반고 - 우리나라에서 인천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EL=0m점으로 정하고 기준점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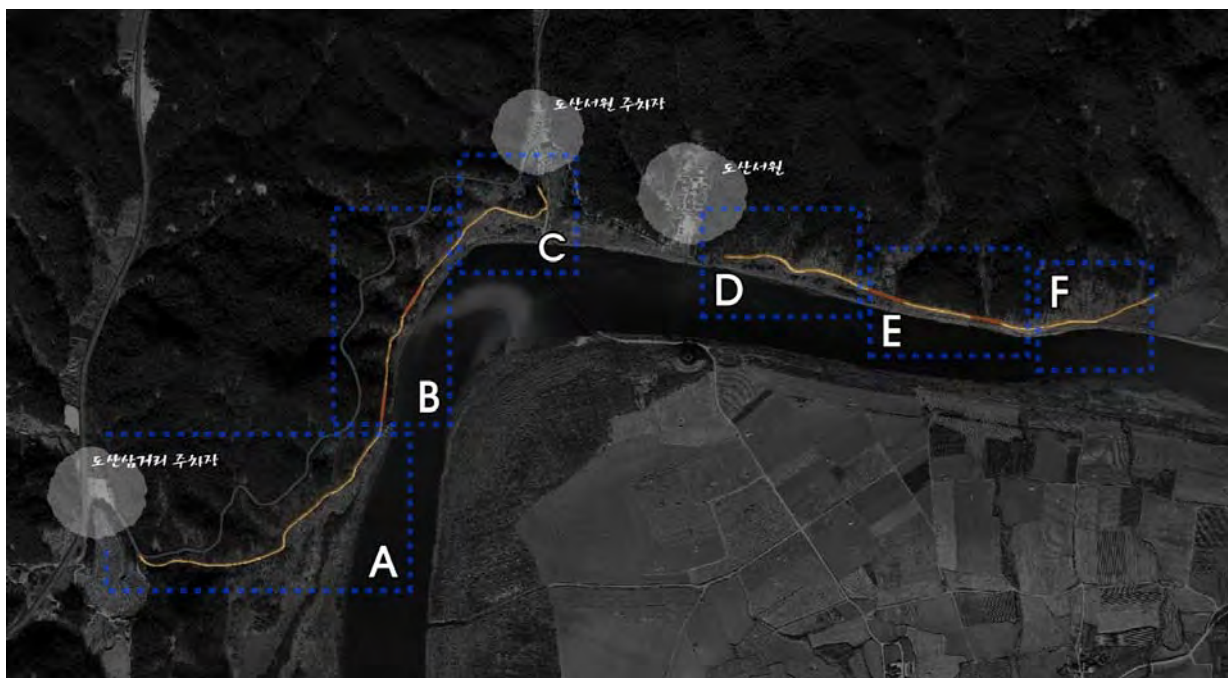
- 접근로는 각 구간별 지형 특성에 따라 정비방법을 달리 하도록 하며 훼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길을 활용하도록 한다.



도산서원 최대수위점

- 또한 도산서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수위가 최대로 높았을 때 지반고 158EL.m에 있는 천연대가 수몰된 경우가 있었다 하고 최대 수위점이 159.40EL.m인데 반해 도산서원 앞마당의 지반고는 162EL.m으로 불과 2.6EL.m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도산서원 앞마당 절토**의 경우는 수몰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구간별 정비계획



진입로 계획

• A구역

- A구역은 도산삼거리 주차장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토계천으로 연결되며, 이 경우 자연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길을 정비하고 이정표를 설치하여 도산서원으로 동선을 유도한다.



A구역 현황-1



A구역 현황-2

• B구역

- 자연암반 하부로 길이 형성되어 있으나, 수물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반 상부로 통행로를 연결한다. 또한 자연길이 연결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데크를 활용하여 다리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접근로를 형성하며 각 구간별로 이정표를 설치하여 도산서원으로 접근을 유도한다.



B구역 현황-1



B구역 현황-2

• C구역

- 기존 형성되어 있는 산길이 B구역보다 C구역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물의 위험이 없으므로 자연길을 정비하여 접근로를 형성한다. 또한 C구역의 선착장길 중간 지점을 연결하여 기존의 선착장길로 도산서원 주차장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존의 선착장길을 정비하며, 이정표를 설치하여 석간대로 동선을 유도한다.



C구역 현황-1



C구역 현황-2

• D구역

- 도산서원 전면마당에서 천연대를 지나 강변을 따라 과거 접근로를 재현하며, 산 능선을 따라 산길을 정비하여 접근로를 형성한다. 과거 접근로와 유사하게 형성하여 강과 시사단을 조망할 수 있다.



D구역 현황-1



D구역 현황-2

• E구역

- 산길과 골짜기를 지나는 구간으로 위험구간에는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F구역

- E구역에서 연결되어 능선을 따라 강변을 벗어나는 구간으로, 능선과 경작지 사이로 진입로가 형성된다. 본 계획에서는 F구간까지를 정비하며, 이후로는 기존의 마을길을 활용한다.



E구역 현황-1



E구역 현황-2

▪ 정비예시



자연길 사례_1(예던길)



자연길 사례_2(예던길)



자연길 사례_3(예던길)



자연길 사례_4(예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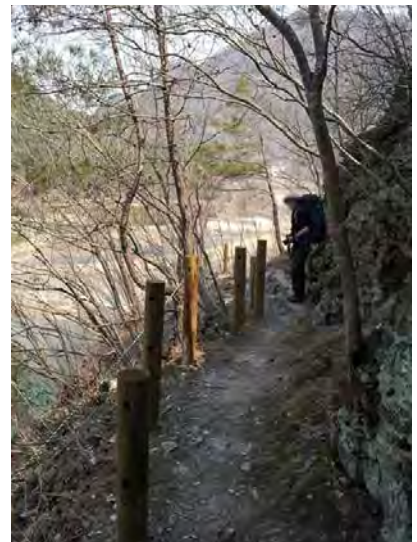
- 암반으로 형성된 지역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는 구간은 난간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안전시설물은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재질과 색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난간 설치사례_1(예던길)



안전난간 설치사례_2(예던길)



안전난간 설치사례_3(예던길)



안전난간 설치사례_4(예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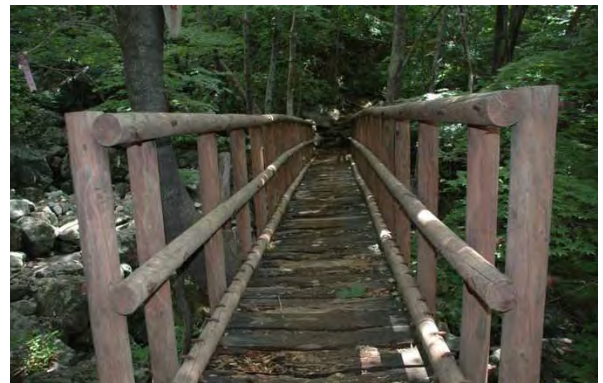


안전난간 설치사례_5(천연대 접근로)

- 계곡 혹은 경사지형에는 통나무다리, 목재 데크 및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재료는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통나무 다리 사례



방부목 다리 사례

- 단, 동취산과 서취산의 계곡에 해당하는 선착장 인근의 그 폭이 넓어 연결 다리를 설치할 경우 규모가 커져 경관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분천리에서 오는 접근로를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광장으로 연결하고 이곳에서 천연대까지는 기존의 접근로를 활용하도록 한다.



기존 도산서원 접근로



선착장 가는 길

▪ 안내판 설치

- 관람객들에게 현재 탐방로의 본래의 경로, 역사적 가치 등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진입로 초입과 출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본래 과거의 길과 현재 탐방로를 함께 표시하여 과거 그대로의 길을 재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며, 현재의 탐방로로 결정한 경위, 이유 등을 삽입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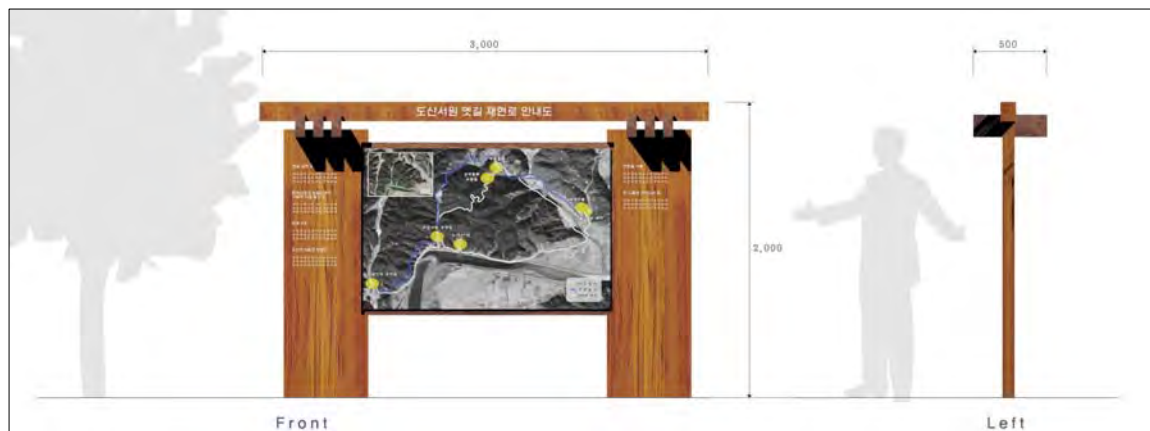
- | | |
|---------------------------|------------------------|
| - 옛길 재현의 의의 | - 옛 그림에 나타나는 옛 길 |
| - 퇴계선생과 농암선생이 거닐며 시를 읊던 길 | - 조선학자들과 청량산 |
| - 퇴계9곡 | - 안동댐 수몰이후 도산서원 주변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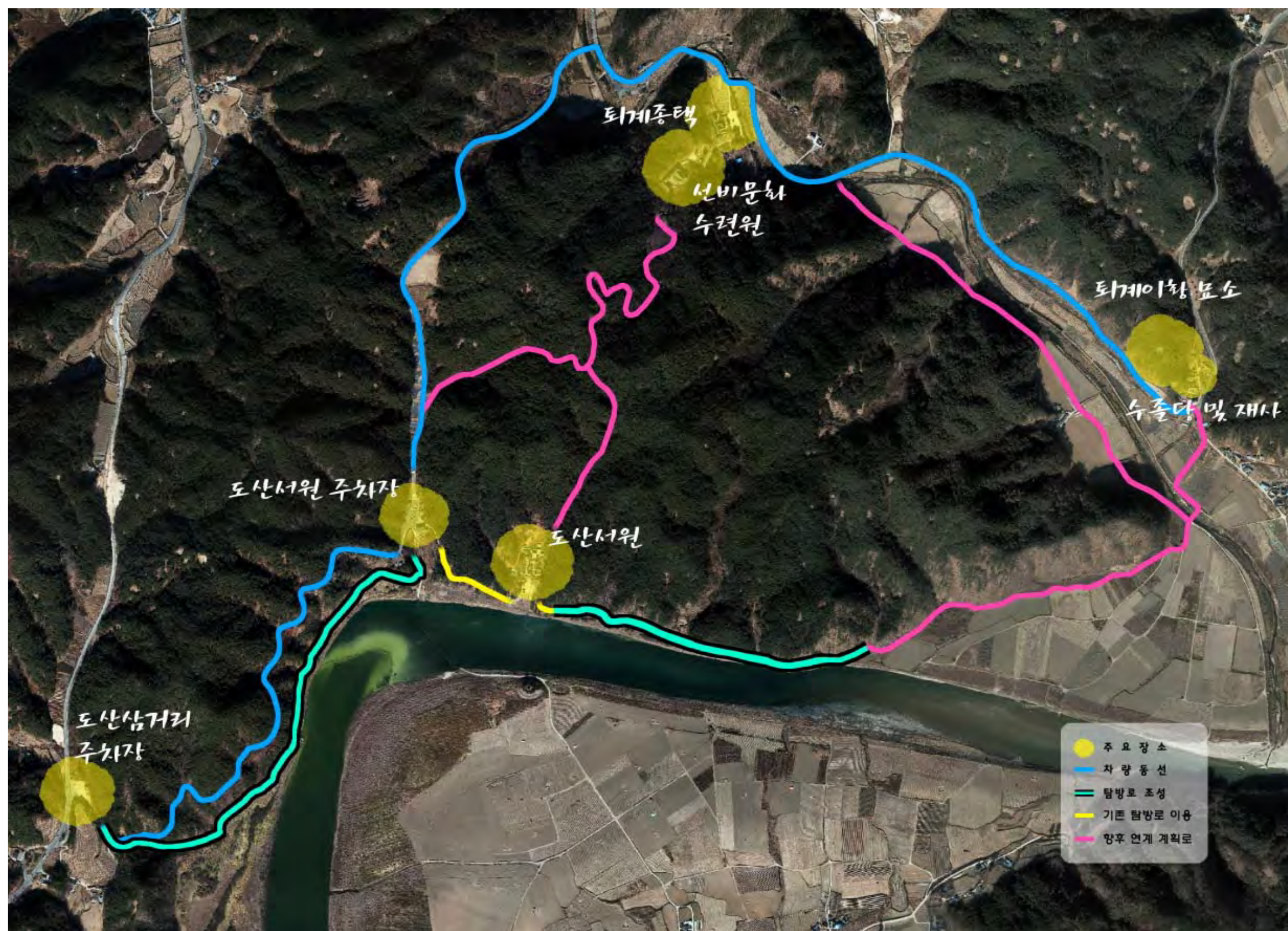
안내판 사례



안내판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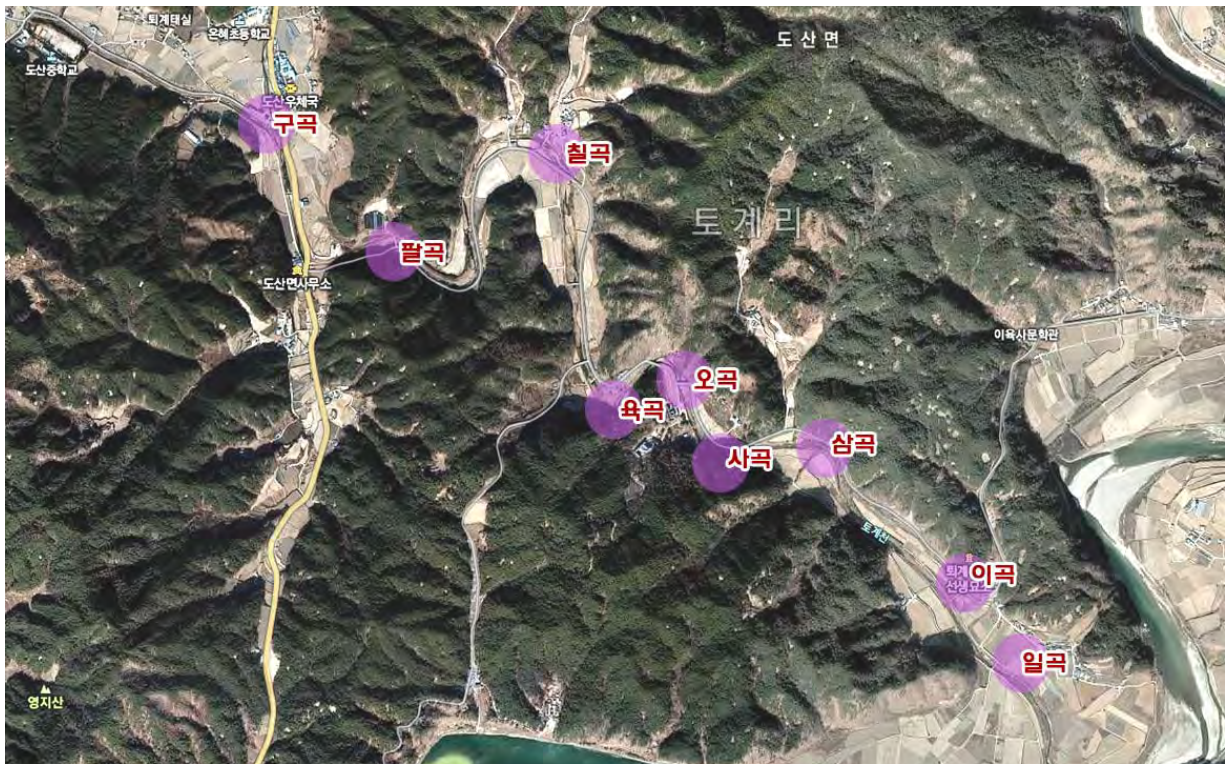
안내판 예시 상세



접근로 및 향후 연계로 계획도

2) 향후 연계 방안

- 향후 연계 방안으로 도산서원 동쪽에 있는 퇴계이항 묘소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30호 수졸당 및 재사까지 동선을 확보하고 다시 도산서원 북쪽에 있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42호 퇴계종택으로 연계한다. 퇴계종택에서 다시 선비문화원 뒤편 산길을 이용하여 도산서원 주차장에 도달하는 순환 탐방로 개발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퇴계구곡이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퇴계구곡 중 오곡에 해당하는 구곡의 쌍계까지 동선을 연결하면 퇴계구곡의 복원이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제1곡	제2곡	제3곡
사련진絲練津	양진암養眞庵	죽동竹洞
제4곡	제5곡	제6곡
장명뢰鏘鳴瀨	고등암古藤巖	임부동林富洞
제7곡	제8곡	제9곡
양평羊坪	청음석淸吟石	쌍계雙溪

퇴계구곡 위치

- 또한 퇴계선생이 청량산을 찾아서 학문을 닦거나 사색을 할 때 즐겨 찾던 오솔길로 독산, 월명암, 벽력암 등의 기암절벽을 끼고도는 낙동강의 풍광과 고산정, 농암종택, 퇴계종택과 묘소, 이육사 생가와 문학관 등의 유적이 어우러진 문화유적 답사 길인 '예던길'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하여 퇴계선생과 농암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하고 학문을 나누었던 역사성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자원으로 모색가능하다.



예던길 안내도

3. 주변정비계획

3-1. 유물전시관 이건

- 현재 옥진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한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당시 유물의 보관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건립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그 위치나 재질이 도산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 보완책으로 도산서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전통건축양식의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도록 한다.
- 유물전시관의 건립대상지로는 도산서원 조망권 밖에 있고 도산서원의 경관 저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동선상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주차장부지 인근에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옥진각 정비안

3-1-1. 1-A안 : 도산서원 진입 부 광장

- 시사단 및 선착장 진입로에서 조망하였을 경우 경관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1층은 증축이 가능하나 지하 1층의 증축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지하공간의 활용이 떨어짐
-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시 소요되는 공사비 및 관련시설설비, 담당인력보충으로 인한 예산 소모가 발생함

1) 1안

- 현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외관으로 전통건축양식으로 교체하고 1층은 증축하여 유물전시관 및 매표소, 지하 1층은 관리사무실 및 지원시설들을 계획하도록 한다.

- 장점
 - 도산서원의 진입 부 광장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 관리, 통제에 용이
 -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공사비가 경감
- 단점
 - 시사단 및 선착장 진입로에서 조망하였을 경우 경관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1층은 증축이 가능하나 지하 1층의 증축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지하공간의 활용이 떨어짐

2)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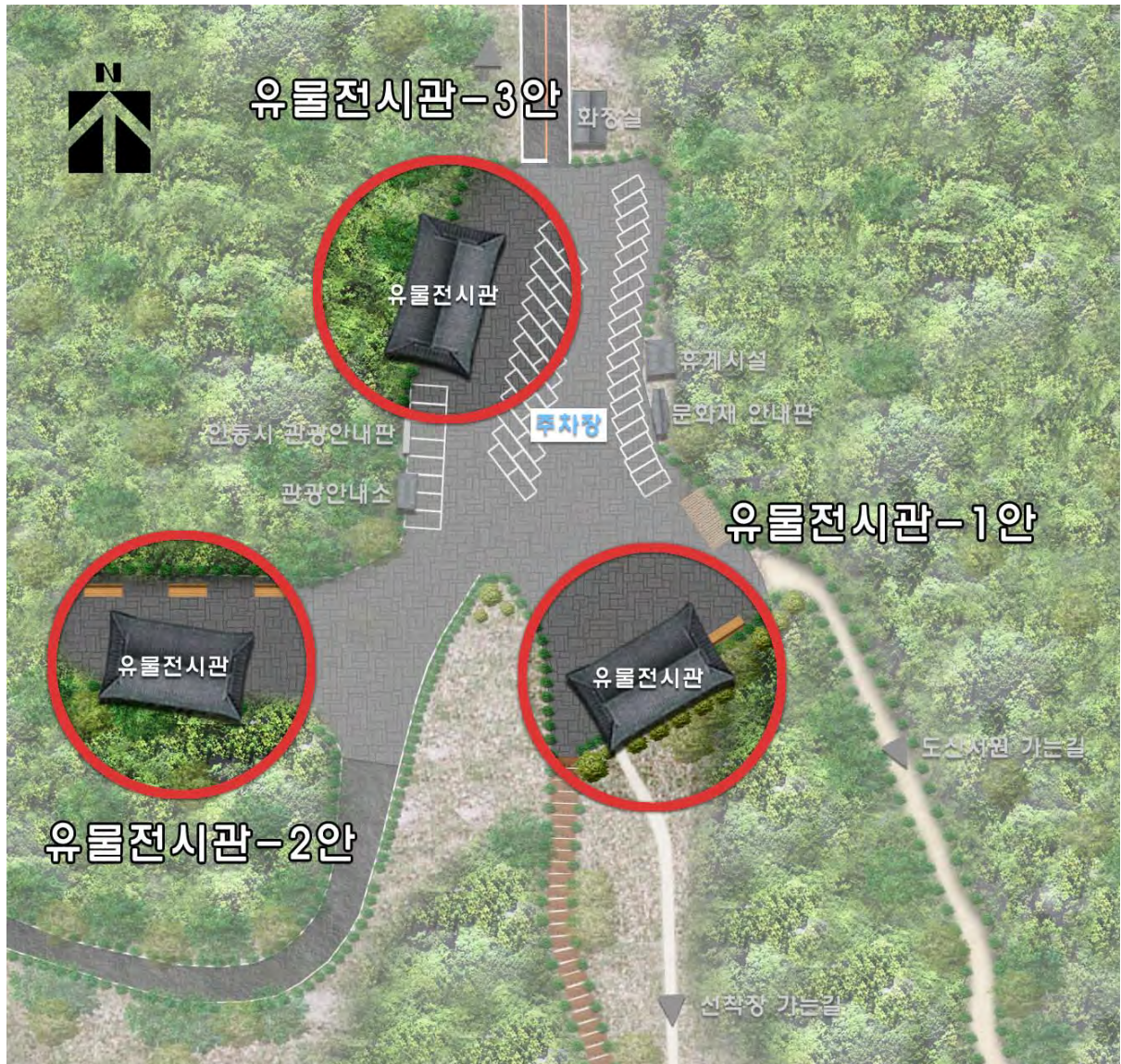
- 도산서원 진입로 좌측 주차장을 이용하는 안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한다. 대지가 낮은 구릉지에 둘러싸이는 형식으로 채광에 불리하나 은폐·차폐되어 경관에 저해 영향이 미미하다.

- 장점
 - 전체적으로 은폐·차폐되어 주변 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이 미미
- 단점
 - 동쪽을 제외하고 3면이 둘러싸여 있어 채광조건이 좋지 않음

3) 3안

- 현재 상가건물을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유물전시관을 기존 상가들을 유물전시관 안으로 흡수하는 안으로 기존의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던 상가를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용이하다.

- 장점
 - 주차장의 안쪽에 위치하여 시사단 및 선착장 진입로에서 조망을 회피할 수 있음
 -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로 인한 주변 경관 개선
 - 모든 행위가 한 동의 건물에 이루어지므로 관리·감독이 용이
- 단점
 - 1안과 2안에 비해 건물의 규모가 커짐



도산서원 진입부 광장 계획안



유물전시관 사례_임고서원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사례_옥산서원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사례_장성 필암서원 원진각



유물전시관 사례_소수서원 사료관

3-1-2. 1-B안 : 분천리 입구 주차장

- 안동 시내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도산서원으로 진입 시 좌측에 있는 도산삼거리 주차장 부지로 이건하는 안이다. 서원과 이격하여 관람객이 도산삼거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유물전시관을 관람한 후 도산서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점

- 서원영역과 이격되어 있어 경관보존에 유리
- 현재 활용되지 않는 도산삼거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 관람객이 도산주차장 북쪽으로 진입하였을 시 전시관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서원과 유물전시관 사이의 거리가 멀어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3-1-3. 2안 : 철거

- 현재 옥진각을 철거하는 안이다. 현재 도산서원의 책판, 목판 일체를 한국국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옥진각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한국국한진흥원에 위탁한다. 그리고 현재 옥진각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역사, 인물에 관한 내용은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한다.

- 장점

- 유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됨
-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지 않으므로 공사비 및 인력보충, 시설설비로 인한 예산 소모가 없음

- 단점

- 관람객들의 볼거리가 사라지게 되며 교육적 차원의 관람자원이 축소됨

3-1-4. 결론

- 자문회의 및 보고회 결과 1-A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A안을 토대로 향후 시설계획을 통하여 규모 및 전시유물을 결정 후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3-2. 고직사 철거

- 보수정화사업 당시 건평 59.2㎡의 시멘트벽돌조 양기와 지붕으로 신축하여 본래 상·하고직사에 기숙하던 고직이를 이주하게 하였으며, 옥진각 서쪽 담장 밖에 지어졌다. 도산서원 영역 밖에 지어졌지만 도산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거한다.



고직사 현황1



고직사 현황2

3-3. 소방방재시설 정비

3-3-1. 현황

- 도산서원의 소방방재시설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주기적으로 진압훈련을 통하여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CCTV와 불꽃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등으로 24시간 감시를 통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3-2. 방재 시설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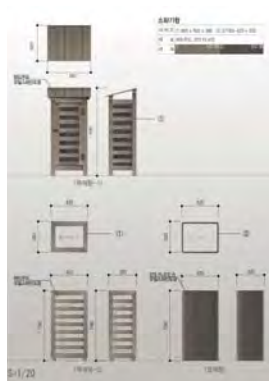
- 문화재에 대한 방재법규 강화로 도산서원의 소방용 설비, 화재감지기, 도난방지장치와 같은 시설 강화와 피난경로 확보,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출화방지 대책마련, 방재·안전 교육과 같은 방재 기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법적 검토 안	법적 검토 적용 안	
	방재 시설 부분	방재 교육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 안 수립 •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장치 설치 • 문화재 안전점검, 방재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방재의 날(2월 10일) 활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 설비 보완 • 화재감지기 설치 • 출화방지 대책 마련 • 도난방지장치 설치 • 피난경로 확보 •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 방염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교육 실시 • 관광객 화재안전교육 • 방재 매뉴얼 구축

방재시설 법규 검토

3-3-3. 방재용 설비 보완

- 옥외 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 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다)에서 하나의 호수접속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는 건물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며,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소화전 및 소화기를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정비한다.



소화기함 설치 예시



소화전 정비 예시



소화전 정비 예시



소화기 정비예시

3-3-4. 방재용 첨단 설비 도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이 다른 건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막설비, 협소한 탐방로나 소화전의 분사범위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소방장비 등의 시설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월정사 적광전 수막설비



이동식 소방장비

3-3-5. 정기적 안전점검·교육 필요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가스통, 아궁이, 연통, 전기배선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설비는 교체하고 방재에 취약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수한다.
-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훈련을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진압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한다.

3-4. 관람편의시설

3-4-1. 정비원칙⁵⁵⁾

1) 순응의 원칙

■ 순응의 디자인

- 지형, 건물의 형태 등 경관적 특성에 순응하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서원이 지닌 지형적 특성 및 선이 살아있는 기와지붕 등에 순응하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은폐의 디자인

-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돋보이게 하는 은폐하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돌출되는 배치, 형태, 색상 등을 지양하여 서원이 가진 익숙한 이미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돌출이 없는 은폐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2) 간결의 원칙

■ 간결의 디자인

- 기능을 최우선한 장식적 디자인을 최소화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 과도한 장식요소는 감소했던 유교문화인 서원의 이미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장식요소는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 절제의 디자인

- 제거하고 통합하여 공간점유를 최소화하는 절제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 시설물 설치로 인해 문화재로의 조망이 방해되거나 혼잡한 전통서원의 이미지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통합하고 제거하여 절제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3) 소통의 원칙

■ 소통의 디자인

- 지역성 표출보다는 누구나 이해 가능한 소통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 한국인만이 알 수 있는 픽토그램 등은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디자인을 연출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소통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 인지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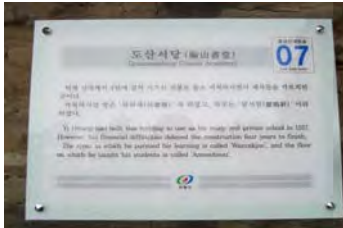
- 문화재가 구별되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문화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거나 모방하는 디자인이 아닌 문화재와 조화로운 시설물로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55)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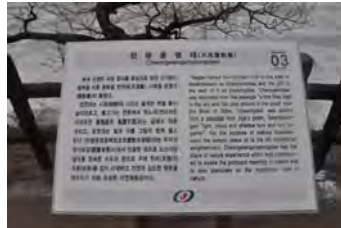
3-4-2. 안내판 정비

1) 현황

- 도산서원의 정보시설은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이 있으며 문화재안내판의 경우 노후하고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종합안내판과 안내판, 이정표는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에 참조하여 정비한다.



도산서당 안내판



천광운영대 안내판



시사단 안내판



종합안내판



진입로 초입 이정표



서원 내부 이정표

2) 정비 계획

■ 종류

- 문화재안내판의 기본적인 종류는 해설 안내판과 종합 안내판으로 구분한다.
-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안내판은 도산서원 진입부인 주차장영역에 설치한다.
- 임시 안내판 및 금지 안내판 등은 필요에 따라 적정 수량을 설치한다.

■ 수량

-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 안내판만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안내판은 과감하게 생략한다.
- 문화재 규모 및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분석에 따라 적정의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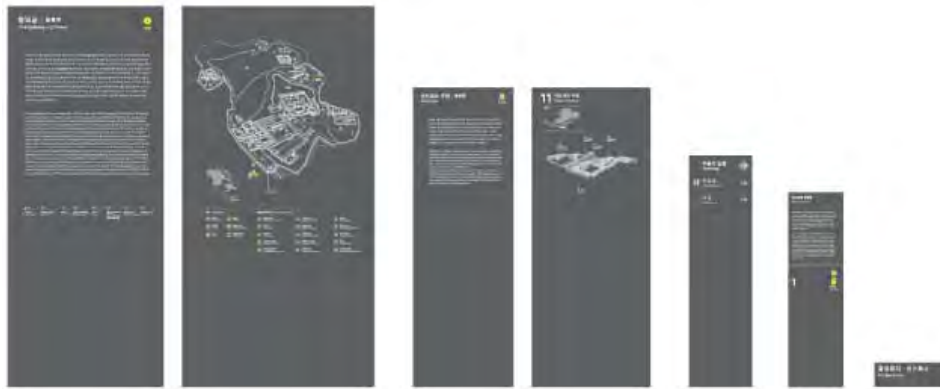
권역통합사례(화엄사문화재안내판)



안내판 설치규모 예시

■ 크기

- 안내판은 휴먼스케일을 지향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 문화재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를 결정한다.
-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유적지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경관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의 안내판 크기

■ 형태(외형)

-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유적이나 건축물 자체가 돋보이도록 한다.
-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과거의 안내판 형태를 지양하고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크기와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해당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달리 적용하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성격이 유사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전통문양, 한옥 등의 구상적 모티프를 안내판 형태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길찾기 안내판 예시-1



길찾기 안내판 예시-2



개별 안내판 예시-1



개별 안내판 예시-2

■ 색상

- 색상 스펙트럼 분석(계절별)을 통해 대상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도산서원의 전통이미지 색상예시

-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주로 사용한다.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red, yellow)등의 원색 사용은 가급적 최소화 한다.
- 2~3가지 색상 이내로 최소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 동일유적 내(內)라도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판 색상예시(궁궐)



안내판 색상예시(사찰)



안내판 색상예시(왕릉)

■ 소재(재질)

- 대상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경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 문화재의 관람 및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한다.

-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를 사용한다.



궁궐(두랄미늄)



사찰(두랄미늄, 적송)



왕릉(적동)



해설안내판(두랄미늄), 기능성안내판(목재)

-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 사용 시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마감을 한다.
- 단일 유적지 내 안내판은 동일 재질을 사용하되, 상이한 기능을 가진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 설치 위치

-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동선과 연계하여 안내판을 설치한다.



개선 전



개선 후

- 각각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의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단, 건물의 관람행위에 방해가 될 때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관람객 동선상 적정 위치에 설치된 사례

■ 안내문안 작성

- 안내문안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건축구조 및 형식 등 전문적인 용어를 지양하며 학습 목적의 전문적 지식은 리플릿 등 타 매체를 통해 보완한다.
- 다국어 표기로 인한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안은 2개 국어(국/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기타 외국어는 리플릿 등 타 매체로 대체)
- 최종 작성된 국어 문안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 레이아웃 구성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한다.
-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 외국어 표시

- 외국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하며, 의역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 외국어 병기는 영어로 한정하고, 기타 언어는 안내 책자로 보완한다.
- 필요할 경우 영어 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 디자인 예시⁵⁶⁾



정보 안내판 예시



행사정보 안내판 예시

56)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안내판 정비위치

■ 정비계획

- 현재 도산서원 내부의 문화재 해설판 및 종합안내판은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서원과 이질적인 디자인과 색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산서원에 관련한 모든 종합안내판, 문화재 해설판, 이정표를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비한다.
- 안내판의 위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위치에 정비한다.
- 도산서원 진입로 재현이 이루어지면 탐방객들의 원활한 탐방을 위하여 구간별로 이정표를 설치하여 도산서원 주차장으로 유도한다.

3-4-3. 편의시설 정비

1) 현황 분석

- 도산서원은 주차장영역에서 중문까지 약 400m정도로 진입로 곳곳에 휴게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도산서원 앞마당에 낙동강과 시사단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휴게의자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 상가건물과 관리사무소 배면과 주차장영역 문화재안내판 좌측에 퍼걸러가 설치되어 있다.



휴게의자 현황



퍼걸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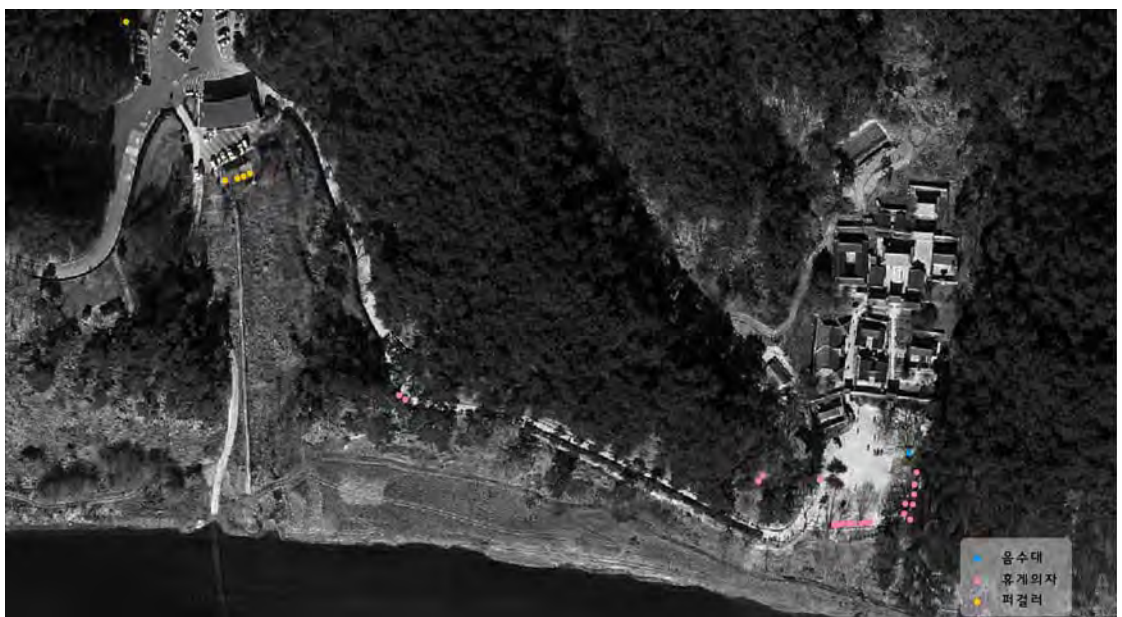
- 도산서원 앞마당의 음수대와 휴지통의 경우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재료로 설치되어 있다.



음수대 현황



휴지통 현황



편의시설 분포현황



훼손된 휴게의자



훼손된 휴게의자

2) 정비 계획(안)

- 현재 휴게의자와 퍼걸러 등 휴게시설은 주차장에서부터 도산서원 앞마당까지 고루 분포 되어 있으나 훼손된 휴게의자가 다소 존재하며, 퍼걸러는 주변 경관과 이질적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 대부분 훼손되고 파손된 휴게의자를 문화재청에서 2010년에 발간한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비한다.
- 음수대와 휴지통 역시 도산서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비의 표상인 대나무 형태나 혹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자연석으로 정비한다.

■ 배치에 관한 사항⁵⁷⁾

-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기초부가 지면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며, 공간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규모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하게 큰 규모 또는 연속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점유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주변에 조화롭도록 하고, 과도한 규모의 장식요소의 설치를 지양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으로 하며, 한 공간 내의 시설물간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고, 정체성 없는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개방감있는 형태를 연출한다.
- 도산서원 앞마당에서 시사단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에는 양방향 착석할 수 있도록 폭이 넓은 것으로 디자인 하되 부분적으로 등받이를 적용한다.

■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 훼손된 벤치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벤치들을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자연석 및 나무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도산서원의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57)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가이드라인_문화재청(2010년 발간) 중 발체

방지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유산 품격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을 규제하여 통일감을 연출하고 기타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톤의 사용으로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의 색채를 최대한 사용하여 조화로운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휴게의자 사례



휴게의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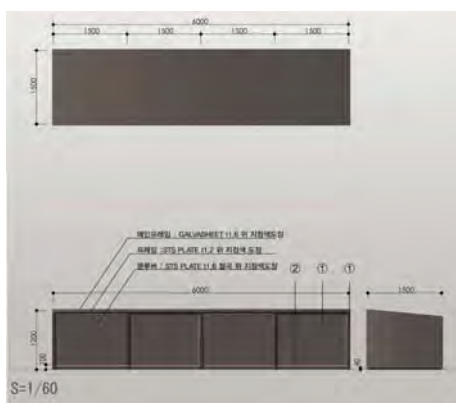


음수대 사례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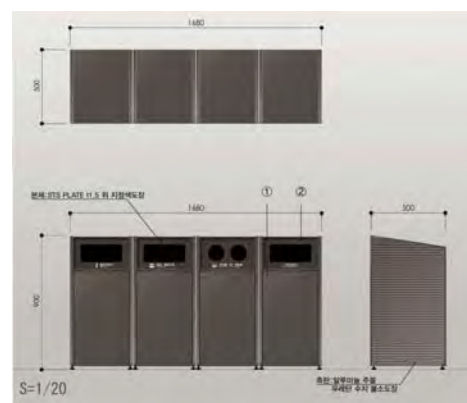


음수대 사례_2

- 디자인 예시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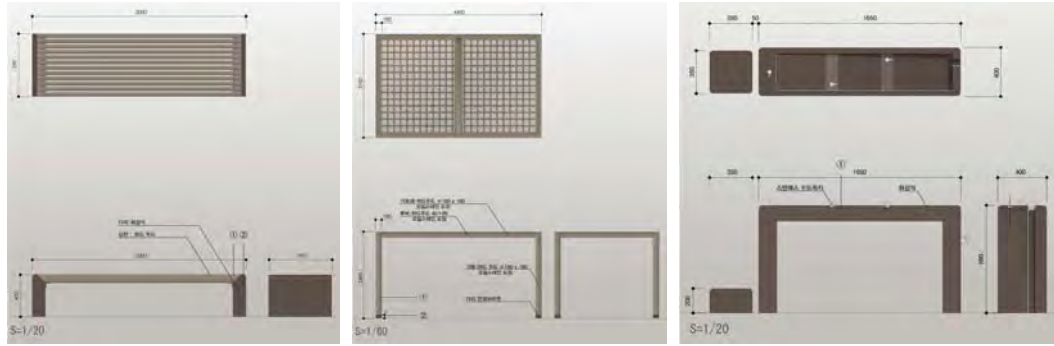


휠체어보관대 예시



휴지통 예시

58)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가이드라인_문화재청(2010년 발간) 중 발체



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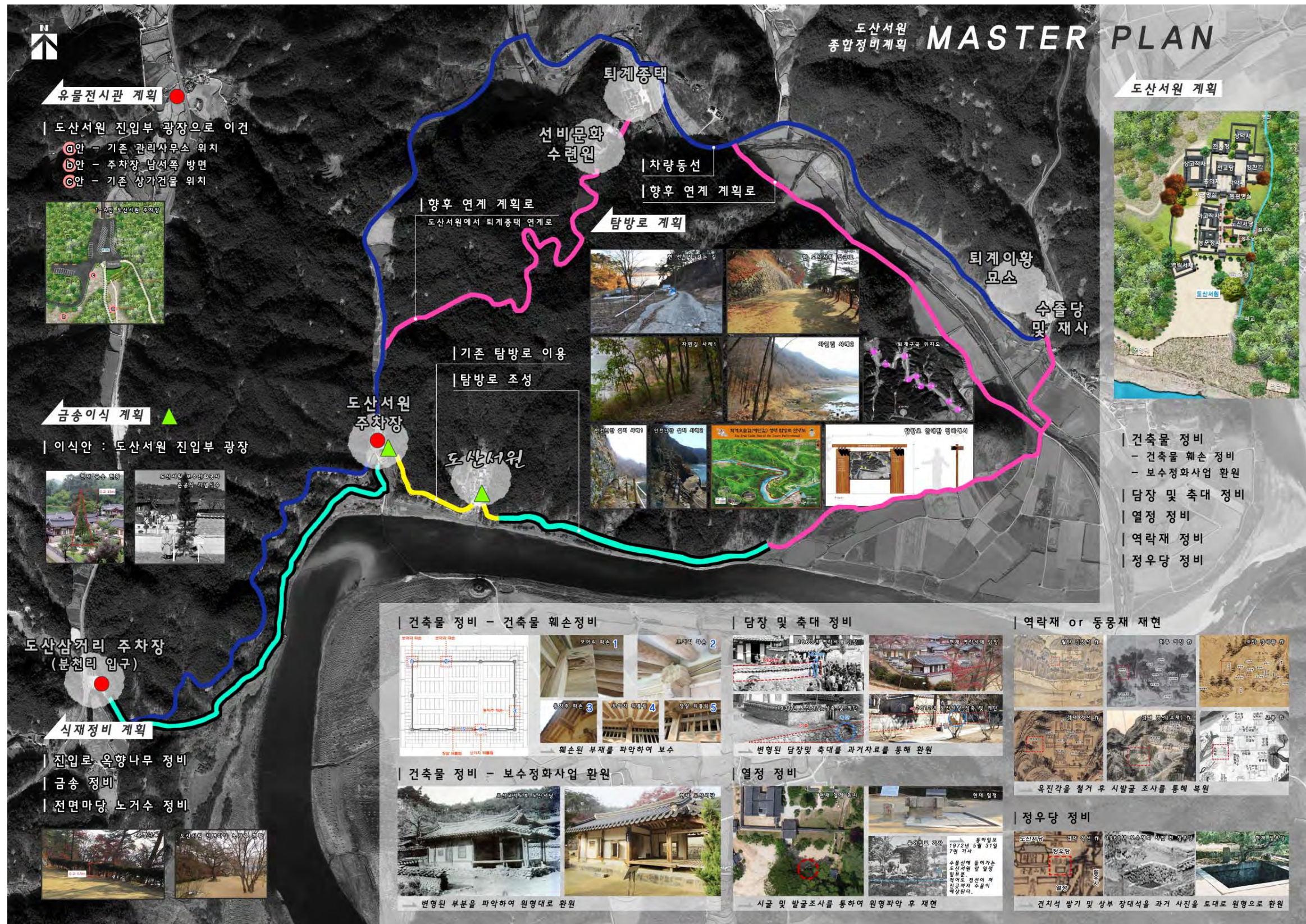
퍼걸러 예시

음수대 예시

■ 결론

- 대부분 훼손되고 파손된 휴게의자 전체를 문화재청에서 2010년에 발간한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예시사진을 참고하여 정비한다.
- 편의시설의 설치 위치는 현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내구성과 도산서원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음수대와 휴지통 역시 도산서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비의 표상인 대나무 형태나 혹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자연석으로 정비한다.

4. Master Plan





정비계획 이전 서원 내부 전경



정비계획 이후 서원 내부 전경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3. 관리 현황종합
4. 활용계획
5. 홍보방안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1-1. 기본방향

1-1-1.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목적

- 관리 및 활용의 구체적 목표는 문화재청에서 2011년 발간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서원을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⁵⁹⁾,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태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목표는 서원의 건축물 보존관리, 고문서(서적)과 자료의 보존관리, 경관 보전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의 목표

대상		구체적 목표
서원의 관리 및 활용	건축물	· 서원의 보수 및 정비 활용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고문서(서적)	·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에 대한 사항
	자료	· 서원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경관	·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 대한 사항
	안전	· 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1-1-2. 계획의 범위

-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계획의 범위는 기존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⁶⁰⁾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59)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문화재의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자산, 기풍과 저서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특히 고고학적 유적이나 역사적 건축물, 시가지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은 예술적, 창조적 우수성에 관한 것이며 진실과 진짜를 강조하고 있다.<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베니스 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등 참조

60) 문화재청, 201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자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 서원은 건축, 제향, 인물, 고문서, 의례 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종합적 문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보존·관리는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⁶¹⁾인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주형 문화유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서원의 보존이란 단순히 원형 그대로 문화적 상징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완전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보존관리실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현재 서원의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서원보전의 목적을 제시하고 보존 시행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원의 보존관리주체⁶²⁾는 법이 제시한 기본 목적과 시행의 틀을 적용하여 보존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로 서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크게 법에 의해 임명된 주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1)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발췌한 용어로 하회·양동 마을과 같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주형 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62) 현재 도산·병산서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 [서원 운영·존현의례(운영위원회), 양사(선비문화수련원), 시설관리(관리사무소-안동시), 서책·목판보존(한국국학진흥원)]

3. 관리 현황종합

3-1. 관리주체

- 도산서원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서원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로 서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 경상북도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등의 도정 업무를 통해 서원관리와 활용 정책 및 지원에 관여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비해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취한다.
 - 안동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도산서원의 보전관리를 위임 받은 대표적 관리주체로 서원의 유지보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공적 성격의 보전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동시는 조례에 따라 도산서원관리사무소를 두어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객 관리를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다.
 - 서원에는 도산서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외부 단체인 부설양사기구와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등과 연계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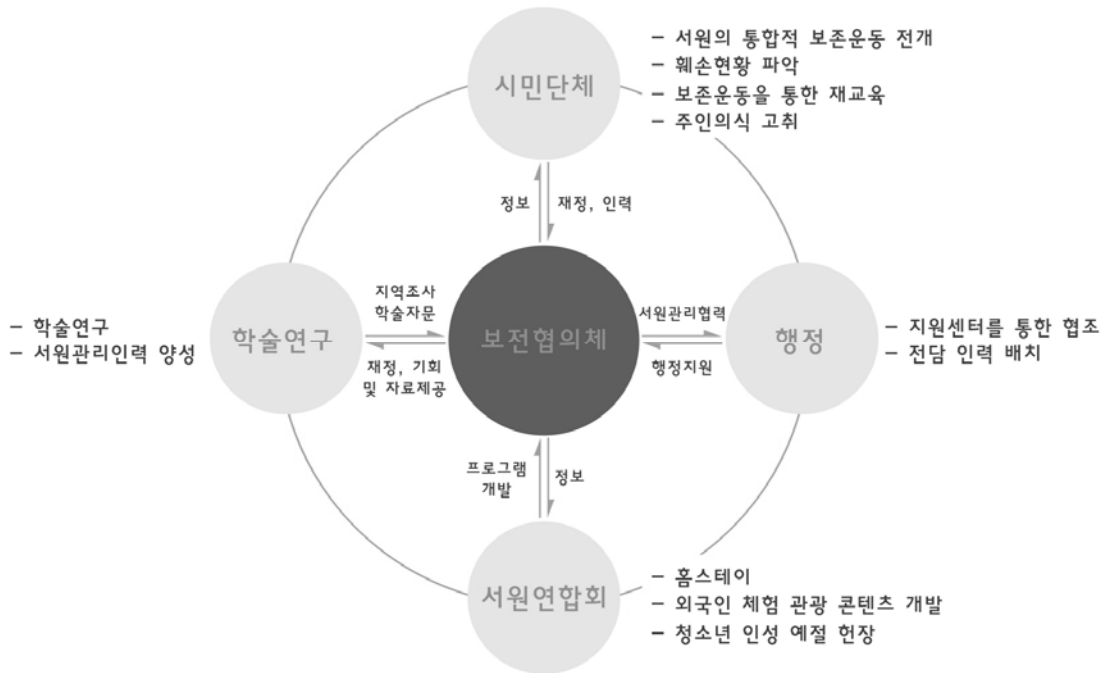
3-2. 서원관리체계의 보완점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도산서원의 보존관리는 사적으로서 개념적으로는 광역보존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보존 및 복원행위는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점적보수에 집중되고 있다
 -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하향식 보존관리 및 점적·물리적 문화재 중심의 유지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에 위치한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 국가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설계에 한정되어 서원 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어렵다.
 -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원 관리의 불편이 있고 전통경관의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3-3. 준공공단체 수립의 제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안동시,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전문가 및 단체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구상하여, 도산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지자체-서원 운영위원회>의 순환적 체계에서 도산서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재구성 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단체인 도산서원 보존협의체를 수립하여 관련 집단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원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존협의체를 활용한 협업네트워크 구상

- **시민단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관리, 홍보에 대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원 보존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술연구** : 도산서원의 학술연구 조직으로는 부설양사기구,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촉지 유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술연구 조직을 활용하여 도산서원 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보존, 관광, 홍보 등 서원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존협의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행정** : 해당 지자체인 안동시청 내에 보존협의체 지원센터를 두고 서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한다. 공무원과 보존협의체의 긴밀한 행정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원관리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서원연합회** : 선비문화를 체험하도록 홈스테이를 겸한 외국인들의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들의 인성예절 현장기능, 가족단위의 새로운 여가문화 제공 등을 통하여 서원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담당한다.

3-4. 준공공단체 수립의 전제 조건⁶³⁾

- 서원의 보존·활용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협의체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주체, 대상, 주체와 대상이 구성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그 기본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다.

요소	기본 목표	내용
주체	활동의 모체가 되는 조직의 확보	역사유산의 이해 / 활동의욕
	행정의 협동체계	교육 / 주체 활동의 지원 / 계획의 수립
대상	정주환경의 지속성	생활환경 보전 및 향상 / 경제적 기여
	문화유산의 지속성	자원의 발굴 / 재인식 / 보존
	방문객 만족도의 지속성	환대의식 / 정보제공 / 쾌적한 환경
체계	정보공유와 협동체계 정비	정보 및 정책결정의 공유
	수익환원 체계 형성	관광 수익에 의한 자원 확보
	모니터링의 결과 반영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요소

3-4-1. 주체

- 도산서원의 보존 및 활용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조직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는 보전협의체가 중심역할을 하며, 향후 필요한 실무인력과 공무원, 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을 확보한다.
- 보존·활용에 관련된 서원의 조직은 서원의 역사유산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서원관광의 계획과 실무에 의욕적인 활동을 보일 것이며, 서원 외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얻는다.

3-4-2.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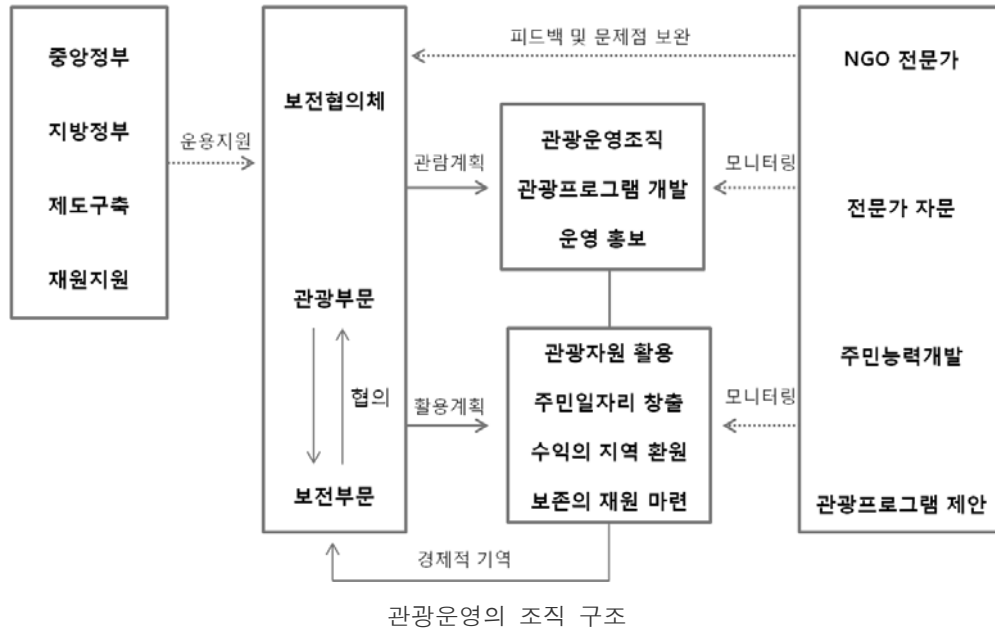
- 도산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고유의 문화적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서원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현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쾌적한 환경과 환대 속에서 방문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3-4-3. 체계

- 도산서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원의 보전협의체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장하고, 관람 자원을 관리할 운영조직을 갖춘다.

63)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Appendix2. 보전관리 계획), 문화재청, 2008년, 인용 및 활용

- 보존협의체 내에서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원에서 진행할 관광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서원의 보존·관리프로그램과 운영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할 예산을 뒷받침할 관람수익을 확보하는 경제 구조를 갖춘다.
- 정부는 보존협의체와 관람운영조직이 조직되어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보존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초기 재원을 지원한다.



3-5. 준공공단체 조직 구성

3-5-1. 보존협의체

- 보존협의체는 도산서원 운영위원회가 보존·활용에 대한 초기 기획과 내용을 제안하고 향후 보존협의체 내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보존협의체는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결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행한다.

	주요 활동 내용
보존협의체	연간 관광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관광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주요 보직의 임명
	관광운영조직의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 인력의 채용, 모니터링 결과의 승인
	관광객의 방문에 응대하는 방법과 태도, 권리 등에 대한 주임 교육
	관광 수익의 관리 및 서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보존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

3-5-2. 관광운영조직

- 관광운영조직은 관광 실무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도산서원은 운영위원회가 관광운영조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보전협의체가 운영위원장(Director), 학예사(Curator) 2~3인, 사무국장(Office Manager), 감사(Auditor)를 임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다른 인력은 학예사와 사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고용하도록 한다.

	주요역할
관광운영조직	연간관광 계획의 작성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관광 운영인력의 고용과 교육
	관광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
	방문객 서비스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이용 요금 등의 징수
	폐기물, 하수, 쓰레기 등의 처리
	방문객의 안전확보, 문화유산의 보안, 훼손 예방 및 관리
	관광 홍보

관광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3-5-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보전협의체와 관광운영조직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주요내용	상세내용
문화재청	재원 지원	서원환경의 개선,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 전시시설 설치
	교육 지원	직원들에 대한 문화재 관련 교육 실시
	제도 마련	관광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제도 마련
경상북도 안동시	인력 지원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광 담당공무원, 보전협의체와 연계
	행정 지원	관광운영조직 구성, 법적 자격 취득에 관한 행정적 지원
	교육 지원	서원보존·활용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능력개발에 대한 기획 및 교육 지원
	재원 지원	초기 운영 재원 지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4. 활용계획⁶⁴⁾

4-1. 도산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도산서원은 제향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로서 각각의 공간에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건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상덕사,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전교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 동재, 서재, 상·하교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프로그램 유형		활용공간	활용내용
교육의례	제향	전교당, 재실, 전사청	퇴계이황과 월천조목에 대한 향사
전통교육	한자교실	전교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예절교실	전교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답사	동아리 학습	전교당, 재실	취미나 학습 동아리 활동
	한옥 체험	재실	전통 한옥 휴게 체험
	현장 답사	도산서원 주변 경관	도산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관광 및 홍보	전시 공간	도산서원 전시관 및 영역	도산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4-2. 활용 방안⁶⁵⁾⁶⁶⁾

4-2-1. 개요

-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지역의 교육, 장서, 문화의 중심역할을 했던 도산서원이 개화기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서원이 지니고 있던 일부 기능이 소멸되었으나 서원 주변의 경관과 함께 서원 내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건립 당시 혹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의 경우 변화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정받지 못한 서원은 주변경관 및 서원 내 경관이 크게 변형되고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사적 제 170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64)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인용 및 발췌

65)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0) 정리·인용 - 이해준, 김덕현, 이왕기

66) 서원·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연구 - 국가브랜드위원회

- 도산서원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한국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서원의 교육기능과 장서 기능은 소멸되고 향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존하여 전승해야하며, 도산서원만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사회에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발해야 한다.

4-2-3. 도산서원의 유교문화 활용 소재

1)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 수백년간 지속되어져온 서원의 전통문화유산은 긴 세월동안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의 유·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도서출판, 의례, 청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공간까지 잘 남아 있다. 서원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기능을 되살리고, 퇴계학파의 총본산인 도산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도산서원의 출신인물, 제향인물을 대상으로 문화제 또는 유교문화 종합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도산서원만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적의 진정성을 이용하여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재구성화 할 수 있다.
-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가 있으며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산서원을 보고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답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산서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도산서원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교육적·체험적·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성사의 거점 기능

- 도산서원은 퇴계학맥과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며, 퇴계이항과 월천조목이라는 성리학자의 제향, 한국 서원 교육, 역사 변천의 증거물, 거점공간으로서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향의례의 전통

- 도산서원의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이들 의례는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지역 정체성 확립

- 도산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데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서원의 강학례의 원래 목적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러한 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도산서원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통 교육 공간의 유산적 가치

- 도산서원의 대표적 기능인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원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원 자체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6) 활용가능 콘텐츠

- 긴 세월을 이어온 교육, 의례, 운영기록문서
 - 학칙규약의례 : 원규, 절목, 계(약)헌, 홀기, 의례
 - 교육, 성적기록 : 강안, 강회록, 고강록, 장서, 출판
 - 재정, 운영 전답안, 노비안, 명문
 - 창건, 연혁기록 : 상량문, 창건통문, 중수기, 중기, 수리기, 공적비
 - 학맥, 정치 : 통문, 소청, 시도기, 고왕록, 시회 등
- 도산서원의 문화적 재활용은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며, 서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원형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입하여 박제화 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3-3. 도산서원의 활용

1) 퇴계학

① 개요

- 퇴계이황선생은 동방의 주자로 칭송받을 만큼 이황의 학문은 당대뿐 아니라 이후 조선 사회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며 확산되면서 이른바 퇴계학파라는 조선조 학파의 큰 맥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대만, 미국, 중국 등 국경을 초월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퇴계학의 본향 안동과 주자학의 발상지 중국 무이산지역 간의 학술교류, 현재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학술대회에는 안동대 퇴계학연구소와 경북대 퇴계연구소도 함께 참여한다.
- 도산서원의 장소성과 경관은 한국적 정서와 자연, 건축관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교육행사장으로 활용한다. 특히 서원주변의 자연경관과 명소를 서원과 연계한다면 활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퇴계와 주자가 만들었던 인문적 가치와 문화가 오늘날 그 발상지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또 그것의 앞으로의 건설적 전망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그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일반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린다.



퇴계학 관련 학술대회-1



퇴계학 관련 학술대회-2

② 개발내용

▪ 퇴계문학회

- 도산서원에서 퇴계학 학술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접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학술동아리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한다. 연구 동아리, 연구회, 학회 등의 고전 강독, 지역문화, 인물사상 특강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한다.
- 도산서원의 천연대, 운영대, 시사단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문화강연장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산서원에서 개최하는 강회로 세계적인 심포지엄 주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도산서원의 「퇴계의 철학사상」, 「퇴계학」 등이다. 경관이 수려한 도산서원의 산수 경치를 실

경 무대와 배경으로 하는 가설 산수환경극장, 도산서원의 서사(敍事)와 경관을 결합하여 서원의 문학적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 전국규모 퇴계문학회 개최

- 퇴계학당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퇴계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된다.

▪ 퇴계학 문화교류

- 퇴계학에 관련하여 한·중·일의 관련 사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퇴계학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발표 등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후 퇴계의 일생을 하루에 돌아보는 답사일정을 진행한다. 퇴계가 출생한 퇴계태실, 젊은 시절 공부했던 청량정사, 서울에서 낙향한 후 지은 계상서당, 한서암터, 도산서당, 및 퇴계 묘소를 차례로 둘러보며, 퇴계의 사상이 형성되고 심화되었던 공간을 답사한다.
- 이와 같은 행사를 도산서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퇴계 이황선생의 산실인 도산서원을 더욱 널리 알리며, 아울러 참석객 및 관람객을 도산서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

▪ 퇴계학 전파

- 퇴계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고전강의, 전통특강 등을 분기별로 개최한다.
- 퇴계학을 연구하는 사람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며, 퇴계학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선생이 남긴 학문을 토대로 선비정신 및 마음가짐, 행실 등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한다.



서원 강연-1



서원 강연-2

▪ 21C 도산별시

- 시사단은 조선 정조 때 지방별과(地方別科)를 보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 1792년(정조 16) 왕은 퇴계 이황(李滉)의 학덕을 추모하여 규장각 각신 이만수(李晩秀)를 도산서원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또한 그곳 송림에서 과거를 치러 영남 인재를 선발하게 했는데, 이때 응시자가 7천 명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단을 모으고 비와 비각을 세웠다. 이와 같이 과거 조정에서 실시하였던 도산별시를 시사단에서 시행된 점을 착안하여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종목을 도산별시로 재현한다.



백일장 사례-1



시짓기 대회 사례-1

2) 도산축제

▪ 도산서원 문화축제

- 서원산수(書院山水) 강회(講會) 및 산수실경(山水實景) 극장 개최
- 교육의 특징을 이용하여 문화교류의 기능과 부합되는 교육행사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교육 문화 활용 프로그램은 각 서원의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하여 서원에 알맞게 프로그램화 한다. 서원 강당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므로 강당 앞마당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원 공연사례-1



서원 공연사례-2



서원 공연사례-3



서원 공연사례-4

- 음악회를 통한 도산서원 역사문화 보급
- 문학회를 통한 도산서원 역사문화 보급
- 전시회를 통한 도산서원 역사문화 보급
- 기타 도산서원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행사

▪ 도산서원 사액재현

-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국왕의 추천을 받는 사액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도 제외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전통적인 서원이다.
- 도산서원이 사액받을 당시(1561년(명종 16))의 모습을 재현하여 관람객들과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 퇴계학파의 본산인 도산서원에서 사액을 재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사액재현 예시-1



사액재현 예시-2



사액재현 예시-3



사액재현 예시-4

▪ 도산서원 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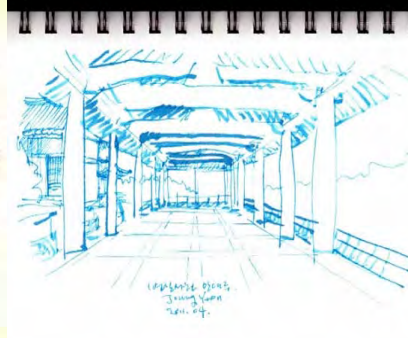
-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며, 퀴즈의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도산서원과 전통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퇴계이황선생의 업적, 출판저서 등의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한다.

▪ 도산서원경관의 발굴과 사진, 스케치대회

- 도산서원 주변경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사진, 스케치대회를 개최한다.
- 계절별, 기후별로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골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시사단, 천연대, 운영대 등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형성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서원 스케치 사례-1



서원 스케치 사례-2



서원 스케치 사례-3

3) 도산서원체험

▪ 가자 조선시대 학교로! (서원 스테이 및 체험학습)

- 옛 조선시대 도산서원으로 입장 : 원생으로 생활을 통하여 서원문화에 대한 경험을 쉽게 도와주고, 선비의 교육방법과 내용, 학문세계를 학습하며 동시에 동·서재의 기숙과 생활을 체험한다.
- 도산서원의 생활모습 전반 재구성 : 서원에서의 규약, 교육과정, 시험, 의례 등을 직접 체험하며 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한다. 그리하여 서원의 강학적 전통을 복원하고 관련분야 대학 등과 연계, 교육과정과 교과서 운영의 실제, 재정 인적구조, 규약 등을 재구성 한다.
- 임원이 서원의 원장과 임원으로 참가 : 도산서원에서의 역할과 의무, 생활양식, 규약 등을 알려주고 수행하게 도와준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설 프로그램의 종합운영 및 특화 이벤트
 - 기존 운영되던 도산서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원생의 서원생활을 영상이나 연극화하여 상영하고 각종 의식행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조선시대 서원의 하룻밤(서원스테이)
 - 서원이 갖고 있는 강학과 제향만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건축, 음식, 예절 등의 복합적인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서원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통역사와 함께 동재, 서재, 고직사에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도산서원스테이의 종류

<p>체험형 서원스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학체험, 제향체험, 서원의 건축 이야기 · 동재 · 서재에서 숙박 · 할인심방, 예절교육 및 선비 체험을 통해 힘든 일정이지만 일정을 거치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과 효과 제공
<p>휴식형 서원스테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9곡을 따라 풍광체험 · 아름다운 도산서원의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며, 기초적인 규칙과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의 의미를 부여



서원 예절 교육 사례-1



서원 예절 교육 사례-2



소수서원 선비 체험 사례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시각	탁본, 서예체험 등
후각	자연, 화초 등
청각	제향의례, 강학체험 등
미각	다도, 음식만들기, 식사 등
촉각	목판제작, 망기쓰기 등

• 조선시대의 도산서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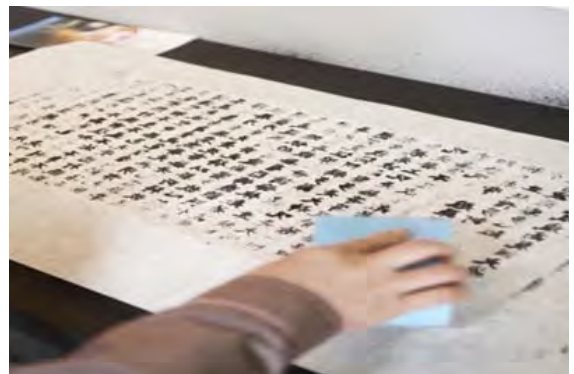
- 도산서원에서의 유교교육, 의례 체험, 서책 및 목판 제작
- 인물유적 탐방 : 도산서원에 제향 된 퇴계 이황선생의 생애와 관련 유적 탐방
- 유교문화 유물의 재인식 :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 운영의 실제 모습(관련자료 동원) :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출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을 포함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소장 자료 전시 및 학습장 개설

서원스태이 주요 교육 과목

교육과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현장탐방	· 도산서원 · 선비문화유적지 · 지역문화유적지 · 유교문화박물관	· 안동지역에 형성된 선비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선비 정신, 선비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정신을 이해
의례체험	· 상읍례 · 알묘례 · 도산서원 의례 · 사당참배 · 제례체험	· 도산서원에서 정식으로 실시하는 서원의례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을 이해하고, 제사의 의미와 현대에 맞는 제례 문화의 습득, 부모와 조상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깨닫게 함
선비와의 대화	· 원로와의 대화 · 종택체험(종손과의 대화)	· 원로의 경험담을 통한 삶의 지혜 터득, 종택 종손으로부터 정신적 자산과 선비의 일상, 정신세계를 이해함
체험수련	· 망기쓰기 · 활인심방 · 도산서원학습체험 · 종가기거문화 체험 · 생활예절 · 옛 자녀들의 놀이와 공부 · 가족 공동생활 체험 · 서원 입원 재계	· 옛 선비들의 체력단련 · 정신수양 · 학습일상 체험, 종가의 일상생활 · 예절 · 공동체 생활 체험을 통해 선비 정신의 경건함이 깃든 생활을 이해함
강의 · 토론	· 선비문화 사례 발표토론 · 선비와 학문세계 · 선비정신과 현대교육 · 선비문화이론(기초) · 선비와 생활예절 · 예비 스승과의 대화 · 유학과 선비문화 · 선비 정신과 문화 · 안동 종택 문화 · 선비 정신과 자녀교육 · 가족관계 알기	· 선비정신과 문화, 특색, 선비정신의 근저인 유학의 정신을 탐색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 등을 토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선비정신이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인지함
영상수련	· 다시 태어난 퇴계 · 기록문화 보존관리 · 선비의 참모습 · 철수의 시골여행	· 영상을 통한 선비문화의 이해



서책만들기 체험



목판체험-1



목판체험-2



목판체험-3

4) 퇴계선생님과 함께 걷기

▪ 서원문화 유적답사체험코스 개발

- 여가를 활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유적 방문 시 효율적인 코스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방문객은 서원문화와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알릴 기회로 작용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원의 기능과 문화 성격별 유교문화재를 알리고, 서원유물을 통하여 서원의 가치를 재인식 시키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 지역별·의미별·주제별 코스 개발 : 서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 방문지로 차별화 하고 서원과 관련된 인물·성씨, 문화유적 기능별, 특화된 주제와 체험, 이벤트 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서원 인근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관련사건, 인물을 발굴하여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도록 한다.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사우, 정려, 인물유적,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퇴계 9곡 위치도



도산서원 주변 탐방로



연계로_예던길

• 서원관련 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제별 답사기행 기획

- 관련유적 : 도산서원, 재실, 상덕사, 퇴계 종가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그룹별, 연령별, 목적별로 적합한 답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연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며,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및 유교문화의 정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 홍보방안

- 도산서원은 이미 홈페이지 구축, 리플렛(leaflet) 및 행사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 도산서원을 소개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도산서원 기본 정보 안내하고 자체 행사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그 뿐 아니라, 안내 사진 및 추가 관광 정보를 담고, GPS를 통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각종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QR코드를 이벤트 등과 접목하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한다.
- QR코드로 접속하여 도산서원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도산서원 QR코드 예시

5-2. 도산서원 E-BOOK 제작

- 관람객들에게 서원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선 서원을 관람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서원의 역사, 사건, 인물 등을 기록하여 E-BOOK으로 제작한다. 또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재되어 있는 도산서원의 책판, 목판 등을 국역화하여 E-BOOK으로 제작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도산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산서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에 대한 사항을 월간지로 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개인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등에 탐방 수기를 올린 사람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BOOK 예시 1



E-BOOK 예시 2

Ⅶ.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2. 사업투자계획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 도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9개의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영남 유학의 총 본산으로서 한국 유학의 연원으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 사학기관으로서 건립 당시로부터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현재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영향과 현대적 변용을 고려한 종합정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 도산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해당 사적을 포함한 주변 자연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도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기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안동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장래 관광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종합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 관광수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수립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의 집약적 조성과 공간별 사업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도산서원 주변에서 이루어질 일부 개별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현상변경이 초래하더라도 무분별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서 유적과 조화로우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1-2. 단계별 추진방향

- 전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추진은 정비의 우선 순위 및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단 계	사 업 내 용	
1단계 (서원영역정비)	문화재정비	도산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관람편의시설정비	관람의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의 정비
2단계 (지원시설정비)	해당 문화재의 이해도모를 위한 시설 및 각종 관리·운영시설 정비	
3단계 (서원주변정비)	당해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수용하여 우수한 실행모델을 완성하고, 도산서원 외곽지역은 과거 도산서원 옛길 재현로 등 유적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보다 경내 환원 사업을 우선시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사업은 제반여건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기간구분은 민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단계별 구획을 실시한다.

구 분 의 기 준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식
사업소요시간
필수사업과 부차적인 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기준

1-2-1. 1단계 : 서원영역정비(2013년 하반기~2015년)

■ 서원영역정비 선정의 기준 : 최우선 시행사업

- 도산서원 내 유적보존과 직접 관련된 부분 및 보수정화사업으로 인한 변형부분
- 재원마련이 용이하거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사업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초기 추진단계 부터 시작

■ 서원영역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담장정비, 기단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및 기타(마당 및 굴뚝 등)
- 주변정비 : 석축정비, 금송이식, 몽천정비, 정우당정비, 열정정비
- 관람편의시설 : 음수대, 벤치 설치, 탐방로 정비,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야간조명시설 등
-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 실시
- 서원활용계획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용역 발주

1-2-2. 2단계 : 지원시설정비(2015년~2016년)

■ 지원시설정비 선정의 기준

- 1단계 연장선의 사업
- 유적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선행되어야 할 사업
- 재정조달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

■ 지원시설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유물전시관 이건 및 철거 : 옥진각 이건은 도산서원 진입 부 광장으로 확정하며, 추후 개별용역을 통하여 규모, 외형 등을 결정

1-2-3. 3단계 : 서원주변정비(2016년~2018년)

■ 서원주변정비 선정의 기준

- 서원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사업
- 재정조달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 서원주변정비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옛길 재현 : 옛길 재현로 조성
- 옛길 재현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함

단 계	항 목	사 업 내 용	비 고
1단계	건축물정비	담장정비	사고석 담장을 토석담장으로 환원
		기단정비	장대석 기단을 자연석 기단으로 환원
		지붕정비	막새기와 마감을 와구토 마감으로 환원
		단청정비	옛 모습대로 환원
		기타	마당 및 굴뚝을 옛 모습으로 환원
	주변정비	석축정비	내부 장대석 석축을 자연석 석축으로 환원
		몽천 정비	사고석 석축을 자연석 석축으로 환원
		정우당 정비	사고석 석축을 자연석 석축으로 환원
		열정 정비	시굴조사 후 원형 확인
		금송 이식	도산서원 진입부 관장으로 이식
	관람편의시설	음수대 2개소	
		벤치 10개소	
		탐방로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종합안내판 2개, 개별 안내판 19개, 이정표 5개
		야간조명 시설 설치	태양광 LED
2단계	유물전시관 건립	옥진각 철거	256㎡
		유물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
3단계	옛길재현	수물선 상부 옛 접근로 재현	총 거리 2.5km

단계별 정비계획

2. 사업투자계획

2-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전체사업의 일괄 실행은 불가하므로 시기별·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도록 한다.

단계별 추정사업비

단위(천원)

단 계	항 목	사 업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1단계	건축물정비	담장정비	높이 1.4m 길이 483m	m	810	391,230
		기단정비	440	m²	720	316,800
		지붕정비	110	m²	640	70,400
		단청정비	1	식	30,000	30,000
		기타	1	식	23,000	23,000
	주변정비	석축정비	높이 1.2m 길이 105m	m	640	67,200
		몽천 정비	길이 110m 2면	m	640	1,000
		정우당 정비	높이 1.8m 길이 12m	m	710	8,500
		열정 정비	1	식	10,000	10,000
		금송 이식	1	식	40,000	40,000
	관람편의시설	음수대	2	개	20,000	40,000
		벤치	10	개	350	3,500
		탐방로	폭 3m 길이 330m	m²	320	316,800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1	식	131,000	131,000
		야간조명 시설 설치	1	식	18,000	18,000
	활용계획	활용 프로그램개발 용역발주	1	식	80,000	80,000
	유물전시관 기본계획 및 설계	유물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1	식	110,000	110,000
2단계	유물전시관 건립	옥진각 철거	1	식	16,000	16,000
		유물전시관 건립	1	식	1,200,000	1,200,000
3단계	옛길재현	수물선 상부에 옛 접근로 재현	1	식	300,000	300,000
합계						3,173,430

- 투자비는 1단계(서원영역정비), 2단계(지원시설정비), 3단계(서원주변정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단계에서는 건축물정비, 주변정비, 관람편의시설정비를 추진하며 건축물정비에서는 23,000천원이 발생되며 내용으로는 담장정비, 기단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주변정비에서 226,500천원이 발생되며 내용으로는 석축정비, 몽천정비, 정우당정비, 열정정비, 금송이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람편의시설 정비에서 414,100천원이 발생되어 1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금액은 2,257,460천원이다.
- 2단계에서 유물전시관 철거 및 건립이 이루어지며, 각 16,000천원과 1,200,000천원이 소요된다.
- 3단계는 옛길재현계획을 실시하게 되며 총 소요비용은 300,000천원으로 책정된다.
- 따라서 총 공사소요금액은 3,313,230천원이 발생하게 된다.

부 록

1. 서원관계자 의견
2. 관계전문가 자문
3. 건축물 조사표
4. 사진자료
5. 학술 고증자료
6. 지도자료
7. 도면자료



1. 서원관계자 의견

1-1. 금송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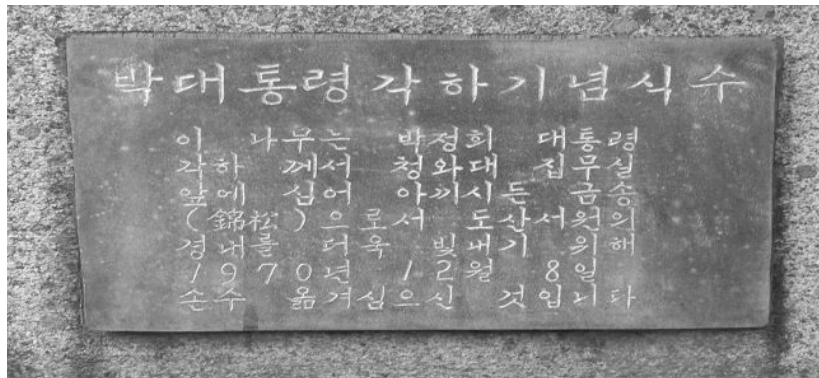
안동 도산서원 내 금송(금송) 이전 및 표지석 철거에 대한 「안동시 ·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의견

□ 경과과정

- 금송과 관련 지속적으로 일부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이전에 대한 의견개진
- 2011. 7. 20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 외 1명, 안동시에
“도산서원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철거” 신청
 - 철거신청사유
 - 1970. 12. 8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한 금송은 1972년 고사(枯死)
 - 현 금송은 1973년 4월 문화공보부의 지원으로 새로 심음
 - 기념식수 안내 표지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심은 것으로 표기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함
 - 차제에 2003년 문화재위원회에서 금송 이전에 대한 심의가 부결된 것은 잘못된 기록에 의한 것으로 재 심의하여 이전 검토

□ 현 상태

- 금송 현황
 - 위치 : 도산서당 앞
 - 크기 : 수고 13m정도, 흉고 직경 23cm. 장방형 형태로 생육
 - 수령 : 1973년 4월 식재 현 38년
- 표지석



□ 민원에 대한 안동시·도산서원운영위원회 의견

○ 금송 이전에 대한 의견

- 오늘날 기념식수는 역사적인 기념물로 인식됨,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무실 앞에 심어 아끼시던 금송을 도산서원에 옮겨 식수한 것은 그만큼 도산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다는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심은 나무는 고사되고 새로 심은 나무라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식한다는 것은 금송을 기념식수 수종으로 선택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 도산서원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내 표지석에 대한 의견

- 현 안내 표지석의 문안 내용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에 교체 설치
- 표지석 변경 문안

금송(金松)

이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무실 밖에 심어 아끼시던 것으로 1970년 12월 8일 도산서원 성역화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옮겨 심은 것이다. 그러나 1972년 고사되어 1973년 4월에 같은 수종으로 다시 심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종합의견

-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 유산” 등재(도산서원을 비롯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9개 서원)를 추진하고 있어,
- 대상 서원의 경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정비·복원 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접근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도산서원 금송 이전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에서 검토하고, 표지석은 교체 설치함.

도산서원 내 「금송」 보존 및 유지관리방향에 대한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및 퇴계선생 종손 의견

1. 「금송」에 대한 의견

○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연원으로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여 국가 지정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 금송은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평소 청와대 집무실 앞에 심어 아끼시던 나무로 1970년 도산서원 성역화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위해 식재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와 도산서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념식수 수종으로 선택 금송이 비록 고사되어 다른 나무로 다시 심은 것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와 대통령의 도산서원을 아끼고 사랑한 마음은 금송에 담겨 있기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표지석」에 대한 의견

○ 금송 안내 표지석의 설명문안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11. 09. 07

도산서원운영위원장 이근필(퇴계 종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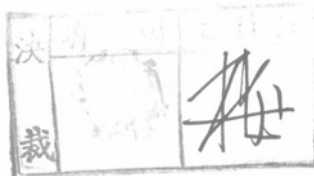
도산서원 내 『금송』이전 요구에 대한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의견

-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임
- 이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도산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 9곳을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세계문화유산등재 잠재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 그러므로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송 이전의 문제를 단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 따라서 현재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도산서원종합정비계획’에 금송 이전문제를 포함시켜 문화재 위원 등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원 내 금송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앞으로 확정될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의 결과에 따를 것임

2012. 07.

도산서원운영위원장 이 근 필

李泰源
이근필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 금송에 관한 의견

2. 관계전문가 자문

2-1. 자문의견서 (2012. 3.)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자문 의견서

도산 병산서원, 두 서원과 관련된 공통 권고 사항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의 일부 내용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완충구역 설정, 서원 경관의 보존계획 등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 팀과 조율하여 보고서 내용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내용 상호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의 서원 관리 체계 및 주체 등에 관한 사안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 팀과 조율하여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도산 병산서원의 관람편의시설 (문화재 안내판 등), 관리사무소 건립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 서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향후 서로 협의하여 작업을 할 것을 권고함.
- 우천 시 서원 경내 및 입구의 지면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도산 병산서원의 식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 관리 및 정비 방안을 총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함.
- 2013년 3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그리고 2013년 4월 18-19일 장성 필암서원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본 보고서의 목차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포함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에 향후 기존 건축물을 보수, 정비할 것에 대비하여 건물의 진정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지침 또는 원칙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신축, 추가할 경우 서원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안동 도산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최종안을 인쇄하기 1달 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을 권고함.

도산서원과 관련된 권고 사항.

- 도산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역락재, 동몽재, 정우당, 열정, 몽천 등)의 원형 복원 및 정비 방안은 학술대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함.
- 1969-1970년에 이루어진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으로 인해 변형된 바닥 포장, 계단, 건물 기단, 담장, 지붕 기와 등에 대한 원형 회복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도산서원의 유물관인 옥진각의 존치 여부와 이건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도산서원 일대의 경관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도산서당 앞 동남쪽 산기슭의 경관 (퇴계 생존시 조성한 정원)에 대한 고증을 하여 정비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열정이 위치한 일대의 지형 회복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도산서원 접근로 계획은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기 이전의 진입로를 기본으로 해서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도산서원에서 퇴계종택으로 가는 보행자 길을 정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
- 도산서원에서 낙동강 서쪽을 끼고 원촌마을로 이어지는 (강변) 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

자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2-2. 중간보고 검토의견 (2013. 04. 11 - 문화재청)

코아버퍼존 설정	이상해	• 완충구역 설정과 서원관리체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팀과 협의하여 조율하였으면 함
	이왕기	• 완충구역 설정 원칙의 경우 각 서원별로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등재팀과 함께 적용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영철	• 완충구역 설정은 허용기준과 충돌, 민원발생부분 등을 수렴 및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9개 서원과의 기본적인 지침 조율이 필요함
서원의 활용	이상해	• 서원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훼손 방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옥진각 이건	장현덕	• 옥진각 전면의 통로가 협소하고 콘크리트 건물은 경관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서원영역 밖으로 이건하는 것이 옳음
	이왕기	• 옥진각은 조망, 경관, 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며, 꼭 전통 건축물로 해야 하는 이유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서원 진입로	장현덕	• 주동선 주출입구 등을 원형으로 환원하는 것은 관리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사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검토 해주길 바람
원형보존의 기준	이왕기	• 진정성과 완전성의 시점을 찾아야함
현황분석	남효대	• 세세한 부분까지 현황을 조사해야함
옛길복원	이왕기	• 옛길 복원은 침수기에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는 방안마련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목차보완	장현덕	• 내용 수립은 잘되어 있으나, 구성을 짜임새 있게 보완해야 함
	남효대	•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의 지침과 목차 부분이 상이하므로 조정이 필요함
	안형순	• 종합정비계획 지침, 방향, 설정들이 부족하며 목차를 정리하여 내용 파악 및 지향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게 수정해야 함
관리방안	이상해	• 관리방안의 경우 개별서원별 관리 방안 및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2-3. 최종보고 검토의견 (2013. 05. 21 - 문화재청)

진입로 옥향 정비	장현덕	• 옥향의 수고를 낮게하여 정비
	남효대	• 옥향의 수종, 식재일, 수경 등을 조사
	이왕기	• 옥향의 단을 낮추어 이식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보호책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므로 불가함
코아버퍼존 설정	장현덕	• 완충구역의 경우 용역기간내 수립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적인 기초 자료 정도 까지 수립
	이왕기	• 완충구역 설정은 9개서원과 함께 진행해야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범위를 500m로 정하되 필요에 의하면 범위를 추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제안함
	김철주	• 완충구역의 경우 잠정목록 9개 서원을 별도의 용역에서 수립중에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과는 무관함
옥진각 이견	장현덕	• 옥진각은 이견하는 것이 합당하며, 도산서원 주차장 부지를 검토 • 현재 관리사무소는 본래 전시관의 용도로 지었으나 주변환경에 의해 관리사무소로 사용
	이왕기	• 원칙적으로 이견하는 것으로 확정, 추후 실시설계를 통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견위치를 결정
	이해준	• 도산서원의 성격과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전시관에 들어갈 유물 등을 분류해야 함
	남효대	• 유물전시관의 세부적인 전시목록 등을 산출해야하며, 산출자료를 토대로 면적, 전시방안 등이 도출됨, 그리고 평당 단가, 산출 근거 등이 함께 수록되어야 함
금송 이식	장현덕	• 금송의 경우 도산서원 주차장 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왕기	• 금송의 경우 도산서원 주차장 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타당함
서원의 진정성	이왕기	• 진정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원형으로 복원하는 부분의 현실적인 정비 범위 설정이 필요함 • 서원이 가지고 있는 형상 등의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변형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남효대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장대석으로 변형된 부분을 50년이 지난 지금 원형으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성을 찾는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가 진정성인가?
	박소현	• 서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장현덕	• 서원의 원형시점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해준	• 건물 한 동을 짓는다고 진정성을 찾는 것이 아님, 꼭 건축으로만 생각 하지 말고 역사를 참조해야함

동몽재 복원	장헌덕	• 동몽재 or 역락재는 우선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사단 정비	이왕기	• 석축을 정비할 시 수몰되었을 때의 내구성에 대한 지속방법을 파악해야 함
	이해준	• 시사단 정비는 60년대 사업에 다시 손댄다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본래 단 높이를 수몰시 상부만 조망되는 높이로 정비함
문중 협의사항 수록	남효대	• 문중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라
	장헌덕	• 관련 문중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함
단계별정비계획	박소현	• 단계별 정비계획을 더욱 세분화 해야함
활용계획	박소현	• 활용적인 측면이 부족하며,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해준	• 현황조사 자료가 활용과 연계되지 않았음, 또한 활용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음 • 외주 발주 시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시계획, 활용방안 등의 원고를 받아 참고해야함
정비계획에 관한고찰	박소현	• 정비계획은 계획 컨셉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전의 보수 및 계획은 그 당시의 최선으로 행하였을 것임
	김철주	• 사적과 세계문화유산의 정비계획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세계문화유산과 관계없이 사적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함 • 우리나라 사적정비계획에서는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대한 원형에 대한 고증, 원형 회복으로부터 진정성을 찾으려 노력해왔음
	장헌덕	• 용역을 시행하기 전 용역팀과 문화재청의 세미나,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남효대	• 종합정비계획은 주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분산을 위하여 사업주체를 설정해야함
마스터플랜 제시	장헌덕	• 정비 전과 후의 비교 자료를 제작하라
타 서원 사례조사	남효대	• 다른 9개 서원의 정비사례를 참고해야함
기타	박소현	• 현황조사는 충분히 잘 했으나 정리가 필요함, 현재 관람객 이용추이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이용행태 등을 파악해야함,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남효대	•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정은 역사보존지구의 분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름
	손상락	•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후 수립안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하고 싶음, 도출된 안을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2-4. 문화재청 보완지시 내용(2013. 08. 22)

보완지시내용	반영내용	반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정비계획을 명확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하도록 함(현황사진, 정비 전·후 배치도 등)도산서원 진입로, 식재 정비, 방재시설, 안내판,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현황사진, 정비 전·후 배치도를 보완하여 보고서 수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댐 도산면 수위 관측자료 등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도산서원 전면마당 지반높이 복원 및 접근로 재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현황, 수위관측표 및 수몰예상도를 추가·보완하여 보고서 수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활용계획을 지양하고, 도산서원(병산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서원(도산 및 병산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활용계획 수립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3. 건축물 조사표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보를 제210호			
지정년월일	1963. 01. 21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5량가, 익공, 팔작지붕, 출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2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주위환경			
건물	▶ 서원 내 관련 건축물 (배치도 참조)	수목 ▶ 없음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2개, 하론소화기 2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2009		소화시설 증설(소화총)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태양호	
	고 막 이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내부 우물마루, 외부 툇마루 / 상태양호	
	기 동	▶사각기동 / 배면 반침기동 하부 균열	
	창 방 / 평 방	▶상태양호	
	벽 체	▶없음	
	창 호	▶세살분합문,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없음	
가구부	공 포	▶익공 / 상태양호	
	보	▶상태양호	
	도 리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상태양호	
	천 장	▶내부 우물반자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상태양호	
	기 와	▶상태양호	
단청	단 청	▶내부 : 모로단청 / 단청 바렘, 부분적 박리 ▶외부 : 모로단청 / 단청 바렘	
	벽 화	▶없음	
기타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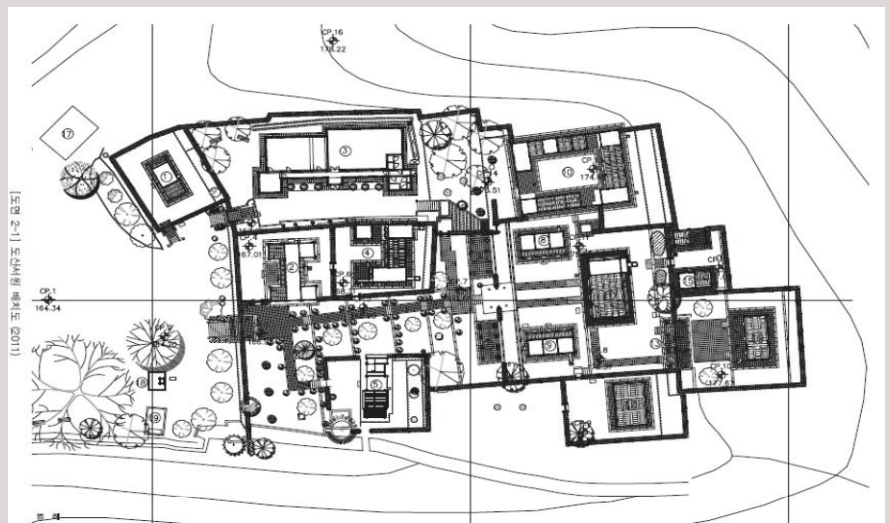
위성사진



문화재구역도



배치도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좌측면



사진 3_배면



사진 4_기단 및 계단



사진 5_초석



사진 6_상부 전돌마감



사진 7_정면 가구부상세



사진 8_우측협칸 가구부 상세



사진 9_내부 가구부상세



사진 10_현판



사진 11_반침기동하부 파손현황



사진 12_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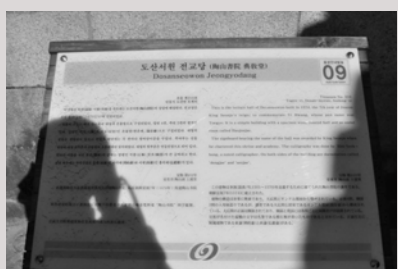


사진 13_문화재안내판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상덕사삼문

| 보물 제211호 |

지정년월일	1963. 01. 21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5량가, 민도리, 팔작지붕, 출처마 3량가, 민도리, 맞배지붕, 출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2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주위 환경

건물	▶ 서원 내 관련 건축물 (배치도 참조)	수목	▶ 없음
----	------------------------	----	------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 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2개, 하론소화기 2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2009			소화시설 증설(소화총)

조 사 결 과 - 상덕사			
기단부	기 단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대양호	
	계 단	▶장대석 계단 / 상대양호	
축부	초 석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대양호	
	고 막 이	▶전면부 - 회마감, 좌, 우, 배면 - 고막이석 2매	
	내 부 바 닥	▶내부 우물마루 / 상대양호	
	기 등	▶전면 원기둥 그 외 사각기둥 / 전면 좌측 두번째 기둥 훼손	
	창 방 / 평 방	▶상대양호	
	벽 체	▶회마감, 배면 정간 당골막이 벽 부위 누수	
	창 호	▶세살분합청판문 / 상대양호, 내부	
	난 간	▶없음	
가구부	공 포	▶익공 / 상대양호	
	보	▶상대양호	
	도 리	▶상대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상대양호	
	천 장	▶내부 우물반자 / 상대양호	
	박 공 / 풍 판	▶상대양호	
	기 와	▶상대양호	
단청	단 청	▶내부 : 굿기단청 / 단청 바램, 부분적 박리 ▶외부 : 굿기단청 / 상대양호	
	벽 화	▶없음	
기타			

조 사 결 과 - 상덕사 삼문			
기단부	기 단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대양호	
	계 단	▶장대석 계단 / 상대양호	
축부	초 석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대양호	
	고 막 이	▶전면부 - 회마감, 좌, 우, 배면 - 고막이석 2매	
	내 부 바 닥	▶내부 우물마루 / 상대양호	
	기 등	▶사각기둥 / 배면 좌측기둥 훼손	
	창 방 / 평 방	▶상대양호	
	벽 체	▶회마감	
	창 호	▶판문 / 상대양호	
	난 간	▶없음	
가구부	공 포	▶민도리 / 상대양호	
	보	▶상대양호	
	도 리	▶상대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상대양호	
	천 장	▶연등천장 / 상대양호	
	박 공 / 풍 판	▶상대양호	
	기 와	▶상대양호	
단청	단 청	▶내부 : 굿기단청 / 단청 바램, 부분적 박리 ▶외부 : 굿기단청 / 단청 바램, 부분적 박리	
	벽 화	▶없음	
기타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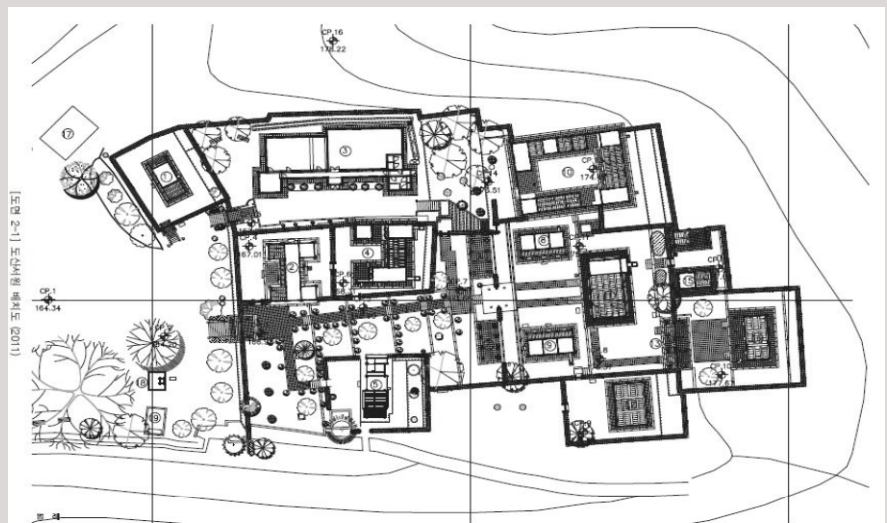
위성사진



문화재구역도



배치도



현 황 사 진 - 상덕사



사진 1_정면



사진 2_기단상세



사진 3_계단 상세



사진 4_기동-대량 접합부



사진 5_가구부 상세1



사진 6_가구부 상세2



사진 7_배면 당골막이벽 누수현황



사진 8_기동 훼손현황

현 황 사 진 - 상덕사 삼문



사진 9_정면



사진 10_배면



사진 11_우측면



사진 12_내부가구



사진 13_심방목 상세



사진 14_배면 좌측기둥 훼손현황

도산서당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눈썹지붕, 흙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전면 토석담, 축·배면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없음
배수시설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없음
안내판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외부 분말 소화기 2개, 하론소화기 2개	방재시스템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없음	전기시설	▶없음
가스시설	▶없음	기타시설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89			도산서당 보수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대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대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대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 내부 우물마루, 외부 쪽마루 / 상대양호	
	기 동	▶ 사각기동 / 상대양호	
	창 방 / 평 방	▶ 상대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판문 / 상대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대양호	
	보	▶ 상대양호	
	도 리	▶ 상대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대양호	
	천 장	▶ 내부 연등천장 / 상대양호	
	박 공 / 풍 판	▶ 상대양호	
	기 와	▶ 상대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고색단청 / 상대양호 ▶ 외부 : 고색단청 / 상대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1



사진 2_전경2



사진 3_배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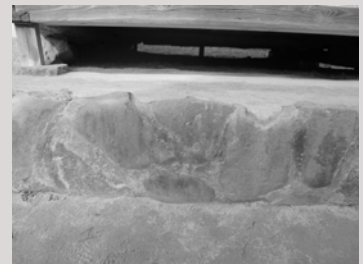


사진 6_기단상세



사진 7_초석



사진 8_가구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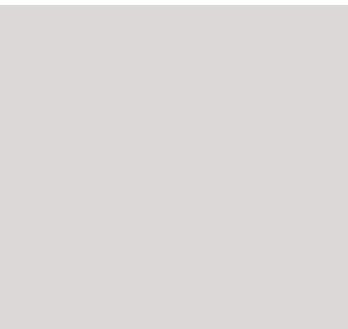
사진 9_가구부 상세



사진 10_대청



사진 11_합각부상세



역락서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 내부 우물마루, 외부 쪽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배면 우측보머리 균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배면



사진 3_좌측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기단



사진 6_바닥 마감



사진 7_쪽마루



사진 8_가구부 상세



사진 9_현판



사진 10_배면 좌측 보머리 균열



사진 11_지붕부 상세

농운정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고자형, 민도리, 맞배, 흘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3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일부 균열 및 양호	
	내 부 바 닥	▶ 내부 우물마루, 외부 쪽마루 / 상태양호	
	기 동	▶ 사각기동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정면



사진 3_배면



사진 4_정칸



사진 5_시습재



사진 6_관란헌



사진 7_초석상세



사진 8_관란헌 풍판



사진 9_협문1



사진 10_협문2



사진 11_시습재 현판



사진 12_관란헌 현판

상고직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ㄱ자형,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5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배면 보일러실 증축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배면 전기 배선 노출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상태양호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 좌측 배면 보일러실 증축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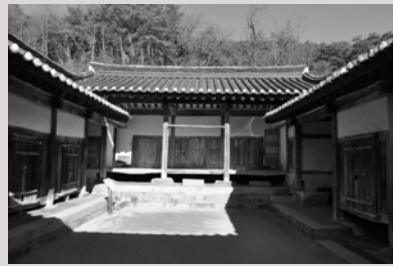


사진 2_정침



사진 1_좌익사



사진 4_대문칸



사진 5_우익사



사진 6_우익사 배면



사진 7_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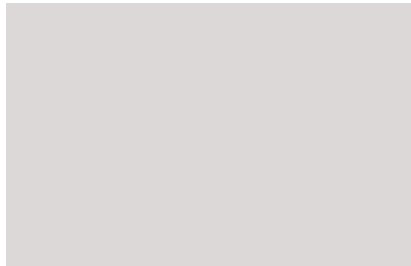
사진 8_가구



사진 9_합각부



사진 10_보일러실 증축



하교직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ㄷ자형,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4칸 / 측면 3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상태양호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배면 반침 좌측기둥 습해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정침



사진 3_좌익사



사진 4_우익사



사진 5_정침 상세



사진 6_기단



사진 7_초석



사진 8_기단 상부 마감



사진 9_디딤돌



사진 10_마루



사진 11_상부 가구



사진 12_배면 굴뚝



사진 13_부엌칸



사진 14_배면 전기 배선노출현황



사진 15_배면 반침 좌측기둥 습해현황

동광명실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누각형, 민도리, 맞배, 흘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배면 반침 좌측기둥 습해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 상태양호	
	난 간	▶ 계자 난간 / 상태양호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랜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정면



사진 3_배면



사진 4_누하부



사진 5_좌측면



사진 6_우측면



사진 7_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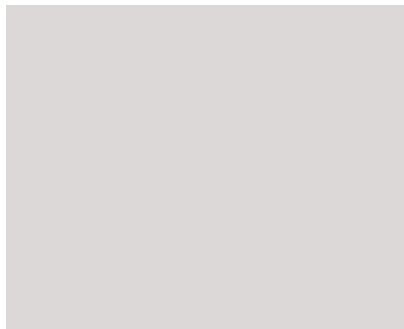
사진 8_초석



사진 9_상부마감



사진 10_난간



서광명실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누각형, 민도리, 맞배, 흘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대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배면 반침 좌측기둥 습해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 상태양호	
	난 간	▶ 계자 난간 / 상태양호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랜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좌측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누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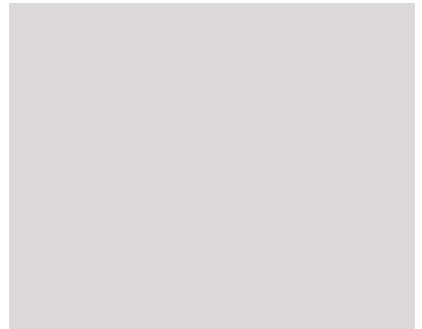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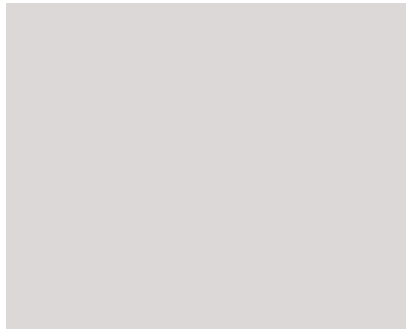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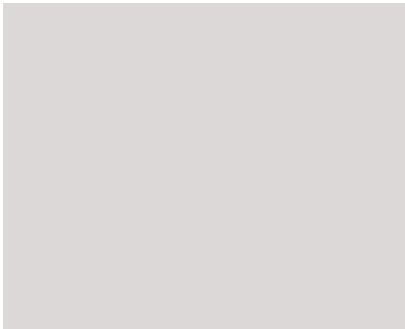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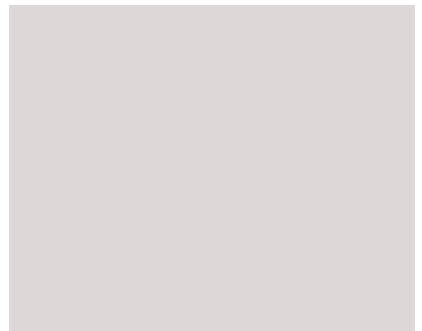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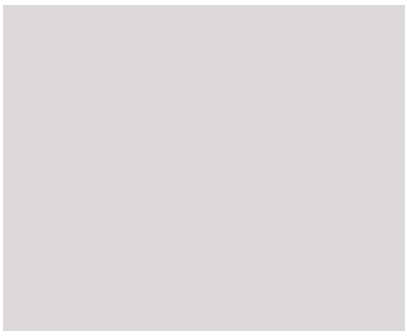
사진 6_기단



사진 7_지붕부



사진 8_창호



동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대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형광등, TV 등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상태양호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좌측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기단



사진 6_초석



사진 7_기단 상부



사진 8_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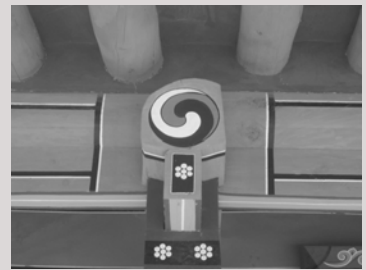


사진 9_가구



사진 10_고막이 현황



사진 11_현판현황



사진 12_경관 저해요소

서재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장판고 외)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 상태양호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창 호	▶ 세살분합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고미반자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우측면



사진 3_기단



사진 4_초석



사진 5_기단 상부



사진 6_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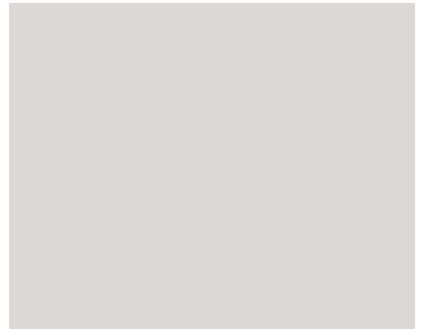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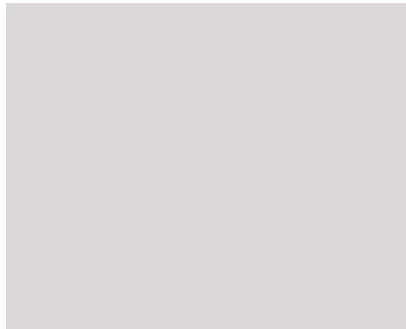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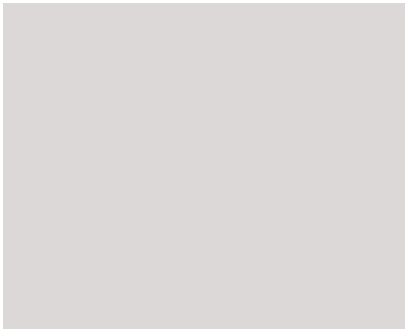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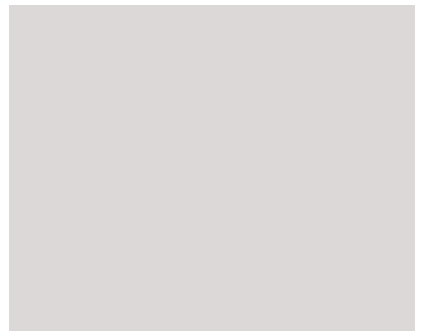
사진 7_현판



사진 8_전면가구



사진 9_퇴량



장판각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5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3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가공석초석 혼용 / 상태양호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내부 우물마루, 외부 쪽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판벽	
	창 호	▶ 판문, 살창 / 전면 정간 창살 뒤틀림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배면 우측 보머리 2개소 균열 / 일부훼손 ▶ 전면 좌측 두 번째 보아지 뒤틀림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고색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좌측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기단



사진 6_초석



사진 7_상부가구



사진 8_정칸 창살뒤틀림



사진 9_정칸 우측 보아지 뒤틀림



사진 10_배면 좌측 보 훼손



사진 11_좌측 두 번째 보 훼손



사진 12_좌측면 동자주 균열

전사청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2칸 / 측면 1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 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주 고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 전면 우측칸 일부훼손	
	창 호	▶ 세살창, 봉창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색바램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램	
	벽 화	▶ 없음	
기타			

조 사 결 과-제고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우물마루 / 상태양호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회마감 / 상태양호	
	창 호	▶ 세살창, 봉창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색바램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램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제기고



사진 3_주고



사진 4_제기고 배면



사진 5_기단 및 기단상부마감



사진 6_제기고 상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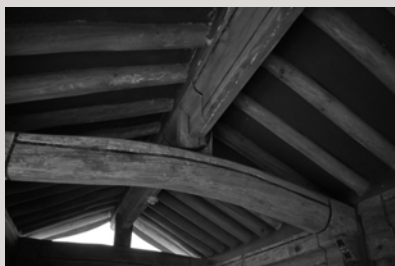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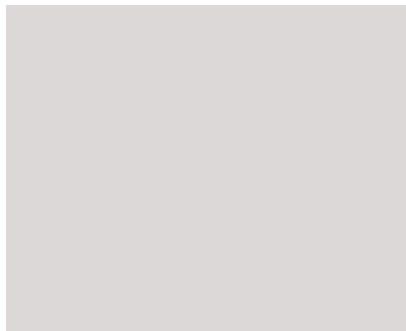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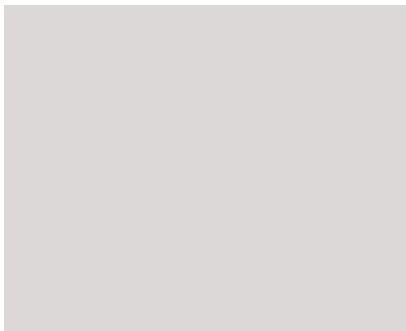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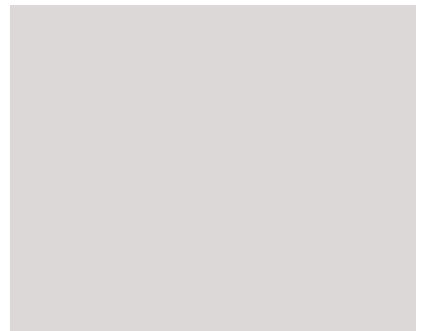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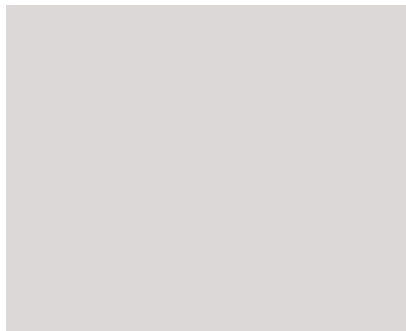


사진 8_주고 상부가구



사진 9_주고 벽체 훼손현황



진도문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게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1칸 / 측면 2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없음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없음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판벽	
	창 호	▶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정면



사진 3_배면



사진 4_우측면



사진 5_좌측면



사진 6_기단



사진 7_계단



사진 8_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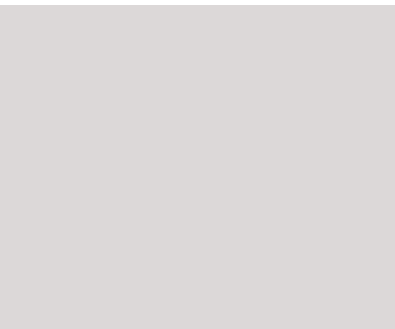
사진 9_단청



사진 10_지붕부



사진 11_현판



중문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게리 680사
건립년대		조선시대
구조, 양식		3량가, 민도리, 맞배, 흙처마
규모		정면 1칸 / 측면 2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사고석담장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태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없음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 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장대석 계단 / 상태양호	
축부	초 석	▶ 자연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없음	
	내 부 바 닥	▶ 없음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판벽	
	창 호	▶ 판문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 외부 : 모로단청 / 상태양호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정면



사진 2_배면



사진 3_우측면



사진 4_좌측면



사진 5_계단



사진 6_계단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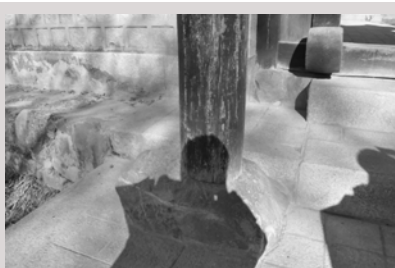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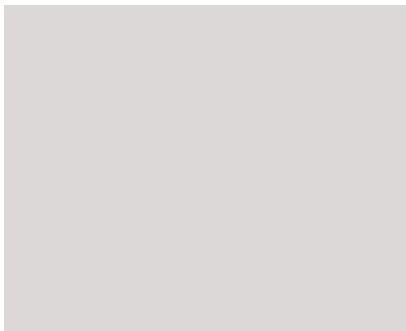


사진 7_초석



사진 8_지붕부



시사단

지정년월일 |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사

건립년대 | 조선시대

구조, 양식 | 3량가, 다포, 팔작, 겹처마

규모 | 정면 1칸 / 측면 1칸

소유자 | 도산서원

관리자 |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대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금속형 안내판 / 상대양호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1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방연제 도포
2004			방충작업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가공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회마감	
	내 부 바 닥	▶ 없음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판벽	
	창 호	▶ 살창 / 전면부 일부 훼손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주심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색바램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램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1



사진 2_전경2



사진 3_정면



사진 4_배면



사진 5_좌측면



사진 6_우측면



사진 7_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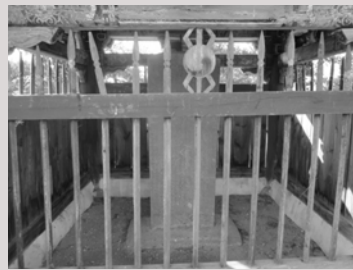


사진 8_창살훼손현황



사진 9_상부가구



사진 10_공포



사진 11_지붕부

옥진각

지정년월일	-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게리 680사
건립년대	1971년
구조,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정면 7칸 / 측면 3칸
소유자	도산서원
관리자	안동시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 없음	보호책,보호각	▶ 없음
배수시설	▶ 하수구 배수로 / 상태양호	관람,편의시설	▶ 없음
안내판	▶ 없음	기타시설물	▶ 없음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 외부 분말 소화기 2개, 하론소화기 1개	방재시스템	▶ 내부 열감지기 설치
화기시설	▶ 없음	전기시설	▶ 없음
가스시설	▶ 없음	기타시설	▶ 내·외부 CCTV설치

보수관리실적

년	도	시행처	주요 보수관리 내용
69-70		문공부직영	정화보수
1979			경보기, 보안시설 설치
1984			소화전 시설
1990		영남대학교	서원실측
1994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조 사 결 과			
기단부	기 단	▶ 장대석 기단 / 상부 전돌 마감, 상태양호	
	계 단	▶ 없음	
축부	초 석	▶ 가공석 초석 / 상태양호	
	고 막 이	▶ 시멘트몰탈	
	내 부 바 닥	▶ 시멘트몰탈	
	기 등	▶ 사각기둥 / 상태양호	
	창 방 / 평 방	▶ 상태양호	
	벽 체	▶ 시멘트몰탈	
	창 호	▶ 유리창 / 상태양호	
	난 간	▶ 없음	
가구부	공 포	▶ 민도리 / 상태양호	
	보	▶ 상태양호	
	도 리	▶ 상태양호	
지붕부	연 목 / 부 연	▶ 상태양호	
	천 장	▶ 연등천장 / 상태양호	
	박 공 / 풍 판	▶ 상태양호	
	기 와	▶ 상태양호	
단청	단 청	▶ 내부 : 모로단청 / 색바램 ▶ 외부 : 모로단청 / 색바램	
	벽 화	▶ 없음	
기타			

현 황 사 진



사진 1_전경



사진 2_현판



사진 3_내부 전시 유물



사진 4_내부 전시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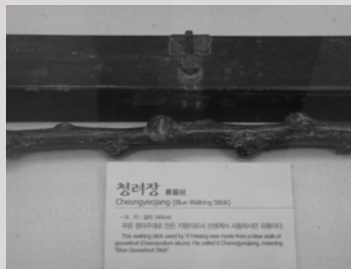


사진 5_내부 전시 유물

4.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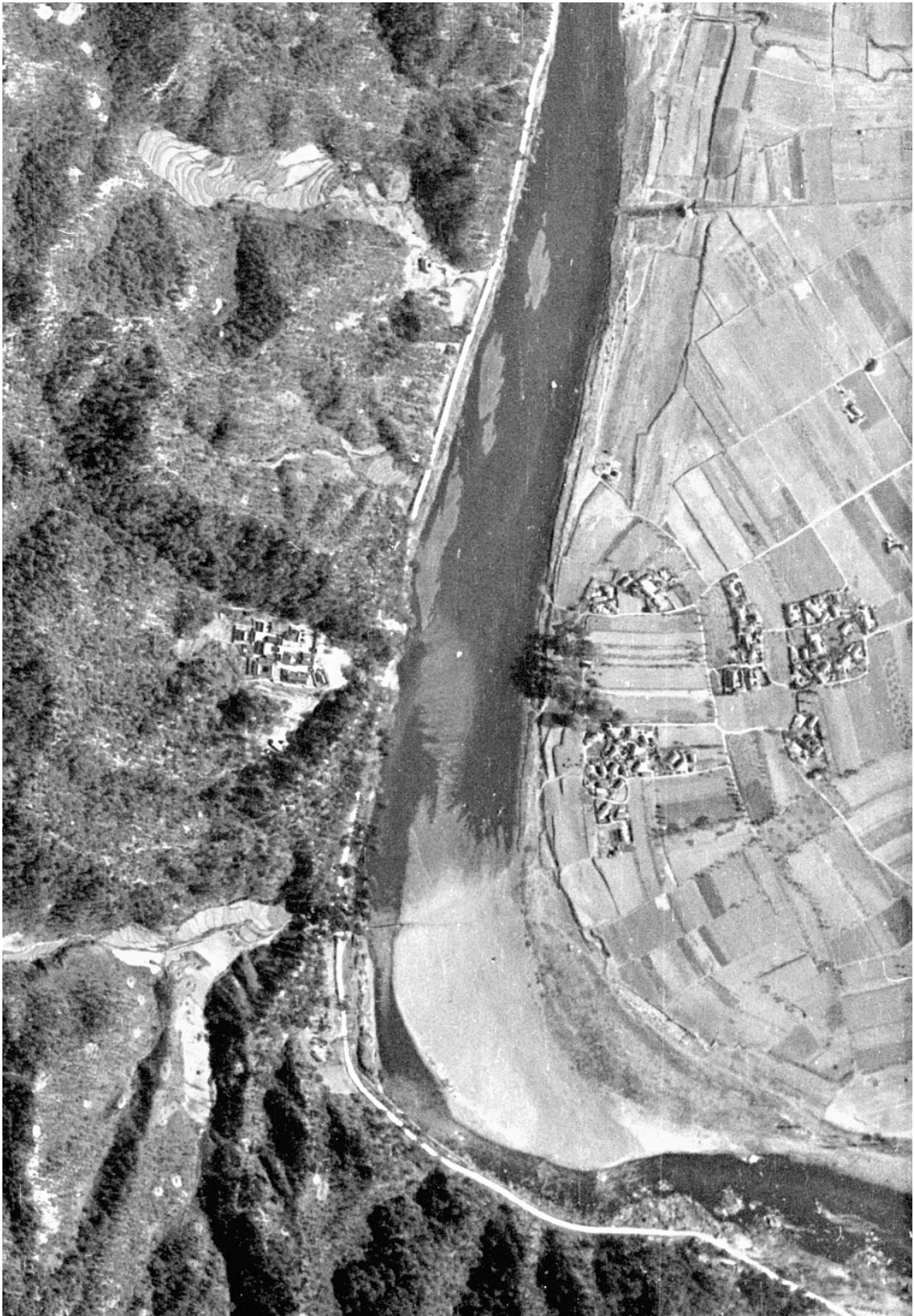
4-1. 항공·위성사진



도산서원 항공사진 1_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 실측조사보고, 문화재청



도산서원 항공사진 2_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_실측조사보고, 문화재청



1971년 항공사진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1971년 항공사진 확대_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2011년 위성사진_<http://map.daum.net/>

4-2. 사진자료

▪ 국가기록원-도산서원

공보처 홍보국 사진자료



상덕사 주변 전경



상덕사 전경



전교당 전경

사적 170호(보수정화사업 이후)



도산서원 전교당



도산서원 상고직사



도산서당



도산서원 전경

1960년 가을 농촌풍경(1960.11.23)-1



임시 나무다리가 가설된 하천 전경



1960-11-23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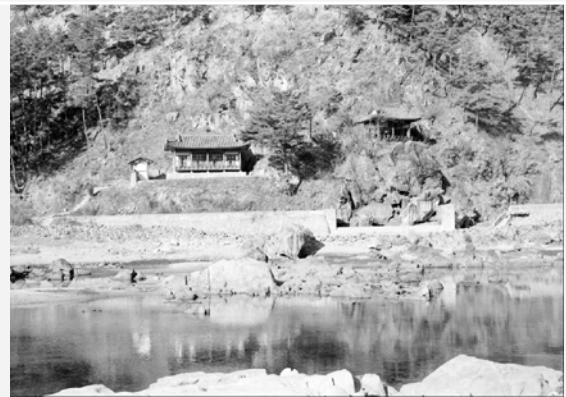
임시 가설한 하천의 나무다리 위로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농부들



보따리를 이고 임시 가설한 하천의 나무다리를
건너 장보러 가는 시골 풍경



농촌의 가을 풍경



천변에 위치한 고적1



천변에 위치한 고적2



물안개 자욱한 하천

1960년 가을 농촌풍경(1960.11.23)-2



전통 제를 드리러 가는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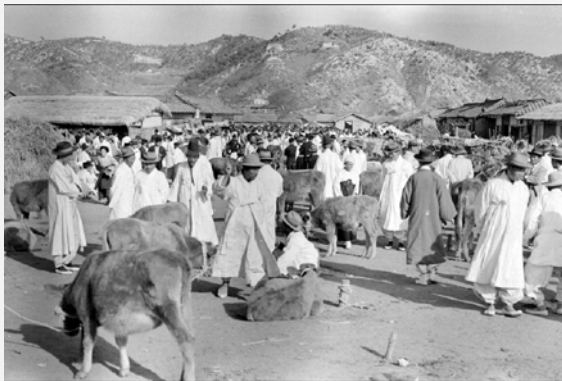
도산서원(陶山書院) 전교당(典敎堂)



시골의 우시장(쇠장)-1



시골의 우시장(쇠장)-2



시골의 우시장(쇠장)-3

도산서원 정화공사 기공식(1969.10.06)



도산서원 정화공사기공식 참석관계자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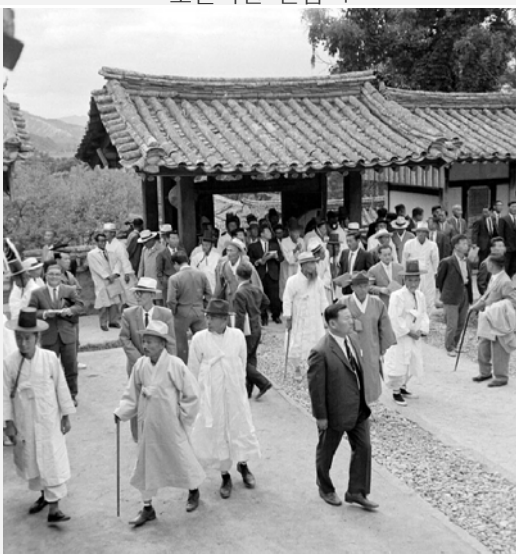
도산서원 정화공사기공식 참석관계자 시삽



도산서원 관람-1



도산서원 관람-2



도산서원 관람-3



상덕사 삼문

도산서원 정화공사 기공식(1969.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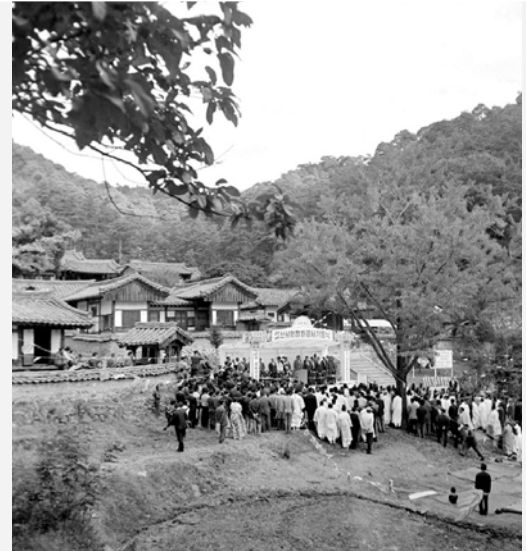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주변 진입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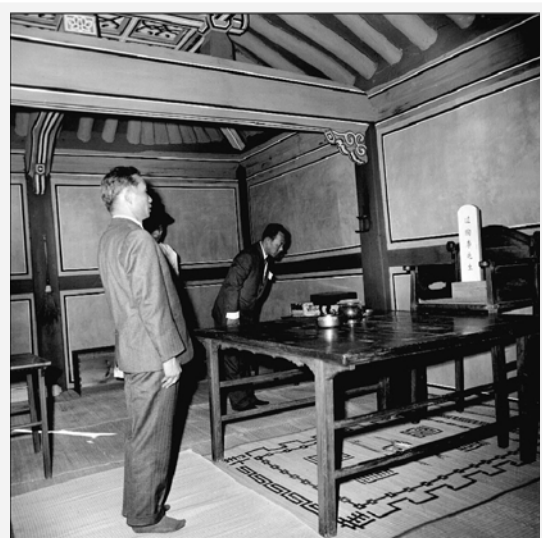
도산서원 정화공사 기공식 참석관계자 연설



도산서원 정화공사 기공식 전경



도산서원 전경



박정희 대통령 도산서원 방문 참배

도산서원 준공식(1970.12.08)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 준공식 기념식수



도산서원 전경



박정희대통령 도산서원 비장품 관람



박정희대통령 도산서원 시찰

도산서원 전경(1971.02.03)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환경정화_지적 및 보수부분(1977.11.03)



도산서원 전경



절우사 전경



도산서당 측면 사릿문



진도문

도산서원 환경정화_지적 및 보수부분(1977.11.03)



역락서재 배면



전교당



상덕사 전경



진도문과 동광명실



전경



사릿문 상세



금승

도산서원(1978.02.09)



도산서당 전경-1



도산서당 전경-2



도산서당 전경-3



상덕사 전경-1



상덕사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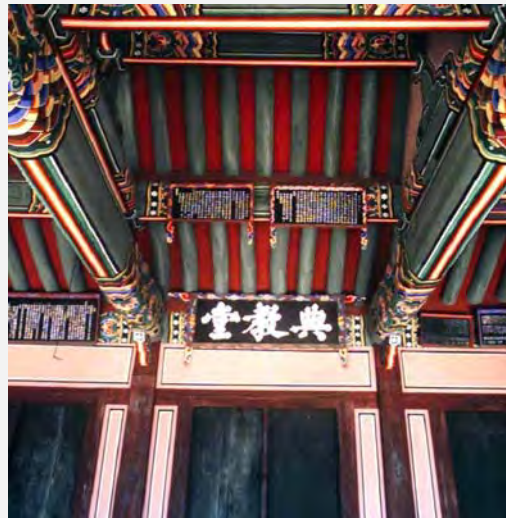


상덕사 전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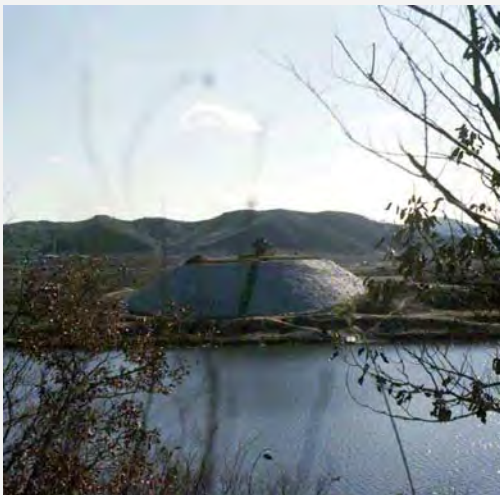
도산서원(1978.02.09)



도산서원 편액



전교당 편액



시사단 전경



농운정사



옥진각



전교당

도산서원(1978.02.09)



동광명실



서광명실



내부전경-1



내부전경-2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1978.02.09)-유물



소장유물-1



소장유물-2



소장유물-3



소장유물-4



소장유물-5



소장유물-6

도산서원(1978.02.09)-유물



유물8



소장전적1



소장전적2

▪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 1931년



1931 도산서원결립곳 가운데 마당곳



1931년 도산서원 전경-1



1931년 도산서원 전경-2



1931년 도산서원 전경-3



1931년 도산서원 진입로



1940년 도산서원 전경



조선고적도보 도산서당



조선고적도보 도산서원 상덕사

5. 학술 고증자료

5-1. 참고문헌

건축관련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에 대한 고찰	김연호	2008
2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이상해	2001
3	도산서원 전교당의 건축형식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이길제	1999
4	도산서원 평면에 관한연구	장석하, 곽동엽	
5	서원 중정공간의 폐쇄성 분석	이현택	1994
6	유교건축	김지민	2001
7	유교문화와 조선시대 서원건축	이상윤, 김용기	
8	유학사상의 사유체계에 의한 향교·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도용호	1995
9	조선과 유교건축	김지민	1993
10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II)	주남철	1985
11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김상협	2000
12	朝鮮時代 書院의 立地와 空間構成特性 및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이상윤	1994
13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 구성형식에 비교연구	윤장섭	1987
14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 배치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장석하	2005
15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이해성	1990
16	朝鮮朝書院 의 建築計劃 에 관한 研究	김희춘	1979
17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김동욱	1996
18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본지 9호 게재) 의 부분 정정	김동욱	1997
19	퇴계이황의 경사상으로본 도산서원	박용재, 전영일	2000
20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도산서원의 공간위계와 건축문화	이승우	2008
21	陶山書院 配置에 관한 研究;陶山書堂 營建記의 內容을 中心으로	장석하, 곽동엽	1994

문헌관련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도산잡영과 산수지락	이가원	1985
2	퇴계집을 통하여 본 도산서원 조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모	1993
3	퇴계학과 상주학맥의 건축관 변천에 관한 연구	윤일이	2004
4	월천(月川)조목(趙穆)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종향논의-17세기 영남사족 동향의 일단	이상현	2001

풍수관련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서원건축 주산과 안산의 풍수적특징에 관한 연구	박정해	2010
2	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배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박상구	2007

조경관련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고전 속에 나타난 도산서당 원림과 수종에 관한 연구	최종현, 최기수	2006
2	朝鮮朝 書院造景의考察 <도산서원(陶山書院)>	정재훈	1972

기 타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도산에서의 퇴계선생의 인격적 교육실동	도부학	1976
2	도산서원의절초		
3	도산서원의 공간 기호론적 해독	이어령	2001
4	서원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연번	제목	저자	연도
1	도산서원 중수지	문화공보부	1970
2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경상북도 안동시	1991
3	도산서원 전교당,상덕사 및 삼문_실측조사보고서(상, 하)	문화재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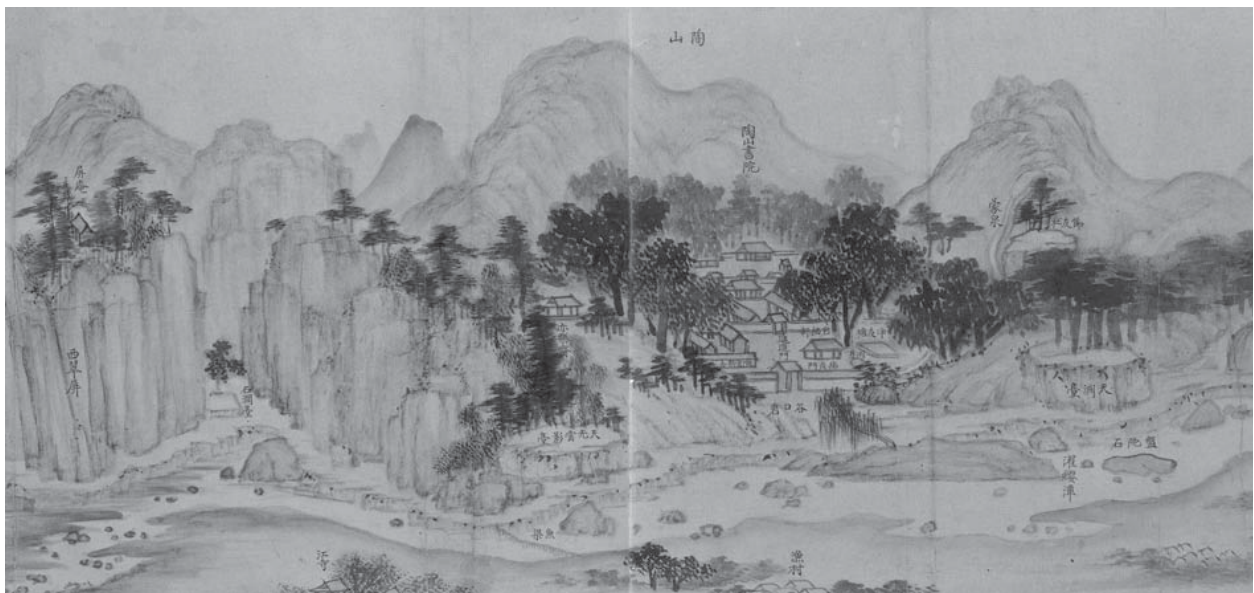
5-2. 옛그림 자료

연번	제목	저자	연도	소장처	비고
1	도산서원도	허주 이징	1581~?	계명대학교 도서관	
3	분강촌도	월탄 김청석	1710년	연세대학교 도서관	
4	도산서원도	겸재 정선	1721	국립현대미술관	
5	계상정거도	겸재 정선	1746	개인소장	
6	도산서원도	표암 강세황	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7	도산전도	고봉	연도미상		
8	도산서원(부채)	겸재 정선	연도미상	간송미술관	
9	작자미상 1점	작자미상	조선후기 추정	개인소장	

▪ 도산서원도



도산서원도_허주 이징



도산서원도 확대_허주 이징

▪ 분강촌도



분강촌도 확대_월탄 김청석-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 도산서원도



도산서원도(1721)_겸재 정선-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계상정거도



계상정거도_겸재 정선

▪ 도산서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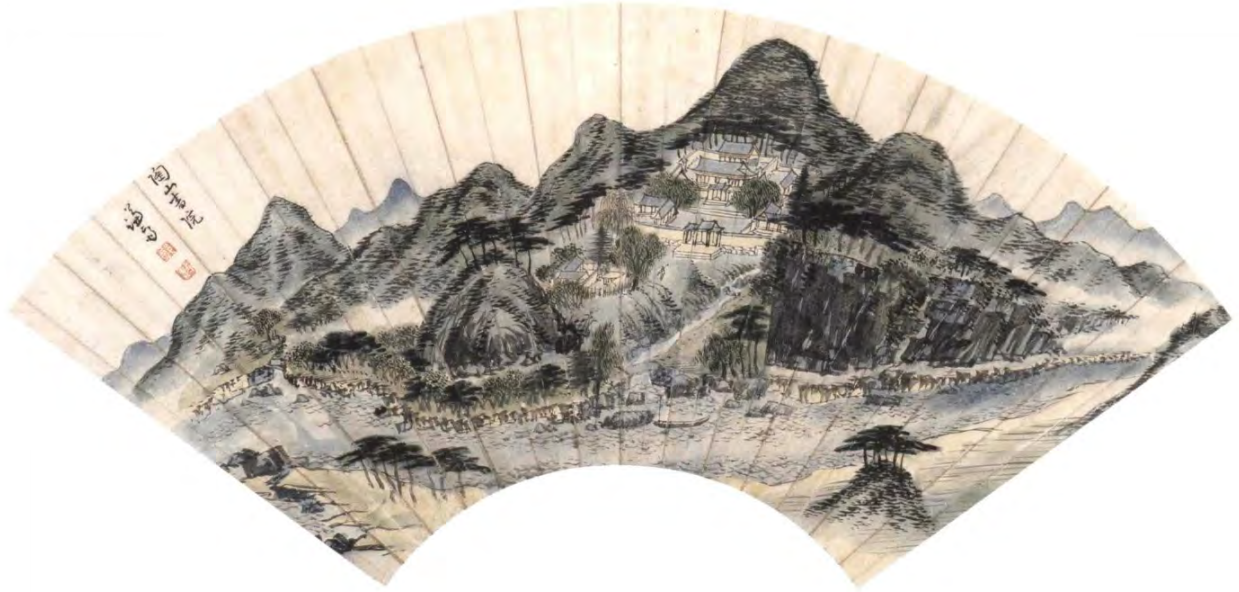


표암강세황_도산서원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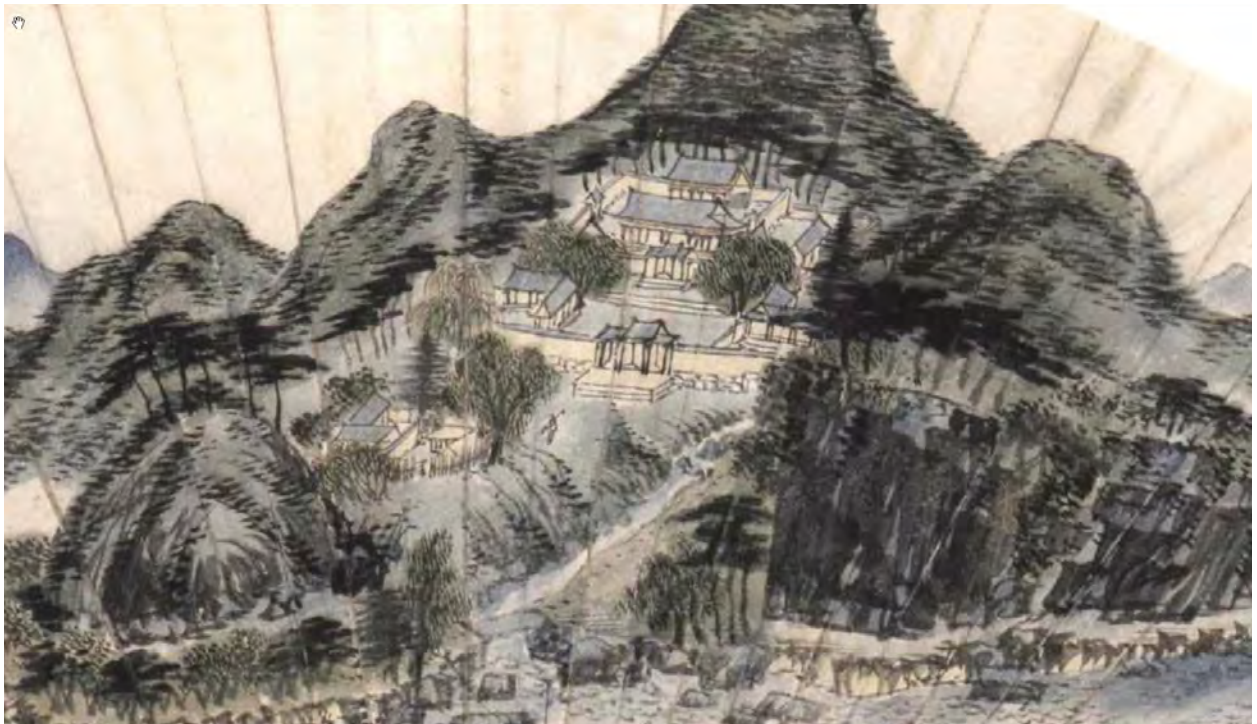


표암 강세황_도산서원도 확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도산서원도



도산서원도(부채)_겸재정선-간송미술관 소장



도산서원도(부채) 확대_겸재정선

▪ 도산서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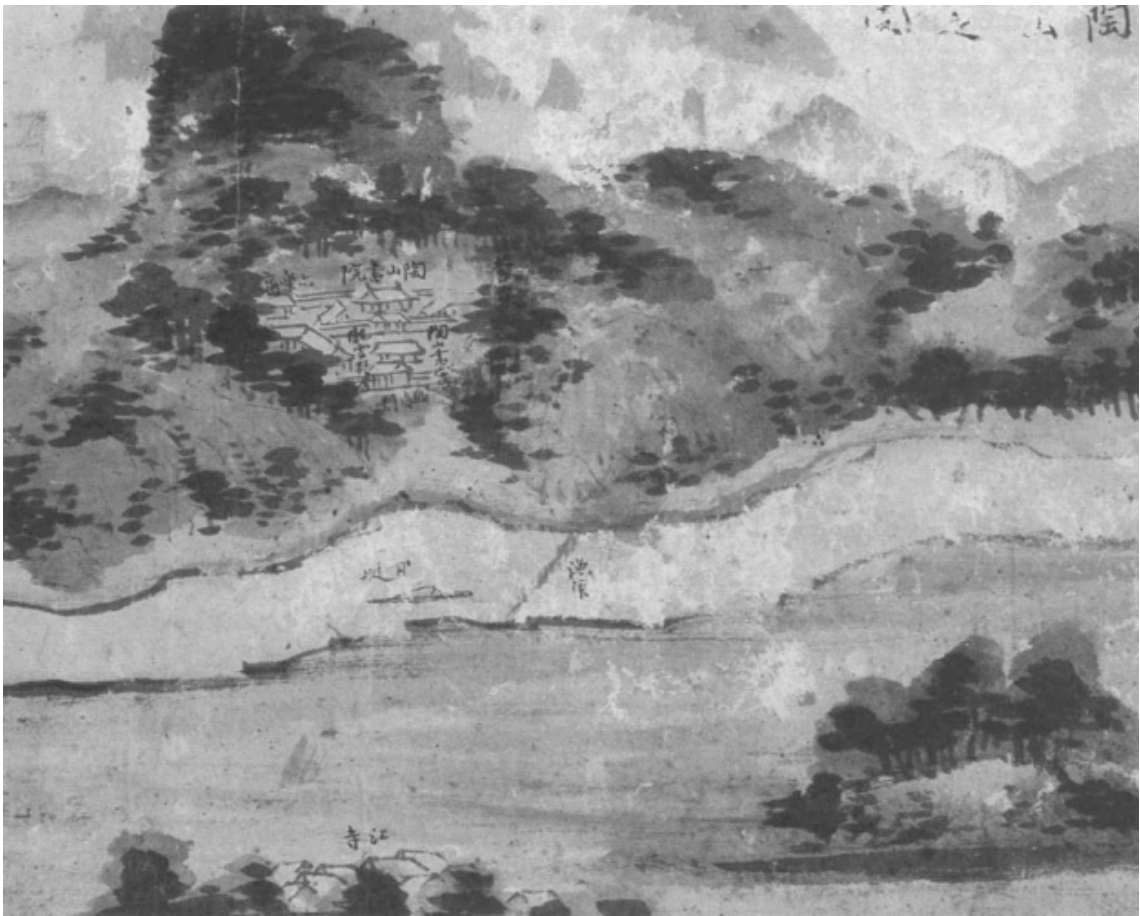


겸재 정선_도산서원도-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도산서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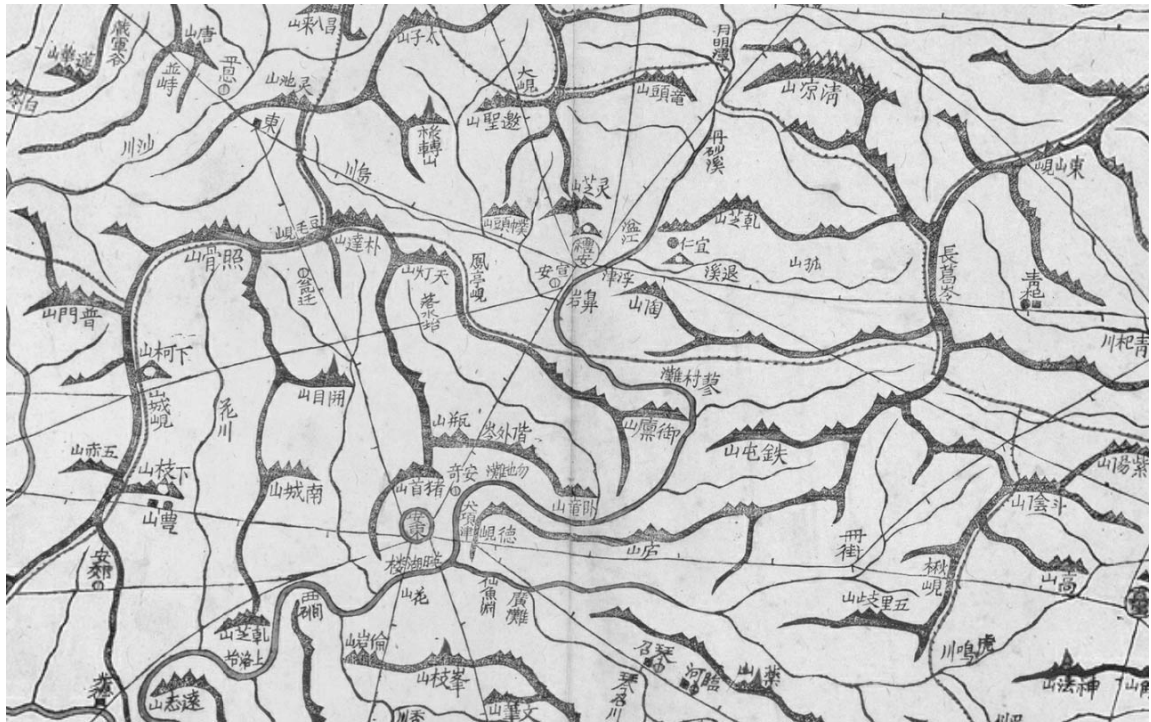


도산서원도_작자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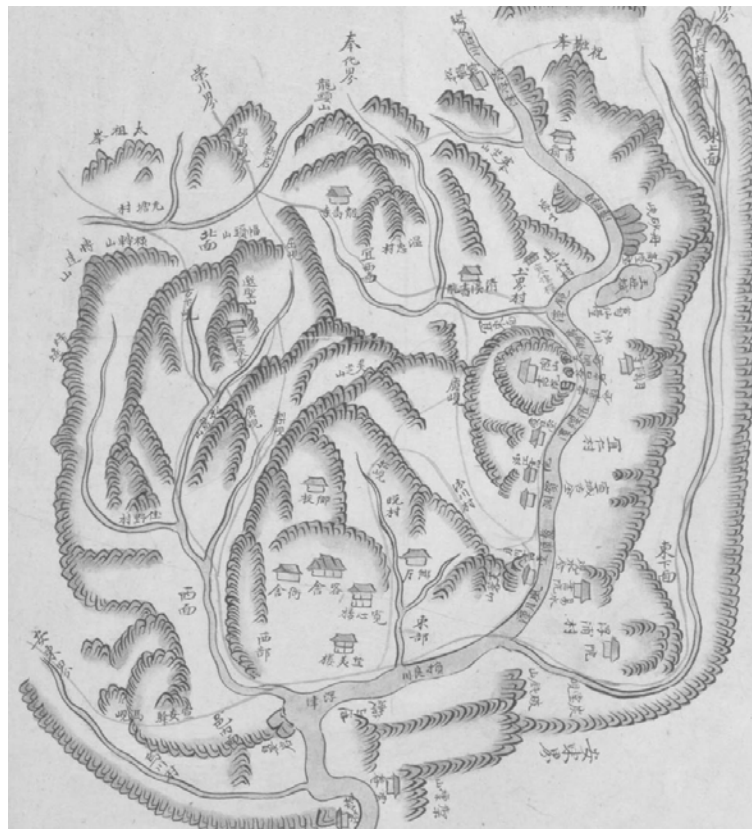


도산서원도_작자미상

6. 지도자료



대동여지도, 예안 <서울대학교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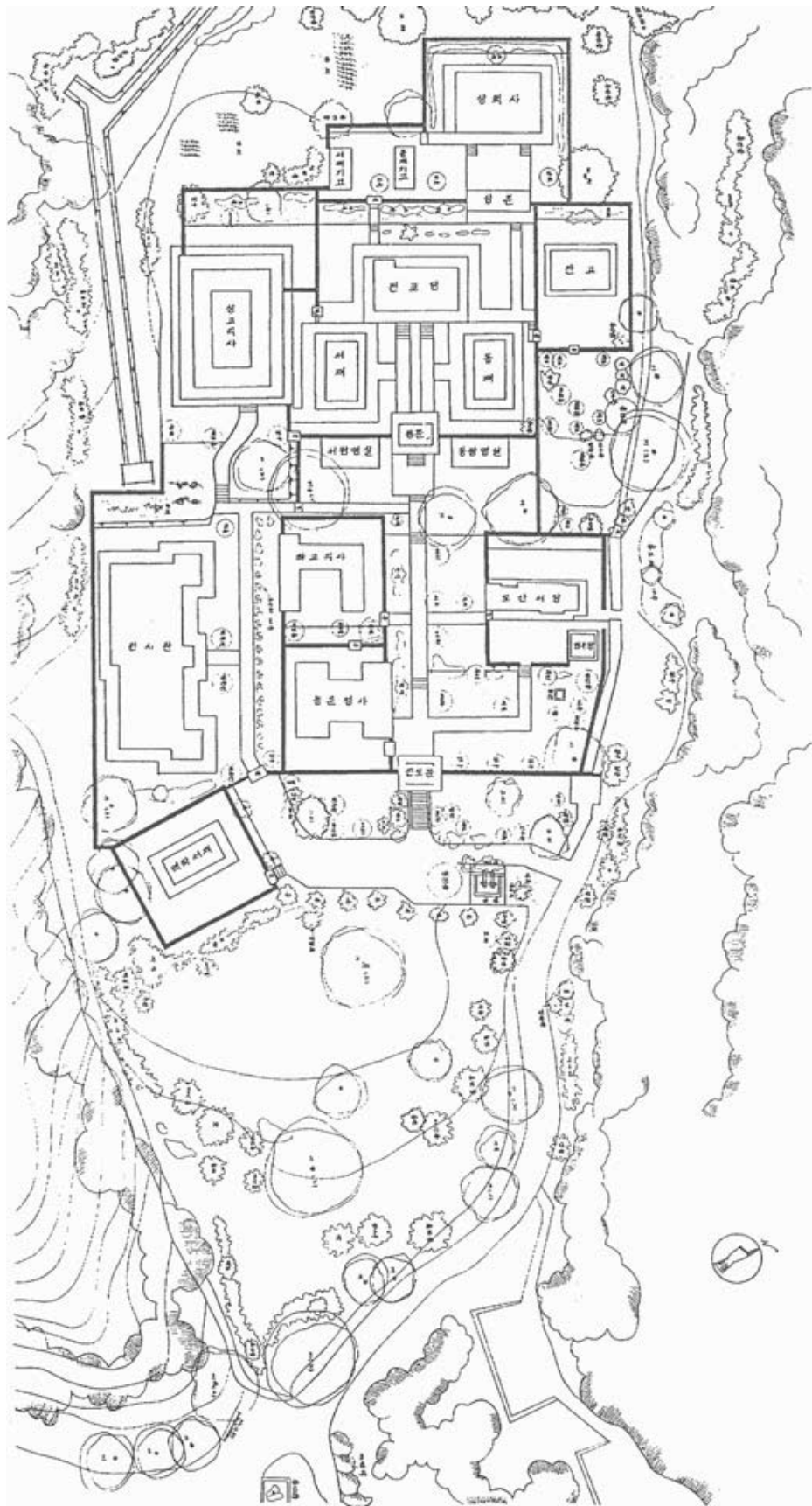
해동지도, 예안현<서울대학교 규장각>

7.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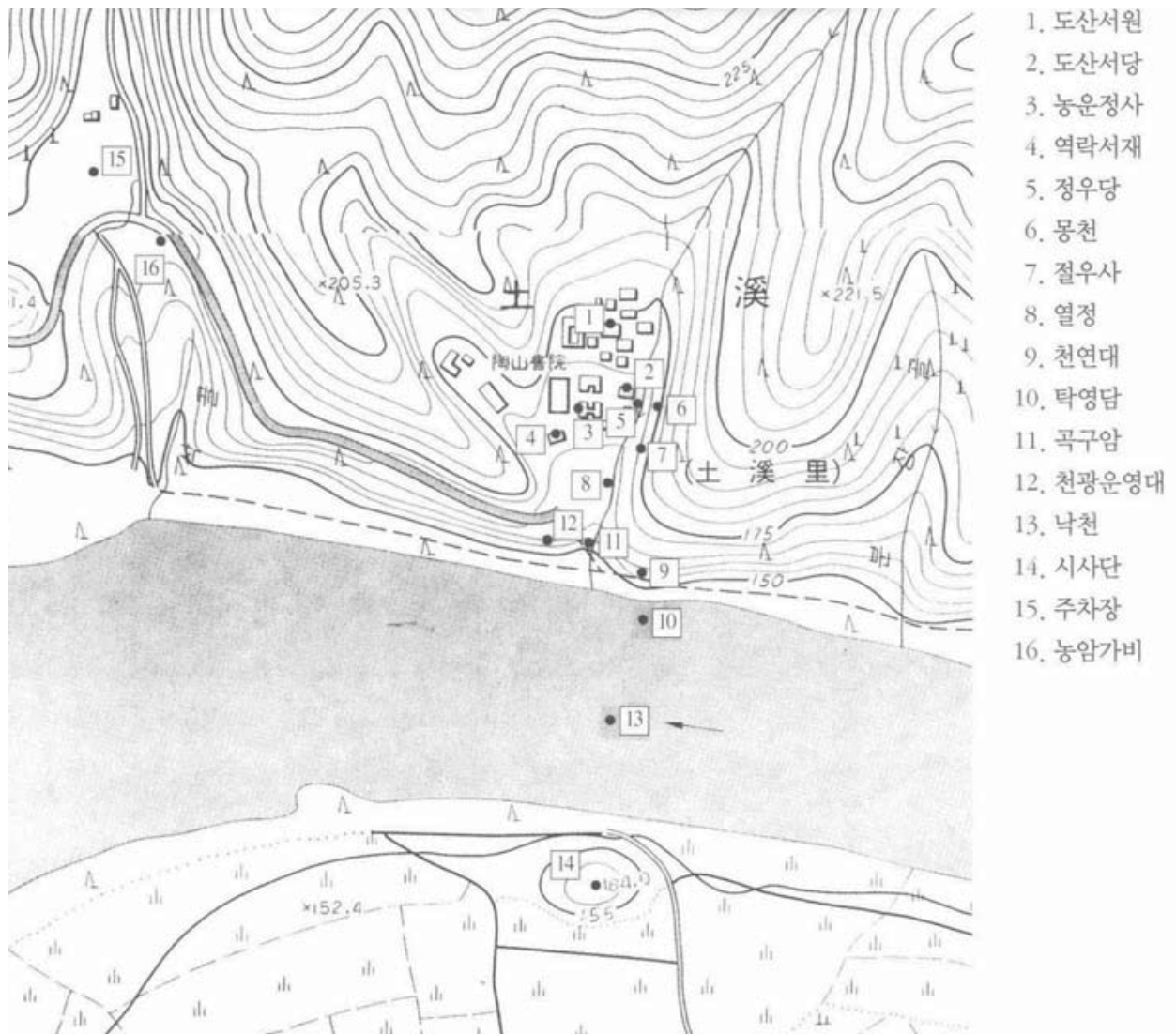
7-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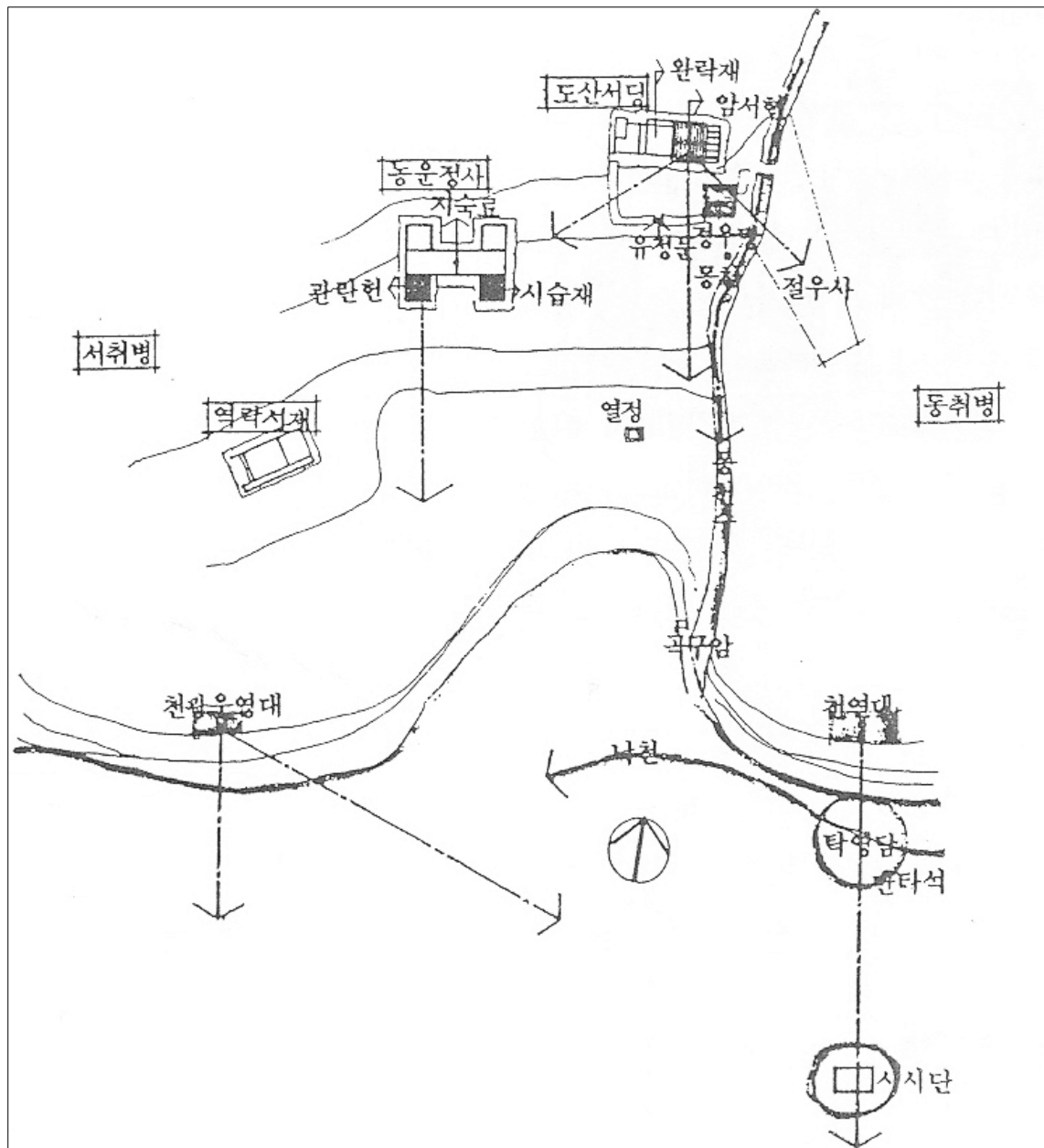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자료(퇴계행적과 관련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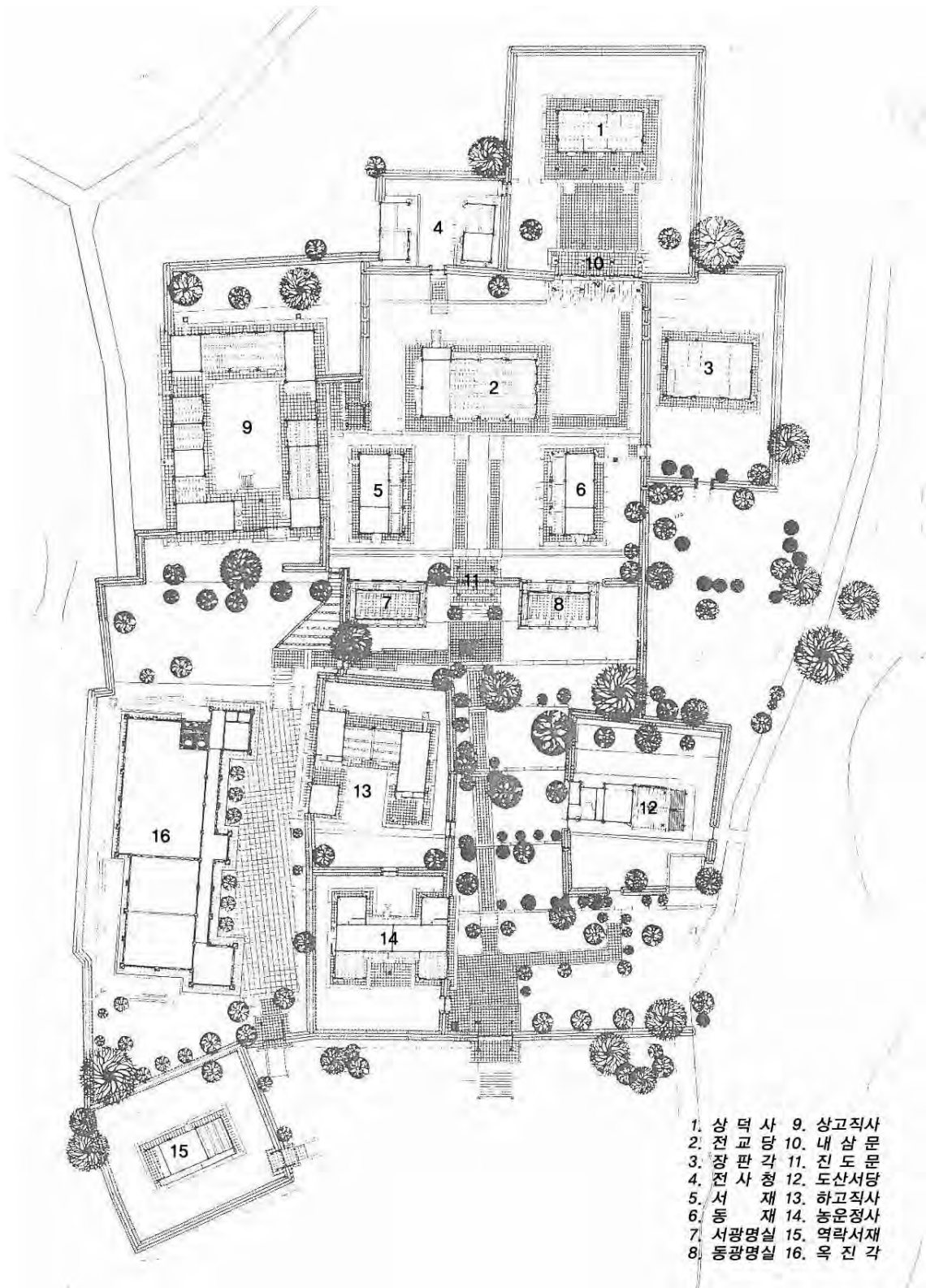
1971년 도산서원 중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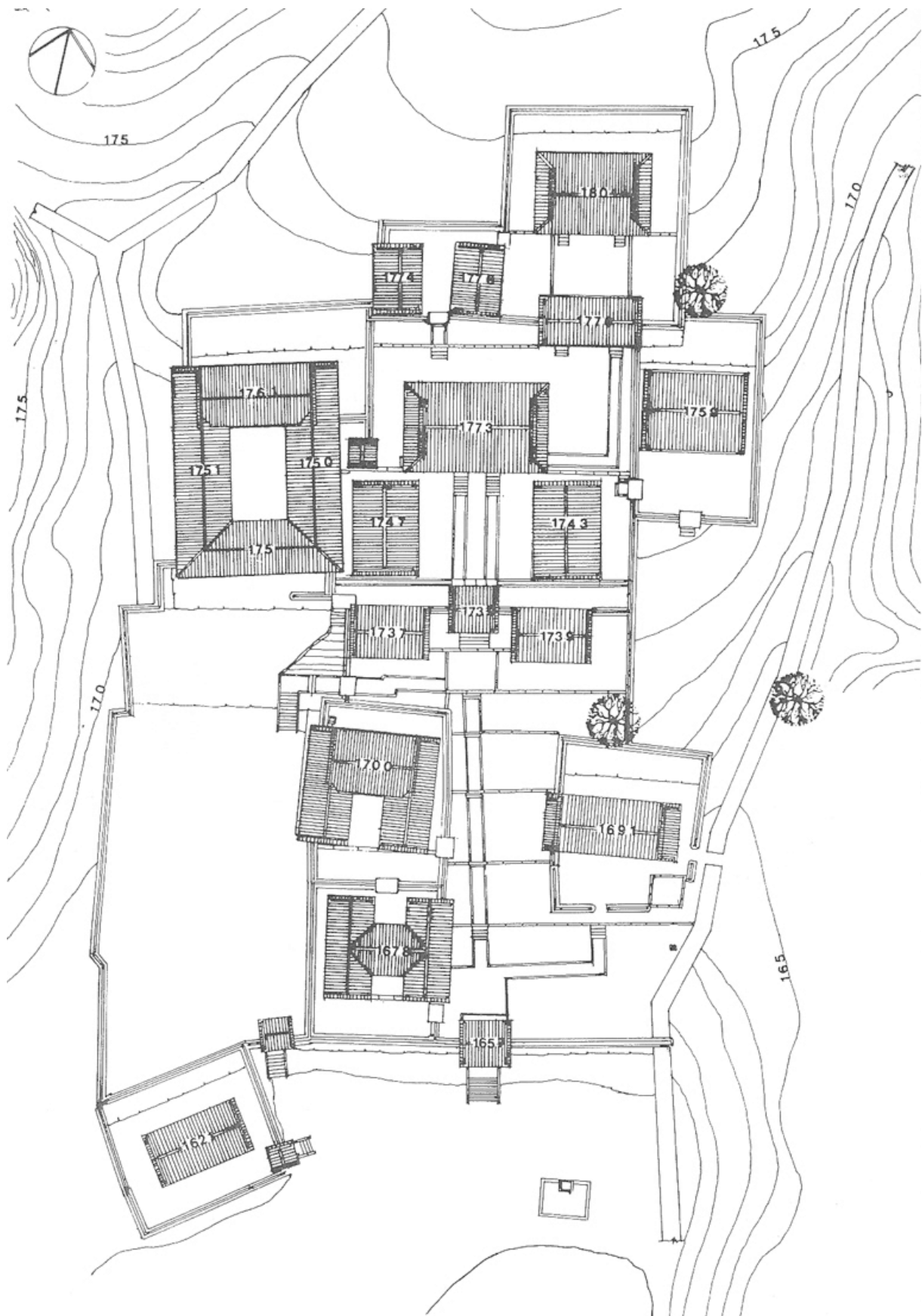
1990년 도산서원 주변지도



1991년 실측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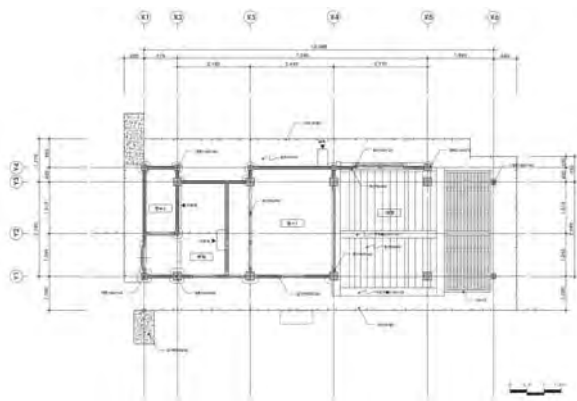
1991년 실측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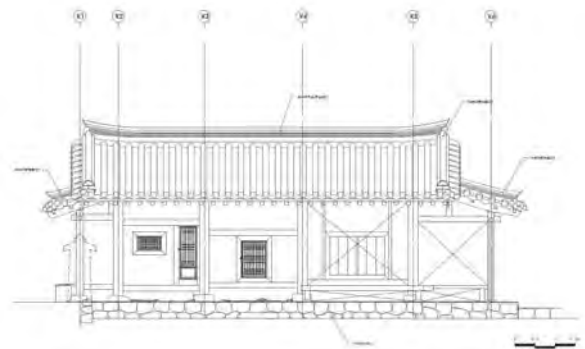
1991년 실측조사보고서 지붕

7-2. 개별 건축물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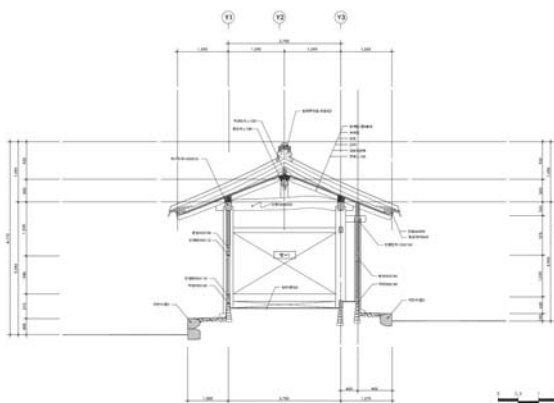
도산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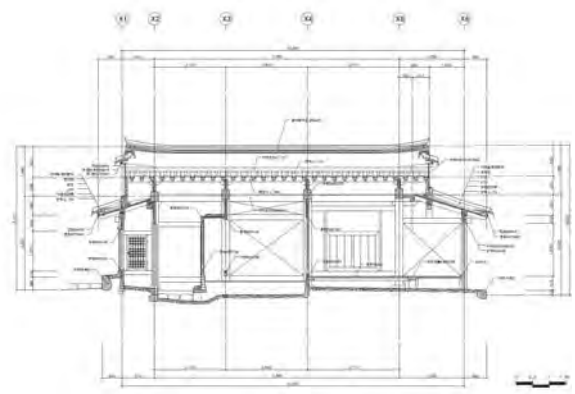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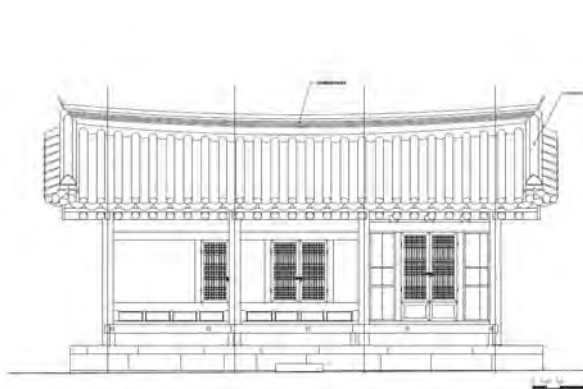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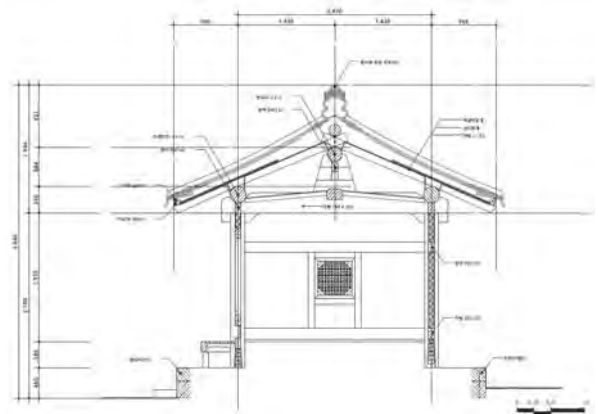


횡단면도

역락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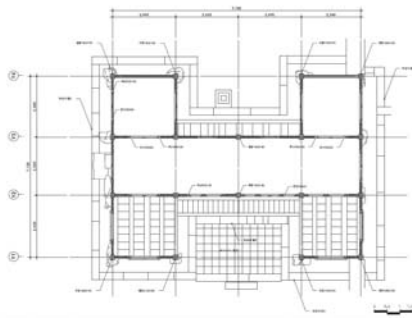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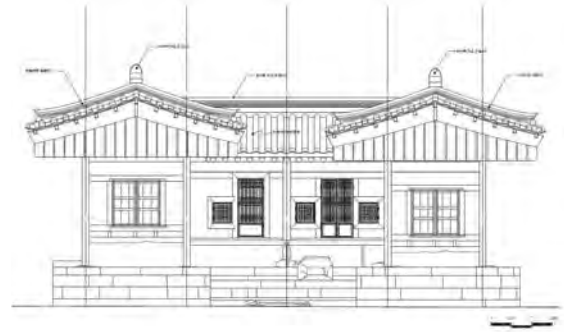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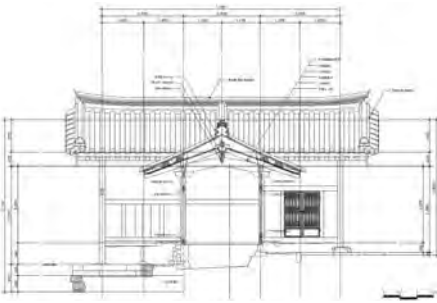
농운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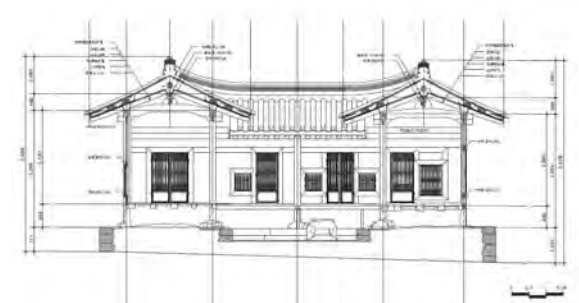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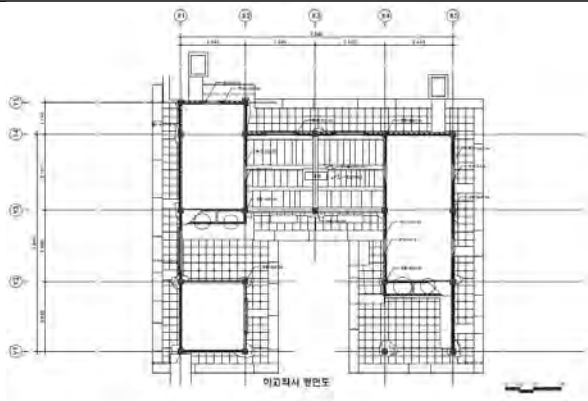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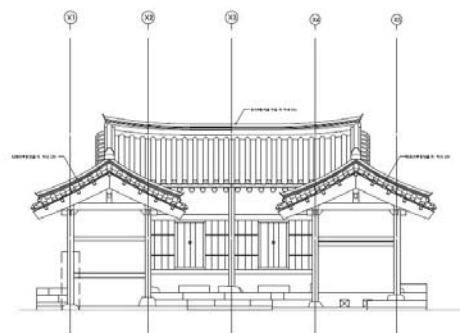


횡단면도

하교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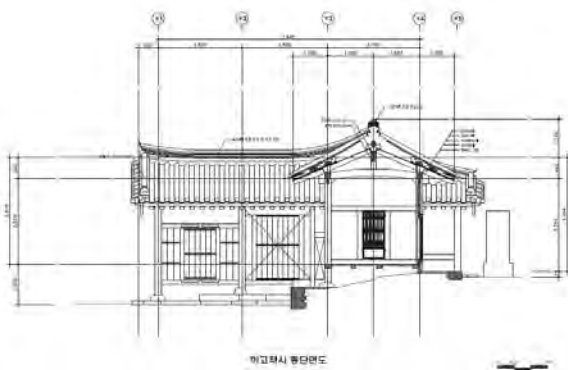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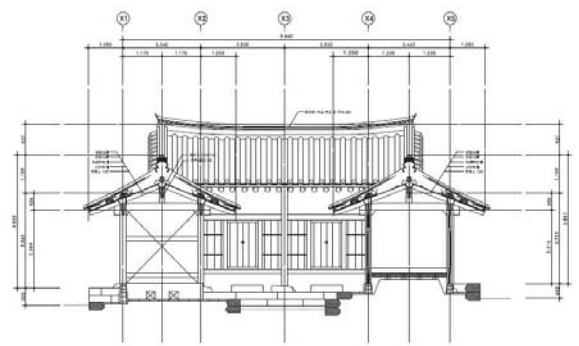


하교직사 정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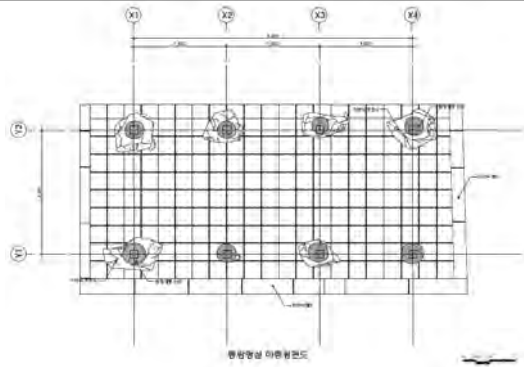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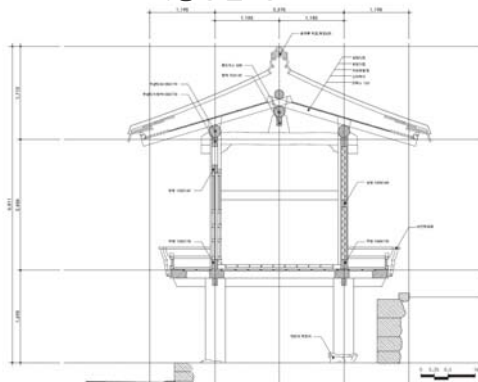
하교직사 횡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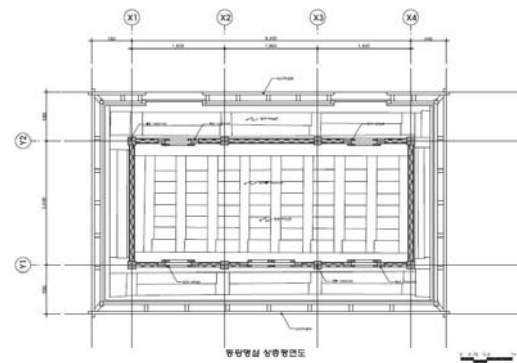
동서 광명실



서광명실 평면도



서광명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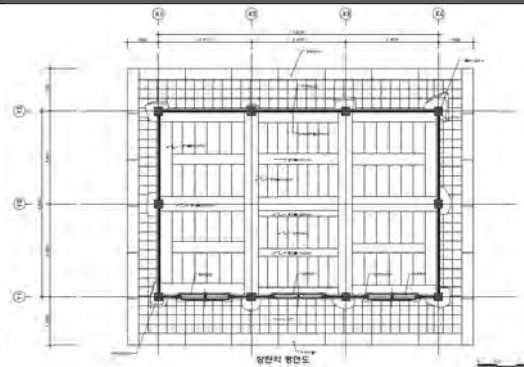


동광명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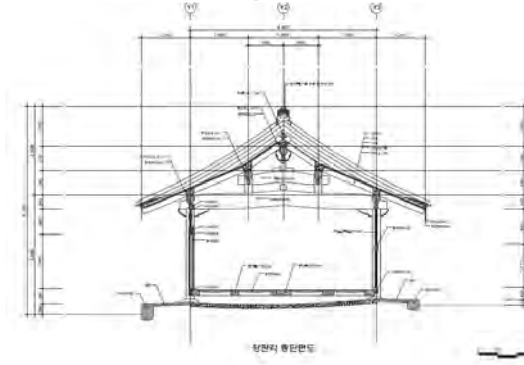


동광명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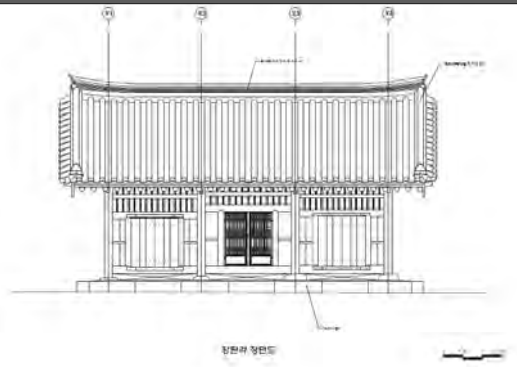
장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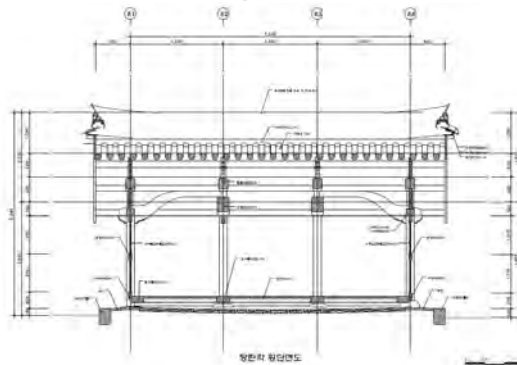
평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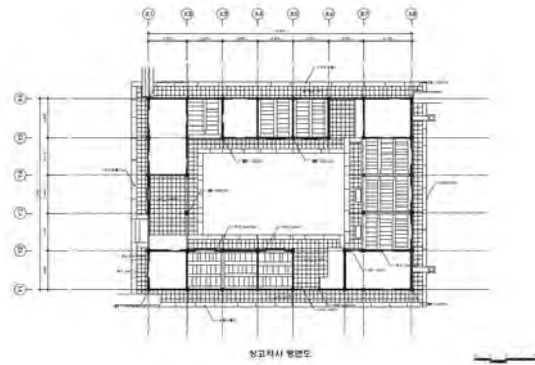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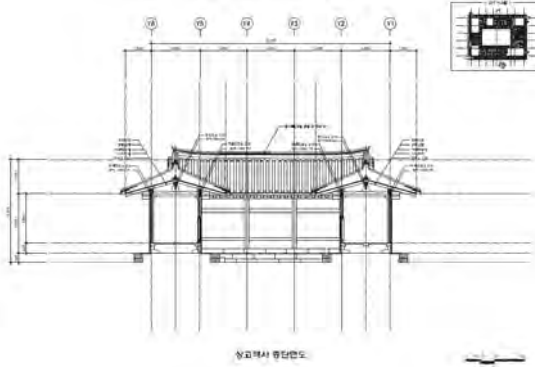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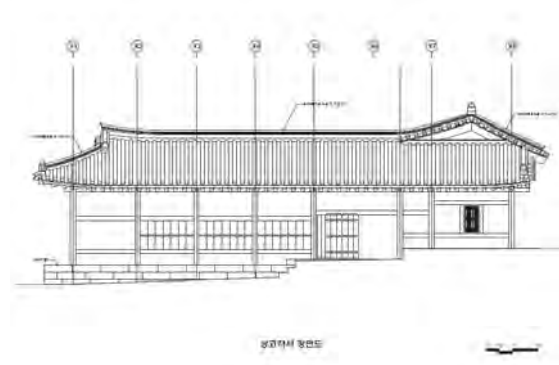
상고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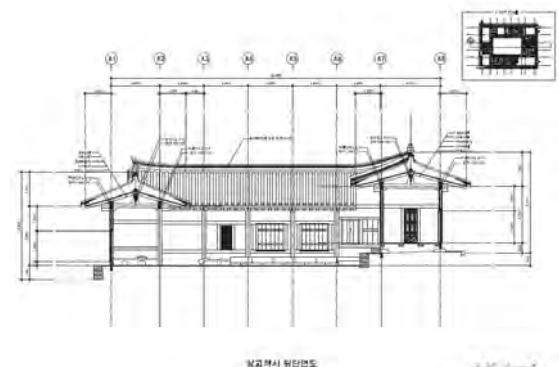
평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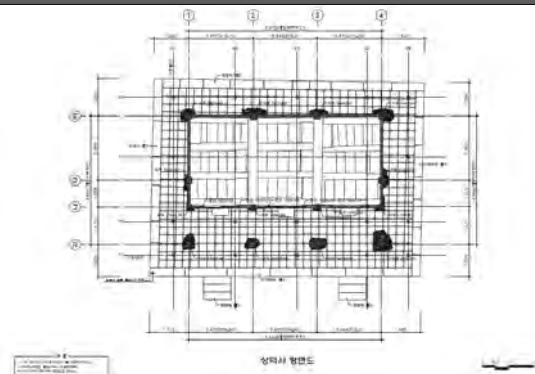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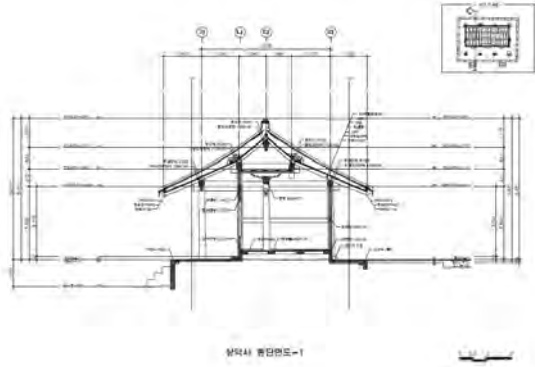


횡단면도

상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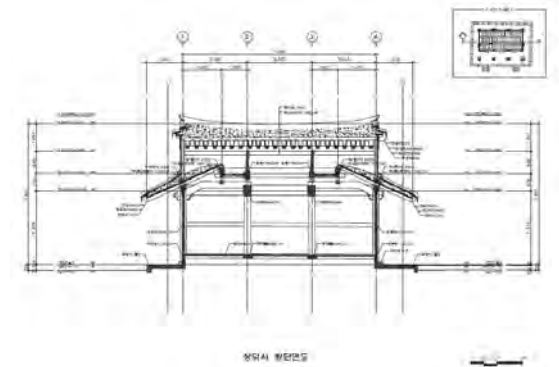
평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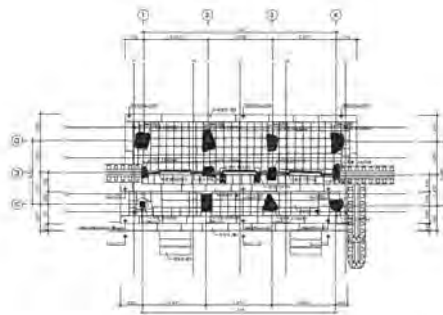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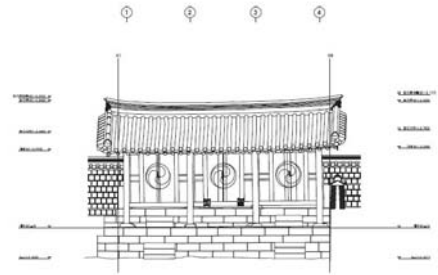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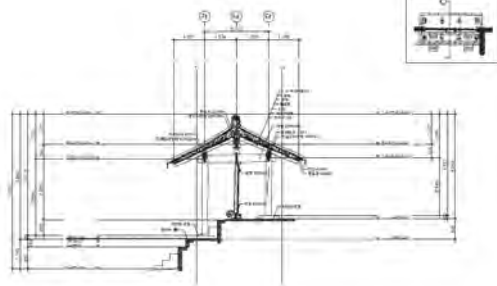
상덕사 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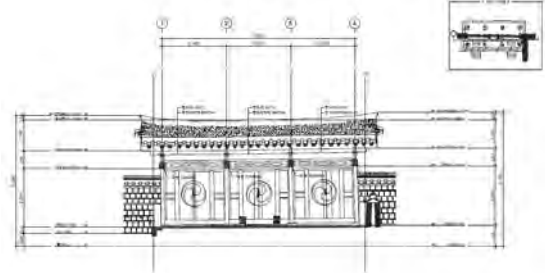
삼문 평면도



삼문 정면도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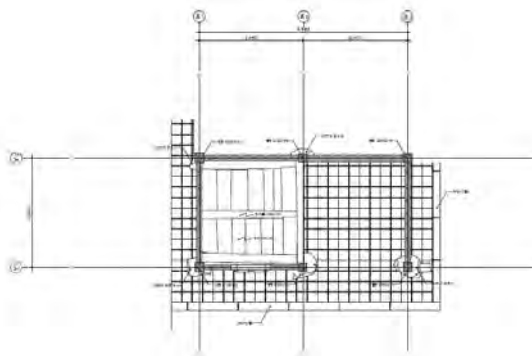
삼문 종단면도 - 2

삼문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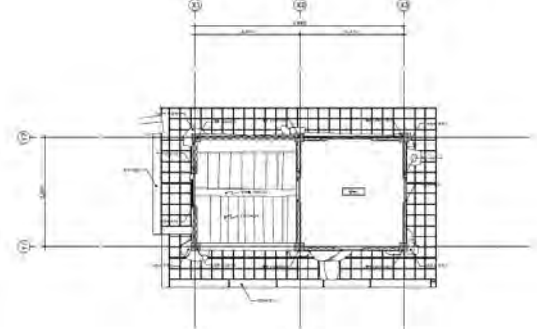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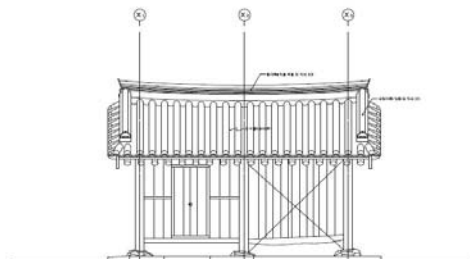
전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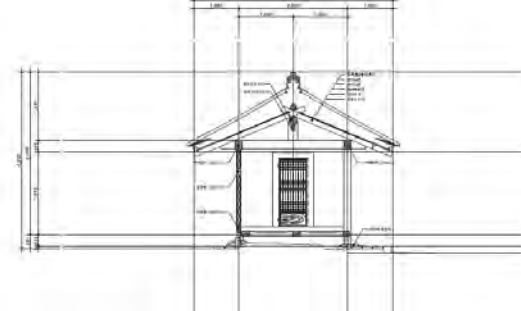
주교 평면도



제기고 평면도



주교 입면도



제기고 종단면도